

이주의 인문학 총서시리즈 6

이주 공동체의 ‘겹’과 ‘틈’

Different Layers of Migrant Communities

한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
이주의 인문학 사업단

이주의 인문학 총서시리즈 6

이주 공동체의 ‘겹’과 ‘틈’

차례

책머리에	8
1부 모빌리티 시대의 공동체	
I 다원성과 ‘겹’ 공동체	
- ‘포용적 공동체주의’ 논의를 중심으로_ 김만권	
‘열린 경계’를 향한 백래시와 공동체주의	16
마이클 월저의 자유주의 공동체론	19
이주노동자와 공동체: 네팔 이주노동자의 사례	28
‘국가’ 공동체 위의 공동체: 유럽연합의 사례	30
포용적 공동체의 확장: ‘겹’ 공동체로의 전환	33
나가며: ‘겹’ 공동체를 향하여	41
II 기후변화 시대의 상황적 존재들과 상상의 공동체_ 최은주	
신기후체제의 디스토피아에서 ‘우리’	44
누구에 대한 디스토피아인가?	47
상황적 존재들에게 공동체는 가능한가?	54
상상력의 위기와 개방의 역량	60
III 엔젤섬이민국의 가려진 이야기: ‘깨어진 꿈’_ 황혜성	
타이러스 웡 이야기	66
환대받지 못한 중국인들: ‘중국인들은 모두 쫓아내야 해!’	72
엔젤섬에서의 이야기	75
현재적 함의: ‘차이’를 넘어서 ‘환대’로	88

2부_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충돌과 협상

IV 아이스 큐브와 인종위기의 리듬_ 이찬행

갱스터 래퍼 ^{gangster rapper} 아이스 큐브	96
“동전 하나하나 세는 빌어먹을 동양인들”	98
“저는 한인들을 존중합니다”	104
91년 겨울	109

V 다문화 영화 <컬러풀웨딩즈>와

<나의 그리스식 웨딩> 연구_ 신영현

문화접변의 최전선 국제결혼	114
<컬러풀 웨딩즈>와 <나의 그리스식 웨딩>이 그리는 다문화 결혼	116
영화에 나타나는 다문화 주제들	118
동일한 갈등에 대한 상이한 해결 방식	125
나가며	131

VI 제2차 세계대전 일본계 미국인 재정착 정책과 조건부

이동성^{mobility}_ 권은혜

미국 역사 속 소수자의 이동성 ^{mobility}	134
WRA의 일본계 미국인의 이동성 통제 완화 구상, 1942년 3월에서 10월까지	137
일본계 미국인 인구의 분산 수단으로서 재정착 정책의 집행, 1943-1946	141
재정착 계획에 대한 일본계 미국인의 반응과 재정착 경험의 다양성	146
일본계 미국인 재정착 정책의 유산	153

3부_ 동아시아 한인 디아스포라와 에스닉 경제

VII	심양^{沈阳} 서탑^{西塔} 코리아타운의 한인사회와 초국가 공동체_ 김혜련	
	중국 심양의 한인 디아스포라	160
	이주민 밀집지역의 초국가 공동체	164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의 형성, 발전, 그리고 위기	167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의 초국가 공동체	173
	한인 디아스포라 공존의 장	179
VIII	자이니치의 해방구에서 공생의 플랫폼으로 -오사카 조선부락- _정혜경	
	‘보이지 않는 동네’에서 만든 역사	182
	여러 사람이 일본에 가다 - 도일 : 도항과 밀항	184
	자이니치의 해방구, 조선부락	189
	광복, 공생의 플랫폼을 향해	198
	‘국민의 논리’를 넘어	208
IX	에스닉 경제와 디지털 기술의 아상블라주_ 김지윤	
	사고 팔 것이 있을 때	212
	에스닉 경제에 대한 이해와 쟁점	214
	에스닉 경제의 문화적 경관 너머 기술경관	219
	디지털 기술과 이주자의 아상블라주 _{assemblage}	225
	에스닉 비즈니스에 대한 디지털 기술의 한계	231

4부_ 젠더, 민족, 이주

X	‘자랑스러운 민족’을 넘어 ‘행복한 개인’으로 살아남기: 독일 티빙겐 한인 여성 디아스포라 구술생애사_ 육영수	
	들어가며: 우연한 만남	238
	한국에서 보낸 서른 몇 해: 일본에 땀줄을 묻고 ‘고향’ 제주도로 건너와 부산, 대구 찍고 서울	241
	독일에서 보낸 ‘꿈만 같았던’ 반세기	245
	나, 가족, 공동체: 미시적 사생활의 역사	258
	나오며: 흩어진 기억, 다시 쓰는 이야기	268
XI	하와이 이주민 안원규의 사회·경제적 삶과 민족적 활동 (1903~1947)_ 조규태	
	하와이의 한상이며 독립운동가, 안원규	274
	출생 및 성장과 하와이 이주	275
	신앙 및 결혼 생활과 경제적 활동	278
	대한인국민회와 한인단체 활동	284
	한인통합 및 재미한족연합위원회 활동	290
XII	알제리 식민지 개발과 프랑스의 이주정책(1830~1889) -프랑스 만들기와 이주- _ 문종현	
	머리말	300
	이주 장려와 ‘나쁜 이주자’ 통제 정책	303
	프랑스 여성이주 계획	310
	뷔조의 여성 이주를 통한 정착민 사회건설 계획	313
	프랑스가 아닌 지중해 이민의 결과	319
	참고문헌 및 주	324

책머리에

한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은 2019년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과학연구
구소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이주의 인문학(Humanities of Migration)’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주의 인문학 사업은 이주에 대한 정주 중심적 패러다
임을 극복하고 이주와 이동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인문학적 시각을 제시
하고자 한다. 이주의 인문학 사업단은 현재까지 1단계 ‘이주와 인문학
적 상상력’의 연구 성과를 종합하는 총 5권의 총서—『이주와 인문학적
상상력』(2020), 『이주의 시대: 혐오와 공존』(2021), 『이주의 시대: 움
직이는 문화』(2022), 『이주의 시대: 지식인과 지식의 횡단』(2022),
『이주의 시대: 문화, 감정, 지식의 이동』(2023)—를 출간했다.

2022년 9월부터 본 연구원은 2단계 <이주와 공동체적 상상력> 연구
에 착수했다. <이주와 공동체적 상상력> 연구는 이주를 통해 형성된 공
동체의 다양한 양상을 검토함으로써 소통(communication)·상생(conviviality)·환대
hospitality의 가치를 구현하는 공동체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2단계 1년차
연구에서는 정주 중심적 공동체 이론으로 이주공동체를 설명하려는 기
존의 시도가 노정하는 문제점을 비판했다. 기존 공동체 이론은 공동체
를 인종, 언어, 에스니시티로 구획하려 하고 이주민을 수용하는 사회
안에 선주민과 이주민을 구별하는 경향을 보인다. 더 나은 삶을 희망하
는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이 이주를 통해 형성한 공동체 및 이주민을 수
용한 공동체를 이해하려면 정주 중심적 사고에서 출발한 공동체 이론이
아닌 새로운 공동체 이론이 필요하다. 2단계 2년차 연구는 <이주공동체
의 역동성>이라는 주제 아래 트랜스보더 공동체(transborder communities)의 역
동성과 21세기 디지털 시대 이주공동체의 등장을 검토했다. 트랜스보더
공동체의 역동성 연구는 역사 속 이주자들이 국가와 민족 이외에도 인종,

계급, 젠더, 문화, 섹슈얼리티 등의 경계를 횡단하며 다층적이고 혼종적인 공동체를 형성하는 양상을 탐구한다. <디지털 시대의 이주공동체> 연구는 디지털 기술이 이주공동체에 영향을 주고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방식을 살펴본다. 특히 디지털 공간에 존재하는 이주민의 가상 공동체와 실제/가상 혼합공동체는 개별 이주민 사이, 더 나아가 디아스포라 집단의 결속과 관계망을 강화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한성대 인문과학연구원 이주의 인문학 사업단의 여섯 번째 총서, 『이주 공동체의 겹과 틈』은 2022년 9월부터 본 연구원이 착수한 2단계 <이주와 공동체적 상상력> 연구 첫 2년 동안 소속 연구원들의 연구 성과, 그리고 연구원이 주최한 학술행사에서 참여한 외부 연구자의 연구 중 본 연구원의 연구주제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사례 12편을 모았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도래할 이주공동체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다룬 『이주 공동체의 겹과 틈』은 총 4부로 구성된다.

제1부 ‘모빌리티 시대의 공동체’에서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이주가 공동체의 구성과 성격에 어떤 변화를 추인하는지, 그리고 초국적 대량 이주의 시대가 제기하는 다양성의 인정 요구에 공동체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고찰한다. 김만권의 “다원성과 ‘겹’ 공동체: ‘포용적 공동체주의’ 논의를 중심으로”는 마이클 월저의 공동체주의에서 출발해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중시하는 공동체가 지구화 시대의 “다원성과 열린 경계에 대한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김만권은 자유주의 정치 공동체가 다양성을 수용하는 “포용적 공동체주의 inclusive communitarianism”를 지향하고 열린 경계에 대한 요구에 우호적인 “겹 공동체 layered communities”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최은주의 “기후변화 시대의 상황적 존재들과 상상의 공동체”는 영국 소설가 존 란체스터의 소설 『벽』 (2019)을 통해 지구온난화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재앙 이후에 존재할 사회, 그리고 이 사회에서 “제 자리를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한 인간 및 비인간을 포함한 “상황적 존재들”의 위치를 다룬다. 기후변화가 초래한 미래 사회에서 정작 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인 서구 선진국은 기후변화로 인해 터전을 잃은 저개발국가의 난민의 도래를 막기 위해 국가 공동체의 벽을 높인다. 서구국가들은 이미 19세기 말부터 그들이 원치 않는 사람들의 이동을 막기 위한 제도를 구축했다. 황혜성의 “엔젤섬이민국의 가려진 이야기: ‘깨어진 꿈’”은 중국인 노동자의 이주를 금지했던 1882년의 중국인 배제법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엔젤섬이민국에서 중국인 이주자들이 남긴 이야기들을 추적한다. 중국인 이민자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나라 미국이 특정 민족과 계급의 이민을 금지하는 모순을 지적하며 중국인 배제법의 틈을 이용해 그들의 꿈을 이루려 했다.

제2부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충돌과 협상’에서는 다문화 사회 내 다양한 집단들이 문화적 갈등과 대립을 거쳐 다양성과 공존을 모색하는 험난한 과정을 다룬다. 이찬행의 “아이스 큐브와 인종위기의 리듬”은 한국인을 비난하는 가사를 담은 아이스 큐브의 갱스터 랩, 〈Black Korea〉 (1991)로 인해 로스앤젤레스 한인 공동체와 아프리카계 미국인 공동체가 상호 오해와 갈등을 거쳐 화해로 나아가던, 그러나 단명했던 과정을 분석한다. 1991년 3월에 아프리카계 미국인 소녀 라타샤 할린스를 절도범으로 오인해 총으로 살해한 한인 이민자 두순자가 같은 해 11월에 열린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이 두 인종소수자 공동체의 관계는 견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고 1992년 LA폭동에서 한 흑갈등으로 폭발했다. 신영현의 “다문화 영화 〈컬러풀 웨딩즈〉와 〈나의 그리스식 웨딩〉 연구”는 이질적인 문화의 충돌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제도로 결혼을 들면서 프랑스 영화 〈컬러풀 웨딩즈〉와 미국의 〈나의 그리스식 웨딩〉이 “이질적 문화의 조우, 갈등, 화해”를 묘사하는 방식을

분석한다. 권은혜의 “제2차 세계대전 미국정부의 일본계 미국인 재정착 정책과 조건부 이동성^{mobility}”은 수용소에 구금된 일본계 미국인을 미국 전역으로 분산 이주시키려던 미국 정부의 정책과 그 결과를 다룬다. 재정착정책은 수용소에 수감된 일본계 미국인에게 석방시켜 이동의 자유를 주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서부 해안에 집중된 일본계 미국인 공동체의 분산과 백인 미국인 사회로의 문화적 동화를 의도했다. 많은 일본계 미국인들이 그들의 가족과 공동체가 있는 수용소에 남길 선택했고 이주와 재정착을 선택한 이들 역시 새로운 장소에서 일본계 미국인의 공동체와 문화적 결속을 추구했다.

제3부 ‘동아시아 한인 디아스포라와 에스닉 경제’는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구축된 중국과 일본의 한인공동체의 역사·경제·문화를 다루는 2편의 논문, 그리고 21세기 디지털 시대가 에스닉 경제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양상을 다룬 1편의 논문으로 구성된다. 김혜련의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의 한인사회와 초국가 공동체”는 중국 국내 최대 코리아타운으로 알려진 심양 서탑의 코리아타운에서의 중국 조선족, 한국인, 북한인의 경제와 문화 활동을 분석한다. 백 년에 걸친 한인 디아스포라의 결과로 형성된 심양 서탑의 코리아타운을 김혜련은 “한인 디아스포라가 구축한 초국가 경제 공동체”라고 부른다. 정혜경의 “자이니치 해방구에서 공생의 플랫폼으로—오사카 조선부락—”은 일제 강점기 자이니치의 집단거주지로 시작해 오늘날 다양한 한인들의 경제 및 문화공동체로 기능하는 코리아타운으로 변모한 오사카 조선부락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본다. 김지윤의 “에스닉경제와 디지털 기술의 이상블라주”는 디지털 기술이 이주민의 경제활동과 에스닉 경제에 미치는 변화에 대해 고찰한다. 기존 이주 연구가 에스닉 비즈니스나 에스닉 기업가에 초점을 두고 에스닉 경제를 설명했다면, 현재 한국사회의 이주민 노동자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노동 시장에 진출하는 사례는 디지털 기술과

에스닉 경제 사이의 관계를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제4부 ‘젠더, 민족, 이주’는 이주민의 민족과 젠더에 따른 초국적 이주 경험의 다양성을 다루는 3편의 역사 논문으로 구성된다. 육영수의 “자랑스러운 민족을 넘어 행복한 개인으로 살아남기: 독일 튀빙겐 한인 여성 디아스포라 구술생애사”는 파독간호사로 독일로 이주해 사업가로 변모한 오현주의 구술생애사를 통해 초국적 이주가 한국사회에서 주변적 위치에 종속될 수밖에 없던 여성에게 “행복한 개인”으로 거듭날 기회로 작용했음을 그려낸다. 조규태의 “하와이 이주민 안원규의 사회·경제적 삶과 민족적 활동(1903-1947)”은 하와이를 중심으로 활동한 한인 상인이자 독립운동가 안원규의 생애와 민족운동을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문종현의 “알제리의 식민화와 프랑스의 이주정책 (1830~1889)—프랑스 만들기와 이주—”는 정착민 식민주의와 제국주의가 본국 여성을 동원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프랑스 여성의 알제리 이주는 “알제리의 프랑스화” 정책—즉, 알제리에 보다 많은 프랑스인 가족을 정착시켜 알제리를 정착 식민지로 만드는 정책—의 핵심에 있었다. 하지만 프랑스 여성들은 험난한 알제리에서의 삶을 거부했고 결국 다른 유럽 여성들이 알제리에 이주하면서 프랑스 정부의 정책은 실패했다.

‘이주의 인문학’ 총서는 이주와 이동의 패러다임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성찰하고 대중적으로 소개하려 한다. 올 해도 총서 발간 작업에 참여하고 수고해 주신 사업단 관계자 분께 감사드린다. 특히 ‘이주의 인문학’ 사업단 주최 학술행사에서 귀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총서에 글을 실어주신 연구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4년 6월

이주의 인문학 사업단 단장 황혜성.

1부

모빌리티 시대의 공동체



I

다원성과 ‘접’ 공동체: ‘포용적 공동체주의’ 논의를 중심으로

김 만 권
경희대학교

‘열린 경계’를 향한 백래시와 공동체주의

1980년대 들어서며 자유롭고 민주적인 정체성을 갖춘 정치공동체는 두 가지 새로운 도전 앞에 놓이게 되었다. 첫 번째 도전은 개인의 다원성이 집단의 문화적 다원성의 문제로 확장되며 생겨난, ‘정치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집단이 지닌 정체성의 다원성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라는 문제였다. 두 번째 도전은 지구적 시장의 구축과 함께 이에 대한 대응이자 동조 현상으로 부상한 포스트베스트팔리아 post-Westphalia의 이상이 요구하는 ‘열린 경계_{open border}’, 특히, 국민국가의 경계를 개방하라는 요구였다(Falk 2002). 이 두 문제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었는데 지구화 현상과 함께 일어난 거대한 인구이동으로 인한 인구 유입이, 국가공동체 내에서 집단 정체성의 다원성을 더욱 확장하고 동시에 열린 경계에 대한 요구 역시 증폭시켰기 때문이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이런 ‘열린 경계’에 대한 요구는 많은 국가에서 백래시를 맞았다(Pevnick, 2023). 저개발 국가의 거주자들에게 경제적으로 발전한 국가로의 이주는 더 나은 삶을 위한 기회였던 반면, 경제적으로

발전한 국가의 노동계급은 이를 위협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노동계급이 이렇게 느낀 데에는 명백히 이유가 있었다. 지구적 시장이 구축되며 본격적으로 제기된 열린 경계에 대한 요구는 자본계급에게 부와 소득을 몰아준 반면, 노동계급의 부와 소득은 정체되거나 실질적으로는 감소했기 때문이다. 한편 자본으로부터 열린 경계에 대한 요구를 마주했던 국가는 노동계급에 대한 공적 보호 체계를 낮추거나 해체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열린 경계’의 요구 앞에서 특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국가의 미숙련 노동자들은 실업의 위기에 내몰렸고, 이들은 지그문트 바우만 Zygmunt Bauman의 지적처럼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와는 달리) 국경 안에 갇혀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하는 일이 일어났다(Bauman, 2011).

이런 열린 경계가 만든 경제적 모순은 자본계급이 만든 것이었지만, 자본은 이미 초국적 존재가 되어 영토 내 갇힌 노동자들이 제대로 항의의 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자본이 영토 내 노동자의 저항을 마주한다면, 그 영토를 떠나는 것으로 간단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거대한 규모의 초국적 자본을 잃는다는 것은 국가로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되었는데, 이 거대 자본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본에 대한 효과적 저항의 통로가 막힌 상황에서, 열린 경계가 만들어내는 고통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발전한 국가의 영토로 이주한 이주민들에게 전가되었다. 이주자들과 함께 들어온 문화적 ‘이질성’은 당연히 손쉬운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문제를 만든 이는 따로 있고, 문제를 만든 이들이 이윤을 내기 위해 이용한 이들에게 그 비난이 전가된 셈이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이런 비난의 전가에 대한 옹호가 ‘공동체주의의 communitarianism’라는 입장으로 포장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저명한 영국의 경제지인 *The Economist*에 실린 “The cosmopolitan-communitarian divide explains Britain’s EU split” (Feb 29, 2016)이란 기사가 그렇다. 이 기사는 대표적인 백래시 사례인 ‘브렉시트’를 세계시민

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분리로 설명한다. 학문적으로도 이런 사례들을 자주 찾아볼 수 있다. 최근의 사례로는 M. C. 영^{M. C. Young}이 “Conservatism and Communitarianism: Two or One?”(2020)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보수주의를 공동체주의의 입장에서 해석한다. 트럼프가 동원한 민족주의와 보호주의가 공동체주의가 강조하는 ‘공동체의 정체성’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프랭크 텍커^{Frank Decker} 역시 “Populism and the Cosmopolitan-Communitarian Divide”(2021)에서 백래시 현상으로서 우파 포퓰리즘의 부상을 세계시민주의적 태도와 공동체주의적 태도란 이분법의 틀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명백히 ‘공동체주의’는 정치공동체에서 ‘성원권^{membership}’을 기본적으로 강조하기 때문에 ‘열린 경계’에 대한 요구에 호의적이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공동체 내에서 공유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동체주의는 문화적 특수성과 그 방어의 논리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1980년대 공동체주의에서 이런 논리는 ‘민족성’^{nationality}이란 발상과 결합하며 외부에서 유입되는 이들에게 시민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곤 했다^(Miller 1988). 이런 이유로 공동체주의는 ‘열린 경계’ 및 ‘다원성’에 대한 요구와 조화롭지 못하거나 적대적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런 방어 논리가 ‘공동체주의’만의 고유한 것은 아니다. 아무리 자유롭고 민주적인 정치공동체라 할지라도 ‘시민권’은 배제의 논리를 필연적으로 포함한다. 그리고 아무리 자유롭고 민주적인 공동체라 할지라도 자신들이 역사적으로 지켜온 문화적 정체성을 방어하려고 한다^(Lenard 2010, 631-636). 극단적 세계시민주의의 입장에서 국민국가의 시민권과 문화적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면, 시민권 차원에서 배제의 논리와 문화적 차원에서 정체성의 논리는 어느 정치공동체나 작동하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공동체주의 이론에서 이런 배제와 정체성의 논리가 구체적

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생산적 논의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공동체주의 내에는 다원성과 열린 경계에 대한 요구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론적 탈출구가 존재하는 것일까? 만약 그런 이론적 탈출구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논리로 구성되고, 어떤 사례로 증명될 수 있을까? 이는 **내재적 비판(immanent critique)의 한 방법으로, 하나의 이론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같은 이론 내에서 찾아 이론적 탈출구를 여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를 위한 논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80년대 공동체주의가 형성되던 시기의 입장에서 자유주의 공동체 문화에 기반해 다원성을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마이클 월저(Michael Walzer)’의 논의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둘째, 월저의 다원적 평등 이론의 입장에서 열린 경계와 다원성을 수용하는 방안으로서 우리나라의 네팔 이주노동자의 사례를 살펴본다. 셋째, 21세기 공동체주의 이론의 입장에서 열린 경계와 다원성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관련하여 국가공동체보다 수준을 높여 대응한 ‘유럽연합’의 사례를 ‘아미타이 에치오니(Amitai Etzioni)’의 이론과 연계하여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례들을 ‘포용적’ 공동체주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이를 ‘겹’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제시한다.

마이클 월저의 자유주의 공동체론

1) 공동체주의 이론의 다양성

많은 이들이 공동체주의를 하나의 일관적 이론이 있는 정치 사조로 보지만, 실제 공동체주의를 관통하는 독자적이며 체계적 이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 이론적 입장이 존 롤스(John Rawls)의 『정의론(Theory of Justice, 1971)』에 대해 비판하는 이론적 흐름에서 탄생했기 때문이다.

공동체주의가 형성될 무렵 이 입장을 대표하는 학자로는 알러스터 매킨타이어^{Alasdair MacIntyre},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 마이클 월저 등이 있었다. 이들은 각자의 고유한 이론적 입장에서 자신의 이론을 전개했고, 그 과정에서 롤스와 자유주의 입장의 권리주의자들을 비판했다. 이런 비판에서 최소한 공통점을 뽑아내어 이를 ‘공동체주의’라고 불렀던 이가 바로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이다.¹⁾ 흔히 공동체주의를 대표하는 학자로 이 네 명이 꼽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체계적인 이론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 입장을 관통하는 중요한 몇 가지 기초가 있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체가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에 정치공동체는 개인이 ‘좋은 삶 *good life*’을 누리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다. 둘째, 이런 이유로 개인은 자신이 속한 정치공동체가 형성해 온 사회적 가치와 조화로운 삶을 영위할 때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셋째, 각각의 공동체마다 공유된 사회적 가치는 다르므로, 보편적인 권리와 자원의 분배 원칙이나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넷째, 이런 이유로 각각의 정치공동체는 영토와 구성원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 자율성을 갖는다.

이런 측면에서 공동체주의는 열린 경계와 함께하는 지구화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정치 사조로 여겨지곤 한다. 하지만 공동체주의에 대한 이런 일반화는 공동체주의를 오해한 방식일 수 있다. 오히려 공동체주의의 이론을 조금만 엄격하게 따져보아도, 하나의 정치공동체가 열린 경계에 얼마나 개방적인지는 어떤 정치문화를 가지고 있는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공동체주의는 다른 사회적 가치, 이로 인해 다른 문화적 맥락을 형성하고 있는 정치공동체에 그 맥락과 전혀 상관없는 보편적인 권리와 자원의 분배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주장할 뿐이다.

공동체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 및 문화와 전혀 상관없는 보편적 분배원리는 받아들일 수 없을 뿐 아니라 폭력적일 수 있다. 이들이 문화적 맥락에 상관없이 개인의 권리 차원에서

“정의의 두 원칙”이라는 보편적 원리에 따라 권리와 자원을 분배하는 롤스의 자유주의를 한결같이 비판하는 이유다. 예를 들어 국제통화기금 IMF이나 세계은행^{WB}은 각 국가의 경제체제나 역사적 맥락에 상관없이 보편적인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처방한다. 공동체주의 입장에서 평가하자면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이는 ‘열린 경계’와 ‘다원성’에 대한 요구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누가 우리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고 아닐지는, 우리 정치공동체를 이루는 역사적 맥락, 문화적 맥락, 더 나아가 구성원 다수들이 공유한 가치에 달려 있다.

현실에서 보면, 포스트베스트팔리아 시대의 ‘다원성’과 ‘열린 경계’에 대한 동시적 요구는 주로 자유롭고 민주적인 정치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발전한 국가로 향한다. 아주 간략히 그 이유를 말하자면 권위주의 국가들이 주로 저개발 국가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공동체주의 입장은 ‘자유주의 문화’를 배경으로 구축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liberal communitarianism}라고 부르는데, 개인의 권리와 공공선의 균형을 강조한다 (Etzioni 2021, 171). 이런 입장에서 공동체주의를 대변해 온 대표적 이론가가 마이클 월저다. 그렇다면 월저는 이 문제에 어떻게 답하고 있을까?

2) 월저와 영역의 정의²⁾

월저의 이론은 자유주의 공동체 입장에서의 다원성과 이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 간의 평등을 옹호한 대표적 이론이다. 이론적으로 보자면, 월저는 공동체주의자들 가운데 가장 체계적으로 사회적 가치의 분배과 다원성을 옹호하는 이론을 제시했다.

월저의 분배 정의론은 한마디로 ‘다원적 가치의 평등한 영역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하자면 자유주의 정치공동체에는 정치는 정치에 적합한 가치(권력), 경제는 경제에 적합한 가치(돈), 교육

에는 교육에 적합한 가치(명예) 등 각각의 영역에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이 존재하고, 이 가치들이 다른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자신의 영역에서만 역할을 다할 때 사회정의를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월저는 모든 가치는 사회적 가치이고 이런 사회적 가치들은 각각의 공동체마다 서로 다른 영역에서, 서로 다른 역사적 맥락에서 형성되어 아주 다양하기에 다른 가치를 압도할 수 있는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그럼에도 역사적으로 볼 때 단일한 가치가 다른 가치를 부당하게 이용하기 위해 독점하는 현상이 끊임없이 존재해 왔다. 예를 들어 신체적 힘에서 시작해 가문의 명예, 종교적·정치적 지위, 토지를 비롯한 재산, 자본, 전문 지식 등과 같은 것들이 시대를 달리하며 지배적이었다.

월저는 어떤 하나의 압도적 가치가 다른 사회적 가치들을 제압하고 지배할 수 있다는 주장을 이데올로기라 부르며, 이데올로기를 통해 다른 사회적 가치를 장악하는 일은 정의가 아니라 강탈이라 규정한다(Walzer 1984, 12). 다행히도 자유주의 정치공동체는 하나의 가치가 다른 가치를 지배하는 일을 허용하지 않는 문화를 형성해 왔다. 더하여 자유주의 사회는 정치적 평등주의를 수용했기 때문에 지고한 강자도 없고, 공포도 없어서 약자가 아부해야 하고 노예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Walzer 1984, xiii). 이런 맥락에서 월저는 자유주의 공동체에서 국가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상이한 사회적 가치들이 독점적으로 소유되어 있으면서 어떤 특정한 가치도 일반적으로 전환되지 않는 사회를 생각해보자. 만약 이러한 사회에서 국가의 개입을 계속 금지할 경우 사회적 가치들은 지금도 사실상 그렇지만 앞으로도 독점적으로 소유될 것이다. 반면 다원적 평등주의 사회에선 소규모의 불평등이 다수 존재할 것이지만, 불평등이 전환 과정을 거치면서 증식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불평등이 상이한 가치들을 아우르면서 통합되지도 않을 것이다.”(Walzer 1984, 17)

간략히 말해 월저의 입장에서, 각 영역에서 소규모 불평등이 존재하더라도 하나의 지배적 가치가 다른 영역의 사회적 가치를 독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월저는 지배적 가치를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이들의 존경이나 복종을 요구할 수도 없다고 본다. 이런 이유로 “전제는 하나의 수단을 통해 그 수단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을 얻고자 하는 바램이다”라는 파스칼의 말을 인용하며, 지배적 가치로 다른 가치를 종속시키는 것을 ‘전제^{tyranny}’라고 규정한다(Walzer 1984, 18).

이런 영역 간 서로 다른 사회적 가치의 다원성을 방어해야 한다는 정의의 입장은, 집단 간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사회적 가치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특히 자유주의 공동체에서 서로 다른 문화적 정체성(예를 들어, 다문화주의)을 다루는 사회적 가치는 ‘관용^{toleration}’이다. 물론 각각의 정치공동체마다 다른 형태의 관용이 존재한다. 하지만 미국과 같이 이주민이 이룬 사회에서 관용은 문화적으로 서로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로서 실천적 차원에서 구성원들 사이에 널리 공유되어왔으며, 더하여 이런 관용의 가치가 제도로 구현되어왔다. 이런 관점에서 월저는 ‘문화적 다원주의’와 ‘공통의 시민권’이 함께 작동할 수 있다고 본다(Walzer 1997).

하지만 관용이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가 다른 시대, 다른 공간의 공동체에 존재하는 만큼 관용의 한계는 언제나 시대와 장소에 따라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특정 시기, 특정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들에게 공유된 사회적 가치이다. 자유주의 공동체에서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다면, 하나의 가치가 다른 가치를 지배하는 일, 특히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일이다. 그 가운데 소규모의 불평등은 존재할 수 있다.

3) 월저와 성원권과 열린 경계: 난민과 이주노동자

월저는 풍요롭고 자유로운 국가들은 자신들의 영토로 이주하길 바라는 사람들, 이민의 문제를 필연적으로 마주한다고 말한다. 문제는 이주를 바라는 모든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이런 이유로 정치공동체로서 각 국가는 자국의 규모와 특성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결국, 풍요롭고 자유로운 국가들은 ‘이방인들_{strangers}’ 중 누구를 ‘우리’의 구성원으로 선택할 것인가를 두고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그리고 이 결정은 이미 멤버십을 소유한 이들, 즉 시민권을 소유한 이들이 내린다.

물론 월저는 위험에 처한 이방인을 도와야 할 의무를 인정한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그 도움은 일시적이다(Walzer 1984, 33). 특히 이방인에 대한 도움이 성원권(시민권) 분배 문제와 연결될 때, 이 일시성은 공동체를 정치·경제·문화적으로 안전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1) 난민의 경우

그렇다면 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방인으로서 난민들의 경우는 어떨까? 자신이 살던 국가가 가하는 박해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로서 난민들이 무엇보다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공동체에 속할 권리, 시민권이다. 월저는 자유란 특정 국가의 보호가 있는 영토에서만 유지될 수 있기에 이들을 영토적으로 수용하는 방법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 난민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 국가 안에서 기존 성원이 누리는 자유가 반드시 감소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난민 수용에 어느 정도 적극성을 보인다. 난민들의 숫자가 적다면 이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난민의 숫자가 증가할 경우 어쩔 수 없이 선별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때 가장 중요한 선별기준은 난민들을 수용하는 국가에서 ‘기존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누리는 생활방식과 얼마나 더 직접적 연관 관계를

맺고 있는가이다. 예를 들어, 월저는 “권위주의와 편협한 신앙의 희생자들 모두가 자유주의적 시민들의 도덕적 동지들”이라 말한다(Walzer 1984, 49). 그리고 1956년 헝가리 혁명의 예를 들며, 미국이나 영국이 헝가리에서 자유를 추구하다 쫓겨난 난민들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국가에서 축출된 스탈린주의자들에게까지 피난처를 줄 필요는 없다. 월저는 난민들이 호소해야 할 지점이 바로 이런 정치적, 문화적 접점이라고 주장한다(Walzer 1984, 50).

월저는 모든 사람에게 어느 정도 안전하게 삶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하지만, 이 권리가 특정 국가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난민들이 처한 고난의 상황은 ‘일시적’ 수용을 통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고 본다. 더하여 이들을 보낼 수 있는 곳에 여전히 박해의 위험이 있다면, 결코 이들을 추방해서도 안 된다는 조건도 덧붙인다(Walzer 1984, 50).

(2) 이주노동자의 경우

월저는 더하여 이방인들이 특정 정치공동체(국가) 안에 정당하게 거주하고 있다면, 자신이 사는 공동체 내에서 주어지는 “시민권과 제반 정치적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가?” 질문한다. 이에는 난민과는 전혀 다른 승인과정, 귀화가 요구된다(Walzer 1984, 52).

월저는 한 정치공동체가 자신의 영토 안에 누군가 받을 들여놓도록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결정이라고 강조한다. 기본적으로 입국을 승인한 기존 구성원들은 승인을 받아 입국한 이방인들을 의무를 분담하는 평등한 이들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Walzer 1984, 52). 이주해 온 이들 역시 의무를 분담할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 하지만 대다수 국가에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대다수 국가가 자국민들이 힘들고, 어렵고, 불쾌한 노동에서 벗어나게끔 하려는 목적으로 이방인들의 입국을 승인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들이 영토 밖에서 온

손님, ‘이주노동자들^{guest workers}’의 존재다.

월저는 이런 방식의 이주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단언하는데, 이는 “국가가 마치 하인을 거느리고 사는 가족”과 같은 형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³⁾ 월저가 볼 때 이것은 자신이 가장 경계하는 ‘전제’의 방식이다. 이런 제도는 부유한 국가라는 이유만으로 그렇지 못한 국가의 구성원을 하인으로 부리는 일이나 다름이 없다.

외국인을 이렇게 대하는 방식은 고대 아테네 시대부터 내려오는 것이지만, 그때는 시민권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달랐다. 아테네인들은 시민권이 자신들이 분배할 수 있는 무엇이 아니라 출생과 혈통에 관계된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이를 알고 있던 외국인들이 아테네인에게 요구했던 것은 공정한 대우였다(Walzer 1984, 53-54). 그러나 근대 이후의 세계는 다르다. 더는 이런 인식적, 개념적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정치공동체는 자기 판단에 따라 시민권을 분배할 수 있다.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자유롭고 풍요한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미래에 시민권을 소유할 수도 있는 잠재적 구성원이 아니라 ‘손님’이어야만 한다(Walzer 1984, 56). 시민권을 소유할 수 있는 세력으로 합류한다면 이들은 일시적으로 낮은 지위를 차지하겠지만 장기적으로 국내 노동세력의 일부가 될 것이다. 최악의 상태는 이들이 국내 노동시장에서 기존의 노동자들과 경쟁하는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들은 언제나 정해진 기간에 특정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에서만 머물 수 있다. 노동에서 벌어들이는 임금만이 유일한 보상인 경우가 허다하다.

월저는 이런 외국인 노동 체제를 경제적으로는 노동의 유연성에 기반한 국제연대체제이지만 정치적으로는 폐쇄적일 수밖에 없는 국가적 현실이 서로 결합해 탄생한 것이란 발상에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무리 손님일지라도 외국인 노동자 역시 정치공동체 내에서 통치를 받는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압제자로서 일군의 시민들의 통치를 받고 있다.”(Walzer 1984, 58)

물론 외국인 노동자들이 계약을 맺을 때 이런 현실을 다 알고 있다는 논변도 가능하다. 하지만 월저는 이것이 단기적 시장 거래를 정당화할 수 있어도 ‘민주정치’를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결정하고 실행하고 규칙까지 바꿀 수 있는 능력으로서 정치권력은 피통치자들의 지속적인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이때 피통치자란 영토 안에서 정치권력의 결정과 실행에 강제되는 모든 이들을 포괄한다(Walzer 1984, 58). 국가 권력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 구석구석까지 침투해 수용된 영토 내에서 삶의 틀을 형성하고 일거수일투족까지 규제한다. 그런데도 국가 권력은 이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정책에 대해 그 어떤 것도 질문하지 않는다(Walzer 1984, 59).

무엇보다 외국인 노동자의 진정한 정체성은 ‘손님’이 아니다.” 월저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자면, “그들은 노동자다.”⁴⁾(Walzer 1984, 59) 우리가 그들의 노동력이 필요하기에 이곳에 와 있다. 그 이유로 와서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계급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들에게 적실한 원칙은 상호 부조(mutual aid)와 같은 것이 아니라 정치적 정의(political justice)다. 외국인 노동자들도 노조원이 될 수 있어야 하며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월저는 이 정치적 정의를 다음과 같이 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내부의 삶을 형성하는 자치의 과정들은, 그 영토 안에 살면서 그 지역 경제에서 일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지역에서 법률의 지배를 받는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Walzer 1984, 60)

간략히 말해, 외국인 노동자로서 입국을 승인받은 자들에게 한정하여 2차 승인과정인 귀화의 과정, 시민권 혹은 잠재적 시민권을 개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시민권 개방의 핵심 이유는 이방인들에 대한 시민들의 전제를 허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월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민주적 시민들은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새로운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오
자 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성원권을 확장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만
약 새로운 구성원들을 받아들일 의지가 없다면, 자국 노동시장의 한계 내에
서 사회에 필요한 노동을 해결할 길을 찾아야만 한다.”(Walzer 1984, 61)

이주노동자와 공동체: 네팔 이주노동자의 사례

이주노동자에게 (잠재적)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월저의 주장은 상당
히 급진적이다. 80년대에 영토에 기반을 둔 정치공동체의 자율성을 강조
하는 공동체주의 입장에서 이런 주장을 펼쳤다는 점에서 상당히 예외적으
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월저의 이런 주장은 철저히 공동체주의적인 발
상이다. 각각의 공동체마다 내려온 정치문화 전통이 있다. 자유주의 정치
문화에서는 한 가치가 다른 가치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가치가
다원적 평등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고, 월저에게 이런 요구는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시민권이라는 권리로 종속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으로 이어
진다. 한 마디로 자유주의적 공동체의 사회적 가치가 외국인 노동자들에
게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정치적 결정을 지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 논문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일하는 국가에서 노동조
합에 참여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월저의 주장에 주목하는데, 이와 관
련해 유의미한 사례가 우리 정치공동체에도 있기 때문이다. 바로 네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의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하여 자신들을 보호할 사
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려 했던 사례다.⁵⁾

1990년대 초반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이들을 수용하
는 국가에서 일어나는 전형적인 착취를 경험하고 있었다. 당시에는 이
주노동자를 수용하는 데 필수적인 법과 제도조차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관광비자, 편법적 산업연수생 제도 등을 통해 이들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불법적인 노동시장이 형성되었다. 이 때문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임금체불, 산업재해, 장시간 노동, 사업주의 감시와 같은 일상적 인권 유린과 노동 착취에 쉽게 노출되었다.”(양혜우 2021, 148)

이에 맞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의 시민사회 단체의 도움을 얻어 자신들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조직적인 저항운동을 펼쳤다. 이중 가장 적극적인 세력은 네팔 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은 “산업재해 보상을 요구하는 농성 외에 산업연수제도 폐지 농성, 강제추방반대 농성, 노동조합 설립 운동 등 대부분의 이주노동자 투쟁”을 이끌었다(양혜우 2021, 148). 한국에서 벌어진 인정투쟁은 네팔에서도 이어졌다. 이들은 네팔의 입국 브로커들의 횡포가 낳은 피해 사례를 밝혀내었을 뿐만 아니라 네팔과 한국 양쪽의 공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었다. 대표적 사례로 가장 악명 높았던 인력송출회사 룸비니를 퇴출했다. 이뿐 아니라 네팔의 노동조합총연맹 지펀트_{GEFONT}와의 연계도 형성하고, 네팔 정치권에는 자국 노동자 보호를 위해 한국에 대사관 설치를 촉구했다(양혜우 2021, 148-149). 지역적으로는 자기 고향 마을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도로와 수도를 건설하는 기금도 조성했다.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로서 사회적 존재로 인정받는 투쟁의 경험은 이들이 한국이라는 공동체에 더 애착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더하여 본국의 가족, 시민사회, 정치세력과 교류하면서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네팔인으로서 정체성 역시 강화되었다. 이들이 경험한 이중적 정체성의 강화는 귀환 이주노동자들이 만든 에커타 신용협동조합에서 잘 드러난다.

‘에커타_{Ekata}’는 ‘우리’라는 뜻이다. 네팔 이주노동자들은 ‘우리’라는 말에 감정적으로 크게 공감했는데, 카스트제도가 존재하는 네팔인들에게 ‘우리’라는 말이 보여주는 평등한 결속력이 호소력을 지녔기 때문이다(양혜우 2021, 158). 이는 에커타의 창립 의도에서도 잘 드러난다. 협동조합으로서 에커타는 이주노동이 ‘노동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며, 가족의

해체로 고통받지 않아야 하고,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이 깃뺏히는 일이 되지 않게 해야 하며, 이런 사회를 “‘우리’ ‘다 같이’ 만들자”는 목표를 내세웠다(양혜우 2021, 160). 현재 에커타는 단순한 귀환 이주노동자들의 플랫폼을 넘어 한국의 여성단체와 연결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 가부장적 생활에서 벗어나는 활동까지 지원하고 있다(양혜우 2021, 163).

이처럼 이주노동자 운동에 참여했던 이들은 네팔에 돌아간 이후에도 한국에서 만든 인연을 발판 삼아 학교설립, 장학금 지원, 지역개발 운동에도 나섰다. 이는 한국에서 노동자로 인정받으려는 노력이 초국적 차원에서 지역 공동체를 강화한 사례라 볼 수 있다.

‘국가’ 공동체 위의 공동체: 유럽연합의 사례

21세기 들어 공동체주의 이론이 새롭게 주목하고 있는 대표적 정치 공동체가 유럽연합(European Union)이다. 예를 들어, 아미타이 에치오니는 『제국에서 공동체로-From Empire to Community, 2004』에서 지역 공동체들에서부터 이어지는 ‘글로벌 시민사회(global civil society)’를 제안한 적이 있다. 현재 우리가 맞고 있는 현실적 문제가 지구적 차원에서 제기되는 것들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공동체의 규모를 확장해야 한다는 발상이 담겨 있다. 이런 발상과 서로 상응하는 사례가 1992년에 만들어진 유럽연합이다. 제임스 골드가이어(James M. Goldgeier)는 유럽연합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공동체주의 이론이 국제적 수준에서 작동하는 이론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Goldgeier 2005, 1547).

현재 유럽연합은 역사적으로 볼 때 회원국 간의 지독한 적대 관계를 넘어 정치공동체에까지 이른 놀라운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골드가이어가 지적하듯, 유럽은 20세기 초중반 두 차례 세계 대전을 치렀고 이 사이에 거의 2천 5백만 명의 유럽인들이 목숨을 잃었다. 20세기 중반

까지 유럽은 그야말로 적대의 역사였다(Goldgeier 2005, 1547). 유럽연합은 이런 두 차례 세계 대전의 유산으로서 유럽석탄철강공동체_{ECSC}, 1952에서 시작됐다. 이후 유럽경제공동체_{EEC}, 1957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렀다. 단계별로 맺었던 파리조약, 로마조약,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회원국들의 관계를 조율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발전하면서 맺어진 결실로서 2009년에 맺은 리스본 조약은 현재 유럽연합을 규율하는 헌법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리스본 조약은 단지 공리주의적 경제기반으로서만이 아니라 정치공동체로서 유럽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이익을 모두 담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거의 유럽 대륙 전역을 포함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졌다(Goldgeier 2005, 1549).

유럽연합은 초기 공동체주의 입장에서 보면, 내부적으로 모순적인 체제일 수 있다. 회원국들이 자기 정치공동체 내에서 사회적 가치를 자율적으로 분배할 권리를 더 상위 공동체에게 넘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피상적 분석일 뿐이다. 유럽연합을 규율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보조성_{subsidiarity}’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이 회원국에게 개입하는 경우는, 회원국이 맞고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이다. 유럽연합은 문제해결의 차선책이다. 고유한 정치공동체로서 회원국의 자율성을 우선으로 하여 최대한 존중하면서 개입하는 방식이다(Goldgeier 2005, 1548). 한편 이 원리는 큰 공동체와 작은 공동체가 같을 경우, 큰 공동체에서 널리 공유된 가치가 더 존중받는다는 실천적 문제해결 방식을 담고 있기도 하다. 이와 더불어 반대로 국가공동체보다 더 작은 소수자 공동체 역시 존중받는다는 점도, 월저의 다원적 평등의 이론에서 볼 수 있는 전제를 거부하는 자유적 공동체의 가치와 상응한다.

예를 들어, 각 정치공동체의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는 유럽연합의 정신은 언어정책에서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 현재 24개의 언어가 공식 언어로 인정받고 있으며 EU의 모든 정책은 이 공식 언어를 포함하여 소수집단이 쓰는 언어로까지 옮겨진다. 언어가 유럽의 국가 및 공동체를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화적 요소라는 점에서, 각 정치공동체의 역사적·문화적 맥락을 존중하는 공동체주의 입장과 상응하는 중요한 접점이다.

여기에 더해 유럽연합이 ‘유럽시민권’을 회원국의 시민들에게 분배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요소다. 회원국 시민들은 유럽시민권을 통해 이중의 보호망을 획득했다. 무엇보다 유럽시민권은, 시민권이란 국가공동체가 독점하는 권리란 편견을 깨뜨렸다. 더하여 쟁쟁 조약을 통해 국경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권리는 이동의 자유뿐 아니라 회원국 간에 이주노동 자체를 자유롭게 만들었다. 유럽연합의 시민들은 어느 회원국에서든 회원국 자국 노동자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또한 “「유럽경제지역수립협정^{Agreement creating the European Economic Area}」 및 「자유로운 인적 이동에 대한 협정^{Agreement on the Free Movement of Persons}」에 따라 이동의 자유가 적용되는 영역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4개국(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을 포함”하고 있다(조동희 외 2020, 31-32). 이런 유럽연합의 결속력은 브렉시트 이후에 탈퇴가 이어지리라던 예상과 달리 더 이상의 탈퇴국이 없다는 데서도 간접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실제 20세기 초반부터 많은 데이터가 이미 자신이 속한 국가를 지지하면서도 동시에 유럽연합을 지지하는 이들이 존재함을 보이고 있었다(Goldgeier 2005, 1553).

이와 같은 유럽연합에 공동체주의 이론이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 공동체주의가 방어하려는 경계가 영토 중심의 국민국가에 머물러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 할 수 있다. 결국, 지구화 시대의 문제해결력은 경계를 확장하는 데서 온다는 사실을 공동체주의도 인식하고 있다.

포용적 공동체의 확장: ‘겉’ 공동체로의 전환

1) 포용적 내러티브와 중첩적 정체성

21세기 들어 다원성과 열린 경계를 수용한 자유롭고 민주적인 많은 국가에서 백래시가 일어났다. 이 백래시는 우파 포퓰리즘의 형태로 나타났다. 우파 포퓰리스트들은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혐오를 통해 어려움에 빠진 자국 노동자들을 동원하여 지지를 얻어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공동체의 이익과 문화’의 보호라는 명목을 내세웠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트럼프와 브렉시트의 사례였다.

하지만 월저의 다원적 평등 이론에서 볼 수 있듯, 자유주의적 공동체 이론은 이미 80년대부터 국경에 대한 통제에 대한 자율성을 강조하면서도 국경 내로 법적인 절차를 밟아 노동력을 제공하러 온 이들에 대한 시민권 부여를 옹호한다. 월저는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시민권 혹은 실질적인 정치 권리를 부여하고, 노동의 계약이 끝났을 경우 돌아갈지 남을지 결정할 권리까지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에치오니의 ‘지구적 공동체’론에서 볼 수 있듯, 공동체주의 역시 지구화 시대의 정치공동체가 국가공동체를 넘어 더 확장된 형태로 나아가는 것에 긍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공동체주의도 각 공동체가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가 지구적 차원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임을 인정하고, 이것을 국가공동체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제 국가보다 확장된 가치의 공동체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 두 공동체주의 이론에 상응하는 각각의 사례로서 ‘한국의 네팔 이주노동자’와 ‘유럽연합’을 살펴보았다. 네팔 이주노동자들의 사례는 (시민권이 아니라 하더라도) 노동자라는 지위에 상응하는 권리를 얻으려는 노력 자체가 정치공동체에 대한 애정을 만들어내고, 더 나아가 자신이 출생한 공동체에 대한 애정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네팔 노동자는 두 정치공동체에 동시에 속하는 경험을 하고 정체성 역시 두 공동체에 동시에 뿌리 내리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서로 다른 정체성의 동시성에 상응하는 사례로서 유럽연합은 회원국의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하여 베스트팔리아에서 확보된 국가 정치공동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연합차원에서 시민권을 분배하며 포스트베스트팔리아의 이상에 한발 다가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양성 속의 조화_{In varietate concordia}’라는 슬로건 아래 유럽연합 회원국의 시민들은 자국의 보호, 더하여 유럽연합의 보호를 받으며 두 가지 다른 수준의 정치공동체에 동시에 속하는 드문 경험을 하고 있다. 이 체제 내에서 유럽연합 회원국 시민은 타 회원국에서도 노동자로서 해당 국가의 내국인 노동자와 동등하게 대우받고 있다.

공동체주의는 각각의 정치공동체의 영토적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것이 개인에게 하나의 정치공동체에 대한 충성을 요구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공동체는 개인이 머무는 공간에서 다른 이들의 삶에 종속되지 않는 좋은 삶을 지지한다. 그렇기에 자유주의 공동체는 자기 영토 안에 머무는 모든 이들에게 지배당하지 않을 권리를 제공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자유적 공동체주의’는 개인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공동체(예를 들어 네팔과 한국)에 동시에 속할 권리를 지지한다.

최근의 ‘포용적 공동체주의’ 이론은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영토 안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이 고향에 머무는 듯 느낄 수 있도록 ‘포용적 내러티브_{inclusive narrative}’를 통해 공동체의 정체성을 구축하려 한다. 예를 들어, 폴 니먼^{Paul Neiman}은 ‘고향의 정서_{the feeling of home}’를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와 사람에 대한 애착으로 규정하면서, 이런 느낌이 부재할 때 개인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게 된다고 주장한다. 니먼은 우리가 “인류가 보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_{a universal human need}”으로서 이 정서에 주목해야만 한다고 강조한다^(Neiman 2023, 316). 니먼은 대표적인 세계

시민주의자 조지프 카렌스^{Joseph Carens}의 주장을 인용하며 ‘열린 경계’와 ‘이주의 자유’를 강조하는 이론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Neiman 2023, 314). 특히 자유주의 이론과 이에서 확장되는 이론은 ‘고향의 정서’의 기반인 공동체의 정체성이 단순히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만들어내는 부산물에 불과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Neiman 2023, 314). 개인들의 자유롭고 평등한 선택을 받는 공동체의 정체성은 번영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사라질 것이라 여긴다.

반면 공동체주의는 개인들의 선택은 오로지 그 개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얼마나 연계^{communal attachment}되어 있는지의 맥락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공동체주의의 모든 입장에 흐르는 공통적 입장이다. 이런 맥락에서 공동체주의는 성원권, 국가로 보자면 시민권을 강조한다. 시민권이야말로 누군가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음을 드러내는 공식적인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마이클 블레이크^{Michael Blake}와 같은 이들은 공동체는 시민권을 통한 배제를 통해 그 공동체의 연대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Neiman 2023, 314).

하지만 니먼은 이런 블레이크 주장에는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다. 시민권의 배제란 “국가가 여분의 사람들에게 질 의무를 거부하는 권리”일 뿐 공동체의 연대감이 생겨나는 원천으로 보기엔 어렵다는 것이다. 니먼은 공동체주의가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공공선이라면, 공동체의 연대감은 우리가 함께 그 공공선을 유지하는 활동에서 생겨난다고 주장한다^(Neiman 2023, 315). 이는 매우 중요한 지적인데, 대다수 사람이 지지하는 공공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단지 시민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깊은 연대감을 느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의 이해는, 현재의 이주민이, 더하여 미래의 이주민이 우리 공동체가 형성하는 공공선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에 따라 연대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다. 이주노동자의 경우,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정책적 수용이기 때문에 그 기여 자체는 명백하다. 우리가

그 기여를 인정하는 일은 이들이 공동체의 일부임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런 인정은 고향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다.

한편 니먼은 고향의 정서는 새로운 장소에 도착한 난민이나 이주민뿐 아니라 새로운 난민이나 이민자의 도착으로 고향을 잃어버렸다고 느끼는 기존의 거주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한다(Neiman 2023, 313-314). 예를 들어, 영어권 공동체에 영어를 쓰지 않는 외부 인구가 유입된다면 기존의 주민들은 이에 대해 편치 않은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언어는 한 공동체의 중요한 문화적 원천이기 때문이다. 더하여 기존 주민들의 처지에서 보자면 더는 자신들의 언어가 자기 공동체 내에서 온전한 소통의 도구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다. 특히 지역 수준에서 이런 이들이 아무런 협상도 없이 일어난다면 주민들은 이를 “위협으로 느낄 수 있으며” 이런 느낌은 때로 실제보다 “과장되기도” 한다.”(Neiman 2023, 324)

이런 느낌들은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더는 내 고향 같지 않은, 낯선 곳이란 느낌으로 이어진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노스텔지어 nostalgia’에 시달리게 된다(Neiman 2023, 324). 니먼은 스벨타나 보임(Sveltana Boym)의 구분을 활용해 이런 노스텔지어가 두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본다. 하나는 이주자들이나 난민들이 없는 공동체를 다시 만들겠다는 방향으로 ‘회귀적 노스텔지어 restorative nostalgia’라고 부른다. 또 다른 하나는 ‘회고적 노스텔지어 reflective nostalgia’로 외부인이 없는 공동체를 건설하겠다는 열망은 없지만, 외부인을 환대하기보다는 변해버린 고향을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을 겪는 현상이다(Neiman 2023, 325). 회고적 노스텔지어는 회귀적 노스텔지어보다는 덜 위협적이지만 고향에 대한 새로운 정서를 만들어내는데 이런 향수 역시 생산적이지는 않다. 두 감정 모두 우리를 과거에 묶어놓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외부인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공동체에서 필요한 것은 새롭게 진입하는 이와 기존의 거주하는 이들 모두가 고향을 느낄

수 있도록 공동체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포용적인 내러티브’다.(Neiman 2023, 326) 이 ‘포용적 내러티브’는 과거의 향수에 젖어 자포자기하거나, 외부인이 없는 공동체를 다시 만들겠다는 열망에 빠져 있거나, 떠났던 고향을 그리워하며 향수에 젖어있는 이들 모두가 자신이 삶을 누리는 곳에서 고향을 느끼는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런 포용적 내러티브에 필수적인 요소는 ‘모든 공동체가 변화한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정’이다. 어떤 공동체도 100년 전 혹은 50년 전과 같을 수 없다. 100년 전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 아래 있었고 이 때문에 한동안 우리말과 우리 이름조차 쓸 수 없었다. 50년 전 우리는 겨우 개발국가로 진입하려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원조를 받고 있던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서로 영어를 배우기 위해 노력하고, 원조를 주는 국가로 변모하였다. 더하여 2022년 9월을 기준으로 체류 외국인만 217만 2천여 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4.2%에 이르는 국가가 되었다. 모든 공동체는 역사적 과정을 거치며 변화한다. 이런 측면에서 역사적 공동체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바는 공동체가 고정된 형태로 자리 잡는다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함께 변화한다는 의미다.

이는 공동체주의의 전제이기도 하다. 포용적 공동체주의는 어떤 특정 시점의 공동체의 똑같은 느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정체성이 변화한다는 것을, 이에 따라 개인의 정체성도 변화한다는 것을 인정한다(Neiman 2023, 326). 이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미래를 계획할 때 공동체를 구성하는 규칙이나 가치 등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도 받아들인다. 그렇기에 공동체의 포용적 내러티브는 예기치 못한, 때로는 기존의 가치에서 바라보았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전환조차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Neiman 2023, 327).

이런 측면에서 포용적 공동체의 내러티브가 추구하는 정체성은 ‘중첩적 정체성(overlapping identity)’이다.(Neiman 2023, 327) 이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유된 정체성(shared identity)’과 다르다. 이 공유된 정체성의 원천은 역사,

언어, 종교의 공통성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중첩적 정체성은 다양한 역사, 언어, 종교를 가진 이들이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다양한 경험을 나눌 수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필자는 뉴욕시에서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뉴욕주립대학교의 예술대학인 패션공과대학교 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지구화’ 관련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 당시 매 학기 첫 시간 세계지도 위에 자신, 자신의 부모, 조부모들이 어디 출신인지 표시하고 자신이나 가족이 어떻게 미국이나 뉴욕에 오게 되었는지 간략히 정보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기소개가 끝나면 놀랍게도 세계지도의 구석구석에 핀이 박혀 있고, 학생들은 자신들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더 결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자기소개가 진행될수록 학생들은 포용적 내러티브를 쓰는 경향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열린 경계를 더 잘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최근의 공동체주의는 그 포용성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유사한 맥락에서 보수적 성향의 유교적 공동체주의(Confucian communitarianism) 역시 “포용의 선(the good of Inclusion)”을 추구한다고 주장하며 종교적 소수자 집단이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종교를 드러낼 수 있는 의복이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데까지 나가 있다(Chang 2022, 117).

더하여 지구화 시대의 문제를 접한 공동체주의는 문제해결의 방법으로서 공동체 규모의 확대를 모색한다. 이런 맥락에서 베스트팔리아를 지배한 제국의 역사를 탈피해 포스트베스트팔리아의 ‘서로를 지배하지 않는 공동체의 연합’을 지지한다. 유럽연합을 지지하는 공동체주의의 입장은, 개인이 기존에 속한 국가공동체뿐만 아니라 국가보다 수준이 높은 지역정치공동체에 동시에 속할 권리를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겹' 공동체로의 개념화

이 논문은 이런 최근의 공동체주의의 입장을 바탕으로 '겹' 공동체(layered communities)라는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개념은 공동체주의자 아미타이 에치오니가 '응답하는 공동체(responsive community)'라는 발상을 제시하는 가운데, 다양한 공동체 구성들이 자신이 속한 여러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을 가질 수 있으며 이를 길러주는 것이 '사회구성원들의 요구에 응답하는' 공동체의 중요한 요건이라고 주장한 데서 비롯되었다. 에치오니는 이를 '다층적 충성심(layered loyalties)'이라고 부른다.(Etzioni 1996, 10)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지방과 국가에 동시적 충성심을 가질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국가와 그보다 상위 수준의 정치공동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다층적 충성심'의 개념은 지방, 국가, 그보다 더 큰 지역으로 올라가는 수직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에치오니의 '충성' 개념은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 끼어 있는 수많은 존재에 대해선 명확히 말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예를 들어 이주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 난민들이 그렇다. 이 충성 개념의 어원을 따라가다 보면 라틴어의 legalitas, 합법성이란 단어와 조우하게 된다. 충성은 합법적인 정당성을 요청한다. 하지만 비자 등이 만료되며 불법화되는 세계 곳곳의 많은 이주노동자들, 합법적 국적이 있음에도 보호 없이 내쳐진 난민들, 심지어 법적 보호가 없는 '국적 없는 사람들(stateless)'이 존재한다. 이런 존재들은 충성이란 합법성을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방어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특정한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은 때로 '타자에 대한 지배'에 대한 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합법적이지 않은 존재를 정당하지 않은 존재로 만들어 철저히 배제하고 때로는 적대하는 성향이 있다.

이 논문이 제시하는 '겹' 공동체의 개념은 에치오니의 '다층적 충성심'에 내재한 합법성의 개념을 전제하지 않는다. '겹' 공동체가 '충성'

대신 요구하는 것은 ‘애정^{affection}’이다. affection은 감정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관계, 경향, 일시적 상태 등을 의미하는 라틴어 *affectionem*에서 파생된 말인데, 라틴어에서 이 용어는 ‘좋은 기질’, ‘애착’, ‘사랑’ 등의 의미로 발전했다. 이런 의미에 근거해 ‘겹’ 공동체 개념은 공동체에 대한 ‘건강한 애착’을 요구한다.

이런 건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면, ‘겹’ 공동체의 개념은 이주노동자를 비롯해 외부에서 유입된 난민들, 나아가 국적 없는 사람들 모두를 문화적으로 다른 공동체를 걷도는 이주민이 아니라 동등한 구성원으로 간주한다. 이런 점에서 ‘겹’ 공동체는 외부자로 공동체에서 삶을 시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합법성이란 이름으로 가해지는 일체의 적대성을 배제한다. ‘겹’ 공동체 개념은 ‘내가 속한 집단의 동료들과 항상 연결되어 있다’, ‘속한 집단의 공공선의 유지와 변화에 기여하겠다’는 정도의 애정을 요구한다. 이 ‘겹’ 공동체 개념에서 성원권의 기준은 국적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신이 삶을 영위하는 공동체의 공공선을 증진하는 협력적 노력으로 판단한다. ‘겹’ 공동체는 이주노동자들을 비롯한 외부자로 여겨지는 모든 존재에게 자신이 태어나고 성장한 공동체와 현재의 삶을 유지하는 공동체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때로 문화적으로 서로 다른 공동체라 할지라도 동시적 ‘애정^{affection}’이 가능함을 인정한다.

이런 맥락에서 ‘겹’ 공동체의 개념은 다양성을 기본조건으로 하며, ‘열린 경계’에 호의적이다. ‘겹’ 공동체 개념은 공동체의 정체성을 구축할 때에도 내국인과 외국인을 가르기보다는 영토 내에 머무르는/머무를 모든 이들이 고향에 머무는 듯 느낄 수 있는 포용적 내러티브를 지지한다.⁶⁾ 이런 ‘겹’ 공동체의 개념을 사용하면 현재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난민이라는 이유로, 외부자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배제된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에서 세대를 넘어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거나 그곳에서 이주노동자로 일하면서

도 유럽시민권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겹’ 공동체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나가며: ‘겹’ 공동체를 향하여

공동체주의가 각각의 공동체의 역사적·문화적 맥락에서 생겨난 사회적 가치의 고유성을 인정하는 한 배제와 경계의 닫힘은 어떤 방식으로든,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명백히 공동체주의의 한계이지만, 현재 우리가 구축한 공동체의 한계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닫힘의 경계를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그을 것이냐에 따라 배제와 포용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 그리고 그 수준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명백한 사실이다. 이렇게 어디에 민주적 공동체의 경계를 긋느냐는 인권을 보호하는 수준을 결정하며, 당대 인권의 정치 는 바로 이런 “경계를 확장하는 작업”이기도 하다(홍태영 2009). 지구화의 물결을 따라 우리 사회 역시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적, 시민권, 종족성을 강조하며 경계를 좁히는 담론은 이런 변화에 대한 거부 혹은 새롭게 유입되는 이들에 대한 “차별 논리로 사용될 위험성이 있다.”(김범수 2009, 75)

하지만 일상에서 대다수 우리는 그 경계를 대체로 영토중심적으로 긋는다. 인간의 몸이 물리적으로 특정 시간에 특정 영토에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라면, 대다수 사람은 특정한 영토 내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다. 많은 이주민과 노동자들, 난민들이 그 영토의 공공선을 유지하는데 협력하고, 새로운 영토에 대한 애정을 느끼면서도 배제된 몸으로 살아가는 경험을 한다. 이들이 내국인의 일자리와 임금수준을 위협한다는 편견 시달리면서 말이다.

하지만 최근까지 이어지는 실증연구들을 보면, 이주민이 현지인의


일자리와 임금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유의미한 증거는 없다(베너지 외 2020, 48-54).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누군가는 왜냐고 물을 수 있다. 여러 요인이 있지만, 단편적으로 보자면 이주민이 늘리는 노동공급의 반대편에는 그 공급을 따라 늘어나는 현지인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베너지 외 2020, 54-55). 사례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오히려 이주민이 현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가 나오기도 한다. 이주민이 현지인의 일자리와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만 있을 뿐 확고한 증거는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브렉시트와 트럼프 현상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열린 경계에 대한 백래시는 증거 없이 주장만으로 밀어닥쳤다. 한마디로 우리의 편견이 만든 현상이다. 더하여 이런 백래시가 공동체주의에 근거해 있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다. 이런 주장은 전통적인 공동체주의에서 나온 일부 논조를 과장한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공동체가 역사적 과정에서 변화하듯, 공동체주의도 마찬가지다. 이런 변화는 필연적인데 변화하지 않는 문화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니먼이 지적하듯이 분명 “전통적인 공동체주의는 과거를 보존하거나 공동체의 역사적 성격을 유지하는데 고착”된 경향이 강했다(Neiman 2023, 327). 이들은 특정 “장소, 민족, 사회적 네트워크”가 개인이 생각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정체성을 규정한다고 보았다(Neiman 2023, 318). 그러다 보니 이주가 만들어내는 변화로부터 기존의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을 보호하는 데 전념하는 경향이 분명히 존재했다. 하지만 월저의 시민권 논의에서 볼 수 있듯 1980년대부터 이미 공동체주의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외부로의 유입에 열려 있었다.

더하여 최근의 공동체주의는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인간의 적응력을 이해하고 평가한다. 인간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그 새로운 환경을 또 다른 고향으로 만들 수 있다. 그 고향은 단순히 하나의 장소에 국한될 필요도 없다(Neiman 2023, 319). 이 능력을 믿는다면 떠난 곳, 새롭게

살게 되는 곳, 모두가 고향이 될 수 있다. 이런 능력을 수용하면서, 이제 공동체주의 이론은 특정 영토 내 모든 거주민이 공동체가 겪고 있는 변화와 화해할 수 있는 내러티브가 만드는 포용적 정체성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논문이 제시하는 ‘겹’ 공동체의 개념 역시 이런 방향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그 포용이 문화적 요소에서 기인하는 합법성(예를 들어, 혈연 중심적 시민권)을 전제로 할 필요가 없음을 제안하고 있다. 공동체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누가 같은 핏줄이고 과거를 공유했느냐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함께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협력의 의사와 함께 살아갈 공동체에 대한 애정이 아닐까? 

〈원문출처〉

이 글은 2023년 『정치사상연구』 29권 2호에 수록된 「다원성과 ‘겹’ 공동체 : ‘포용적 공동체주의’ 논의를 중심으로」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저자소개〉

김 만 권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김만권은 정치이론 및 철학을 전공하고 현대자유주의 정치철학과 분배이론을 주요 관심사로 연구 및 대중과의 소통을 활발히 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학중점 연구소사업의 지원으로 ‘대안공동체 인문학: 공유와 연결, 지속가능한 유토피아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주요저서로 『새로운 가난이 온다』(2021),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2018), 『호모저스티스』(2016) 등이 있다.

II

기후변화 시대의 상황적 존재들과 상상의 공동체

최 은 주
전국대학교

신기후체제의 디스토피아에서 ‘우리’

브뤼노 라투르Bruno Latour에 의하면, 기후 문제는 지정학적 이슈의 핵심이며 불의·불평등의 문제가 직접 연관되어 있다.¹⁾ ‘신기후체제New Climate Regime’에 들어섰다는 생각 없이는 불평등의 폭증, 탈규제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 글로벌화에 대한 비판을 이해할 수 없고, 가장 중요하게는 국민국가의 보호로 귀환하려는 광적인 갈망으로 잘못 알려진 갈망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신기후체제는 라투르가 그의 저서 『가이아 마주하기: 신기후체제에 대한 여덟 개 강의』Face à Gaïa. Huit conférences sur le Nouveau Régime Climatique 2015에서 제안한 용어로, 지질학자들이 홀로세Holocene라고 정의한 최근최대빙하기Last Glacial Maximum가 끝난 이후 다소 안정적인 상황의 구기후체제Older Climate Regime가 있었지만, 인류가 화석 연료에 너무 많은 의존을 하게 됨에 따라 인간이 알아차릴 사이도 없이 불안정한 신기후체제로 전환된 것을 말한다. 전례 없는 규모의 생태적 변환에 접어들었으며 기후변화를 비롯한 각종 위기가 지구에 엄습했다.

모든 개인이 한 국가의 국민이며 오직 한 국가의 국민이어야 한다는 배타적 국민 구성은 근대 국민국가 모델이 지닌 특징이다. 이 모델은 낸시 제이(Nancy Jay)가 지적한 'A/비A'에 기초한 이데올로기로 짚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따르면, A/비A에 기초한 이데올로기는 모든 변화에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에 지배되어 사회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대안적인 사회질서의 형태(제3의 가능성)를 사고할 수 없다.²⁾ 이런 사고방식 속에서는 한 질서에 대한 대안이 무질서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금은 누적된 분쟁, 경제 실패, 기후 변화에 떠밀려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곳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자신의 영토로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으로, 기후 변화와 이주 논쟁은 각각 다른 문제가 아닌 양립하는 문제이지만 기후 변화가 아직 다를 줄 모르는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문제라는 점에서 미래의 모든 이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³⁾

이 글은 해수면 상승과 기후 변화에 따른 디스토피아, 즉 미래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극대화하여 형상화한 가상 세계를 그린 존 란체스터 John Lanchester의 『벽』The Wall, 2019에서 '대격변(the Change)'으로 불리는 시대 이후의(그리고 여전히 진행 중인) 사회와 그 사회 안팎의 상황적 존재들에 대해 고찰한다. 이때 '상황적'이라는 말은 고정된 자기 자리가 없다는 의미이며, 얼마든지 박탈될 가능성은 있지만 제자리를 회복할 가능성은 없는 사람들에게 주로 붙여진다. 이 존재는 반드시 인간이 아닌, 비인간에게도 적용된다. 인류가 발생시킨 기후 변화는 종으로서 인간 존재 자체가 빚어낸 의도치 않은 결과이며, 상이한 인간 집단들이 더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기후 변화에 결정적인 원인이 됐음에도 궁극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모든 인간 행동이 이루어낸 총체적 결과물⁴⁾이라는 점에서 해수면이 상승한 바다와 그로 인한 홍수는 『벽』에서 주요 역할을 맡고 있다. 『벽』은 영국 브리튼 섬에 요새를 구축하고 벽을 지킨다는 것의 의미, 즉 스스로 고립되는 선택을 하면서 난민을 막고,

자신들의 영토에서 벌어지지 않은 일에는 어떠한 구호 활동도 하지 않겠다는 브렉시트^{Brexit} 이슈와도 무관하지 않다. 영국은 2016년 유럽연합에서 탈퇴를 확정하고, 2020년 1월 정식 탈퇴했다.

라투르의 말을 빌려, 신기후체제는 오랫동안 국경을 휩쓸었고, 우리를 모든 풍랑에 노출시켰으며,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그 어떤 벽도 침입자들을 막지 못할 것이다.⁵⁾ 두 다리로 걸어서 넘어오는 난민에 맞서기 위해 국경을 봉쇄한다고 해도, 다른 형태의 이동, 즉 기후·침식·공해·자원고갈·서식지 파괴 등과 같이 국가로 한정 지을 수 없고, 형태도 없는 이동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끈질기게도 “위협에 대해 항상 내부와 외부, 고유한 것과 생소한 것, 개별적인 것과 공통적인 것의 경계에 머문다.”⁶⁾ 이때의 ‘우리’는 유럽이지만 꼭 유럽일 필요는 없다. 꼭 유럽일 필요가 없지만, 유럽적인 것, 영국적인 것은, 로베르토 에스포지토^{Roberto Esposito}에 따르면, ‘우리’라는 개념을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절단하는 면역화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내부로 데려간다.”⁷⁾ ‘우리’는 “타자와 원치 않고 뜻하지 않은 접촉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는 ‘가면’이나 ‘갑옷’을 사용”⁸⁾함으로써 다시금 유럽적인 것, 영국적인 것이 된다. 따라서 아미타브 고시^{Amitav Ghosh}가 말하는 ‘우리’와 라투르가 말하는 ‘우리’는 다르다. “늘 타인의 시선에 의해 감시당하고 판단되어왔음을 본의 아니게 알아차린”⁹⁾ 인도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와 “모든 민족을 침략한”¹⁰⁾ 유럽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출발점이 다른 것이다.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가난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탄소 경제로 인한 부의 혜택에서 배제되었다는 점은 이러한 ‘우리’의 문제와 맞닿아있다. 그리고 『벽』의 주인공 조셉 카바나^{Joseph Kavanagh}의 출발 또한 어찌면 다르다. ‘카바나’는 아일랜드의 성^姓으로, 어원은 ‘잘생겼다’는 뜻의 Caomhánach에서 유래하며, 소설 전체에서 조셉 카바나는 조셉이 아니라 카바나로 자신을 소개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부른다. 이미 제국과 다중이라는 타자¹¹⁾의 생산 구도에서 처음부터 영국이 아닌

아일랜드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은 카바나가 원천적으로 영국적인 ‘우리’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누구에 대한 디스토피아인가?

소설의 배경인 브리튼 섬은 지구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추위가 극에 달했고 해안선 2,000마일을 잃었지만, 여전히 구불구불한 녹색 언덕과 펌_{Pub}, 대중교통, 휴가가 잔존하여 대격변 이전의 풍경을 드문드문 드러내는 지구 유일한 곳이다. 반드시 영국일 필요는 없지만, 전지구적 차원의 난민과 기후 변화를 소재로 택한 『벽』조차 세계의 다른 지역과 벽을 쌓은 곳을 바로 영국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란체스터는 다른 작가들처럼 영국에, 따라서 고유의 영국식 개념에 특권을 부여하는 데 동참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¹²⁾ 그밖에 디스토피아적 절망에 대항하는 더 나은 존재 방식을 탐구하는 대신 단지 느낌의 디스토피아적 구조를 재현할 뿐이며, 실행 가능한 대안을 구축하는 데도 실패했다는 비판도 받는다.¹³⁾ 그러나 『벽』을 주목할 이유는 충분하다. 종말론적 세계의 원인인 환경 문제를 잘 그려냈기 때문이 아니다. 기후 변화를 다루는 상상력에서는 오히려 단순하며, 결과에 치중하는 한계를 보인다. 대신 ‘벽’이라는 엄격하게 통제된 공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여전히 국가주의적 공동체 이념을 깊숙이 심어놓았다는 점에서 인간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공동체 이념은 그 대립물인 벽을 부서뜨리려는 커녕 오히려 높이 세우는 것으로 고착되며, 벽을 지키는 단조로운 삶이지만 경계병들로 하여금 강렬한 목적의식을 갖게 만드는 이유다.

그런 점에서, 『벽』에 대해 에리카 와그너^{Erica Wagner}가 던지는 “누구에 대한 디스토피아인가? A dystopia for whom?”¹⁴⁾라는 질문은 의미심장하다. 빙하와 해빙 감소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지구 기온 상승에 의한 기후

이변은 식량문제로 이어져 마침내 삶의 터전을 잃고 떠나야 하는 이재이주 상황을 가속화시킨다.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야 할 홈랜드는 사라지고, ‘빈자^{the Poor}’에게 이주의 위기는 일상이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벽』의 상황은 현재 삶과 동떨어진 세계가 아니다. 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설은 모든 것이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정상성’의 순간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¹⁵⁾ 사람들은 사랑에 빠지고, 정치가들은 똑같은 연설을 반복하고 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은 아이폰과 비슷한 장치를 갖고 있다. 현실과 소설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벽 이쪽에 존재하는 자들의 피부 속에는 시민임을 나타내는 마이크로칩이 내장되어 있으나 벽 밖의 적으로 표상되는 ‘타자들^{Others}’에게는 그와 같은 칩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 세대에게 ‘나쁜’ 현실과 ‘더 나쁜 사회 시스템’이 작동하지만, 부모 세대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로써만 표상되는 것들이다. 그러나 세계 도처에서 대격변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불안한 현재는 위급한 미래로 향하고 있다. 이 속에서 타자는 일별이 가능하지 않은 전체로서 등장할 뿐이며, 그들에게는 얼굴도 목소리도 없다.

벽은 상징적이다. 경계이자 국경이며, 내부와 바깥을 전제한다. 벽은 위반이 일어나는 한계가 아니라 횡단되는 통과와 경로를 생산한다. 벽은 동시에 물질적이다. 그러한 벽은 세울 수도, 1989년 베를린에서처럼 무너뜨릴 수도 있다. 란체스터의 『벽』에서 벽 또한 그런 상징적 측면과 물질적 측면에서 예외가 아니다. 타자에 대한 두려움이자 압박한 환경 붕괴에 대한 불안, 안전과 안보에 대한 보편적인 꿈, 제한된 천연자원과 인간에 대한 환대 같은 아이디어들이 모여드는 중심 이미지가 바로 이 거대한 구체적인 벽이다.¹⁶⁾ 공식 명칭이 ‘국립 해안 방어 체계 NCDS, National Coastal Defence Structure’인 거대한 벽은 “낮고 긴 콘크리트 흉물”¹⁷⁾이다. 콘크리트는 그 유효 성분이 석회석의 주요 성분인 탄산칼륨이다. 규소와 산소를 포함한 화합물로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의 약 90퍼센트를 차지하는 규산염도 들어가며, 점토도 필요하다. 1,450도의 높은

온도를 가하면 규산칼륨이 만들어지는데, 물과 철근 등이 합쳐지면 콘크리트가 생겨난다. 소설에서 벽은 “가파르고 미끄러운”¹⁸⁾ 콘크리트 계단으로 묘사되며, “축고 척박하고 살기 힘들고 절망적인 곳”¹⁹⁾으로 비친다. 벽의 소재가 콘크리트 물질이라는 점은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그 자체가 과다 탄소 배출에 따른 대기 중 온실가스 수준을 높인 인간 활동의 결과물인 동시에, 해수면 상승, 기후 변화에 의한 디스토피아가 도래하였음에도 다른 대안 물질을 찾지 못한 인류의 무능함을 드러낸다.

『벽』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세상, 벽을 지키는 복무 속으로 모든 젊은 세대를 내던지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인간 활동이 원인인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홍수로부터 영국을 보호하기로 되어 있는 만큼 풍경이 달라졌으며, 체계 또한 바뀌었다. 부모 세대가 향유했던 해변은 없어지고 오로지 바다만 있으며 그곳을 지키기 위한 벽이 중요한 세상이 된 것이다. 존 어리^{John Urry}에 의하면, 해변은 소비의 장소 중 가장 상징적인 곳이다.²⁰⁾ 땅도 아니고 바다도 아닌 ‘중간 공간’으로써 매혹과 욕망의 장소라는 것이다. 경관의 장소, 특히 노동이 아닌 여가의 장소라는 것도 특이점이다. 20세기 초 수십 년 동안 유럽과 북미 부유층에게 ‘엄청난 정동^{immense affect}’의 장소이자 지상의 낙원이며 과잉의 장소였던 해변은 공장과 직장, 가정에 대한 상징적 ‘타자’를²¹⁾ 의미했다. 정동은 무의식적이지만 육체적이며 외재적으로 나타나는 기분, 흥분, 몸짓 등을 총체적으로 일컫는다. 즉 신체 위에 드러나는 느낌이자 반응으로, 자기 인식 전에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정서이다. 해변에서 햇볕은 거의 별거벗은 몸을 어루만지는데, 이러한 경험을 통해 생겨나는 정동에 의해 해변은 전 세계적으로 욕망의 대상이 된다.

『벽』에서 ‘우리’ 세계에서는 사라진 해변과 대조적으로 벽은 ‘우리’와 ‘타자’가 나뉘어 사투를 벌여야 하는 곳이다. 공교롭게도 대문자 ‘O’로 된 ‘Others’는 타자가 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우리’와 명료하게 나누려는 의도를 내비친다. ‘우리’는 외부로부터 벽을 침투하고자 하는

타자를 상대하는 영국인이자 영국 내에서 부모 세대와 갈라진 자식 세대로, 대격변 이후에 태어난 사람을 일컫는다. 대격변 이후에 태어난 ‘우리’는 대격변이 고립된 단독 사건이 아니라 해수면 상승과 기후 변화라는 특별한 변화가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낸 것임을 알고 있지만, 그때를 되돌아보면 여전히 한순간에 벌어진 것 같은 사건처럼 느낀다. 따라서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결정적인 순간이기도 하다. 그때는 부모 세계가 있었고, 이제는 ‘우리’ 세계가 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대격변은 이전과 이후를 가를 수 없는 현재형이다. ‘우리’의 세계 또한 마찬가지로 단일하지 않은 사회적 계층으로 나뉘어 있다. ‘우리’ 세계에는 엘리트 Elite, 경계병Defender/공군Flight/경비대Guard, 도우미Help 계층이 존재한다. 경계병은 벽을 지키며, 공군에는 항공기를 타는 소수의 사람과 그보다 더 많은 드론 조종사가 소속돼 있다. 정식 명칭이 해안 경비대Coast Guard인 경비대는 크게 중거리용 함선과 단거리용 함선을 보유하고 있다. 벽에서 직접 얼굴을 맞대고 임무를 수행하는 경계병은 추방될 수 있으나 공군과 경비대는 추방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공군이나 경비대의 입대는 훨씬 어렵다. 공군에 입대하려면 생체 측정 테스트를 여러 번 통과해야 하며, 경비대에 입대하는 데는 선박·해양 관련 분야에 가족이 있으면 도움이 된다.

‘우리’ 세계의 분화된 사회체계에서 경계병은 적이 벽을 넘으면 어차피 죽은 목숨이다. 그것만이 중요한 사실이다. 적이 마이크로칩을 구해서 잠입하는 데 성공하는 것은 사병이 걱정할 일이 아니었다. 당연히 적과 엘리트 계층에겐 중차대한 일이지만 경계병에게 달아난 적은 더 이상 관심사가 아니었다. ‘우리’ 세계는 계층화된 사회로, 그것을 작동하는 것은 사회 시스템이다. 시스템이 먼저다. 시스템이 없다면 개별 인간 주체의 힘은 보잘것없을 것이다.²²⁾ 주체가 모여서 경이로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들을 포함하는 시스템, 특히 이들을 이동시키거나 이들의 관념 또는 정보를 이동시키거나 다양한 사물을 이동

시키는 시스템 덕이다. 그런 이유에서 기존 시스템에 대해 개별 인간은 별다른 인지적 숙고 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벽』이 재현하는 디스토피아조차 다른 인간들로부터 벽을 지키는 방식의 정치적인 경계와 정체성이 부동산성/이동성^{im/mobility}에 의해 형성된 과거와 다를 바 없다. 즉 디스토피아라고 하지만 이전의 삶과 달라졌다 해도 해변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그 삶에 대해 알고 있으며, 그 삶에 훨씬 가까이 있는 사람들 또한 존재한다. 과거에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 부족해지고 그에 따라 가격이 오르고,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차츰 볼 수 없고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궁극에는 사라지는 그런 것들 말이다. 『벽』에서도 마찬가지로 종말은 지역·도시·국가·세계의 체계들이 인종·성별·계층·국적·성별에 따라 다른, 규율된 이동을 생성²³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열악하고 취약한 ‘다른’ 집단들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타자들’로 칭해지는 사람들의 이동이 카바나를 비롯한 ‘우리’에게는 파괴와 위험을 낳는다는 점에서 다시금 ‘누구에 대한 디스토피아인가?’라는 질문이 중요해진다.

경계병은 처음 의무기간 이후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복무 연장이 가능하다. 카바나는 복무 연장을 자신에게 달린 일로, 자신이 통제권을 쥐고 있고 그것을 함으로써 무엇을 얻을지 안다며, 장교로 훈련받을 기회가 생기면 대학에 가고, 엘리트 계층에 진입하여 항공기를 타고 날아가 회담이나 대담 또는 회의 등에 참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엘리트 계층에 대해 비호감을 가지는 동시에 선망했다. 벽을 넘어온 적을 물리치고 훈장을 받은 후, 그리고 히파^{Hifa}와 함께 번식자^{Breeders}, 즉 아이를 낳기로 결정하고 나서 그는 스스로 엘리트 계층이 되기를 가장 바랐다. 엘리트들은 다른 엘리트 계층 사람들과의 회의를 위해 항공기로 이동할 수 있다. 항공 연료가 부족해서 이제는 극소수만이 항공기를 탈 수 있게 되었다. 지금의 사회조차 일련의 규제하고 통제하는 규칙·관습·

제도 전체인 체계화된 네트워크는 이동성^{mobility}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따라서 ‘우리’의 세계에서조차도 권력은 사람들의 차별적 이동 권리를 명백히 드러낸다. 특권 계층은 개인의 이동 능력과 이동 잠재력과는 별개의 더 많은 이동의 편리를 즐기고, 더 다양한 종류의 이동성에 접근한다.²⁴⁾ 이것은 이동 권리인데, 에스포지토는 ‘권리’가 언제나 누군가의 것, 즉 어떤 소유의 대상인 동시에 방식이고, 내용인 동시에 형식이라고 말한다.²⁵⁾ 원천적인 단계에서 무언가 ‘이다’가 아니라 누군가의 ‘소유’ 식으로 정립된다는 것이다. 권리는 남에게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드는 힘을 지닌 자의 것이라는 점에서 주관적이며, 따라서 권리는 주관적인 소유물의 형태를 취한다. 이러한 소유물은 이전되거나 전달되지 않으며 물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고 단지 ‘취할’ 수 있을 뿐이다.²⁶⁾

계층과 달리 식량의 패턴은 과거에 머물지 않은 것들이다. 벽에서 복무하는 첫날 아침, 카바나는 포리지^{porridge}, 즉 오트밀을 걸쭉하게 끓인 음식을 먹고, 간식 시간이 되어서는 에너지바를 먹는다. 포리지와 단백질류에 따뜻한 음료로 배를 채우는 것이 전부다. 벽에는 상존하는 추위가 있으며, 20분을 걸어난 초소는 더욱 춥다. 그의 ‘위치’는 벽이다. 몸은 다채로운 감각을 통해 다른 몸, 물건, 물리 세계와 조우하는데,²⁷⁾ 그가 먹는 음식물, 일과를 보내는 벽, 추위가 몸을 가로지르며 그의 사회적 삶을 생산하고 윤곽을 만든다. 그렇게 그가 짊어진 책임과 하루와 생각이 모두 벽과 관련된 것이며, 그의 미래가 벽에서 벌어지는 일에 달려 있다. 카바나와 주위 사람들의 인생에서 벽은 그만큼 지배적이다.

영국은 기후 위기를 악화시킨 공범임에도 불구하고, 과거로부터 스스로를 끊고, 빈곤한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차단하고,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이용하는 특권을 가진 백인 서구 사회의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면서 선택된 생존자들(영국인들)을 홍수로부터 보호한다. 이때 보호의 대상은 ‘공동’이다. 물론 영국으로 제한한 공동이다. 위험으로부터 공동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고유한 의무가 요구되는데, 주체성의

탈고유화를 통해 의무가 공동의 혜택으로 변환된다.²⁸⁾ 카바나를 비롯한 경제병들은 법적 의무에 귀속되어 있으나 그들의 권리는 제한적이고 조건적인 차원의 것이다. 젊은 세대는 남녀 모두 2년간 벽 방어의 복무 의무가 있으며, 벽을 지키기 위한 인구를 충원하기 위해 아이를 낳기로 선택한 번식자들에게는 여러 혜택이 주어진다. 세상을 파괴했기에 인구 증감을 조절할 권리는 없지만, 국가는 벽을 지키기 위해 다음 세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이 너무 끔찍하게 변한 탓에 번식을 꺼린다. 현재 생존하고 있는 인류를 전부 다 먹여 살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은 대부분 기아와 수난을 겪으며 사망과 절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아직까지는 기아와 수난을 겪고 있지 않지만,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다 겪고 있다.

여기, 지금 이미 존재하는 모든 인간을 우리가 전부 먹이고 돌볼 수는 없다; 여기, 지금 인간들 대부분은 굶주리고 익사하고 죽어가는 절박한 상태이다; 그러니 어떻게 감히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여기 이 나라에서만 큼은 기아와 익사를 겪지 않지만, 다른 모든 곳에서는 거의 다 겪고 있다; 그러니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감히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²⁹⁾

그리고 바깥으로부터 벽을 침입하였다가 검거된 타자는 안락사, 바다 추방, 도우미가 되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선택이라고 했지만, 개인의 고유한 선택은 없다. 세계는 이미 그와 같이 체계화 되어 있었으며, 이 환경은 그 사회에 소속된 누구에게나 적용된다는 점에서 공평한 것 같지만 소속 또한 소유한 자, 달리 말해, 빼앗을 수 있는 힘 있는 자로 정해져 있다. 엘리트층의 이동 권리라는 것도 말하자면 타인의 부동성을 강제하는, 이동성 통제를 기반으로 한다.

상황적 존재들에게 공동체는 가능한가?

1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벽은 공간이라고 규정하기엔 모호한 해안가 없는 바다 위로 홍수를 막기 위해 세워진 것이지만 타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아마도 영국인 이외의 기후 난민이 들어오는 것을 또한 막기 위해 세워진 것이기도 하다. 벽 위에서는 경계병들이 벽을 지키는 것 외에도 먹거나 잠을 잔다. 벽 200미터마다 서 있는 5만 병력이 수시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또 다른 5만 병력이 교대로 대기 중이니까 10만 병력이 주야로 경계 근무를 선다. 2주일은 당번, 2주일은 비번이다. 경계병 중 절반은 벽을 떠나 휴가 중이거나 훈련 중이거나 2주일 교대 근무를 위해 대기 중이다. 따라서 20만 현역을 언제나 동원할 수 있다. 지원 인력과 보조 인력에 장교와 행정병을 더하고, 해안 경비대와 공군 및 해군에 병기를 낸 병력 등을 더하면, 벽을 방어하는 병력이 30만을 넘어선다. 모두가 예외 없이 벽에 배치되는 것이다. 이것이 규칙이다. 이들의 삶은 벽 이전과 벽 이후로 나뉘며, 친구들과 공통으로 벽을 경험했음에도 복무를 마친 친구들과 복무중인 친구 사이를 가르는 어떤 기류가 있는 것 같았다. 카바나는 벽이 “모두에게 같으면 서도 모두에게 달랐다”고 말한다.

이런 벽에 적과 한편인 사람들이 있다. 적과 한편인 내부의 적인 셈이다. 내부의 적은 ‘우리’의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벽 밖의 타자들과 연대한다는 점에서 ‘우리’에 속하지만 ‘우리’의 적이다. ‘우리’의 적은 도덕이 상실되고 윤리가 결여된 짓을 하는 자들로, 연단에 오른 정치인인지 관료인지 모를 엘리트 계층의 젊은이는 그들을 ‘반역자’라 불렀다. 반역자는 벽을 넘는 데 성공한 적을 멀리 달아나도록 도와줄 방법을 연구하고 있으며, 그들과 내통하면서 공격할 장소와 시간을 알려 주고 심지어, 침을 얻도록 도와줄 방법, 벽을 넘는 데 성공하기만 하면 ‘우리’ 사회 속으로 숨어들도록 도와줄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우리 편이면서,

적의 편인 사람들로 인해 보호와 안전에 대한 욕망이 약화되는 느낌을 진단하는 『벽』은 디스토피아적 파문을 보여주는 동시에 안보를 다르게 욕망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³⁰⁾ 벽이 자연재해를 막기 위함이지 사람을 막기 위함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은 현 사회체계에 반대한다. 타자들을 ‘우리’의 이해와 상상력을 속이는 “해독 불가능한 재앙의 징후들”³¹⁾로 여기는 이유도 결국 자국민 중심주의를 고수하는 안보 체계에 있는 것이다.

대격변은 앞서 보았듯이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다. 어떤 곳에서는 쉬지 않고 지속해서 일어나고, 상당수의 더 더운 지역에서는 대격변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 지형이 변하고 있으며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격변의 영향에서 도망친 남녀는 새 삶을 꾸리기 위해, 다투어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더 높은 지대로 올라가기 위해, 자신과 가족이 안전할 수 있는 곳, 암반, 동굴, 우물, 오아시스를 찾고자 애를 쓰지만, 대격변은 끝나지 않았다. 보금자리는 쓸려갔고, 해수면은 더 높아졌고, 지표면은 뜨거워졌고, 농작물은 타 죽었고, 암반은 무너졌고, 우물은 말라 버렸다. 안전은 환상이었다. 그래서 불행한 자들은 다시 도망쳐야 한다. 초기 대격변 때처럼 도망치는 사람들의 수가 늘면서 상당한 수가, 위험할 정도의 수가 오고 있다. 따라서 지난 몇 년간 비교적 평화롭고 조용한 시간을 보냈으나 이제 그런 시절은 다 갔다. 연단에 올랐던 엘리트가 들려준 이야기다. 금발에 반짝거리는 정장을 입은 그는 “벽이 오랜 세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여러분이 받은 훈련은 세계 최고”라면서, “여러분도 세계 최고이고 이 나라도 세계 최고”이니, “우리가 이겼고, 이기고, 이길 것이다”³²⁾라고 덧붙인다. 그러나 이때의 ‘우리’ 또한 엄연히 구분되는 “흑백 논리만 있는, 규칙 아니면 무법천지였고, 벽과 타자, 항시 대기상태, 기대감, 오로지 성난 바다뿐이었다.”³³⁾

대격변은 ‘우리’ 세대가 부르는 이름이지만 카바나가 만난 도우미는 ‘쿠이쉬아_{Coo-ee-shee-a}’라는 ‘종말’을 뜻하는 스와힐리어_{Swahili}를 사용했다.

갑작스러운 죽음과 소멸 보다는 점진적인 변형과 어울리는 어휘 ‘대격 변’이 카바나의 인지와 상상력을 형성한 만큼 벽 너머의 언어 ‘쿠이쉬아’는 카바나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범주의 것이었다. 벽을 넘어왔다가 도우미가 된 그에게서 발음되는 ‘쿠이쉬아’는 그만큼 벽에 설정된 선, 구역과 일치하는 서구의 인식적, 상상적 가능성의 한계를 명시한다.³⁴ 카바나는 도우미의 삶이 어땠는지, 대격변 이전과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들이 이곳에 오기 위해 어떤 여행을 했는지, 어떻게 벽을 넘어왔는지, 타자들과 섞여 사는 것과 지금 도우미로 사는 건 어떤지 등을 연결해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카바나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은 기껏해야 불타는 듯 뜨거운 모래밭, 머리 위로 뜬 거대한 노란빛 태양, 상처를 따갑게 하는 짠 바닷물, 버림받은 약자들, 유배와 상실이라는 쓴맛, 안전에 대한 갈망, 계속 불어 닥칠 극도의 절망과 슬픔이라고 했으나 궁극적으로는 상상이 가지 않는 것이었다. 상상력의 한계는 카바나뿐이 아니다. 도우미는 오로지 ‘패배한 자’이며, 경계병에게 상상 가능한 최종 목표는 ‘엘리트’가 되는 것이다.

3부 <바다>는 바다로 추방된 후의 카바나 일행을 조명한다. 벽을 침입한 적들을 전멸시키지 못한 ‘우리’ 측의 경계병들은 구멍보트에 몇 주간의 식량과 함께 바다 한 가운데로 버려졌다. 카바나는 다른 사람들 처럼 원래부터 벽의 규칙을 알고 있었다. ‘타자가 벽을 넘어오면 나는 바다로 추방된다.’ 그러나 자신이 그 경험의 중심에 서자 그것의 부당함에 구역질이 났다. 추방된 동료들과 자신은 잘못된 게 하나도 없었으며, 오히려 방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친구들이 죽는 걸 지켜봤으며, 그 대가가 바다로의 추방이었다. 추방되는 과정은 절망으로 채워진다. 추방이 결정되면 한 사람씩 병원에서 전신 마취를 하고 칩 제거 수술을 받는다. 생체 인식 ID 칩이 없으면 이 나라에서 살 수 없다.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다. 공황 상태, 탈출하고 싶은 욕구, 불가능한 탈출, 어떻게든 탈출하고 싶는데 절대 불가능한 탈출, 바로 이 순간 여기서

끔찍하게 죽게 될 거라는 공포가 카바나를 감쌌다. 수면에서 겨우 몇 센티미터 높이의 작은 고무보트에 서게 되자 바다는 10미터 높이의 철제 갑판에 있을 때와는 너무나 달랐다. 육지를 찾아 노를 저었으나 바람이 불어와 파도에 부딪히는가 하면, 히파는 이를 동안 뱃멀미에 시달렸다.

구명보트에는 벽을 넘어온 적을 막아내지 못한 카바나 일행뿐만 아니라 연단에서 연설을 했던 엘리트 계층의 초짜 정치인 제임스^{James}, 벽에 복무하던 경계병들을 배신한 대위가 있었다. 적 열여섯 명이 벽을 넘어 도망쳐서 병사 열여섯 명이 바다로 추방당했다. 카바나는 대위가 ‘타자’를 돕는 조력자 간 네트워크에 속했다는 걸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벌받은 것이었다. 대위 또한 과거에 벽을 침입한 ‘타자’였다. 그런데 바다로 함께 추방된 후 그가 한 말은 의미심장하다. “너희 나라 사람 중 일부는 벽 방어에 찬성하지 않는다”면서 벽은 바닷물을 막기 위한 것이지 인간을 막기 위한 게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들 중 일부는 사람을 “도우미로 쓰는 것에도 찬성하지 않는다”며, 그 이유는 “노예제로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도우미는 합법적인 사회 제도 속에 자리하고 있지만 일부 권력층의 합의에서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강제적이다.

카바나 일행이 발견한 육지는 대격변 이후 세계 모든 해안가처럼 수면에서 수직으로 높이 솟아 있어 상륙할 곳이 없었다. 자칫 너무 가까이 접근하면 풍랑에 밀려 경사면에 부딪힐 게 뻔한 난파되기 좋은 섬이었다. 이곳은 과거 해변이 있었고, 완만한 둔덕이 있었고, 아마 물가엔 집도 몇 채 있었을 것이다. 발밑의 저 해저는 맨땅이었을 것이지만 지금은 모두 물속에 잠겼다. 그러나 무풍지대의 고요하고 조용한 데가 있었으며, 그곳에 여러 척의 배들이 조용하게 떠 있었다. 항해용 보트 여덟 척과 물에 뜨는 뗏목 두 대를 엮어 만든 떠있는 공동체^{floating community}가 존재했던 것이다. 열여섯 명이 이룬 공동체는 계획된 게 아니라 사고와 우연의 연속에 의해 형성되었다. 카바나는 생각한다.

나는 타자들의 출신과 정체에 대해 무관심한 사회에서 나고 자랐다. 그 모든 걸 무시하도록 길들었다. 타자는 그저 타자일 뿐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타자가 되었으니 이들은 더 이상 타자가 아닌 것 아닌가? 내가 타자이고 이들도 타자라면 우리는 타자가 아니라 그냥 새로 ‘우리_{Us}’가 되는 거다. 혼란스럽다.³⁵⁾

벽 밖의 얼굴 없는 타자들은 카바나가 합류하여 그들과 새로운 ‘우리’가 되었을 때 비로소 얼굴을 가지며, 몸으로, 목소리로 부각된다. 타자들, 그리고 ‘그 밖의 타자들’로 이루어진 떠있는 공동체에는 아주 먼 지역의 억양에 비영어권 언어의 리듬이 섞인 여자가 있는가 하면, 민족이 다른 어린 소녀 셋이 있었으며 언어도 영어가 아니었다. 그들은 카바나 일행을 받아들이는 투표에서 모두 찬성하면서 그들 무리에서 카바나 일행과 ‘우리’가 되었다. 그들은, 아니 ‘우리’는 상륙하진 못했으나 평온한 가운데에 안전했다. 이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살만한 삶이었다. 물론 이 공동체는 와해될 수 있다. 그러나 관점을 달리하면,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공동체야말로 해수면 상승과 기후 변화로 인해 살 곳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레푸기아^{Refúgia}³⁶⁾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있다. 애초에 벽은 ‘안전’과 ‘보호’를 모토로 외부의 침략을 막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었지만 불가능하다는 사실, 떠있는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외부의 타자가 침략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종류의 것이며, 따라서 벽은 언제든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실패를 경계병들의 과오로 돌리고 그들을 추방하기만 하면, 벽은 다시금 온전한 ‘안전’과 ‘보호’의 온상이 된다는 식이다. 벽은 물리적이지만 규제, 법률, 사법 체계, 관료 체제 전부이기도 하다. 추방 시스템에 의한 벽 방어가 결함 있는 시스템이라는 생각을 엘리트들은 하지 않는 것이다.

떠있는 공동체는 말 그대로 물 위에 떠 있지만 개인들 간에 기능적인

차원의 분리를 통한 질서를 유지한다. 업무는 각자에게 할 만한 일들이 맡겨진다. 그것은 강요에 의하지 않고 제안→수락의 과정을 거친다. 카바나는 잠수해서 해초며, 조개류를 채취했다. 이곳도 폭풍을 피하지는 못한다. 비바람이 사선으로 불어 시야가 막혔고 폭풍우는 45도 각도로 따갑게 쏟아졌으며 파도는 밑에서 연속적으로 뗏목을 때렸다. 카바나 생각에는 공동체가 폭풍우를 버티지 못하고 산산조각이 날 것 같았다. 그러나 재난 수준으로 가지는 않고, 결국 폭풍은 지나갔다. 그들이 정박해 있는 섬이 폭풍의 기세를 약화시킨 것 같았다. 카바나는 공동체가 계속 살아갈 것이라는 생각에 이른다. 과거에 자연을 저 너머의 것에 놓고 경계 지었던 것과 달리, 트러블과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함께-되기_{becoming-with}’가 펼쳐진 것이다.

그렇게 안심하는 순간, 폭풍이 사라진 방향에서 해적선이 침입해왔으며, 카바나 일행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던 떠있는 공동체는 자연재해가 아닌, 같은 인간에 의해 마침내 와해된다. 그들 모두 죽거나 흩어졌으며, 카바나와 히파는 다시금 망망대해에 떠 있었다. 8일째 되는 날, 그들이 마침내 닿은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결함 자체의 벽보다 훨씬 폐쇄적인 석유 플랫폼이다. 그 폐쇄성은 외부인에게는 닫힌 것이지만 내부인에게는 안전과 보호의 새로운 대안적 성격을 내비친다. 그동안 어떤 누구에게도 문을 열지 않았던 은둔자가 마침내 카바나와 히파에게 사다리를 내려 내부로 들인다는 설정은 카바나와 히파에게는 행운이자 특권이며, 은둔자에게는 혼자서는 생존할 수도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각성이라는 점에서 인정할만하다.

그러나 누구든지 올 수 있는 다수의 떠있는 공동체가 아닌, 제한적으로 선택 받은 소수에게만 열린, 그리고 다시 닫힌 석유 플랫폼은 다른 아닌 “분리주의 유토피아”³⁷⁾의 모델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 석유 또는 가스 시설이었던 최후의 정착지는 유일하게 카바나와 히파의 안전을 보장함에도, 이러한 설정은 상상력의 한계로 보인다.

벽이 콘크리트였다면, 해저에 매장된 석유를 채취하는 데 사용되는 석유 플랫폼은 아연, 크롬, 니켈 금속을 도금한 강철로, 벽의 물질성처럼 밀도가 높아 침투가 어렵다. 또한 이 속에서 발견한 석유램프는 카바나와 히파를 또 하나의 특권층으로 만든다. 벽에서 엘리트층은 고에너지 화석연료를 통해 항공 여행이 가능한 특권층으로 등장한다. 그들은 카바나가 동경하는 대상이었던 바, 카바나 또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석유에 접근 가능해지자 감격한다.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살아있는 세계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적게 끼칠 지속 가능한 이동성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해도, 일상의 풍경으로 자리 잡은 불균등 이동은 불평등한 이동 체제와 생활 패턴을 바꾸기 어렵게 만든다. 그것이 부모 세대가 저지른 죄다. 이렇게 부모로부터 ‘우리’로 갈라져 나온 카바나지만 벽의 체제에 도전하기보다 제3의 장소, 즉 운 좋게 은신처를 제공받고 안전을 보장받았다고 믿으며 안도하는 데 이른다. 대격변을 일으킨 주범이라고 부모 세대를 비난하던 그조차 여전히 진행 중인, 따라서 끝나도 끝난 게 아닌 대격변을 목도할 뿐 에너지 사용의 기회를 마다하지 않는다. 이로써 ‘우리’의 상상력은 부모 세대를 부정하는 것에 그칠 뿐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며, 그것은 소설의 한계이자 ‘우리’의 한계이다.

상상력의 위기와 개방의 역량

오늘날 환경이라 부르는 것은 그리스적 사고와 심지어 중세적 사고에 서처럼 우주가 포함하고 있는 모든 것에 적합한 위치와 경계를 가리키는 가시적인 살아있는 우주는 아니지만 ‘둘러싸는 몸^{soma} perihon’으로 간주되었다.³⁸⁾ 큰 몸이 작은 몸을 포함하고 유지하였으며, 경계란 가능성을 배제하거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부여하고 지지하며

보호하는 장치로 간주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환경(Umwelt³⁹)이라는 용어가 발명되었던 19세기에 시작되어 오늘날에야 비로소 정점에 이른 이론적 전회(theoretical turn)에 의해 뒤집혔는데, system, 즉 체계가 체계 고유의 환경을 정하고, 체계 자체가 분화하면서 무엇이 되었든 환경 경계 저편에 있는 것으로 구성해낸 것이다.⁴⁰ 환경은 그렇게 경계 저편에서 타자가 되었으며, 인간은 비인간(동물, 식물, 사물)의 활기에 대해서는 몰랐거나 잊기 시작했다. 그런 점에서 “유럽 제국주의 열강이 지배하던 나라들에서 대대적인 탈식민화가 진행된 시기”⁴¹의 인간 활동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비인간의 활기 또한 부각시키는 ‘대가속(Great Acceleration, ‘거대한 가속’이라고도 불린다)’의 개념은 중요하다.


환경 문제는, 니클라스 루만(Niklas Luhmann)의 주장에 따르면, 단지 정치적 또는 경제적 과오나 불충분한 윤리적 책임감에만 관련되어 있지 않고, 사회체계와도 연관된다.⁴² 법체계는 환경 입법을 발전시켰고, 정치체계는 생태학적 개혁을 위한 정치적 플랫폼을 출현시켰다. 경제체계는 생태학적 비용을 가격의 언어로 번역하고 소비자들이 녹색 제품에 대해 지불하는 방법을 따랐다. 교육체계는 생태학적 문제를 커리큘럼에 통합한 반면, 학문은 생태학적으로 지향하는 하위 학문(그중에서도 후발자로 환경 문학 연구)을 생산했다.⁴³ 이러한 변화는 종종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지만, 전성기 환경 운동이 조장하고자 했던 생태학적 혁명처럼 멀리 떨어진 곳까지는 어떤 반향도 낳지 못했다는 비판⁴⁴을 받았다. 그러나 기후 위기가 문제임을 드러내고 문제성으로 사회가 속속 받아들이는 이유는 오늘날의 사회가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그 사회의 환경 자체가 유발한 결과들로부터 다시 영향을 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이다.⁴⁵ 이에 따라 환경 문제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절실해졌으며, 사회가 해수면의 상승과 기후 변화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 다시 말해 사회체계가 어떻게 환경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인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고시는 기후 변화를 주제로 하는 출판물이 논픽션과 관련되거나 소설로 다루어지는 경우 공상과학이라는 장르로 치부된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기후 위기는 문화의 위기이고, 따라서 상상력의 위기라는 것이다.⁴⁶⁾ 추방당한 카바나와 히파의 경우처럼 석유 플랫폼에서 ‘그들’만의 은신처를 찾는 것은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상상력의 위기는 곧바로 현실에서 나타난다. 『벽』에서 홍수를 막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동원하여 기후 난민들로부터의 침입을 막는 목적을 갖는 벽은 미국 뉴욕의 맨해튼 해안 지역에 세운 5미터 높이, 4킬로미터 길이의 방벽과 유사하다. 2012년 허리케인 샌디가 뉴욕을 강타하고 나서 뉴욕시는 이스트 25번가에서 몽고메리 스트리트에 이르는 맨해튼의 이스트 사이드에서 해안 폭풍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홍수 위험을 줄일 것을 목표로 ‘동부 해안 복원력^{East Side Coastal Resiliency, ESCR}’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방벽은 홍수는 막고 사람은 막지 않는 방파제를 쌓는다는 것, 그리고 방벽 소재가 생태 친화적 콘크리트임을 널리 알렸다. 또한 ESCR 프로젝트에 포함된 이스트 리버 파크^{East River Park}에 대해 높이를 2.4미터 가량 올리고, 식물은 바다의 염수와 강수량 증가, 강풍 등에 견딜 수 있는 종으로 대체하여 심겠다고 발표했다.⁴⁷⁾

그러나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에서 1,000여 그루의 나무를 베고 수십 년 동안 그곳에 있었던 공원을 메우는 것이 포함됐다. 별목과 공원 매립, 기존 야생동물의 보존과 재배치의 환경적 영향은 철저하게 평가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⁴⁸⁾ 2013년 방벽 건설 발표 시점에 해안 지역은 인공제방을 쌓는 것보다 사구, 산호초, 해안 식생을 가꾸는 것이 비용 면에서도 훨씬 경제적이라는 것이 알려졌다. 자연 자원을 이용함으로써 별도의 비용을 절감하는 개념을 ‘자연자본^{Natural Capital}’이라 하는데, 자연재해 이후 인간의 방어 선택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⁴⁹⁾ 즉 ‘세계에 대한 감각’이 요청되는데, 믹 스미스 Mick Smith에 의하면, 세계에 대한 감각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반응

능력에 개방되게 하고, 이것은 윤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⁵⁰⁾ 생태적 상상력이 개발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인데, 비인간과 “함께-되기”, 그리고 비인간의 “의미 만들기^{meaning-making}”와 “세계 짓기^{worlding}”⁵¹⁾의 역량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인류세^{Anthropocene}, 즉 대규모 태풍, 산성화된 바다,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와 같은 인간 이상의(그러나 인간을 포함한) 집합체와 불안하고 무정형의 함께-되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⁵²⁾

『벽』의 결말에서 카바나와 히파가 도착한 석유 플랫폼 대신 결코 닿을 수 없는 섬 주변에서만 가능할 수 있는 ‘떠있는 공동체’는 영구적인 영토 정착, 민족국가 공동체를 지향하지 않는 선에서 가장 (불)가능한 대안으로 상상해볼 수 있다. 영토로 직결되는 소속 또는 소유와는 동떨어진, 섬 주변에만 임시 정착할 수 있는 ‘떠있는 공동체’는 각자가 주체로서 감지하는 감성적인 공통의 소속 의식을 지니며, 동시에 모든 생명체의 반응에 열려있다. 에스포지토는 『코무니타스: 공동체의 기원과 운명^{Communitas. Origine e destino della comunità, 1998}』의 서문에서 행위를 뒷받침하는 자세의 기반이 공동체의 구성원들 각자가 주체로서 감지하는 - 감성적이거나 전통적인 ‘공통의 소속 의식’이라면, 사회관계의 일면은 ‘공동체화’로 정의되어야 한다는 막스 베버^{Max Weber}의 공동체 개념을 언급한다. 소속 혹은 소유란 무엇보다 영토와 직결되는 것으로, 영토를 규정하는 것은 ‘점유’의 범주이고 이것이 결국에는 모든 ‘소유’의 모체가 된다는 것인데,⁵³⁾ 인간에게는 발 디딜 땅이 필요하며, 절대적인 정서적 안정을 준다는 점에서 집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해도 -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대안이다 - 이는 여전히 인간중심적인 주장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공동체를 뜻하는 라틴어 코무니타스^{communitas}의 어원은 고유의 특성이나 소유물이 아니라 어떤 의무사항이나 빛을 공통의 요소로 지녔기 때문에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를 가리키며, 무언가 ‘더’ 있어서가 아니라 ‘덜’ 있어서, 혹은 어떤 결핍이 계기가 되어

모인 것이다.⁵⁴⁾ 결합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공동체를 위해 ‘선사(膳賜)’, 즉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특징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25장으로 구성된 『벽』에서 20, 21장에만 출현하는 ‘떠있는 공동체’야말로 결합 있는 인간들의 공동체의 대표성을 띤다. 나아가 인간이 일방적으로 지구와 관계 맺은 결과가 『벽』과 유사한 방식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바, 인간은 지구의 생태적 공동체라는 사실을 결코 끊어낼 수 없으며, 따라서 생태 공동체를 위한 책무가 있다. 

〈원문출처〉

이 글은 2023년 『영어권문화연구』 제 16권 1호에 실린 「존 란체스터의 『벽』에 나타난 대격변 시대의 사회체계와 상황적 존재들」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저자소개〉

최 은 주 (건국대학교)

건국대 학술연구교수로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과 교육부의 지원으로 강제이동인구의 거처에 대한 언어·공간·건축 연구(2017~2020)를 했으며, 「경계 횡단의 언어와 환대 (불)가능한 장소」(2018) 등의 논문이 있다. 현재 한국연구재단과 교육부의 지원으로 세계 강제이동인구의 이동권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관련 논문으로 「비인간의 난민화와 레푸기아(Refúgĩa)-나딘 고디머의 『최고의 사파리』와 크루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2022), 「난민·이주 쟁점에서 어휘전이 현상 연구에 대한 고찰」(2024) 등이 있다.



엔젤섬이민국의 가려진 이야기: ‘깨어진 꿈’

황 혜 성
한성대학교

이벽에는 수만 개의 시가 새겨져 있네
모두 불만과 슬픔의 울부짖음이네.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 성공하는 날,
나는 지금 이 때를 꼭 기억하리라.
- 상한에서 온 한 중국인 -

타이러스 왕 이야기

타이러스 왕Tyrus Wong은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에서 제작 한 밤비Bambi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해진 아티스트이다. 하지만 디즈니사에서 일하기 전에 그의 이름은 왕정여Wong Geng Yeo였다. 왕이 1919년 아버지와 함께 더 나은 삶을 찾아 금산Gold Mountain이라 부르는 미지의 장소, 즉 미국으로 향하는 <차이나SS. China>호 증기선에 승선했을 때 그는 9살이었다. 그의 손에는 항해 내내 종이가 가득 쥐어져 있었고, 밤마다 그 종이에 적힌 내용을 그야 말로 한자도 틀리지 않도록 모두 암기해야 했다. 그는 ‘서류상의 아들paper son’이었다. 다시 말해서 왕의 아버지는 룽깃Look Git이라는 상인으로, 그리고 왕은 그의 아들 룽타이여Look Tai Yow로 신분을

위조하였다. 왕은 매일 밤마다 동네 사람들 성씨는 무엇인가? 동네의 연장자는 누구인가? 옆 동네까지 거리는 얼마나 되는가? 등의 잡다하고 까다로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외웠다. 아버지는 이민국 사람들도 같은 질문을 할 터인데 만약 똑같이 대답하지 못하면 중국으로 돌려보내지고 다시는 금산에 갈수 없다고 말했다.1)

3주 정도의 항해 끝에 마침내 그들은 엔젤섬에 도착했고 이민국으로 향했다. 예전에 미국에 거주했었던 아버지는 별 문제 없이 입국이 허용되었지만 왕은 엔젤섬이민국 막사에 억류되었다. 수주일 동안 불안과 외로움에 떨며 막사에서 지내던 그는 마침내 세 사람이 앉아있는 사무실로 불려갔고, 퍼붓는 질문을 받았다. “너의 집에 창문이 몇 개인가? 너희 동네는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가? 어느 학교에 다녔는가? 등등. 소년은 매우 불안하고 떨렸지만 아버지가 미리 준비시킨 답들을 기억했다. 마침내 그는 엔젤섬에서 풀려나 아버지와 상봉할 수 있었다. 서류상의 이름이었던 록타이어는 새크라멘토에 있는 학교에 다니면서 자신의 진짜 이름과 서류상의 이름을 조합해서 타이러스 왕Tyrus Wong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다. 왕과 그의 아버지의 이야기는 1910년부터 1940년 사이에 엔젤섬이민국을 경유한 175,000명에 달하는 중국인들의 이야기이다. 그들 중 80%~90%는 신분을 위장한 ‘서류상의 아들과 딸들paper sons and daughters’이었다.2)

타이러스 왕을 비롯하여 수많은 중국인들이 위조한 서류를 지니고 입국한 데에는 1882년 연방정부가 제정한 중국인배척법Chinese Exclusion Act에 의해 중국인 노동자들의 미국 입국이 중지되었기 때문이었다. 이 법에 의하면 교사, 학생, 상인, 외교관등 엘리트 계층의 중국인만 입국할 수 있었고, 이들 면책 계층은 자신을 증명하는 문서를 소유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법은 허점이 있었다. 즉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중국인의 혈족은 어디서 태어나든 미국 시민권 자격이 부여되고, 서류만 갖추면 입국이 허용되었다. 따라서 수많은 중국인들은 암시장에서 위조된

서류를 구입하고, 친척 중에 미국 시민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가짜 서류를 들고 가짜 이름으로 미국에 입국하였다.³⁾ 여기에 1906년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으로 시청이 불타면서 모든 출생기록이 소실되자 이미 미국에 있던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이라고 주장했다. 시민권을 지닌 중국인들은 중국으로 되돌아가 자신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다고 보고하고 서류를 발급 받기도 했다. 이 서류는 자신의 아들이 사용하기도 했지만 친구들 이웃, 모르는 사람에게 팔기도 했고, 급기야는 이 서류를 사고파는 중간상인까지 등장했다.⁴⁾

중국인배척법 시행 후 처음에는 샌프란시스코 선착장에 마련한 막사에서 이민수속 절차를 시행했다. 하지만 세관행정도 느슨했고, 아직 입국심사에 대한 지침서도 없었으며, 국경감시도 정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인 입국여부는 샌프란시스코 세관원들의 재량에 맡겨졌다. 그러나 1906년 화재 이후 점차 “서류상의 자식들”이 증가하자 세관원들은 서류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철저하게 탐문하기 시작했고, 1910년경에 이르면 이런 관행이 고착되었다. 따라서 입국 신청자는 가계와 족보는 물론 고향마을 위치, 집 등에 관한 아주 상세한 것까지 대답해야 했다. 심지어는 미국에 거주하는 다른 가족을 불러 대질 교차확인도 했는데, 조금이라도 의심 되면 신청자는 물론 불려온 다른 가족까지 추방당했다. 입국이 허가된 이후에도 언제 다시 추방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이 상세한 질문들을 평생 기억해야만 했다.

엔젤섬이민국은 중국인배척법을 구현하고 서류를 위조한 입국자들을 가려내기 위한 장소였다. 1904년 25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하여 엔젤섬에 이민국을 세울 계획을 세웠고, 엔젤섬 북쪽에 20에이커의 부지를 마련하여 1905년부터 건설을 시작했다. 설계는 월터 매투스(Walter J. Mathews)가 맡았으며 임시수용막사, 감시타워, 행정실, 병원, 동력실, 중국 만(Chines Cove)으로 불린 자그마한 선착장으로 구성했다.⁵⁾

엔젤섬이민국은 1910년 1월 21일부터 1940년 11월 5일까지 운영

되었다. 이 시기에 약 80여 개국으로부터 수십 만 명의 이민자가 입국 허가를 받기 전 이곳 엔젤섬 목조건물에 머물며 취조에 가까운 조사를 받았고, 건강 상태를 검진 받았다. 이민국 행정실 기록이 1940년 화재로 인해 대부분 소실되어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없지만 100만 명 이상이 샌프란시스코 항구를 거쳐 갔고, 그 중 30만 명 정도가 엔젤섬이민국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대부분 중국인이었고, 일본, 동남아, 멕시코, 필리핀 이민자도 있었다. 이외에도 러시아, 포르투갈, 헝가리,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를 비롯해 중남미 이민자들도 있었다.6)

엔젤섬이민국은 1940년 11월에 화재로 행정사무실이 불탄 후 문을 닫았고,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는 일본 전쟁포로를 수감하는 장소로 그리고 일본계 미국인을 수용하는 장소로 사용 되었다가 전쟁이 끝난 후 그대로 방치되었다. 1970년, 엔젤섬에 피크닉 오는 지역주민이 늘어나자 캘리포니아 휴양관리부는 위험하고 보기 흉한 옛 이민국 건물들을 허무는 중에 공원관리자 알렉산더 와이스(Alexander Weiss)가 막사 벽에 새겨진 서체(書體)들을 우연히 발견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교 조지 아라키(George Araki) 교수에게 연락하였고, 아라키 교수는 사진작가 마크 타카하시(Mrj Takahashi)를 대동하고 건물 안 여기저기에 남겨진 시들을 기록했다.7)

막사 벽의 서체들은 뒀이 겪었던 것처럼 중국인 이민자들이 입국허가를 신청하고 심사가 끝날 때까지 억류되어 있으면서 벽에 새긴 시들이다.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수개월, 더 길게는 2년에 가까운 기간을 여기에 억류되어 있었던 중국인들은 당시 그들이 느꼈던 희망과 절망, 후회, 슬픔, 좌절, 분노, 미래에 대한 불안 등 다양한 내용의 시를 막사 벽에 새겨 넣었다. 상한(xiangshan)에서 온 한 중국인의 기록에 따르면 벽에 새겨진 시들이 수 만개에 이른다고 하였다.8) 그가 기억하는 것처럼 정말 수 만개의 시가 새겨졌었는지는 확인 할 방법이 없지만 현재 보존

되어 기록되어 있는 시들은 200여 편으로 대부분은 날자나 서명, 이름이 없다. 1940년 화재로 인해 목조건물이었던 이민국 막사 벽 시들은 대부분이 소실된 상태였는데, 남은 시들은 하얀 벽에 음영으로 새겨진 모습으로 전해지고 있다.

고스란히 사라질 뻔 했던 시들이 우연하게 발견되자 이는 아시아계 미국인 지역사회에 알려졌고, 샌프란시스코 만에 거주하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엔젤섬이민국역사자문위원회(AIISHAC: Angel Island Immigration Station Historical Advisory Committee)>를 창설하고 이민국을 보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결국 1976년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제리 브라운이 막사를 재건하고 중국인 시를 보존하는 법령을 제정했고, 부지를 보존하기 위해 25만 달러가 책정되었다. 1983년부터 엔젤섬의 막사가 일반인에게 공개되었고, <엔젤섬이민국재단(AIISF: Angel Island Immigration Station Foundation)>이 건립되었다. 이 재단은 비영리 단체로 이민국의 역사를 복원하는데 앞장섰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1997년에는 엔젤섬이민국이 국가사적지로 지정되었고, 1999년에는 정부가 앞장서서 중국이주자들의 시를 보존하기 위해 50만 달러를 조성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엔젤섬이민국을 재건하기 위해서 1500만 달러를 비축했다. 이후 2004년부터 문을 닫고 2009년 다시 오픈할 때까지 지붕을 다시 고치고, 엘리베이터와 휠체어 통로를 만들고, 전시관을 만드는 등 대대적인 리노베이션을 진행했다. 그리고 2022년 2월에 막사 바로 건너편에 위치한 병원을 복구하여 새로운 이민박물관이 개관되었다. 현재 이민국박물관은 캘리포니아 주⁹⁾와 캘리포니아역사관리부에서 관장한다.)

결국 와이스가 아니었다면 이민국이 문을 닫으면서 영원히 문 뒤에 묻히고 잊혀 질 뻔 했던 ‘그들의 이야기’가 엔젤섬 목조건물 벽에서 우연히 발견된 것이다. 그들이 남긴 시는 미국 이민역사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어두운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이제 벽에 시를 새겨 넣었던 사람들은 거의 다 사라졌지만 현재 남아 있는 200여 편의 시는

큰 이야기에 가려져서 간과되어 온 개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준다. 벽이 우리에게 말을 건넨 것이다.

세계의 폄박받는 사람들의 피난처라는 미국에서 중국인들이 가장 먼저 배척당한 이유에 대한 연구는 이미 상당히 축적되었다. 하지만 대부분 19세기 후반기에 관한 연구로 중국계미국인 커뮤니티와 역사연구, 중국인 배척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사회사적 배경연구, 법 제정과 제정이 후 보완, 강화 되는 과정에 관한 연구를 비롯하여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중국인 이민정책이 변화되는 과정을 연구한 논문이 주를 이룬다. 그런데 아주 근자^{近者}에 2세대·3세대 중국계 미국인들은 엔젤섬이 민국 막사 벽에 남겨진 시를 비롯하여 자신들의 선조의 회고록이나 인터뷰 등을 통해서 기존 연구에서 털 다루어진 ‘그들의 이야기’를 역사의 한 부분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그들은 부모의 이야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고, 학문적으로 연구하기도 하고, 역사소설로 또는 어린이 동화책 형태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전하고자 노력한다.¹⁰⁾ 우리나라 미국사학계에서도 중국인 이민에 대한 연구가 상당 수준 이루어 졌지만 주로 정책차원에 집중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¹¹⁾

따라서 본 연구는 엔젤섬에 억류되었던 중국인이 남긴 기록과 그들이 벽에 남긴 시, 엔젤섬이민국과 관련된 사람들(통역사, 조사관, 이민국장 등)의 인터뷰 및 회고록, 당대의 저널과 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엔젤섬에서 중국인이 겪었던 ‘그들의 이야기’를 재구성하고, 기존 미국 이민사에서 엔젤섬이 지니는 역사적 의미를 재고한다. 따라서 이 글은 자료를 분석하여 새로운 결론을 이끌어 내기보다는 지금까지 가려져있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19세기 말, 20세기 초 비정상적인 인종적 편견에 대면한 중국이민자들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반응하였는가를 이해하고자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연구가 지니는 현재적 함의를 찾는다.

환대받지 못한 중국인들: '중국인들은 모두 쫓아내야 해!'

19세기 후반기에 타이러스 윙처럼 '금산'으로 향하는 중국인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기회를 찾아, 그리고 보다 나은 삶을 찾아서 미국으로 향했다. 오고픈 사람은 누구나 올 수 있는 나라였던 미국은 비록 주_州차원에서 가톨릭 교인이나 퀘이커도의 이민을 금하거나 자유흑인의 이동을 규제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열린 나라'였다. 그러나 모순되게도 엘리스섬에 자유의 여신상이 세워진 19세기 후반기에 이민을 배척하는 토착주의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특히 "바람직하지 않은" 중국인에 대한 적대감은 불길처럼 번졌다. 당시 대중잡지나 신문에는 중국인들을 "열등한 저질 인종"으로 묘사하고, 심지어 "취새끼들" "짐승들" "돼지"라는 표현도 등장한다. 중국인에 대해 '본질적인 차이'를 내세우며 그들의 이주를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나 카툰도 실렸다. 백인들에게 중국인은 미국을 오염시키는 위험한 존재들이었다.¹²⁾

1880년에 출간된 캘리포니아 작가 피어턴 두너 Pierton W. Dooner의 소설 『공화국의 최후 *Last Days of the Republic*』는 19세기 말 서부에 널리 퍼져있던 중국인혐오를 그대로 반영했다. 두너는 서부해안에 도착한 중국인 이민자들의 역사를 소설화하여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상기시켰다. 그의 소설에 따르면 중국인들은 매너, 옷차림, 생활습관, 종교 등에 있어서 백인과 다르며, 동화하거나 사회적으로 교류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의도적이기도 하다. 중국인 이주자들의 현존은 계획된 침략의 전조이며, 캘리포니아의 백인 노동자들이 이런 계획을 처음으로 예견하고 중국인들을 쫓아내야 한다 Chinese must go!고 선포한다. 두너는 만약 중국인의 수가 늘어나서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선출 할 경우 '외국인 지도자 alien crown' 통치 하에 "국가로서 국민으로서의 미국이라는

이름은 기록에서 지워질 것이다.”라고 경고했다.¹³⁾

피어턴 두너가 대변한 중국인 혐오와 비하, 그리고 우려는 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더욱 증폭되었다. 19세기 후반기에 빠른 산업화와 기업화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경제적 시민권’ 개념이 등장했다. 이제 과거 이상적 시민이었던 자영농은 급증한 임금노동자들과 그리고 싼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더 이상 경쟁할 수 없게 되었다. 이 같은 새로운 경제적 현실에서 백인 임금노동자들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시민으로 등장했다. 그렇다면 중국인 노동자는 누구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었고, 중국인 노동자의 위치는 아직 불분명 했다. 여기에 1870년 이후 반복된 경기 침체, 점차 커지는 임금의 격차로 경제가 어려워지자 백인 노동자들은 이를 중국인 노동자 탓으로 돌렸다. 백인 노동자들은 중국인 노동자를 “기계^{machine-like}”로 비유하며 그들이 저임금으로 일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임금경쟁에서 밀려나 일자리를 빼앗긴다고 설파했다.¹⁴⁾

1882년 노동자 신문 『와스프』*The Wasp*에 조지 켈러^{George Frederick Keller}가 그린 삽화 <우리 청년들은 어떡해?^{What Shall We Do With Our Boys?}>를 살펴보면 가운데 중국인은 10여개의 팔을 가진 원숭이로 묘사된다. 그는 여러 개의 팔로 다양한 일들을 한꺼번에 처리하고, 그 수익은 중국으로 보낸다. 옆에 밀려나 있는 백인 젊은이들은 할 일 없이 서성거리고 있다. 이 삽화는 당시 중국인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대다수 백인들의 시각을 그대로 투영했다.¹⁵⁾

따라서 국가의 공익과 미국노동자들을 위해 중국인 이민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지녔고 정치인들의 행동으로 이어졌다. 당시 카메론 킹^{Cameron King} 샌프란시스코 하원의원은 중국인은 “더럽고, 부도덕하고, 무식하고, 타락하고, 범죄적인 성향이 있다”고 묘사하며, “중국과의 교역을 위해서 서부해안이 중국에 의해 장악되도록 놔두는 일은 근시안적이고 이기적인 정책이다,” 중국인들은 “우리의 자유로운 제도에 지속적으로 해악이 되며 우리의 공화정 정부에 영속적으로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킹 역시 두너와 마찬가지로 중국인들이 국가에 위협이 된다고 믿었다. 1879년 99%의 캘리포니아 주민이 중국인의 이민을 반대하였고, 이는 백인들이 오직 배척만이 ‘외국인^{alien}’의 해악을 막을 수 있다고 결론 내렸음을 의미했다.¹⁶⁾ 그러자 주·지역 단위에서 중국인들을 표적으로 하는 법령이 통과되었고, 이는 국가적인 주목을 끌었다. 그리하여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적이나 인종에 기반하여 이민을 제한하는 법이 만들어졌다. 바로 1882년에 제정된 중국인배척법이다.¹⁷⁾

그리고 중국인배척법을 시행, 보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민국의 기능과 이민국 직원의 역할 또한 한층 강화되었고, 중국인의 입국과정과 절차는 더욱 까다로워졌다. 1907년~1921년 이민부정보부장^{Immigration Bureau's Division of Information}으로 일했던 테렌스 파워드리^{Terence V. Powderly}는 중국이민자 면책계급을 더 축소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중국인 쿨리’를 반대하는 이유는 종교나 인종 때문만이 아니라...그들이 우리와 동화되지 않으며, 옷차림도 이상하고, 우리 관습, 언어, 종교 또는 감성을 따르려하지 않기 때문이며...미국과 중국문명은 양립할 수 없다. 같은 땅에서 산다면 함께 번성 할 수 없고, 어느 한쪽이 망하고야 만다.”고 중국인이민 배척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견해와 같은 사람을 이민국 조사관으로 임명하였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입국을 거절하라”고 지시했다.¹⁸⁾

엔젤섬이민국은 설계 당시 ‘서부의 엘리스섬’으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이민국”이 샌프란시스코 만에 위치한 엔젤섬에 세워진다고 선전되었지만 뉴욕의 엘리스섬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¹⁹⁾ 엘리스섬은 유럽이민을 환대하고 미국의 이민유산을 축하하려는 목적으로 지어졌다. 따라서 대부분의 유럽 이민자들은 대충 시행하는 신체검사와 짧은 인터뷰를 했고, 단지 몇 시간 정도만 엘리스섬에 머물렀다.²⁰⁾ 반면에 엔젤섬이민국은 처음부터 중국인 이민을 배척하고, 이미 미국에 와있는 중국인을 모니터링하고, 위험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중국인을

추방하는 ‘파수꾼^{gatekeeping}’ 역할을 수행했다. 더욱이 근처의 알카트라즈 섬의 감옥소처럼 엔젤섬에서는 도망치기가 어려워 통제하기 쉬웠고, 질병의 확산을 막는데 적합하다고 여겨졌다.²¹⁾

엔젤섬은 “가장 훌륭한 이민국”이라는 묘사와는 정 반대로 신선한 물 공급이 어려웠고, 건물은 조잡했고, 위생 상태는 엉망이었다. 이민국 관리들 표현을 빌리면 이민국 목조건물은 “정말로 불타기 쉬운 허접한 건물^{virtual tinderboxes}”이었다.²²⁾ 이곳에서 수십만 명의 중국인들은 입국이나 추방이냐를 가르는 결정을 기다리며 갇혀있어야 했다. 엔젤섬을 통해 미국에 들어 온 중국인들은 마치 수용소 같은 그곳에서의 경험을 결코 잊을 수 없었고,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 온 그들에게 그 장소는 ‘깨어진 꿈’을 상징했다.

엔젤섬에서의 이야기

1) 차별과 모멸감

엔젤섬 이민국은 철저하게 ‘본질적인 차이’ 원칙에 입각하여 차별 및 분리방침에 따라 운영되었다. 엔젤섬으로 들어온 이민자의 2/3가 중국과 일본에서 왔지만, 유럽, 남미, 아프리카, 태평양섬,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이 타고 온 배가 샌프란시스코 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인종, 계급, 젠더, 국적에 따라 분류되었고 대우와 처분이 달랐다. 배가 항구에 도착하면 이민국 관리와 의료진이 배로 올라와서 모든 승객과 선원들의 서류와 건강상태를 예비 점검하였는데 이미 이때부터 ‘본질적인 차이’ 원칙이 적용되었다. 주로 백인이고 부유한 1등 칸 승객들은 자신의 선실에서 대충 검사를 받았고 2등 칸 승객과 더불어 바로 하선할 수 있었다. 3등 칸과 선미의 승객들은 주로 가난한 아시아

인들이었다. 이들은 서류가 미비한 백인과 함께 페리에 태워져 엔젤섬으로 이송 되었고, 그곳에서 보다 철저한 검사를 받았다. 따라서 대다수의 백인들은 엔젤섬으로 가지 않았고, 설령 엔젤섬으로 이송 되더라도 체류 기간이 짧았다. 반면에 모든 중국인들은 입국이 허용 될 때 까지 상당 기간 엔젤섬에 억류되었다.²³⁾

일단 엔젤섬에 도착하면 짐들을 선착장 수하물 창고에 넣어 두고, 바로 이민국으로 안내되었다. 이민국에 도착한 날 처음 들르는 곳은 행정 빌딩이다. 행정빌딩은 등록실, 사무실, 신체 검사실, 4개의 식당, 관리용 기숙사와 입국자용 막사로 구성되었다. 그들은 대기 장소에서 빠른 조사와 등록을 마친 후 막사로 배정되었다. 중국인과 일본인은 따로 분리되었고, 이외의 사람들은 여자와 어린이와 함께 2층의 분리된 장소에 배정되었다.²⁴⁾ 1921년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아버지와 함께 살기 위해 엔젤섬에 도착한 어린 소녀 리나는 엔젤섬에 도착한 날을 다음과 같이 기억한다.

일단 모든 사람이 배에서 내리면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승객을 훑어 본 후 일본인/ 다른 아시아인/중국인, 그리고 여자와 12세 미만 아이들/ 남성으로 분류했다. 백인들은 줄서서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빌딩으로 걸어 들어 갔다.²⁵⁾

리의 기억처럼 이민국에 도착하면 여성과 남성으로 나뉘어 수용되었고, 심사가 끝날 때 까지 아내와 남편도 서로 소통하기 어려웠다. 막사, 식당, 식사 시간대, 레크리에이션 장소, 병원 입구와 병동 등 모든 시설이 국적, 인종, 젠더로 구별, 분리되었고, 수가 많지 않은 백인에게는 보다 나은 시설과 음식이 제공되었다. 이는 미국 이민정책에 깊이 새겨진 인종적 편애주의가 반영 된 것이다.²⁶⁾

막사를 배정 받은 후 며칠 내에 행정실 건물 맞은편에 위치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다. 특히 신체검사는 아시아 이민자들에게 매우 굴욕적인 절차였다. 백인들은 대충 트라코마 증상이 있는가 정도의 안과 검사를 받은 반면에 아시아계 이민은 혈액검사, 기생충 여부를 판단하는 분변검사등 철저한 검사를 받았다. 1891년 법령에 의하면 트라코마, 결핵, 매독, 임질, 한센병과 같은 “혐오스럽고 위험한 전염병”은 추방의 사유가 된다. 중국, 일본, 한국, 인도에서 온 사람들은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해 대부분 이런 기생충에 감염되어 있었고, 따라서 이로 인해 입국이 거부된 사례가 많았다.²⁷⁾ 남자들은 속옷까지 벗고 신체이상 유무를 검사받았다. 발가벗겨져 결눈질로 보는 사람들 앞에서 금속 캘리퍼스로 검사 받고 기생충 감염 검사를 받는 일은 참으로 모멸적인 경험이었다.²⁸⁾ 이에 대해 한 억류자는 다음과 같이 회고 했다.

신체검사 과정은 특히 모욕적이었다. 의사는 내게 옷을 벗으라고 지시했고, 몇 시간 동안 차가운 바닷바람을 견뎌야 했다 [의사는] 가슴과 척추를 살펴보고는 원숭이처럼 뛰어보라고 지시했다. 나는 이게 신체검사인지 아니면 모욕을 주려는 행동인지 확신 할 수 없었다.²⁹⁾

여자들은 탈의를 요구받지 않았지만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면 면밀한 검사를 받아야 했다. 이 같은 혐오스러운 검사방법은 분노와 수치심을 불러일으켰고, 미국내 중국인 커뮤니티도 강하게 반발했다. 『차이니스 디펜더』(Chinese Defender)는 “기생충을 지닌 이민자가 도착하면 누군가는 밤새워 기생충을 없앨 방법을 생각한다. 이는 정말 신의 한수다.”라는 사설을 실으며 기생충검사는 중국인의 입국을 거부하려는 교묘한 방법이라고 비난했다.³⁰⁾ 중국인 단체들과 외교적 집단들의 반발이 커지자 이민국은 일단 기생충을 재분류했고, 신체검사를 자비부담으로 받게 했다. 결국 아시아계 이민은 유럽이민에 비해 신체검사를 통과하지 못해서 입국이 거부되는 확률이 훨씬 컸고, 엔젤섬에 더 오래 머물러야했으며,

경비 또한 많이 들었다. 비록 운 좋게 신체검사를 통과해도 입국신청 서류에 대해 취조에 가까운 조사를 받기 까지 기약 없이 기다려야 했다. 어린소녀 리는 조사받기까지 1달을 기다려야 했고, 조사가 시작되어도 수일 또는 그 이상이 걸렸다고 기억한다.³¹⁾

모멸적인 신체검사 후에도 입국 서류 심사에 걸리는 시간이 2주, 3주, 때로는 몇 달이 걸리자 중국인 입국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그러자 이민국은 한 사람의 이민국 직원 대신에 두 명의 이민국 조사관과 1명의 속기사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Board of Special Inquiry Hearing)를 구성하여서 중국인 입국자들만 따로 심사하였다. 하지만 이 위원회는 중국인 입국신청자가 합법적인 서류를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까지 어떤 방법도 사용할 수 있었다. 조사관은 입국승인과 거부에 있어서 거의 모든 재량권을 지녔다. 따라서 조사를 위한 질문 수나 내용 모두 조사관에 달렸다. 한사람의 신청자에게 쏟아 부은 질문은 보통 200개~1,000여개에 달했고, 그에 대한 속기사의 기록이 보통 20장에서 80장이었다.³²⁾ 1929년부터 6년간 이민국의 속기사였던 에머리 심스 Emery Sims는 조사관은 신청자 가족과 관련 된 모든 파일을 넘겨받아 검토하고 어떤 질문이라도 할 권한이 있었으며, 이런 탐문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회고했다. 처음부터 서류심사와 탐문은 ‘고양이와 쥐 게임’이었다.³³⁾

다음의 내용은 조사관의 질문들이 얼마나 작위적이고 소모적이었는지를 보여 준다. 엄마와 두 아들이 입국을 신청하였고, 조사관은 따로 각자에게 ‘집에 개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다. 엄마와 아들 1은 각각 있다고 대답했고, 아들 2는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조사관은 엄마를 다시 불러서 물어보자 다시 있다고 답했고, 아들 1도 다시 개가 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아들 2는 다시 없다고 대답하고는, ‘개가 있었는데 떠나기 전에 잡아먹어서 없다’고 덧붙였다. 만약 아들 2가 끝까지 없다고 했다면 3사람 모두 추방되었을 것이다.³⁴⁾

1923년에서 33년까지 엔젤섬이민국장을 지낸 존 네이글^{John D. Nagle}은 1910~1924년까지 중국인 입국신청인 중 평균 93%가 입국이 허용되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상인 또는 미국태생 시민의 아들 또는 딸로 위장했다고 주장하고, 이런 ‘영악한 중국인의 허를 찌르기 위해’ 수 년 동안 데이터를 수집하여 중국인 입국자의 남녀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1906년 화재로 서류가 소실되어 위조임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네이글 같은 ‘파수꾼’은 집중적인 교차 심문을 통해 위장이주를 근절하려고 했다.³⁵⁾

그러므로 중국인들은 다른 어떤 이민그룹 보다는 소모적이고 긴 조사를 받아야 했다. 상인으로 입국을 신청한 중국인은 사업 활동과 장사규모, 고객명단에 대해 상세한 서류를 제시해야 하고 2명의 증인이 필요했다. 증인은 신청인의 용모, 글씨체, 의복, 심지어 손에 못이 박혔는가, 손이 부드러운가 까지를 증언해서 신청자가 진짜 상인인지, 상인으로 위장한 노동자인지를 구별해 내려했다. 만약 증인이 다른 지역에 산다면 엔젤섬으로 증언하러 와야 했고, 그리고 다시 신청자를 한 번, 두 번, 그리고 필요하다면 여러 번 더 심문했다. 이 같은 조사 방법으로 인해 최종 서류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³⁶⁾

1920년경에 이르면 중국인들은 “서류상의 아들, 딸” 전략을 더 많이 활용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가짜 아들 또는 딸임을 확증하거나 거절할 서류가 없기 때문에 신청자와 증인들에게 상세한 진술을 요구했다. 어떤 질문은 도저히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도 있었다. 친척들 이름은 무엇인가, 동네에 집은 몇 채인가, 부모의 생일과 결혼기념일은 언제인가, 1년에 아버지로부터 몇 번 편지를 받는가, 다락방까지 계단이 몇 개인가, 너의 결혼식에 몇 명의 하객이 왔는가 등등. 진짜 아들, 딸조차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에 답해야 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신청인과 증인 대답 간에 아주 사소한 불일치만 있어도 바로 입국이 거절되었다. 따라서 조사가 몇 날이고 계속되는 동안 대답을 못할 수도 있고,

기억이 잘 안날 수도 있고, 잘못 된 대답을 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을 수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으로 향하기 몇 달 전부터 미리 예상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엔젤섬 도착 후에는 예상답안을 몰래 유입하여 외우고는 했다.³⁷⁾

미국 시민 또는 상인의 딸이거나 아내로 미국에 들어오는 여성들은 훨씬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녀들은 자신의 아버지나 남편이 면책신분임을 증명해야했고, 자신의 신분이 진짜임을 증명해야 했다. 출생이나 결혼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이 없으면 결혼관계나 생활환경에 대해 아주 사적인 질문까지 받았다. 매춘부로 의심되거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행동을 저지른 여성은 더 긴 인터뷰와 그들의 성적 역사에 대한 강압적인 질문도 받아야했다. 한 중국인 매춘부가 입국을 신청했을 때, 그녀는 1등석 승객이어서 바로 하선 할 수 있었지만 익명의 편지로 그녀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은 관리들은 그녀를 엔젤섬으로 데려갔고 매우 소모적인 검사를 시행했다. 수많은 질문과 잘못된 정보에 화가 난 그녀는 조사를 공격했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녀는 바로 추방되었다.³⁸⁾

조사관에 의해 입국거부 판정이 내려지면 신청인이 항소를 하지 않는 한 본국으로 추방되었다. 1910~1924년 동안 입국거절 된 중국인 중에서 88%가 항소하였고 그중 55%가 항소로 입국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항소 후에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엔젤섬에 억류되어 지내야 했다. 엔젤섬이민국의 이같은 조사과정에 대해 워싱턴 D.C.로부터 매우 불공정하다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³⁹⁾

당시 특별조사위원회의 중국인 통역사였던 에드워드 리(Edward Lee)는 엔젤섬이민국에 이민신청자가 많을 때에는 9명의 통역사가 근무했다고 기억했다. 그리고 통역사와 중국인간의 내통과 공모를 막기 위해서 각 통역사가 중국인 한명씩 통역을 맡았다. 즉 부모와 아들 한명인 가족이 조사받을 경우 3명의 통역사가 한 사람씩 통역을 했다. 따라서 한 건의 서류를 심사하는데 하루, 이틀, 또는 3일이 걸렸다. 에드워드 리는

“우리는 단지 질문과 대답만 통역했지만 방언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내가 아들이 청산^{Chungsan} 방언을 쓴다고 말하고 아버지 통역사가 아버지는 타오산^{Toishan} 방언을 쓴다고 말하면 조사관은 즉시 수상하게 여기고 의심을 한다. 그러면 조사관은 두 사람의 외모가 닮았는가를 판단한다. 3인으로 구성 된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입국여부를 대부분 만장일치로 결정했는데 만약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속기사가 결정권을 지녔다.”고 회상했다.⁴⁰⁾ 그리고 중국인 이민자들이 엔젤섬에서 겪은 경험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 생각에 엔젤섬을 경유한 중국인 이민자들은 의심할 바 없이 고된 시련을 겪었다. 오랜 기간 밀집된 막사에 갇혀서 지내는 끔찍한 경험을 했다. 그들은 심리받기까지 적어도 2주 이상은 기다려야했고, 만약 거절당해서 항소할 경우 3개월에서 6개월을 기다려야 했다. 그동안 그들은 매우 참담한 상황에 처했다. 이는 모두 중국인배척법 때문이었다.... 조사관들은 대개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나라로 오라고 하지 않았다. 그들 스스로가 온 것이니 그들이 올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⁴¹⁾

이민국 조사관의 입장에서는 이 같은 교차탐문 방법이 위장 이민을 가려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여겼지만 엔젤섬에 억류되었던 중국인 입장에서는 참으로 불합리하고 가혹한 처사였다. 다음의 시는 강제 억류당한 중국인의 회한과 분노를 잘 표현한다.

서양 야만족이 마음과 이성을 잃어버린 줄을
내가 어찌 알았을까
그들은 100가지 종류의 법들로
우리 중국인을 혹사하네⁴²⁾

항소 할 경우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엔젤섬에는 언제나

200-300명의 중국인 남성과 30-50명의 중국인 여성이 억류되어 있었다. 여기에는 막 도착한 중국인, 서류가 미비하여 다시 돌아온 중국인, 항소 후 판결을 기다리는 중국인, 미국을 경유하여 제 3국으로 가거나 오는 중국인들이 함께 섞여서 생활했다.

2) 막사생활: ‘그들의 이야기’

엔젤섬이민국 막사는 거의 감옥과 다름없었다. 남자들은 1층 2개의 커다란 방에서 지냈고, 막사 방은 어둡고, 공기가 탁했으며, 방 가득 3층짜리 철제침대가 열을 지어 놓여있었다. 각 방에는 거의 200명이 수용되었고 사생활은 거의 없었다. 그야말로 비위생적이고 전염병에 취약한 환경이었다. 창문에는 창살이 쳐져있고, 막사 밖에는 감시인이 있었다. 도망을 방지하기 위해서 막사 주변에는 철조망이 둘러져 있었다. 억류된 사람들의 일상은 아침 기상신호에 따라 일어나고, 행정빌딩에 위치한 식당에서 세끼 식사를 하고, 취침소등에 따라 잠자리에 들어야 했다. 실내에 갇혀 지내는 중국인들은 수심에 잠긴 채 공상을 하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하루를 보냈다. 글을 읽을 수 있는 중국인들은 가져온 책이나 샌프란시스코에서 보내 온 신문을 읽었다. 남자들은 낮에는 울타리가 쳐진 야외활동 장소에서 체력운동을 할 수 있었으나 이 또한 인종적으로 분리되었다. 일주일에 한번 감시 하에 걸어서 선착장 수하물 창고에 가서 짐 가방에서 필요한 물건을 가져왔다.⁴³⁾ 막사 벽에 새겨진 다음 시는 막사생활의 암담함과 회한을 이렇게 전한다.

매일 목조건물에 갇혀 지내며
내게 자유는 허락되지 않는다
이처럼 외로움과 슬픔을 겪은 후
왜 나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
받가는 일을 배우지 않는가?⁴⁴⁾

여자들은 막사 2층에 위치한 방 한 칸에 억류되어 있었는데 그녀들의 생활 역시 암울했다. 여자들은 대부분 뜨개질을 하거나 바느질을 하면서 무료한 시간을 보냈다. 간혹 샌프란시스코 친척이 보내 온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생활했다. 여자와 아이들에게는 주기적으로 감시인의 인도 하에 그룹별로 밖에 나가 걷는 일이 허용되었는데, 이는 남자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다. 미국 시민의 ‘서류상의 딸’로 입국신청 후 20개월 동안 엔젤섬에 억류되었다가 홍콩으로 추방된 리퓨에유^{Lee Puey You}는 당시의 고통을 훗날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매일 아침 7시면 최우 최우^{Chow Chow} 외치는 소리에 잠이 깬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식당으로 데려가 아침을 준다... 그리고 다시 막사로 데려와 밖에서 문을 잠갔다. 그게 다다. 마치 감옥 같았다. 그들은 우리를 죄수처럼 취급했다. 그들은 우리가 남자막사로 가서 말을 하거나, 도망가거나, 자살 할까봐 두려워했다. 어디로 도망간단 말인가?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워 죽을 것처럼 울었다... 여성막사는 5, 60명의 여자와 아이들이 한 방에서 지냈는데 사람이 많아 늘 시끄러웠다. 한밤중에는 옆 침대에서 우는 소리에 잠을 잘 수 없었다...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나 컸다... 엔젤섬에 앉아서 그저 평평 울기만 했다... 중국에 있을 때에는 미국에서 이렇게 고생 할 줄 몰랐다. 모두가 미국은 천국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엔젤섬에서 그들은 중국인을 마치 도둑이나 강도처럼 취급했다.⁴⁵⁾

이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중국인 남자들은 일종의 자치회 겸 상호회 성격의 〈엔젤섬자유연맹^{Angel Island Liberty Association}〉을 조직했다. 엔젤섬 막사에 도착한 중국인은 이 조직에 가입이 권유되었다. 이 조직은 새로 도착한 사람 환영, 막사생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막사내의 질서유지, 레크리에이션과 오락 제공, 불만과 요청을 증재하는 역할을 했다. 특히 〈엔젤섬자유연맹〉은 조사관의 교차심문에서 예견되는 무수한 질문들에

대한 일종의 예상답안지^{coaching notes}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이 예상 답안지는 여러 방법으로 전달되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미국내 친척들이 보내는 선물꾸러미 안에 넣어서 전달됐다. 편지와 선물꾸러미를 검사하는 관리들은 주로 오렌지나 바나나, 심지어는 땅콩 껍질 안에서 불법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곤 했다. 두 번째 방법은 이민국 식당에서 일하는 중국인 요리사들이 약간의 돈을 받고 심부름을 했다. 즉 비번 일에 차이나타운에 가서 엔젤섬에 억류된 중국인의 지인으로부터 답안지를 받아왔다. 그리고 식사시간에 <엔젤섬자유연맹> 임원에게 전해주면, 그는 막사로 가져가서 지정된 사람에게 전했다. 중국인들은 만약 이 답안을 전하다가 발각이 되면 모두가 증거를 없애는데 일조하기로 약속했다. 실제로 한 여성이 막사 식당에서 중국인 남성이 일부러 떨어뜨린 쪽지를 집어 들어서 옷 안에 감추다가 감시관에게 발각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San Francisco Chronicle} 헤드라인을 장식했는데 기사에 따르면 50명의 중국남자들이 덤벼들어 감시관을 덮쳤고, 한 남자가 이를 찢어서 삼켜버려 증거를 없앴다.⁴⁶⁾

1920년 말에 이르면 <엔젤섬자유연맹>이 구입한 축음기, 중국 오페라 레코드, 악기 등이 입수되어 단조로움을 달래기도 했지만 엔젤섬에 억류된 생활은 여전히 감옥의 죄수생활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 그리고 중국인들만 입국심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누구의 방문도 허용되지 않았다. 중국인들은 다른 나라 입국신청자들은 하루나 이틀 내에 모든 조사가 끝나는데 비해 자신들의 억류가 너무나 긴데 대해 분개했고, 특히 강요 된 무료함과 막사의 황량한 환경으로 불평이 더욱 커졌다. 1922년 33세였던 한 여성^{mrs. Jew}은 “일본인들도 꽤 보였는데 그들은 24시간 안에 떠나갔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오래 감금되었다. 나는 ‘이렇게 갇혀 지낼 거면 쓸데없이 여길 왔다. 마치 감옥같다’고 생각했다. … 여기에는 편지 쓸 장소도 없다. 테이블도 없고, 의자도 없다. 침대만 있을 뿐. 이럴 줄 알았다면 절대로 오려고 하지 않았을 거라고

늘 생각했다.”고 회고했다.⁴⁷⁾

중국인들의 불만 중 음식에 대한 불만이 가장 컸다. 그들이 음식의 질과 양, 그리고 서양식 음식에 대해 불평하자 중국인 요리사를 고용했지만 워낙 적은 예산이어서 음식이 먹을 수 없을 정도였다. 1916년 경우 한 끼에 8 센트 정도의 예산으로 음식 맛과 질이 형편없었다. 게다가 수백 명에게 하루 세끼의 식사를 제공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2년간 주방의 조수로 일했던 로우씨^{Mr. Low}의 기억에 따르면 “식당에는 33개의 테이블이 있었다. 테이블 마다 6~8명이 식사를 했다. 내가 이민국 식당에서 일할 때는 700명 이상의 중국인들이 억류되어 있어서 순번을 정해서 먹어야 했다.… 우리는 한 그룹이 먹고 나면 다음 순번이 오기 전에 테이블에 음식을 재빨리 가져다 놓았고, 그들은 먹고 바로 떠났다.… 그룹마다 두 명의 감시인이 식당까지 따라왔고, 테이블에 앉았을 때와 떠나기 전에 머리수를 세었다.” 1919년에는 큰 소요가 일어나자 맥도웰 요새^{Fort McDowell}로부터 군대가 파견되기도 했다. 다음 해에 워싱턴 D.C. 당국은 상황개선을 위해 보다 나은 음식을 제공하려고 결정했다.⁴⁸⁾

3주 동안 엔젤섬에 억류되었다가 풀려난 안문홍^{Jann Mon Fong}은 자신이 엔젤섬에서 받은 대우에 크게 분개하여 고국의 친구들에게 실상을 알리는 편지를 보냈다. 그의 글은 중국의 『렌지안시^{Renjian Shi}』지에 「금산으로 간 한 남자의 독백^{A Gold Mountain Man's Monologue}」이라는 제목으로 실렸다. 그의 글에는 엔젤섬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모멸스러웠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는 “페리에 타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빼앗겼다. 미국인들은 우리를 가축처럼 취급했다. 저 초록색 눈의 사람들은 틀림없이 중국인들을 돼지나 염소 새끼로 생각했다.”고 당시 상황을 상술했다. 그는 훗날 인터뷰에서 그 글을 통해서 “나는 친구들로 하여금 미국이 모두가 생각하는 것처럼 위대하지 않으며 우리가 엄청난 모멸감으로 고통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⁴⁹⁾

엔젤섬 막사에서 입국심사나 자신의 항소판결을 기다리던 수많은 중국인들은 벽에 시를 쓰면서 절망과 불안을 해소했고, 분노를 새겨 넣었다. 막사 벽에서 99개의 시를 복사했던 안몬홍은 “막사 모든 벽에는 수없이 많은 시, 운문, 유사한 대구(對句)들이 쓰여 있었다. … 이 글귀들은 미국으로의 여정에서 겪은 고난을 증언한다. 글 중에는 절망과 수치심으로 인해 자살을 언급한 글도 있다. 이 시들을 보니 슬픔과 비통함이 몰려왔다.”고 당시 중국인들의 고통에 대해 언급했다. 리푸에유(Lee Puey You)의 회고에 따르면 여성막사 화장실 벽에도 슬픔과 절망에 찬 글들이 가득 적혀있었다. 그녀 자신도 “고향, 가족, 친구를 뒤에 남긴 채 머나먼 대양을 건너 미국에 왔건만 누가 목조건물에 끄꽂 못하게 될 줄 알았겠는가. 언제나 자존심을 되찾고 고개를 들 수 있을지 알 길 없네”라는 글을 써 넣었다. 하지만 1940년 화재로 여성들이 쓴 시들은 모두 소실되었다.⁵⁰⁾

벽을 빼곡히 메운, 그리고 쓰고 또 그 위에 덧 씌워진 시(서체)들은 엔젤섬이민국에서의 중국인들의 하루하루의 고통과 비참한 생활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현재 200여 편의 시와 33편의 그래픽 이미지, 300여개의 명각(銘刻)이 남겨져 있는데, 모든 시는 전통 중국 시 스타일에 따라 4~8 행과, 한행에 5~7 글자로 구성된 시 형식으로, 짝수 행의 마지막 글자들은 운(韻)을 맞추었다. 어떤 시들은 역사적, 문화적 암시와 더불어 분노, 동경, 불안, 절망 등을 절절하게 잘 표현했다. 대부분의 시에는 날자와 서명이 없었는데 이는 처벌을 두려워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다음의 시를 포함하여 이 시들은 중국인 이민자들이 겪은 모욕과 냉대를 증언 할 뿐 만 아니라 보나 나은 삶을 찾아 떠난 그들의 꿈이 엔젤섬이민국에서 산산조각 깨어지고 있었음을 증언한다.

나는 나의 슬픔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이 시를 쓴다,
지금, 나의 입국 신청이 아직은 거부되지 않았다.
내가 처한 상황을 적노라니, 진정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여기 앉아, 쓸데없이 수년, 수개월을 지연 된 채,
나는 새장 속에 갇힌 비둘기 같다.⁵¹⁾

한편 중국이 약소국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억류당하고 추방당한다는 생각이 다수의 시에서 보인다. 한 예로 다음의 시를 소개한다.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체포되어 목조건물로 이송되어
죄수가 되었다.
미국인들은 입국을 허용하지 않았고,
나는 추방당했다.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나는 너무 놀라 당황했고,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에 걱정이 앞섰다.
우리 약소국의 중국인들은
자유를 뺏긴 채 한숨 만 실 뿐이다⁵²⁾

1910년에 문을 열자마자 중국인 이민자들은 막사 내부 벽에 시를 새겨 넣기 시작했다. 3개월 후 지역 감독관 District Commissioner 하트 노스 Hart Hyatt North는 막사 벽이 그래피티로 가득 덮여서 페인트를 다시 칠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후 30년 동안 8번이나 페인트를 다시 칠했고, 시는 계속 덧 새겨졌다. 1931-1932년 이곳에 억류되었던 중국인 억류자 중에서 두 사람이 벽에 새겨진 시 중에서 각각 80~90편씩 기록했고, 1970~80년대에 학자들이 135편 정도를 기록했다. 2004년 이후 연구와 조사가 더 진행되었고, 시와 더불어 이미지, 명각들이 발견되어 현재 200편 정도의 기록이 남아있다. 이 글이나 이미지들은 대부분 엔젤섬막사에 장기 억류되었거나 입국이 거절 되어 추방당하기 전에 새겨

넣은 내용으로 자신들의 이야기가 훗날 잊혀지지 않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긴 듯하다.⁵³⁾

현재적 함의: ‘차이’를 넘어서 ‘환대’로

현재 엔젤섬은 많은 사람들이 피크닉과 캠핑을 즐기는 아름다운 국립 공원이다. 한 때 ‘서부의 엘리스섬’이라 불리던 이 섬 북동부에는 과거 이민국이 있었던 2층짜리 목조건물이 있고, 건물 오른 쪽 맞은편에는 올해(2022년) 1월 이민박물관으로 개관한 병원건물이 있다. <엔젤섬이민국 재단>은 박물관 개관을 축하하며 2월 2일자 뉴스레터에 “우리는 2022년을 엔젤섬이민박물관 개관이라는 축포와 함께 시작했다.”는 글을 실었다. 이처럼 과거 이민국이었던 장소는 이제 아시아계 이민을 기념하는 문화센터와 박물관으로 탈바꿈하여 ‘미국은 이민의 나라’라는 공통된 역사의 공유와 성찰을 위한 장소로 기능하고 있다. 즉, 국가의 통합적인 측면을 한층 더 강조하기 위한 일종의 학습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⁵⁴⁾

이주는 미국정체성의 핵심 구성요소이며 미국이민의 역사는 뉴욕 엘리스섬의 이민역사로 대변되어왔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 엘리스섬을 통해 들어온 1,200만 여명의 유럽인 이민 역사는 엠마 라자루스(Emma Lazarus)의 유명한 글귀 “자유롭게 숨쉬기를 갈망하는 지치고 가난한 자들이여 내게로 오라”와 공명을 일으킨다. 그리하여 엘리스섬의 이민역사가 전적으로 미국이민의 전통과 유산 일 뿐 만 아니라 국가 정체성과 부합한다고 여긴다. 그러나 엔젤섬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한다. 엔젤섬의 이민역사는 미국이 어떤 집단은 환영하고 어떤 집단은 배제한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이야기 뿐 만 아니라, 미국이 이민을 환영하고 환대한다는 신화(mythos)와 인종, 계급, 젠더에 의한 차별을 한층 강화한 현실 간의 모순과 간극을 보여준다.⁵⁵⁾

엔젤섬이민국 막사 벽에서 발견된 시들은 중국인 이민자들이 겪은 시련과 고통을 생생하게 증언하며 엔젤섬이 지니는 역사적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한다. 백인들은 ‘더럽고, 부도덕하고 저질인 중국인’을 억압하고 배제하기 위해 법안을 만들었고, 이 법은 미국이민역사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즉 미국은 ‘열린 나라’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위험한 외국인들로부터 나라를 보호하는 ‘파수꾼 나라’로 변모되었다. 이민조사관, 억류시설, 미국여권과 그린카드, 이민서류 등의 이민규제 방법과 기술을 작동시켰고, 이는 오늘날까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이주자 한 개인에게 미친 영향과 해악이 크고도 깊다. 엔젤섬은 중국인배척법이 구현되는 장소였고, 가짜 서류를 들고 “서류상의 자식”으로 이민 온 중국인들은 입국허가를 받기 전에 이곳에서 억류당해야 했다. 입국이 허용된 후에도 자신의 신분을 위장한 채 살아야 했고, 가짜 신분이 언제 들통 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살아갔다.⁵⁶⁾ 그들은 법을 두려워하고, 정치적 활동을 피했으며, 과거 자신의 신분위장과 이주경험에 관한 진실을 자식들에게까지도 숨겼다. 따라서 이 법이 초래한 가장 깊은 해악은 엔젤섬에 억류되었던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에게까지 준 심리적 상처이다.

미국 의회는 2001년 미국인구구성연구법(The Peopling of America Theme Study Act)을 제정하여 미국의 다원적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1882년 제정된 중국인배척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중국인 이주에 의미를 부여했다. 즉 미국인구구성연구법은 중국인 이주경험을 ‘미국으로의 이주’라는 단일한 이야기에 접목시킴과 동시에 확고부동한 국가의 이미지를 보여주고자 했다. 따라서 미국의 경제, 사회, 도덕적 질서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중국인 이주가 오늘날에는 국민통합 관점에서 극복해야 할 고난의 공유경험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과정에서 2012년 미국의회는 중국인배척법 130주년을 맞아 “유감을 표현하며” 입법적 잘못을 시인했고, 미국 정부는 과거 중국인배척법과 엔젤섬이민국의 불의와 해악을

인정했다.⁵⁷⁾ 그러나 공유된 경험과 통합을 강조하는 가운데 오히려 중국인 이주자들이 겪었던 특수한 경험들이 총체성에 묻히고 있다. 즉 그들의 경험이 중국인 배제라는 특수하고 한정적인 역사에서 미국 역사라는 더 큰 그림 속으로 다시 보편화 되고 통합되고 있다.⁵⁸⁾

엔젤섬이민국의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우리는 수많은 증언과 자료를 남겨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는 자신들이 겪은 고통과 수모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차이’를 넘어서서 ‘환대’로 나아가야 한다.

19세기 말 백인들은 그들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중국인을 ‘타자화’했고, ‘다름’과 ‘차이’를 억압과 차별의 도구로 사용하였으며, 중국인을 더럽고 불결하고 오염된 몸을 지닌 혐오스러운 집단으로 취급했다. 이처럼 한 민족이나 인종을 집단적으로 차별하고 억압하는 태도는 백인들이 자신들의 가치와 관점을 규범적이고 보편적이라고 믿는 신념에 기초한다. 백인들은 ‘본질적 차이’가 있는 비백인 집단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기재로 인종차별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나 ‘집단’은 고정된 실체가 아닌 사회관계의 형식이며, 집단적 차이는 실체가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지며, 끊임 없이 다시 만들어 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⁵⁹⁾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는 ‘이민의 시대’이다. 이 지구의 거주민들은 유기적인 연대 속에서 늘 나와 다른 ‘타인’을 만나고 접촉한다. 우리는 엔젤섬의 역사로 부터 ‘차이’를 차별의 도구로 삼지 말고, ‘차이’를 넘어서서 ‘환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얻는다. 환대는 타인을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사람으로 대접하는 행위이며 태도이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은 성원권成員權을 갖는다는 뜻이며, 사회적 성원권을 갖는 데에는 어떤 자격도 필요하지 않다. “단지 사회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어야 하며, 그에게 자리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매일매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대접”이기 때문이다.⁶⁰⁾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깨어지고 조각난” 꿈의 전모를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기에, ‘그들의 이야기’를 새겨 들고 기존의 이민역사 서술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를 더 깊이 생각해야 하겠다. 이 같은 과제를 안고, 트럼프 행정부가 무슬림이민을 제한하고, 국경을 넘는 멕시코 불법이민자를 단속하고, 미국은 백인의 나라여야 한다는 오래된 편견과 오만으로 이민의 문을 닫으려했을 때 샌프란시스코의 중국계미국인 수천 명이 차이나타운에 모여서 외친 구호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1882를 기억하라. 인종과 국적으로 이민을 배제하는 것은 그 때나 지금이나 잘못 된 일이다.”⁶¹⁾



〈원문출처〉

이 글은 2022년 『미국사연구』 제 55집에 실린 「엔젤섬이민국의 가려진 이야기: ‘깨어진 꿈’」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저자소개〉

황혜성 (한성대학교 이주의 인문학 사업단)

황혜성은 미국사를 전공하고 미국의 이민, 인종, 여성 및 소수자를 주요 관심사로 연구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연구재단과 교육부의 지원으로 〈이주의 인문학〉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 논문으로 「왜 호모미그란스(Homo Migrants)인가?: 이주사의 최근 연구동향과 그 의미」 (2011), 「두보이즈의 ‘흑인의 영혼’: 두 개의 정체성을 지닌 흑인 이야기」 (2013), 「로(Roe)를 향한 역사적 행보: 불법과 합법의 경계횡단」(2019), 「이주연구의 역사적 여정: 학제간 융합학문으로」(2024) 등이 있다.

2부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충돌과 협상



IV

아이스 큐브와 인종위기의 리듬

이 찬 행
충북대학교

갱스터 래퍼 gangster rapper 아이스 큐브

사우스 센트럴 로스앤젤레스의 한인 상점들, 특히 주류 판매점들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지역 상권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아시아에서 온 이민자들이 저소득층 흑인으로부터 이윤을 착취한다는 믿음을 강화시키면서 반_反이민 정서의 폭력적인 분출을 앞당기는 과정이기도 했다. 1991년 3월 16일 엠파이어 마켓에서 1.79달러짜리 오렌지 주스를 놓고 주인과 고객이 싸우다 벌어진 흑인 소녀 라타샤 할린스 Latasha Harlins 살해 사건, 같은 해 6월 4일 존스 리커 스토_{John's liquor store} 주인 박태삼에 의한 흑인 고객 리 아더 미첼_{Lee Arthur Mitchell} 살해 사건은 그렇지 않아도 언어적, 문화적 차이에 의해 격화되고 있던 반이민, 반_反한인 정서를 더욱 증폭시켰다.¹⁾ 본 논문은 이러한 반한인 정서가 1991년 10월 발표된 갱스터 래퍼 아이스 큐브의 「Black Korea」라는 곡에 의해 견잡을 수 없이 악화되면서 한흑 커뮤니티 사이의 갈등이 폭발 직전으로 치닫게 되는 과정을 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힙합 그룹 퍼블릭 에너미_{Public Enemy}는 백인 문화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엘비스 프레슬리, 존 웨인 등을 풍자함으로써 지배 권력에 대항했지만, 로스앤젤레스의 갱스터 힙합 그룹을

대표하던 아이스 큐브는 흑인 커뮤니티에서 주류 등을 판매하던 한인 상인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아이스 큐브의 랩은 음악적 관점에서 보자면, 완성도가 높은 곡으로서 힙합의 경쾌한 리듬감을 잘 보여준다. 그렇지만 이와 동시에 「Black Korea」는 흑인 커뮤니티에서 대두하고 있었던 반한인 정서에 음악적인 목소리를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본 연구는 이처럼 갱스터 래퍼가 노래하던 인종주의 리듬을 들고자 하며, 이와 동시에 「Black Korea」에 대한 한인 커뮤니티의 대응도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1990년대 초반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던 인종갈등의 역동적인 모습들이 보여주는 리듬과 박자가 보다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아이스 큐브를 비롯한 갱스터 랩에 대한 연구는 매우 많다. 본 논문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경향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갱스터 랩이 지니고 있는 저항의 가능성에 주목한다. 두 번째는 갱스터 랩의 상업성과 섹슈얼리티의 과잉을 비판한다. 전자에 해당되는 연구자로는 트리샤 로즈와 로빈 켈리가 있다. 특히, 켈리는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감춰진 트랜스크립트^{hidden transcript}”를 랩 음악과 같은 “무대 밖 정치 담론^{offstage political discourse}”에서 읽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²⁾ 후자에 속하는 연구자로는 마이크 데이비스와 폴 길로이를 꼽을 수 있다. 지배 헤게모니에 순응하지 않는 몸짓을 갱스터 힙합 음악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데이비스는 로스앤젤레스 갱스터 래퍼들이 추구하는 것은 오로지 “본원적인 재산의 축적”이라고 혹평하였다. 나아가 데이비스는 그들의 노래는 “폭력, 여성에 대한 성차별, 그리고 탐욕”에 대한 무비판적인 반영일 뿐이라면서, 갱스터 힙합과 할리우드 사이에 유착 관계가 있다고 의심하였다.³⁾ 길로이 역시 마찬가지로 그는 힙합 음악이 상업화, 탈정치화되면서 “급작스러운 보수주의, 여성에 대한 혐오, 틀에 박힌 과잉된 성적 이야기”로 변질되었다고 지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힙합이 심지어는 “가장 흑인다운 문화”로

거래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였다.⁴⁾

본 논문은 기존 해석과 달리 아이스 큐브의 갱스터 랩은 저항과 상업성, 인종적인 계몽과 인종주의적인 폭력 사이에서 진동하고 있다고 파악한다. 이는 「Black Korea」가 수록되어 있는 그의 앨범 『Death Certificate』(프라이어리티 레코드사, 1991)에서 잘 드러난다. 필자는 본론에서 음악과 인간 경험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는 인류학적 음악학^{ethnomusicology}의 시각에서 아이스 큐브의 곡들이 지향하는 서로 다른 성격의 정치들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한인의 대응도 분석할 것이다.⁵⁾ 아울러 결론에서는 아이스 큐브의 「Black Korea」로 인한 사태가 일단락된 듯 보였던 1991년 11월 이후 한인과 흑인 두 커뮤니티 사이의 긴장과 갈등이 재차 고조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동전 하나하나 세는 빌어먹을 동양인들”

아이스 큐브. 본명이 오셰이 잭슨^{O'Shea Jackson}인 그는 단연코 최고의 힙합 뮤지션 가운데 한 명이다. “힙합은 곧 아이스 큐브이고 아이스 큐브는 곧 힙합”이라는 어느 한 문화 평론가의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아이스 큐브 없는 힙합 음악이란 상상하기 어려웠다. 그는 그룹 NWA^{Niggaz With Attitude}의 멤버로서 과격하고 폭력적인 가사를 마치 입에서 내뿜듯이 노래함으로써 훗날 갱스터 랩이라고 알려질 새로운 힙합 음악 장르를 개척하였다. 특히 NWA가 내놓은 첫 번째 앨범 『Straight Outta Compton』(루스릭스/프라이어리티 레코드사, 1988)은 힙합 음악의 권력을 동부에서 서부로 옮기는 계기를 마련하였다.⁶⁾ 뉴욕을 중심으로 한 동부 힙합이 그룹 퍼블릭 에너미의 흑인 민족주의와 부드럽고 시적인 라킴^{Rakim}의 풍부한 경험으로 가득 찬 영적인^{spiritual} 유희를 특징으로 한다면, NWA는 이를 길거리로 끌어내려 로컬 상징과 거친 언어로 새롭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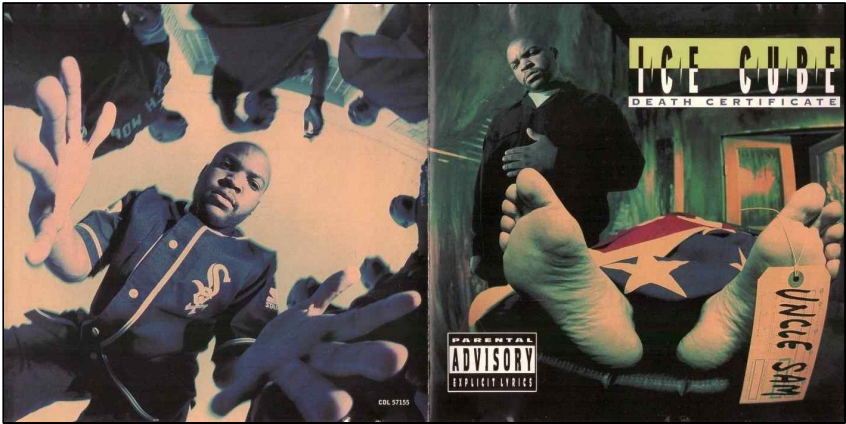
코드화함으로써 청중을 사로잡았다.⁷⁾ 역사가 켈리의 말처럼, 그들은 “모험, 억제할 수 없는 폭력, 그리고/또는 에로틱한 판타지, 서버브의 지루함에 대한 상상적 대안”을 향한 욕망을 충족시킴으로써 청중, 특히 백인 청중을 계토로 끌어들이기도 했다.⁸⁾

아이스 큐브의 솔로 데뷔 앨범인 『AmeriKKKa's Most Wanted』(프라이어리티 레코드사, 1990)는 그가 갱스터 랩에서 부분적으로 벗어났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물론 음반의 지배적인 목소리는 여전히 폭력적이고 선정적이었다. 그러나 힙합 저널리스트인 앨런 고든이 주장하듯이, 애리조나에 있는 대학에서 건축 도면을 전공하기도 했던 흑인 갱스터는 이제 백인 우월주의와 자신의 사회적 환경 사이의 관계에 대해 자각하기 시작했다. 흑인 민족주의로부터 영향을 받은 아이스 큐브는 두 번째 솔로 앨범인 『Death Certificate』에서 이 같은 힙합 음악의 정치화를 더욱 철저하게 추구하기에 이른다.⁹⁾ 음악적으로 『Death Certificate』는 아이스 큐브가 다른 래퍼들보다 더 높은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경쾌한 소리를 내다가 커다란 경적을 울리고, 비격거리지만 박자를 따라가면서 이를 되살리는 트럼펫처럼” 여느 래퍼들이 감히 시도할 수 없었던 능수능란한 래핑을 보여주었다.¹⁰⁾ 『Death Certificate』는 또한 주제별로 구성된 앨범이었다. 앨범은 죽음과 삶이라는 두 개의 파트로 나뉘어 있다. 전반부 오프닝 트랙에는 「The Funeral」이라는 제목의 곡이 배치되어 있고, 후반부는 「The Birth」라는 곡으로 시작한다. 아이스 큐브와 앤절라 데이비스 사이에 있었던 인터뷰에 따르면, 앨범의 이러한 구성은 매우 의도적이었다. 아이스 큐브는 죽음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파트를 통해 흑인들의 정신적 사망을 이야기하고자 했으며, 삶을 뜻하는 다른 파트에서는 운명과 스스로에 대한 흑인들의 의식을 일깨우고자 했던 것이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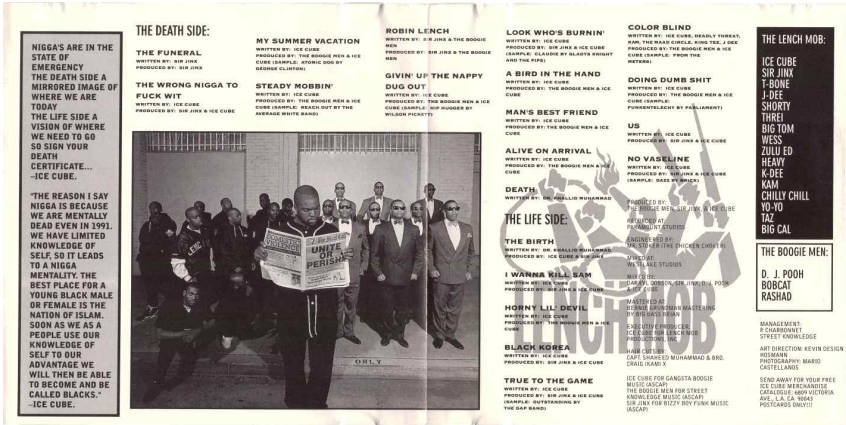
음반이 발매되자마자 십만 장 이상 팔린 것으로 알려진 『Death Certificate』에서 아이스 큐브는 흑인에게 본인들의 사망증명서에 서명

할 것을 촉구한다. 그의 노래는 여전히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계토의 언어로 쓰였지만, 아이스 큐브는 더는 길거리의 싸움꾼이 아니다. 그는 심지어 이제 사회정치적인 가스펠송을 부르는 흑인 민족주의자로 등장한다. 아이스 큐브는 「The Funeral」에서 “깜둥이^{niggas}”가 “비상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진단하면서, 앨범의 재킷 커버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기 때문이다. “내가 깜둥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1991년에도 우리는 정신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지식이 제한되어 있고, 그 결과는 깜둥이 멘탈리티다. 젊은 흑인 남성이나 여성에게 가장 좋은 장소는 이슬람 국가^{Nation of Islam}이다. 우리가 하나의 민족^{people}으로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에 대한 지식을 활용할 때 비로소 흑인이 될 수 있고 흑인이라고 불릴 수 있을 것이다.”¹²⁾

앨범 재킷 이미지는 아이스 큐브의 변화를 잘 보여준다. 그는 당시 로스앤젤레스 갱단의 상징과도 같았던 헤어스타일인 제리 컬^{jheri curl}을 짧게 잘랐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스 큐브는 갱 스타일 복장을 하고 무표정하게 서 있거나 여기저기 앉아 있는 십여 명의 흑인 남성들과 정장과 나비넥타이를 매고 세 줄로 도열한 아홉 명의 NOI 보안 요원들 사이에 서서 “단결 아니면 죽음”이라는 글귀를 1면 전체에 걸쳐 크게 게재한 흑인 민족주의 단체의 격주 간 간행물 『파이널콜^{Final Call}』을 읽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 장치들은 아이스 큐브가 민족주의자로 변모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흑인 민족주의에 비판적이었던 많은 로스앤젤레스 갱스터 래퍼들과 달리, 아이스 큐브는 다양한 이미지 전유를 통해 흑인의 민족주의적 자각과 부활을 촉구한 것이다.¹³⁾



앨범 『Death Certificate』의 커버 앞면, 원본 스캔



앨범 『Death Certificate』의 커버 뒷면, 원본 스캔

하지만 제프 창이 지적했듯이 아이스 큐브의 흑인 민족주의 전유의 이면에는 아시아계 이민자에 대한 그의 반감이 드러워져 있었다. 거기에는 또한 사우스 센트럴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아시아계 상인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불거진 흑인들의 “지워짐^{erasure}에 대한 뿌리 깊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삶이라고 명명된 앨범의 후반부에 수록된 곡 「Us」에서 아이스 큐브는 이러한 두려움과 반감을 다음과 같이 직설적으로

표현한다. “일본놈들_{Japs}이 내 동네의 모든 공터를 사들여 가게를 짓고 자신들의 물건을 팔고 있지.”¹⁴⁾

아시아계 이민자에 대한 아이스 큐브의 분노는 「Us」보다 앨범의 열 다섯 번째 트랙인 「Black Korea」에서 더 격렬하게 폭발하였다. 「Black Korea」는 스파이크 리 감독의 영화 『Do the Right Thing』⁽⁴⁰⁾ Acres & A Mule Filmworks and Universal Pictures, 1989)의 한 대사로 시작한다. 영화에서 건장한 체격의 젊은 흑인 남성 라디오 라힘_{Radio Raheem}은 항상 퍼블릭 에너미의 노래 「Fight the Power」가 크게 흘러나오는 붐박스를 들고 다닌다. 어느 날 붐박스에 사용할 D형 건전지 스무 개를 사기 위해 한인 이민자 부부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들어갔을 때,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부와 말다툼을 벌이게 된다. 그는 화가 나고 답답한 마음에 결국 부부에게 폭언을 하기에 이른다. 그러자 한인 부부의 남편은 라디오 라힘이 내뿜은 것과 같은 종류의 비속어를 반복하며 그의 폭력적인 행동에 대응한다. “Mother Fuck You.” 아이스 큐브의 「Black Korea」에는 바로 이 한인 상인의 욕설이 배경의 후렴구로 등장한다. 아이스 큐브는 또한 퍼블릭 에너미의 「Fight the Power」에서 “호른과 전자 기타의 날카로운 소리가 겹쳐진” 빠른 속도의 비트를 차용함으로써 곡의 경쾌함과 박진감을 높이는 데 있어 누구보다도 탁월한 솜씨를 보여주기도 했다.¹⁵⁾

“엘비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영웅이었지 / 하지만 그는 내게는 아무 의미도 없었지 / 그 자식은 너무나도 명백한 인종차별주의자지 / 단순하고 분명하지 / 빌어먹을 그 녀석[엘비스]과 존 웨인 / 난 흑인이고 자랑스러우니까.”¹⁶⁾ 퍼블릭 에너미는 엘비스 프레슬리와 존 웨인 등 미국의 문화적 상징을 공격하며 백색 아메리카에 저항하는 노래를 불렀지만, 「Black Korea」에서 아이스 큐브가 겨누는 총구는 흑인 커뮤니티에서 일하는 한인 상인을 향해 있었다.

옛 같은 맥주를 사고 싶을 때마다
 두 인간이 있는 가게로 가야 해
 동전 하나하나 세는 빌어먹을 동양인들
 작은 소란이 일어날 정도로 감동이를 미치게 해
 세상의 모든 흑인들이 물건을 훔칠 거로 생각하고
 그래서 내 염병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
 내가 총을 꺼내 강도질을 하지 않길 바라지
 그 인간들의 냄새나는 쪼그만 가게, 하지만 이 년아, 난 직장이 있지
 그러니 가게에서 날 졸졸 따라다니지 마
 안 그러면 찻수이와 같은 너희 작은 동양놈들이 표적이 될 거야
 전국적인 보이콧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힘, 그게 바로 그 녀석이 가진 것이지
 그러니 흑인 주먹에 경의를 표해
 안 그러면 네 가게를 가루가 될 때까지 불태워버릴 테니
 그럼 이만 가봐
 너희들이 이 계토를 블랙 코리아로 바꿀 순 없으니¹⁷⁾

「Black Korea」는 1980년대 사우스 센트럴 로스앤젤레스 지역 흑인
 들의 억눌린 감정을 표현하였다. 이 노래는 무례하고 오로지 돈만 챙긴
 다고 알려진 한인 상인들에 대한 흑인 커뮤니티의 분노를 대변하였다.
 아이스 큐브가 포착한 것은 작은 가게에서 흑인 고객의 움직임에 의심
 스럽게 결눈질해 보면서 범죄시했던 한인 상인들에 대한 적개심이었다.
 “난 직장이 있지”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Black Korea」는 흑인
 청년 실업자를 무시하는 한인 상인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곡이다. 나
 야가 흑인들의 외국인 혐오란 사실상 유색인종이 미국의 온전한 시민으
 로 인정받기 위해 주인의 언어를 사용한 것이나 다름없지만, 「Black
 Korea」는 이처럼 흑인 커뮤니티에 존재하는 외국인 배척 정서에 목
 소리를 부여하기도 했다.¹⁸⁾ 「Black Korea」는 또한 한인 상인들에게
 흑인을 존중하도록 강요하면서 폭력 행사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스 큐브는 한인 상인을 중국 음식 “참수이”에 비유하는 인종적 욕설을 퍼부었으며, 흑인 계토를 지키고자 외지 상인들을 인종주의적인 방화로 위협하는 언사도 서슴지 않았다. 따라서 「Black Korea」에 만약 들리지 않는 후렴구가 있다면, 그것은 25년 전 로스앤젤레스 왓츠 지역의 유대인 상점들을 불태웠던 시위대가 외친 “Burn, Baby, Burn”(모조리 훔칠라 버려라)이라는 구호였을 것이다.

“저는 한인들을 존중합니다”

아이스 큐브의 음반이 발표되자마자 한인 커뮤니티는 정치적 힘을 발휘하였다. 1991년 11월 4일, 한미연합회(Korean American Coalition)는 다른 한인 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유통업체에 해당 앨범의 판매 중단을 촉구했다. 아이스 큐브의 노래가 한인만이 아니라 다양한 아시아계 집단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종혐오와 폭력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한미연합회는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법률센터(Asian Pacific American Legal Center), 중국계 미국인 시민연합(Chinese American Citizens Alliance), 일본계 미국인 시민연맹(Japanese American Citizens League) 등 여러 단체의 지지를 받는 데 성공했다. 한미연합회는 라티노 단체인 멕시코계 미국인 법률교육펀드(Mexican American Legal Defence and Education Fund), 그리고 심지어 흑인 단체인 로스앤젤레스 어번 리그(Los Angeles Urban League), 남부 기독교 리더십 컨퍼런스(Southern Christian Leadership Conference) 등의 지원도 받아 냈다.¹⁹⁾ 또한 한인 커뮤니티 리더들은 아이스 큐브의 앨범이 매장에 진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음반 유통회사인 프라이어리티 레코드사를 대상으로 한 항의 서한 보내기 캠페인을 촉구했으며, 톰 브래들리 로스앤젤레스 시장에게는 앨범 배포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11월 4일에는 시장실의 김윤희 보좌관도 유통사에 “현재 매장에

진열된 모든 앨범을 자발적으로 회수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브래들리 시장에게 조언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무려 한 달 넘게 침묵으로 일관하던 시장은 한인 커뮤니티의 요구를 받아들여 프라이어리티 레코드사 브라이언 터너 회장에게 “기업의 책무”를 다할 것을 강조하는 서한을 보냈다.²⁰⁾

한인 커뮤니티는 아이스 큐브의 앨범을 격렬하게 규탄했던 로스앤젤레스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또 다른 동맹을 발견했다. 아이스 큐브의 매니저였던 유대인 제리 헬러의 살해를 부추긴 마지막 트랙 「No Vaseline」은 로스앤젤레스 유대인 인권단체 사이먼 비젠탈 센터(Simon Wiesenthal Center)의 부_副주임 사제 랍비 에이브러햄 쿠퍼가 전국 4대 음반 유통회사인 뮤직 랜드, 타워 레코드, 웨어하우스 레코드, 뮤직 플러스에 앨범 판매 중단을 요청하는 사태를 초래했는데, 이는 분명 한인들의 캠페인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였다.²¹⁾ 그뿐만 아니라 한인 커뮤니티는 음악 산업 전문지 『빌보드(Billboard)』로부터 외곽 지원을 받기도 했다. 『빌보드』는 『Death Certificate』 앨범이야말로 “가장 악취가 나는 인종주의와 증오심”을 유발했다는 혹독한 비판을 했으며, 소매업체와 음반사에 아이스 큐브가 표출한 증오심에 항의할 것을 촉구하였기 때문이다.²²⁾ 「Black Korea」가 촉발한 한인들의 집단적인 대응은 이러한 지원을 무기로 어느 정도 성공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11월 초까지 앨범의 선주문은 이미 100만 장 이상 쏟아지고 있었다. 혹평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혹평 때문에 아이스 큐브의 앨범은 그야말로 날개 돋친 듯 팔렸다. 코리아타운의 어느 한 대형 쇼핑센터 벽에 붙어 있던 자필 포스터에 따르면, 몇몇 한인 상인들은 매출 손실이 사업에 타격을 줄 정도로 클 것이라는 이유로 앨범 발매 운동에 동참하지 않았다.²³⁾ 전국 4대 음반 유통회사도 계속해서 앨범을 판매했다. 프라이어리티 레코드사의 브라이언 터너는 아이스 큐브의 수사가 “일종의 마초적인 욕지거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를 옹호하였다.²⁴⁾

미 서부 지역 힙합 역사에 있어 커다란 역할을 했던 이 음반 유통사는 『빌보드』 전체 역사상 공식적인 비난의 표적이 된 앨범은 『Death Certificate』가 유일하다고 항변하면서, 이 앨범은 폭력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대한 래퍼의 좌절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²⁵⁾

한인 커뮤니티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다. 비록 아이스 큐브의 앨범 유통을 막지는 못했지만, 한인들은 이제 맥주회사 맥켄지 리버 코퍼레이션(McKenzie River Corporation)을 상대로 경제적 힘을 발휘해 아이스 큐브로부터 사과를 받아내기로 했다.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이 주류회사는 40온스 병으로 판매되는 몰트 리커 맥주(malt liquor beer) 세인트 아이즈(St. Ides)를 제조하고 각종 광고에 아이스 큐브를 등장시켰다. 미국 평균 맥주의 알콜 도수가 3.5%이던 198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콜트 45(Colt 45)처럼 알콜 함량이 높았던 몰트 리커 맥주는 주로 흑인 노년층이 선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몰트 리커 맥주 선전에는 R&B/소울 뮤지션이 등장하곤 했다. 1986년 세인트 아이즈를 출시했던 맥켄지 리버 코퍼레이션도 소울 그룹인 포 탑스(Four Tops)를 광고 모델로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새롭게 대두한 힙합 음악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고, Run DMC, NWA와 같은 래퍼들이 자신들의 노래에서 Olde English 800 등 몰트 리커 맥주의 실명을 언급(name check)하는 관행이 확산되자, 몰트 리커 시장은 1980년대 후반에 크게 확장되었다. 급작스러운 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맥켄지 리버 코퍼레이션은 포 탑스를 광고 모델로 더 이상 기용하지 않고 급성장하고 있던 서부 갱스터 래퍼들을 광고에 등장시켜 세인트 아이즈에 “게토중심적(ghetto-centric)” 이미지를 새겨넣음으로써 새로운 소비자, 특히 저소득층 지역의 젊은 흑인 소비자들을 겨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마케팅 전략 덕분에 세인트 아이즈는 엄청난 판매고를 올렸고 1991년에는 몰트 리커 맥주 시장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었다.²⁶⁾

세인트 아이즈라고 하는 몰트 리커 맥주의 브랜드 이미지 변화를

이끌었던 아이스 큐브. 그가 부른 「Black Korea」에 항의하기 위해 사우스 센트럴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한인 식료품점 상인들은 자신들의 구매력을 총동원하였다. 11월 초, 이들은 맥켄지 리버 코퍼레이션이 광고에 아이스 큐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세인트 아이즈 판매와 주문을 중단하고 배달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세인트 아이즈 불매 운동은 롱비치, 파코이마, 샌퍼난도 벨리,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수많은 한인 식료품점으로 확산되었다.²⁷⁾ 한인식품상협회(Korean American Grocers Association)는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이유로 회원들에게 세인트 아이즈 불매 운동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지는 않았지만, 맥켄지 리버가 아이스 큐브와의 관계를 끊기를 원했던 것은 매한가지였다. 한인식품상협회가 불매 운동을 발 벗고 조직한다면, 맥켄지 리버 코퍼레이션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리라는 것은 분명했다. 1990년 로스앤젤레스에서 협회는 총 매출 규모가 16억 달러에 달하는 3천여 개의 한인 식료품 및 주류 소매업체들을 대표하고 있었다. 이처럼 커다란 매출액 가운데 맥주를 포함한 주류가 무려 26%를 차지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북미 지역으로 범위를 확장해보면, 총 1만 5천여 개의 한인 식품상점들이 연간 12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었다.²⁸⁾

세인트 아이즈 불매 운동에 화들짝 놀란 맥켄지 리버의 사장 마이노트 웨싱어(Minott Wessinger)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급히 로스앤젤레스로 날아와 한인식품상협회 이사들과 회의를 가졌다. 오리건주의 유명한 독일계 양조업자 헨리 와인하드(1830~1904년)의 후손인 웨싱어는 아이스 큐브가 갈등을 조장하는 앨범을 제작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아이스 큐브의 모습이 담긴 홍보물을 주류 판매점에서 철거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웨싱어는 아이스 큐브가 등장하는 모든 광고를 중단하고 그와의 관계를 끊으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확답을 망설였다. 또한 11월 12일자 로스앤젤레스판 『한국일보』에 실린 대형 광고에서 그는 맥켄지 리버는 아이스 큐브에 힘을 쓸 수 없는 작은 기업이라고 변명하였다.²⁹⁾

사태가 결국 이 지경에 이르자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활동했던 전국한인식품상협회(National Korean American Grocers Association)는 여러 지역에 있는 협회 지부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맥켄지 리버가 한인 커뮤니티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압박하기 시작하였다. 짧은 시간에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산호세, 시애틀, 타코마, 포틀랜드,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리치몬드, 워싱턴 DC 등에 있는 약 5~6천 개의 한인 상점들이 세인트 아이즈 불매 운동에 동참했고, 이로 말미암아 맥켄지 리버는 700만 달러의 손실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³⁰⁾

11월 20일, 맥켄지 리버 코퍼레이션은 한인식품상협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아이스 큐브가 등장하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 홍보물을 중단하고 더 이상 그를 광고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³¹⁾ 맥켄지 리버는 또한 아이스 큐브에게 연락해 「Black Korea」에 대한 한인 커뮤니티의 입장을 알리겠다고 약속했다.³²⁾ 나아가 맥켄지 리버는 아이스 큐브가 한인식품상협회의 임원인 김양일과 데이비드 김 등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식품상협회의 간부에 따르면, 1992년 2월 3일에 열린 이 회동에서 아이스 큐브는 자기 음악의 특징을 흑인들의 “과도한 표현(excessive expressiveness)”으로 설명하면서, 결코 한흑갈등에 기름을 부을 의도는 없었다고 말하였다. 아이스 큐브는 회동 5일 후 김양일 회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의도가 한인들을 불쾌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고 한인들을 존중한다고 강조하였다.

저는 앨범 『Death Certificate』의 의도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누구에게도 불쾌감을 주거나 어떤 종류의 폭력을 선동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한국계 미국인이나 모든 한국계 미국인 상인들을 겨냥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한인들을 존중합니다. 저와 제 친구들이 실제 문제를 겪었던 몇몇 가게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커뮤니티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그 과정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국을 순회할 때 저는 팬들에게 이 사실을

설명하고 상점주나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당부할 것입니다.³³⁾

91년 겨울

아이스 큐브의 「Black Korea」로 한인과 흑인 두 커뮤니티는 갈등을 경험하였으나, 양자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1991년 11월 14일, 한인식품상협회는 로스앤젤레스 중남부 지역에서 청소년을 위한 일자리 1백 개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³⁴⁾ 다음 달, 브래들리 시장과 로스앤젤레스시 인간관계위원회^{Los Angeles City Human Relations Commission}는 한인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은행들을 상대로 파트너십을 맺고 “사우스 센트럴 로스앤젤레스에서 사업하기”라는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신규 이민자 상인들을 “책임감 있는 사업가”로 양성하고자 했다.³⁵⁾ 이듬해 1월 식품상협회는 또한 한인 상인과 흑인 고객 사이에 상호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열 가지 “좋은 비즈니스 관행” 원칙이라는 것을 제정하기도 했다.³⁶⁾

두순자-할린스 사건 재판은 흑인 커뮤니티와 한인 커뮤니티를 화해시키려는 이 같은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 91년 3월 16일 라타샤 할린스라는 흑인 청소년을 도둑으로 오인해 총으로 살해한 한인 여성 상인에게 같은 해 11월 15일 집행 유예, 보호 관찰, 4백 시간 커뮤니티 봉사, 5백 달러 벌금을 선고한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 조이스 A. 칼린 판사의 결정을 대부분의 한인 커뮤니티 지도자들은 공정한 용기의 표현이라고 환영하였다.³⁷⁾ 『한국일보』 사설은 이 판결이 미국에도 용기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극찬했다.³⁸⁾ 칼린 판사의 판결에 대해 한인들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기는 어려웠다. 판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커뮤니티의 거친 비판에 직면했기 때문이었다. 예컨대,

한인청소년센터(Korean Youth Center)의 김봉환 소장이 일부 흑인 활동기들과 힘을 합쳐 판사의 양형 재량권을 줄이고 판결에 대한 커뮤니티의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몇몇 한인들은 다음과 같은 인종주의적인 욕설로 대응하였다. “도대체 김봉환이란 자가 누구냐? 한국인이냐, 까둥이냐?”³⁹⁾

두말할 나위도 없이 흑인 커뮤니티는 두순자에 대한 칼린 판사의 관대한 판결에 분노했다. 살해된 소녀의 삼촌인 리처드 할린스는 “그녀[두순자]는 죽게 될 거야... 내 조카를 죽였어. 그녀는 대가를 치를 거야”라고 말하며 조카의 죽음에 대해 복수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⁴⁰⁾ 할린스 가족만이 불타는 분노를 표출한 것은 아니었다. 어느 한 독자는 『로스앤젤레스센티넬』(Los Angeles Sentinel)에 보낸 편지에서 “외국인이 ‘미국 태생’의 시민을 죽였는데도 그 외국인은 처벌받지 않았다”고 항의하면서 두순자 판결에 대한 불만을 흑인 토착주의 언어로 표현하였다.⁴¹⁾ 두순자가 귀화한 미국 시민권자라는 사실은 아무런 고려의 대상이 아닌 듯하였다. 당시 흑인 커뮤니티의 반한(反韓) 정서를 선동하고 있었던 대니 베이크웰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⁴²⁾ 『로스앤젤레스타임스』(Los Angeles Times) 정치부 기자 빌 보야르스키에 따르면, 베이크웰은 과거 미국 남부의 보안관들이 “Negro”의 첫 번째 모음을 길게 발음하여 흑인을 비웃었던 것처럼 “Koreans”라는 단어의 중간 음절을 길게 늘임(“Kor-EE-ans”)으로써 사우스 센트럴 로스앤젤레스 주민들의 격한 반한 감정에 휘발유를 끼얹었다.⁴³⁾ 그는 나아가 월터 터커 캠프 시장과 함께 한인 소유 상점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⁴⁴⁾

반한 감정은 로스앤젤레스에서 한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 및 혐오사건의 급증으로 이어졌다. 통계에 의하면, 1990년 3월부터 1991년 3월까지 흑인 커뮤니티와 한인 커뮤니티 사이의 증오범죄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할린스 총격 사망 사건 다음 달부터 두 커뮤니티 사이에 증오범죄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그 수치가 1991년 겨울~1992년

봄 사이에 급격히 증가하였다.⁴⁵⁾ 예를 들어, 12월 4일 캄턴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태국인 여성이 한인으로 오인되어 로스앤젤레스에 기반을 둔 흑인 갱단 조직원 두 명에게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여성을 차에서 끌어내 야구 방망이로 차 유리창을 부순 후 할린스 죽음에 대한 복수를 위해 흥기로 그녀를 폭행했다.⁴⁶⁾ 열흘 후, 한인 상인 박용태는 라틴계가 주로 거주하는 피코와 페도라 애비뉴에 있는 자신의 주류 판매점에서 흑인 강도 두 명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 경찰은 이 비극적인 총격 사건이 인종적 동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지만, 박용태 살해 사건으로 인해 많은 한인 상인들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소총, 감시 카메라, 방탄 유리창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다.⁴⁷⁾ 1992년 1월에는 중식당과 한인 주류 판매점이 기물 파손범의 공격을 받기도 했는데, 그들은 가게의 벽에 “Latasha Harlins RIP”라는 문구를 커다랗게 써놓고 달아났다.⁴⁸⁾ 로스앤젤레스 흑인과 한인 사이의 적대감은 한인 커뮤니티 지도자들이 흑인 커뮤니티의 소환 운동에 직면한 칼린 판사를 지지하기 위해 편지 쓰기 운동을 시작하면서 다시 불붙었다. 1992년 4월에는 로스앤젤레스 대한노인회가 칼린 판사에게 재정적 지원까지 하였는데, 그 결과 흑인 커뮤니티의 반감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었다.⁴⁹⁾

91년의 추운 겨울과 이듬해 봄은 이처럼 아이스 큐브가 마치 예언가라도 된 듯 한흑갈등이 뜨거운 연기를 뿜으면서 격화되고 있던 시기였다. 하지만 그 누가 알았으랴. 이러한 상황이 머지않아 로스앤젤레스를 불태우는 대폭발의 서곡이었음을.



〈원문출처〉

이 글은 2023년 『호모미그란스』 제 29호에 실린 「아이스 큐브와 인종위기의 리듬」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저자소개〉

이 찬 행 (충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성균관대학교 역사교육과와 사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뉴욕주립대학교(SUNY Stony Brook) 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박사후연구원 및 경희대학교 사학과 학술연구교수로 재직했고, 현재 충북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있다. 현대 미국의 인종문제와 이민, 극우 세력의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다. 지은 책으로 『영화, 담다 그리다 비추다』(공저), 『Korean American History』(공저) 등이 있고, 연구 논문으로 「마주침의 공간 로스앤젤레스: 1980년대 중후반 한인과 흑인의 인종언어와 정치」, 「Migration to the “First Large Suburban Ghetto” in America: Korean Immigrant Merchants in South Central Los Angeles in the 1980s」, 「Chocolate Suburb, Vanilla Power: Race, Space and Civil Unrest in Ferguson」 등이 있다.

V

다문화 영화 <컬러풀웨딩즈>와 <나의 그리스식 웨딩> 연구

신 영 현
한성대학교

문화접변의 최전선 국제결혼

한국 사회는 2006년에 참여정부가 ‘다문화·다민족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문제의식을 선언하면서 이주자 정책의 변화를 모색하게 된다.¹⁾ 대통령 산하 차별시정위원회가 2006년 4월 26일에 발표한 ‘혼혈인과 이주자에 대한 사회통합 지원안’은 한국 정부 주도의 다문화주의의 청사진이자 선언문 격이라고 할 수 있다.²⁾ 이때를 기점으로 한국 사회는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를 급격하게 진행해 왔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00만에 달하는 외국인이 다양한 신분과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사회에는 선주민과 이주민 간에 직간접적인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³⁾ 이러한 상황은 단일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한국인들이 타문화에 대해서 보다 많은 이해와 포용의 자세를 갖출 것을 요구한다.

문화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그중 가장 일반적인 정의가 바로 레이먼드 윌리엄즈(Raymond Williams)의 정의이다. 영국의 문화학자인 윌리엄즈는 문화를 “물질적이고 지적이고 정신적인 총체적 생활양식”⁴⁾이라고

정의한다. 유네스코^{UNESCO}에서 사용하는 “한 사회와 집단의 성격을 나타내는 정신적, 물질적, 지적, 감성적 특성의 총체”⁵⁾라는 문화의 정의 또한 윌리엄즈의 정의를 구체화시킨 예라고 할 수 있다.

문화가 특정 인간 집단의 총체적 생활양식이라면, 세상에는 다수의 문화가 존재하기 마련이며, 박준웅에 따르면, 속성상 “문화들은 서로 충돌하기 마련이다.”⁶⁾ 왜냐하면 “특정한 내용으로 구축된 포괄적 규범 체계로서의 문화들은 각각 다른 문화를 아울러 포괄하여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 공통점보다는 차이를, 이해보다는 배척을, 합의보다는 독선을 이끌기 쉽”기 때문이다.⁷⁾ 서로 다른 문화들은 “상호 공존보다는 차이를 통한 문화 상호 간의 충돌을 일차적인 상호 간의 대응으로 받아들인다.”⁸⁾ 문화의 충돌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는 인종적, 종교적, 정치 체제적, 윤리 규범적 차이와 관련된 충돌로 나타나며, 이러한 차이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갈등 상황으로 나타나기도 한다.⁹⁾ 그리고 이러한 문화 충돌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결혼이다. 결혼 그중에서도 이질적인 인종문화적^{ethnic} 배경 출신들로 이뤄지는 국제결혼의 경우, 결혼에 이르는 과정에서부터 결혼 생활 전체에 걸쳐서 서로 간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다양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사람들은 보통 그들 자신의 습관적 행동이나 태도를 가장 합리적이고 옳은 것으로 느끼며 자신들과 다른 문화권 사람들의 관습이나 삶의 방식은 부도덕하거나 열등한 것으로 느끼기 쉽”기 때문이다.¹⁰⁾

영화 <컬러풀 웨딩즈>와 <나의 그리스식 웨딩>은 문화 간 갈등과 이의 해소라는 공통의 주제를 다룬 작품들이다. 인종 간 결혼갈등이 가장 일상화된 대표적인 나라들인 프랑스와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들답게, 위 영화들은 결혼을 매개로 이뤄지는 이질적 문화들의 조우, 갈등 및 화해를 잘 묘사한다.¹¹⁾ 특히 종족 문화^{ethnic culture}의 차이로 인한 갈등과 오해는 영화를 이끌어가는 주된 동력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을 대처

하고 극복하는 방식에 있어서 두 영화는 차이를 보인다. 두 영화를 통해 이질적인 문화가 만날 때 발생하는 갈등의 양상들을 짚어보고 위 텍스트들이 이 갈등들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고 극복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컬러풀 웨딩즈〉와 〈나의 그리스식 웨딩〉이 그리는 다문화 결혼

영화 〈컬러풀 웨딩즈〉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프랑스 상류층 부부의 딸들이 타 문화권 출신 배우자들과 결혼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갈등과 긴장을 해학과 풍자로 승화시킨 가족 코미디이다. 이 영화는 2014년도에 개봉되었으며 러닝타임은 97분이다. “Serial Bad Weddings”(일련의 나쁜 결혼들)라는 원제가 시사하듯이 이 영화는 클로드 베르누이(크리스티앙 클라비에 분)와 마리 베르누이(첸털 로비 분) 부부의 눈에 비친 일련의 ‘나쁜’ 결혼에 관한 이야기이다. 베르누이 부부는 프랑스 상위 1%에 해당하는 상류층 가정으로 둘 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다. 그들은 프랑스의 전통적 문화와 가치를 대변하는 인물들이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 ‘나쁜’ 예로 보이던 딸들의 결혼은 영화의 결말에 이룰수록 점점 더 ‘멋진’ 결혼으로 변해간다. 한마디로 〈컬러풀 웨딩즈〉는 이러한 시선의 변화가 어떤 과정과 계기를 통해서 이뤄지는가를 보여주는 영화이다.

〈나의 그리스식 웨딩〉은 2003년에 개봉한 미국의 코미디 영화로서 그리스 이민자로서 매사에 그리스식 전통과 정체성을 강조하는 아버지의 바람을 거스르고 전형적인 미국인 남자와 결혼하는 그리스계 미국인 여성 툴라 포르토칼로스(니아 바르달로스 분)의 이야기이다.¹²⁾ 툴라의 아버지인 거스 포르토칼로스(마이클 콘스탄틴 분)는 모든 언어가 그리스어에서 기원했다고 믿으며, 그리스 여자의 덕목은 세 가지 즉 “그리스

남자와 결혼해서 그리스인 아이를 낳고 식구를 먹여 살리는 것(그것도 죽는 날까지!)”이라고 믿는 그리스 우월주의자이다. 그는 시카고의 중산층 마을에 살면서 파르테논 신전을 본떠서 지은 집에 그리스식 동상을 세우고 그리스 국기를 휘날리며 사는 대가족의 가부장이다. 그는 ‘댄싱 조르바’라는 그리스 레스토랑을 가족 기업으로 운영하는 사장이기도 하다. 그에 따르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데 “하나는 그리스인들이고 나머지 하나는 그리스인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위대한 그리스를 떠나서 왜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가라는 관객들의 의문은 “아빠는 딱 두 가지만 믿는데, 첫째는 그리스인들이 비그리스인들에게 ‘그리스다움^{being} Greek’을 교육시켜야 한다는 것과 모든 질병은 윈텍스로 고칠 수 있다는 것”이라는 툴라의 말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된다. 거스는 미국에 건너온 그리스 이민자들의 지독한 순혈주의 의식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인물이다.¹³⁾ 그런데 거스의 그리스 우월주의는 유리세정제인 윈텍스에 대한 근거 없는 맹신과 맞물려서 시작부터 관객의 공감이나 동의의 대상이 아니라 비판적 시선의 대상으로 제시된다.¹⁴⁾ 윈텍스는 미국 브랜드의 유리세정제이며, 자연스럽게 미국의 실용주의 문화와 자본주의를 상징한다. 거스의 그리스 우월주의는 편의성과 효율성을 앞세우는 미국 문화에 대한 숭배와 묘한 부조화를 이루며, 유리세정제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우기는 미신적 사고는 자연스럽게 그의 그리스 우월주의를 내부에서 해체^{deconstruct} 하고 있다.

아버지의 그리스 우월주의는 막내딸 툴라에게 감옥 같은 족쇄로 작용한다. 아버지의 바람에 딱 맞는 결혼 생활을 영위하는 언니 아테나와 달리 툴라는 아버지의 기준에 맞춰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따라서 자신은 제대로 된 연애와 결혼을 하지 못하고 독신으로 늙어갈 것으로 체념하면서 가족 기업인 식당의 웨이트리스로 하루하루 연명해 간다. 그러나 이런 툴라에게 백인 미국인 남성인 이안 밀러(존 코벳 분)와의 만남은 이러한 상황에서 탈출하는 계기이자 동력을 제공한다.

그와 만나면서 톨라는 지금보다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바람을 갖게 되며 엄마를 설득해서 야간 대학을 다니기 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행사 직원으로 채용된다. 의미 없이 반복되는 창살 없는 감옥살이 같던 식당 일을 그만두고 자신이 꿈꾸던 자유롭고 능동적인 삶을 살게 된다. ‘My Big Fat Greek Wedding’(나의 성대하고 요란한 그리스식 결혼식)이라는 원제가 암시하듯이 이 영화는 아버지의 순혈주의와 그리스 지상주의를 뚫고 마침내 자신이 선택한 배우자와의 결혼에 성공하는 여성 주체 톨라의 이야기이다.

영화에 나타나는 다문화 주제들

두 영화에는 여러 다문화 주제들이 등장한다. 우선, 다문화사회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이 전면에 등장한다. <컬러풀 웨딩즈>의 경우, 이러한 갈등이 공간적 대비를 통해 구체화된다. 이 영화의 주요 공간적 배경은 시농과 파리아다. 시농을 대표하는 장소인 시농성은 백년 전쟁 당시 프랑스를 위기에서 구해낸 국가적 영웅인 잔 다르크가 궁지에 처한 샤를 7세를 찾아가서 영국에 항전하라는 신의 계시를 전한 유서 깊은 성이다.¹⁵⁾ 이런 맥락에서 베르누이 부부가 거주하는 시농은 프랑스의 역사와 전통 및 종교를 상징한다. 이에 반해 딸들과 사위들의 주된 생활 배경인 파리는 전 세계에서 몰려든 여러 문화와 인종이 뒤엉켜 공존하는 공간 즉 다문화 공간을 상징한다. “파리가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문화를 소화해내는 국제도시라고 한다면, 베르누이 부부의 보수적이고 부르주아적인 삶에 담긴 프랑스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애국심이 강하게 전달되는 공간은 바로 시농이다”는 이정민의 지적은 설득력이 있다.¹⁶⁾

영화는 프랑스의 문화와 전통을 대변하는 시농 시청에서 첫째 딸 이자벨(프레데릭 벨 분)이 아랍인 청년 라시드(메디 사둔 분)와 결혼식을

올리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뒤이어 그로부터 일 년 뒤 둘째 딸 오딜(줄리아 피아톤 분)이 유대인 다비드(아리 아비탄 분)와 결혼식을 올리며 계속해서 다시 그 이듬해에는 셋째 딸 세고렌(에밀리 캉 분)이 중국인 청년 샤오(프레데릭 카오 분)와 결혼식을 올리는 장면이 숨 가쁘게 이어진다. 이 세 번의 결혼식으로 베르누이 가문은 클로드의 말대로 소위 ‘베네통 가족(Benetton family)’이 된다. 여기서 ‘베네통 가족’¹⁷⁾이라는 말은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인권을 강조하는 광고로 유명한 패션 회사인 베네통사를 빗대어 다문화 가문이 되어 버린 현 상황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클로이의 자조적 표현이다.

〈컬러풀 웨딩즈〉는 갈등의 발생과 갈등의 봉합 그리고 또 다른 갈등의 발생과 이의 봉합이 이어지는 구도를 지니고 있다. 영화의 장면마다 인종갈등, 민족갈등, 국가갈등이 이리저리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다양한 갈등들은 프랑스가 현재 직면한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바로 다문화사회의 성공적 통합이라는 의제임을 관객에게 환기시킨다. 사실 프랑스는 1889년 6월 12일 제정된 국적법 이후로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귀화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정책을 펼쳐왔으며,¹⁸⁾ 1927년의 국적법 개정을 통해 프랑스 국적 취득 기간을 대폭 단축하였다.¹⁹⁾ 결과적으로 1931년에는 전체 프랑스 인구의 6.6%에 해당하는 약 270만 명의 외국인이 프랑스에 거주하게 된다.²⁰⁾ 2차대전 종전 해인 1945년에 프랑스는 전쟁의 여파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인구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이민청 설립을 통한 대규모 국외 노동자 이주 장려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1970년대에 들어서 아프리카 출신 노동자들의 대규모 유입이 있었으며, 그 결과 프랑스는 다문화사회로 급격히 변화하였다.²¹⁾ 사실 이는 비단 프랑스에만 국한되는 현상은 아니었으며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에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프랑스를 위시한 대표적 서유럽 국가인 영국과 독일은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상호이해와 공존을 위한 여러 가지 다문화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위 국가의 지도자들은 다문화주의가 실패하였음을 선언하게 된다.²²⁾ 그 이유로 다문화주의(혹은 다문화정책)가 사회통합이 아닌 분리를 야기하고, 차이를 줄이는 대신 극대화시킨다는 점을 든다.²³⁾ 결국 차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는 서유럽 국가들의 존립과 안녕을 위협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된 셈이다. 이런 이유에서 문화적 인종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과 그 극복을 영화적 문법을 통해 모색해 보는 것은 자못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컬러풀 웨딩즈〉는 “프랑스 내에 일어나고 있는 인종 간 혹은 다문화 갈등을 한 집안에서 일어난 다인종 간 결혼이라는 극단적 상황 설정을 통해 무겁지 않은 코믹함과 자조적인 웃음을 통해 보여준다.”²⁴⁾ 첫 번째 갈등이 발생하는 장면은 첫 손주인 벤자민(다비드와 오딜 부부의 첫 아이)의 할례식과 이어지는 가족 만찬 장면이다. 손주가 (자신이 보기에) ‘야만적인’ 이교(유대교)의 종교의례에 따라 할례를 받는다는 사실과 자신이 이를 축하하는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심사가 뒤틀린 클로드의 만찬 중에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는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유대인과 아랍인들의 식습관에 대해 불평하던 외중에 클로드는 파리의 몽마르뜨 거리를 방문했을 때 느꼈던 불쾌한 감정을 토로한다. 몽마르뜨에 있는 한 이국적인 식당을 갔다가 길을 잃었던 경험을 되새기면서, “난 내가 중동에 온 줄 알았다니까. … 프랑스인은 하나도 없더라고!”라고 불평한다. 이에 대해 오딜은 “여권 검사라도 하셨어요?”라고 따지다가 마침내 “완전 인종 차별주의자!”라고 퍼붓는다. 기성세대인 클로드의 경우 프랑스인에 대한 무의식적인 기준이나 이미지가 있으며, 외모나 옷차림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에 반해 젊은 세대인 오딜은 프랑스인은 시민권과 국적법에 의해 구성되는 존재이며 따라서 외모나 문화로 식별할 수 없다고 믿는다. 사실 이는 다문화사회의 핵심적 쟁점이다. 즉 프랑스인이라는 개념이 프랑스 시민권을 획득한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인지 아니면 전통적인 프랑스식 문화와 생활방식과

종교를 따르는 자만을 가리키는 제한적 개념인지가 다문화 갈등의 핵심에 자리한다.

문화적 차이로 인한 이러한 갈등은 비단 〈컬퍼플 웨딩즈〉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나의 그리스식 웨딩〉의 거스는 클로드보다 훨씬 더 노골적인 차별주의자이다. 그는 딸의 남자 친구인 미국인 청년 이안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우리 조상들이 철학을 논할 때 너희 조상들은 나무를 타고 다녔어”라고 거침없이 말한다. 거스는 그리스가 세상의 중심이고 세상 모든 언어의 기원은 그리스어에서 나왔다고 믿는 그리스 우월주의자이다. 문화학자들은 타문화를 대하는 태도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 자문화중심주의, 문화사대주의, 그리고 문화상대주의²⁵⁾가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자문화중심주의란 “자기 문화의 가치와 전통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문화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태도나 그러한 이데올로기”²⁶⁾를 가리킨다. 거스가 보여주는 태도가 바로 전형적인 자문화중심주의이다. 그는 그리스 문화가 최고이고 그리스 문화를 잣대로 타문화를 평가하는 것을 당연시한다. 자문화중심주의가 심해질 경우 타문화를 말살하고 자문화를 이식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는 문화제국주의²⁷⁾로 진화한다. “비그리스인들에게 그리스다움을 교육시켜야 한다”는 거스의 신념은 이의 전형적인 예이다.

두 영화에서 공통적으로 비중있게 다뤄지는 두 번째 주제는 종교 간 갈등이다. 문화 충돌과 갈등에서 핵심은 종교적 요소임이 두 영화 모두에서 강조된다. 이것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 바로 〈컬러풀 웨딩즈〉의 크리스마스 파티 장면이다. 베르누이 부부는 자녀들과의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들을 집으로 초대한다. 파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리는 에스닉 레스토랑을 찾아가서 사위들이 좋아할 만한 코셔와 할랄 요리 만드는 법을 배우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다. 마리의 노력 덕분에 모처럼 평화롭고 풍성한 크리스마스 파티가 된다. 그런데 영화는 파티 도중에 아이들을 앉고 답소를 나누는 사위들 앞에서

마리가 손주들에게 크리스마스 장식을 설명하는 장면을 슬쩍 끼워 넣는다.

마리: 우리 아기들, 재밌니? 예쁘지? ‘구유’라는 거란다. 이건 당나귀. 이
건 황소. 그리고 여기 … 아기 예수님이야. 하느님의 아드님이시지.

이를 들은 두 사위는 즉각 장모의 잘못된 가르침을 교정해 준다.

다비드: 할머니가 예수님을 홍보하고 가셨네. 근데 예수는 예언자일 뿐이
야.

라시드: 이모부 말이 맞아. 그냥 예언자 나부랭이지.

관객의 웃음을 유발하는 장면이지만 사실 이는 기독교와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의 핵심적 차이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구약성서를 핵심적인 경전으로 공유하는 세 종교이지만, 예수를 누구로 볼 것인가라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 서로를 악으로 규정하고 이단으로 증오해 온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영화는 이런 차이가 과연 서로의 존재를 말살해야 할 정도의 근본적 차이인지를 되묻는다. 특히 자정 미사에 가족 모두가 함께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리의 제안에 대해 “사실 모든 종교의 뿌리는 하나죠”라고 대답하면서 흔쾌히 수락하는 라시드의 모습을 통해, 개인의 양심과 의지로 선택하는 신앙(신념)의 차이는 결코 동일성으로 회귀할 수도 회귀해서도 안 되지만, 문화적 양식으로서의 종교 행위의 차이는 통합과 화해를 위해 일정 부분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영화는 던진다.

〈나의 그리스식 웨딩〉의 경우 종교적 차이로 인한 갈등은 〈컬러풀 웨딩즈〉에 비하면 별로 두드러지지 않는다. 이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두 집안의 종교적 전통의 차이가 기독교(개신교)와 그리스 정교의 차이라는 점에서 앞서 논의한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차이에 비해서는 덜하다는 점이다. 둘째는 〈나의 그리스식 웨딩〉의 경우,

거스의 그리스 우월주의와 인종주의가 워낙 전면에 두드러지다 보니 종교적 차이로 인한 갈등은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다뤄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러나 사실 이 두 가지 이유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이안 쪽에서 그리스정교로 개종함으로써 이 차이를 무화시키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종교적 갈등이 벌어질 소지가 아예 사라져 버렸다는 점이다. 사실 이는 〈나의 그리스식 웨딩〉의 서사가 지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위 영화들에 드러나는 또 다른 다문화적 주제는 문화적 차별에 있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따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예리한 통찰이다. 이는 〈컬러풀 웨딩즈〉에서 장인 부부에게서 직간접적 인종차별을 경험한 사위들이 막내 처제인 로라(엘로디 풍탕 분)가 코트디부아르 출신 흑인 청년 샤를 코피(눅 디아와라 분)와 결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단합하는 모습에서 잘 드러난다. 그들은 샤를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해 전혀 모르는 채 그가 아프리카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처제의 배우자감에서 배제시키며, 이 결혼을 막기 위한 행동에 적극 나선다. 그들은 샤를을 미행해서 그가 젊은 여성과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한 후 이를 로라에게 고자질한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샤를과 호텔에 동행한 여성이 그의 여동생이었음이 밝혀지면서 한바탕 해프닝으로 끝난다.

그러나 이 에피소드를 통해 영화는 유색인종 안에서도 피부색에 따른 차별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유색인종으로서 백인들의 인종차별을 경험한 동병상련의 처지인 그들이 다른 인종을 차별하는 허위의식을 지니고 있음을 영화는 폭로한다. 만약 자신들의 피부가 아프리카인들보다 덜 검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그들보다 우월하다는 논리가 옳다면 동일한 이유로 자신들에 대한 백인들의 차별 또한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인종차별의 희생자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인종차별을 반대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인종차별 이데올로

기를 무의식적으로 내면화할 수도 있음을 〈컬러풀 웨딩즈〉는 예리하게 지적한다. 이런 장치를 통해 인종차별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따로 없으며, 누구나 차별주의자가 될 수 있음을 영화는 경고한다.

두 영화에서는 성별에 따른 문화적 유연성의 차이라는 주제 또한 비중 있게 다뤄진다. 두 영화에서는 공통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본인의 문화를 더 고집하고 타문화를 더 심하게 배척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런 맥락에서 신원선은 “영화 속 갈등의 주도권을 쥔 아버지의 모습이 좀 더 권위주의적이고 기득권 세력을 대표한다면, 어머니는 아버지의 시각보다 좀 더 진보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을 보여준다”²⁸⁾고 지적한다. 물론 여성인 마리 베르누이와 마리아 포르토칼로스(레이니 카잔 분) 역시 영화 초기에는 남편들과 마찬가지로 타문화에 대한 거부감을 여과 없이 드러낸다. 그러나 마리는 딸들의 다문화·다인종 결혼으로 인해 우울증까지 앓으면서도, 결국은 딸들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21세기야. 여보, 세상이 변했다고. 이제 좀 열린 눈으로 세상을 봐야지”라고 남편을 설득한다. 이러한 입장 변화가 사위들을 대접하기 위해 그들의 민속 음식 요리법을 배우는 노력과 어우러지면서 큰 설득력과 울림을 갖게 된다. 여성이 남성보다도 문화적 수용성이 더 높다는 영화적 설정은 “여성일수록 다문화 수용 태도가 긍정적인임을, 다시 말해 남성일수록 국내 거주 외국인 또는 이주민에게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연구결과와도 부합한다.²⁹⁾

〈나의 그리스식 웨딩〉의 마리아 역시 남편보다는 훨씬 더 큰 다문화 수용성을 보여준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남자와 결혼하겠다는 딸의 확고한 결심을 확인하고는 아빠를 설득해서 결혼이 성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다. “남자가 머리라면 여자는 목이야. 머리는 목이 돌아가는 대로 따라 돌 수밖에 없단다”라는 그녀의 말은 가부장제 사회의 규범에 복종하면서도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이를 전복하면서 변화를 수용해 온 여성들의 투쟁을 위트있게 표현한다.

마지막으로 두 영화에서 결혼의 주도권을 더 많이 행사하는 쪽은 인종적 소수자에 해당하는 집안의 남성 가장들이다. 즉 〈컬러풀 웨딩즈〉의 앙드레나 〈나의 그리스식 웨딩〉의 거스는 둘 다 지배문화의 입장에서 보면 소수자 문화를 대변하는 인물들이다. 그들은 각각 자신의 가정에서는 주도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가부장들이며, 그런 이유로 자녀들의 결혼을 마지막 순간까지 반대한다. 그러나 전체적인 구도로 보면 이들의 억지스러운 요구를 지배 세력에 속하는 베르누이 부부와 밀러 부부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갈등이 해결된다. 이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상황에서 상황 변화의 키를 쥐고 있는 쪽은 소수 세력이 아니라 지배 세력이라는 냉정한 현실을 두 영화가 꿰뚫어 보고 있음을 말해준다. 달리 말하면 문화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더 적극적이고 우선적인 수용과 양보가 필요함을 두 영화가 예들러 주장한다고 볼 수 있다.

동일한 갈등에 대한 상이한 해결 방식

〈컬러풀 웨딩즈〉와 〈나의 그리스식 웨딩〉은 다문화 결혼을 모티프로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서 벌어지는 갈등과 이의 해결을 유쾌하게 그리는 코미디 영화들이다. 이 영화들에 대한 기존 연구가 많지는 않지만 그 중에는 이 영화들의 한계 내지 문제점을 꽤 날카롭게 지적하는 연구들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 과연 온당한가에 대해서 따져보는 것은 위 영화들을 제대로 평가하는 데 있어서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절차이면서 위 영화들을 더 잘 음미하는 길잡이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신원선은 〈나의 그리스식 웨딩〉에 대해 “이 영화의 최대 갈등이었던 순혈주의에 대해 어떤 문제 제시나 해결책 없이 그저 유쾌한 해피엔딩으로 그동안의 결혼갈등을 봉합하는 의사 통합론적 결말을 보여주고 있”³⁰⁾다고 비판한다. 한 마디로 가짜 해결을 제시한다는 말이다. ‘밀러’라는 성은

‘사과’를 뜻하는 그리스어 밀로에서 왔으며 ‘포르토칼로스’라는 성은 오렌지를 뜻하는 그리스어 단어 ‘포르토말리’에서 왔으므로, 결국 자신들은 서로 다르지만 결국 다 과일이라는 거스의 빈약한 통합론 역시 그가 보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³¹⁾

그러나 거스의 과일론은 애초에 두 집안으로 대표하는 이질적 문화를 통합하기 위해 제시한 논리나 이론이 아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어 새로운 출발을 눈앞에 둔 젊은이들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한 의례적 언사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의례적 언사가 양 가문의 통합의 진정한 해결책이 되기에는 너무 빈약하다는 비판은 애초에 어불성설이다. 거스의 순혈주의에 대한 문제 제기나 해결책이 없이 갈등이 봉합된다는 비판 역시 마찬가지로 설득력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순혈주의에 근거한 거스의 완고한 반대를 극복하고 이안을 남편으로 맞이하는 툴라의 선택 자체가 문제 제기요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사실 평생을 자신의 정체성의 기반으로 삼아온 그리스 순혈주의와 그리스 우월주의는 한두 번의 토론이나 논쟁으로 해소될 문제가 아니다. 툴라의 선택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실천을 통해서만 돌파할 수 있는 장벽인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해결책이 두 문화의 상호이해와 수용에 근거해서 이뤄지느냐이다. 〈나의 그리스식 웨딩〉의 진짜 문제점은 두 문화의 충돌로 인한 갈등의 해소가 이안 측의 일방적인 양보와 수용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이안은 순혈 그리스인이 될 순 없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거스의 방식을 수용한다. 결혼식의 절차와 방식에 있어서도 철저히 거스의 요구에 따른다. 이의 백미는 청교도 신앙을 가진 이안이 거스의 종교인 그리스정교회로 개종하고 세례를 받는 장면이다. 반면 거스 입장에서는 순혈 그리스인이 아닌 토박이 미국인을 사위로 받아들이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양보나 수용의 제스처도 보이지 않는다. 아마 결혼 이후 거스는 이안이 대변하는 미국식 전통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자신만의 방식대로 계속 살아갈 것이다. 이는 다문화텍스트로서 이 영화가 지닌 결함이 아닐 수 없다.

〈나의 그리스식 웨딩〉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갈등 해결에 있어서 주인공 툴라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툴라에게 아버지의 완고한 그리스 중심주의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사실 툴라는 자신의 숙명과도 같은 삶의 방식을 바꾸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는 용기 있는 여성이다. 이는 그녀가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위해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 자신의 역량을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국 ‘댄싱 조르바’를 벗어나서 자신이 평소 꿈꿔왔던 여행사 직원이 되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 이런 툴라가 결혼 승낙 이외에 아버지와 남편 간의 문화적 차이를 조율하는 문제에 있어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녀의 캐릭터의 일관성을 일정 부분 손상시키는 설정일 수 있다.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6년 뒤, 이제는 우리 딸이 그리스 학교에 갈 차례가 되었다”는 툴라의 내레이션 역시 자신이 어렵게 탈출한 아버지의 그리스 우월주의로 회귀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는 점에서 그다지 납득이 가지 않는 결말이다.

이에 반해 〈컬러풀 웨딩즈〉의 경우 갈등의 해소가 어느 한쪽의 일방적 양보나 수용이 아니라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훨씬 긍정적이다. 엄밀히 말하면, 신랑 측 부모보다는 신부 측 부모인 베르누이 부부가 더 많이 양보하는 게 사실이다. 앙드레(신랑의 아버지)의 억지스러운 요구들—예컨대 친지들을 400명이나 결혼식에 초대하겠다고거나, 결혼 전에 처가에서 수일간 머물면서 결혼을 준비하는 아프리카식 결혼을 고집하는 등—에 황당해하면서도 베르누이 부부는 결국 자신의 안방까지 내어 주면서 손님을 환대한다. 김현경은 환대를 “타자에게 자리를 주는 것 또는 그 자리를 인정하는 것, 그가 편안하게 ‘사람’을 연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하여 그를 다시 한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³²⁾이라고 정의한다. 베르누이 부부의 행위는 자신의 문화적 관습을 넘어서 타인을 존중하고 환대하는 다문화적 실천의 좋은 예이다.

물론 〈컬러풀 웨딩즈〉의 접근 방식이 모든 점에서 만족스러운 것은 아닐 수 있다.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클로드가 아프리카식 결혼의 절차와 방식을 수용하는 반면 신랑의 아버지인 앙드레(파스칼 은존지 분) 쪽에서는 별다른 수용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앙드레가 마지막 결혼식 장면에서 아프리카 전통 의상(부부)을 고집하지 않고 양복을 입는다는 점은 나름대로의 양보와 타협의 증거로 볼 수 있다. 또한 원하던 원하지 않든 이미 식민지배 문화를 많이 수용한 상태—이의 증거가 바로 앙드레 가문이 식민지배세력의 종교인 가톨릭을 믿고 있다는 점이다—에서 더 이상의 문화적 양보는 앙드레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이해가 된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클로드와 앙드레의 화해와 상호이해가 다소 급작스럽게 제시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신원선은 이를 “가짜 통합”이라고 비판한다.³³⁾ 그러나 화해가 급작스럽게 이뤄진다고 해서 가짜일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과연 서로에 대한 오해가 풀리는 과정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는가이다. 인종과 민족이라는 장벽에 가려져 있지만 사실 클로드와 앙드레에게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여러 가지 공통점들이 있다. 우선, 둘 다 시대적 변화를 따라가기 버거워하는 가부장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이념적으로 그들은 둘 다 보수주의자요 민족주의자들이다. 이는 둘 다 프랑스 민족주의를 상징하는 드골(De Gaulle) 지지자라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결혼식을 앞두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낯시터로 향한 두 사람은 다음의 대화를 나눈다.

앙드레: 그쪽도 이 결혼 반대해요?

클로드: 당연하죠.

앙드레: 난 당신이 공산주의자인 줄 알았는데.

클로드: 내가? 공산주의자?

난 드골 지지자예요!

앙드레: 어, 나도 그런데. 아프리카 정책만 빼고요.

정치적 성향만큼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기에 용이한 것이 없다. 그것은 동일한 집단에 속하는 구성원들에게 정서적 일체감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껏 가까워진 두 사람이 술을 마시다 만취 상태에서 서로의 옷을 바꿔 입는 장면이 잠깐 나오는데, 문학작품이나 영화에서 옷을 바꿔입는 것은 정체성의 변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치이다. 이는 두 사람이 서로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서 이는 각자가 차이를 극복하고 상호(문화적) 정체성³⁴⁾을 전유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사실 다문화주의의 핵심 가치는 타자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테일러^{Charles Taylor}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독특한 정체성에 대해 인정받아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민족이든지 자신에게, 즉 자신의 문화에 충실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를 요약한 바 있다.³⁵⁾ 그러나 다문화주의가 타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에 그친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에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캔틀^{Ted Cantle}이 “결속된 공동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긍정적 모델”로서의 상호문화주의를 제안하는 논리적 근거이다.³⁶⁾ 여기서 캔틀이 상호문화주의의 우월성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다양성의 양상과 혼종 정체성에 대처할 수 있는 더욱 역동적인 모델”이라는 사실이다.³⁷⁾ 캔틀에 따르면, 고정된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다문화주의가 서로 다른 문화의 공존을 허용하면서 동시에 차이를 강화하는 반면, 상호문화성의 핵심 특징은 문화들 간의 개방성, 대화, 및 상호작용에 있는데,³⁸⁾

클로드와 앙드레가 서로의 정체성을 전유하는 영화 속 장면은 위의 완벽한 예를 제공한다.

또한 앙드레는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로 국제결혼은 파경에 이르기 쉽다는 논리를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이 말은 자신의 의도를 해체하는 논리로 되돌아온다.

앙드레: 기름, 물, 섞습니다. 증거 여겼소. 안 섞이잖아요.

클로드: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요? 카푸치노 말이요. 우유는 커피랑 잘만 섞이는데?

앙드레: 그렇네? 내가 멍청한 소릴 했네요.

사실 이 장면은 이 영화의 메시지가 가장 강력하게 녹아있는 장면이다. 클로드는 앙드레의 논리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결혼 반대가 상식에 어긋나는 꾀대짓에 불과함을 논증하고 앙드레 역시 순순히 이를 받아들인다.

결국 만취한 앙드레가 ‘초콜릿 머랭’이라는 이름의 디저트를 ‘깜둥이 머리’라는 옛날식 이름으로 부르다가 경찰에 잡혀서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되고, 그곳에서 함께 갇힌 취객과 시비가 붙어서 주먹다짐까지 벌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클로드는 앙드레 편을 든다. 즉 공통의 적과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사실 클로드와 앙드레의 화해는 신원선의 비판처럼 급작스럽지 않으며 가짜 화해도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 서로의 차이가 애초에 생각했던 것만큼 크지 않으며, 오히려 피상적인 차이 속에 많은 공통점이 혼재하고 있음을 발견한 끝에 화해에 이른다는 점에서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낸다.

나가며


영화 <컬러풀 웨딩즈>와 <나의 그리스식 웨딩>은 이질적인 문화의 충돌과 이의 극복에 주목하는 코미디 영화이다. 본래 다른 문화의 만남은 상호 공존보다는 충돌로 이어지기 마련이며, 이러한 충돌의 가장 전형적인 예가 바로 결혼이며, 그중에서도 이질적인 인종문화적 배경 출신들이 결합하는 국제결혼이다. 결혼에 이르는 과정에서부터 결혼 생활 전체에 걸쳐서 서로 간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다양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습관적 행동이나 태도를 가장 합리적이고 옳다고 여기며, 자신들과 다른 문화권 사람들의 관습이나 삶의 방식은 부도덕하거나 열등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결혼에 이르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은 인종적, 종교적, 정치 체제적, 윤리 규범적 차이와 관련된 충돌의 양상으로 나타나며, 대개 이러한 차이들이 복합적으로 뒤엉키는 중층적 갈등으로 이어진다. 위 영화들은 이러한 다양한 갈등 양상과 그 극복 과정을 설득력 있게 묘사한다.

다문화 텍스트답게 두 영화는 이질적인 문화들이 만날 때 발생하는 전형적인 오해와 갈등을 소개하고 이를 해소해가는 과정을 그린다. 대표적인 갈등 유형들인 종교적 갈등, 인종적 갈등, 문화적 갈등을 영화의 서사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서 보여준다는 점에서 두 영화 모두 다문화텍스트로서의 전형성을 획득하고 있다. <컬러풀 웨딩즈>의 경우 인종적 차이와 종교적 차이가 갈등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비해 <나의 그리스식 웨딩>의 경우 자민족중심주의라는 인종문화적 요소가 갈등의 주된 원인이다. 전자에서는 딸들이 타문화권 출신의 배우자들과 결혼하는 것을 못마땅해하는 베르누이 부부의 인종적 편견이 갈등의 주된 요인이다. 그러나 막내딸의 결혼 과정에서 겪는 일련의 경험을 통해 베르누이 부부는 자신들의 인종적, 문화적 편견을 극복하고 다문화 결혼에 대한 변화된 시선을 갖게 된다. <나의 그리스식 웨딩>에서 갈등의

주된 원인은 거스가 지닌 지독할 정도의 그리스중심주의이다. 모든 그리스 여성의 사명은 그리스 남성을 만나서 결혼하고 순혈 그리스 아이를 낳고 이들을 죽을 때까지 먹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스의 그리스 우월주의는 그의 막내딸 툴라에게 감옥같은 족쇄로 작용한다. 이런 툴라에게 백인 미국인 남성인 이안과의 만남은 이러한 상황에서 탈출하는 계기이자 동력을 제공한다. 툴라는 아버지의 완고한 그리스 우월주의로 인한 여러 장애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행복한 결혼에 성공한다.

두 영화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에 주목하면서도 그러한 갈등을 해소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다소 상이한 접근을 취한다. <나의 그리스식 웨딩>의 경우 서로 다른 문화적, 종교적 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이해와 양보로 이뤄진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은 청교도 신앙을 가진 이안이 거스의 종교인 그리스정교로 개종하고 세례를 받는 대목이다. 반면 <컬러풀 웨딩즈>의 경우 베르누이 부부 쪽에서 전체적으로 더 많은 이해와 양보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두 집안의 가부장들인 클로드와 앙드레가 서로의 다름보다는 공통점을 더 많이 발견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방식으로 화해가 이뤄진다. 특히 술에 취해 두 사람이 서로의 옷을 바꿔 입는 장면은 문화간 차이를 인정하는 차원을 넘어서 문화적 보편성 및 융합을 추구하는 상호문화적 정체성의 예로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컬러풀 웨딩즈>가 <나의 그리스식 웨딩>보다 좀 더 건강하고 단단한^{solid} 문제 해결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

두 이질적인 문화의 충돌로 인한 갈등이 서로 간의 이해와 양보, 타협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나의 그리스식 웨딩>의 문제점은 영화의 결말까지도 고스란히 이어진다. 즉 이안과 툴라에게서 난 딸이 다시 그리스 학교에 입학한다는 영화의 마지막 설정이 그것이다. 반면 <컬러풀 웨딩즈>의 경우, 마지막 장면에서 그동안 로라의 결혼과 관련해서 서로에게 감정이 많이 쌓여서

결국 이혼까지 결심한 아내에게 클로드가 “마리, 나와 두 번째 허니문을 떠나 주겠소?”라고 요청하고 “우린 세계 일주를 할 겁니다. 샤오의 베이징에 들렀다 라시드의 알제리, 다비드의 텔아비브도 가고 마지막으로 샤를의 고향도 가야죠”라고 선언하는 장면은 “희극의 주제는 사회통합”이라는 코미디 영화의 정석을 잘 보여준다.³⁹⁾ 

〈원문출처〉

이 글은 아래의 글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

신영현, 「이질적인 문화의 충돌과 공존 -영화 〈컬러풀 웨딩즈〉와 〈나의 그리스식 웨딩〉 연구」 『호모미그란스』 27, 이주사학회, 2022

〈저자소개〉

신 영 현 (한성대학교 교양대학 기초교양학부 교수)

저자 신영현은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미국소설 전공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성대학교 교양대학 기초교양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미국 현대 소설, 정신분석, 문화연구, 문학과 영화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연구와 저작 활동을 수행 중이다. 저서로는 『윌리엄 포크너 연구: 성장을 통한 희망 찾기』와 공저서로 『윌리엄 포크너』가 있으며, 「『중군위안부』 연구: 교호적 서술과 자유직접화법을 통한 혼종적 정체성의 전유」를 위시한 다수의 논문이 있다.

VI

제2차 세계대전 일본계 미국인 재정착 정책과 조건부 이동성_{mobility}

권은혜
한성대학교

미국 역사 속 소수자의 이동성_{mobility}

이동성_{mobility}, 즉 이동할 곳을—혹은 머무를 곳을—선택할 개인의 능력은 서구 근대 시민권의 핵심 요소이다.¹⁾ 21세기 들어 영미권의 문화 및 도시 지리학, 사회학 연구자들은 미국의 현대사에서 이동성이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국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배분되는 방식을 연구했다.²⁾ 사회학자 미미 셸러에 따르면, “인종, 성별, 성적 경계와 모빌리티에 대한 끊임없는 감시야말로 이동성을 갖춘 백인, 이성애자 남성, 국민적 주체를 구축하고 이에 힘을 부여하여 백인 권력의 기초를 마련”했으며 이 주체의 “권력은 자유로운 모빌리티라는 지배적 내러티브를 지탱해 줄 타자를 발견해야만 유지된다.”³⁾ 셸러의 통찰을 빌리자면 미국 정부는 인디언, 흑인, 여성, 성소수자, 이민자 등 타자의 이동성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백인 이성애자 남성에게 자유로운 이동성을 부여했다고 볼 수 있다. 건국 초기 미국의 백인 엘리트는 백인이 이주할 정착지를 마련하기 위해 인디언을 선조들로부터 내려 온 땅에서 제거하고 낯선 곳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건국 이후 자유 흑인의 수가 증가하자 이들을

백인과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하는 대신에 서아프리카로 보내는 식민화 계획을 고려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인디언은 그들의 이동성을 통제하려는 정부에 맞서 스스로 이동의 자유를 추구하고 저항했다.⁴⁾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계 미국인은 “적국 외국인”으로 취급받으며 이동과 거주 자유를 박탈당했다. 진주만 공격 이후 미국 정부는 일본계 미국인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던 서부 해안 지역을 군사지역으로 선포했고 약 11만 명의 일본계 미국인을 내륙에 급조된 수용소로 강제 이주시켰다. 1942년 10월에 정부는 이들을 무기한 수용소에 가두는 대신 서부 해안 지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고루 분산시켜 재정착을 유도하는 정책을 수립했다. 재정착 정책은 수용소 운영을 담당하던 내무부 산하 ‘전시재이주국^{War Relocation Authority}, 이하 WRA’에서 기획하고 관리했다. 전시재이주국 산하 11개 ‘재이주 센터^{Relocation Center}’—이는 정부 공식 명칭이었고 집중수용소의 성격 때문에 ‘캠프^{camp}’라고 불렸다—의 관리들은 수용자들을 설득해 취업, 학업, 군 입대 등의 목적으로 캠프를 떠나 중서부 혹은 동부 지역에 가서 재정착하라고 권유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1944년 12월 일본계 미국인 집단 소개 및 배제명령이 취소되자 서부 해안 지역으로의 귀환 역시 허용되었다. 재정착 정책이 시작된 1942년 10월부터 마지막 수용소였던 툴리레이크가 폐쇄되던 1946년 3월까지 총 5만 7천명의 일본계 미국인이 서부해안으로 돌아갔고 나머지 5만 2천명은 다른 지역으로 재이주했으며 약 3천명은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법무부의 보호관찰 대상자로 남았다.⁵⁾ 즉 WRA의 기대와 달리 다수의 일본계 미국인들은 반일정서가 팽배한 서부 해안 지역으로의 귀환을 선택했던 것이다.

일본계 미국인 강제수용에 관한 연구에서 재정착 정책과 일본계 미국인의 재정착 경험은 주변적인 위치에 있었지만 21세기에 출간된 연구서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다루어지는 편이다. 초기 연구는 재정착 정책의 의도와 결과를 평가함에 있어 정책의 집행자였던 WRA 및 이들과

협력해 일본계 미국인 수용자와 재이주자를 관찰했던 당대 버클리대학 사회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편이었다.⁶⁾ 1946년에 출간된 WRA 보고서는 재정착정책의 의도가 일본계 미국인의 동화와 미국 사회의 인종 갈등 완화를 추구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⁷⁾ WRA 캠프는 재정착한 일본계 미국인, 특히 니세이가 중서부나 동부에서 겪은 긍정적인 경험담—서부에서라면 아무리 대학을 나와도 들어갈 수 없던 일자리에 취업되어 새로 시작할 수 있었다는 등—을 수집했다. 역사가 로저 대니얼스는 이런 정부 자료를 “선전 문서”라고 부르면서도 “대부분의 재정착자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잘 지내고 있었던 것 같으며 자유로운 환경이라면 당연히 캠프보다는 개선된 환경이었다고 할 수 있다”고 기술한다.⁸⁾ 대니얼스는 1970년대부터 일본계 미국인 수용소를 “집중수용소 *concentration camps*”라고 부르고 일본계 미국인 강제수용 보상 운동에 참여할 정도로 비판적인 역사가이다. 하지만 그조차도 WRA의 뉴딜 자유주의 관료와 마찬가지로 중서부와 동부 도시로의 재정착을 선택한 일본계 미국인들이 “새로운 도시 프론티어를 개척”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⁹⁾

이 글은 재정착 정책에 대한 일본계 미국인의 대응이 복합적이고 다양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21세기 들어 출간된 일본계 미국인의 전시 경험 회고 및 연구서에는 재정착을 선택하거나 거부하거나 혹은 신청했어도 신원조회과정에서 거부당했던 경험을 상세히 언급하는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¹⁰⁾ 재정착 정책의 집행과 평가에 대한 정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재정착 정책의 주된 목표는 일본계 미국인 인구의 분산 및 이들의 에스닉 정체성 약화였지 이들에게 이동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었다. 정부가 제공한 이주와 재정착의 기회를 선택할 경우 수용소의 일본계 미국인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키고 낯선 대도시에서 다른 인종의 미국인들 사이에서 “통합”되어 살아야 했다. 수용소에서 벗어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보다 많은 일본계 미국인들은

가족과 함께 수용소에 남겨나, 반일 정서가 극심했지만 일본계 미국인 공동체가 있는 서부 해안으로 돌아가려 했다. 서부 해안 이외 지역으로 재정착했던 일본계 미국인들 역시 그들만의 모임을 형성하지 말라는 당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외로움과 인종 편견의 압박 속에서 동족을 찾았다.

이 글은 일본계 미국인 재정착 정책이 소수 인종의 이동성을 자의적으로 통제하던 미국 정부의 오랜 관행과 닮았다고 주장한다. 물론 19세기 미국 정부의 인디언 제거나 식민화 계획의 목표는 인디언과 흑인을 미국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이었고 루즈벨트 행정부의 재정착 정책은 일본계 미국인의 통합을 의도했다는 점에서 다르다. 하지만 뉴딜 자유주의 정부가 소수자 통합을 위해 선택한 방식은 불평등했고 강제적이며 조건적이었다. 정부는 일본계 미국인에게 백인과 동등한 이주의 자유를 부여하지 않았고 이들을 거의 강제로 분산 이주시켜 동화와 통합을 유도했던 것이다. 다수의 일본계 미국인들은 그들의 공동체가 있는 캠프에 남겨나 중서부 대도시 대신에 서부 해안으로의 귀환을 선택함으로써 재정착 정책에 반발했다. 본론의 첫 번째 장은 일본계 미국인 소개와 수감 직후 WRA가 재정착 정책을 고려하게 된 동기 및 재정착 기획 초기 단계에 나왔던 내부 논의를 다룬다. 그 다음 장에서는 1942년 말부터 1946년까지 WRA가 석방과 재정착 정책을 확정하고 집행하던 방식을 다룬다. 본론의 마지막 장에서는 재정착 정책에 대한 일본계 미국인의 다양한 반응과 재정착 경험 사례를 다룬다.

WRA의 일본계 미국인의 이동성 통제 완화 구상, 1942년 3월에서 10월까지

미국 정부는 일본계 미국인의 집단 소개 및 수용정책이 이들의 이동성을 부당하게 통제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집단 소개

정책을 채택하기 이전에 일본계 미국인에게 서부 해안 이외 지역으로 떠나라고 권고했다. 1942년 3월 초 서부 군 기무사령부는 군사지역으로 선포된 서부 해안가 4개 주에 거주하는 일본계 미국인에게 ‘자발적으로’ 군사지역 밖으로 이주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자발적 이주의 시기에 약 9천 명 정도만 이주했고 이들은 대개 서부 해안에서 그리 멀리 벗어나지 못했다. 무엇보다 서부 해안가가 아니더라도 미국 전역에서 일본계 미국인에 대한 적대적 태도가 절정에 이르렀던 시기라 이주자가 구직과 일상생활을 영위하기란 불가능했다. 서부 군 기무사령부는 3월 27일자로 군사지역 내 일본인의 자발적 이주를 중단했고 집단적 강제 소개로 방침을 변경했다. 강제 소개명령이 내려지자 전시 농업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던 서부 내륙 및 중서부 주(오리건 동부, 유타, 콜로라도, 아이다호, 몬태나)의 농장주들, 특히 사탕수수회사들은 일본인 소개자를 노동력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제시했고 내무부도 이 가능성을 현실화할 방법을 고민했다. 1942년 4월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중서부 11개 주 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WRA 초대 국장 밀턴 아이젠하워는 “소개된 일본인들의 시민적 자유 및 이들의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관심을 표하며 이들의 노동력을 활용할 5가지 방식—농지 개간 등 공공근로사업, 연방정부 소유 프로젝트 토지에서 식량 생산, 워싱턴 등 군수물자의 생산, 민간 고용, 소개자들이 자체 운영하는 자립공동체—을 예시로 들었다. 그러나 콜로라도와 유타를 제외한 다른 주 대표들은 연방정부가 통제하는 소개자 노동 프로그램에 대해 각자 이유를 들어 격렬하게 반대했고 이들 모두 일본인의 민권과 인권에는 무관심했다. 1942년에 일본계 미국인을 공개적으로 외부 취업 및 재이주시키는 정책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사탕수수농장의 계절노동 수요 충족을 위해 약 1만 명이 차출되었다. 그 사이 일본인 집단 수용의 원칙을 의문시하는 목소리가 등장했다. 교육계는 니세이 대학생이 캠프 외부에서 학업을 지속할 권리를, 그리고 일본인의 비 일본인 배우자들은

배우자의 석방과 가족 재결합을 군 당국에 요구했다.¹¹⁾

법무부와 협의 하에 WRA는 1942년 5월부터 소개자를 취업의 목적으로 석방시켜 궁극적으로 센터 외부로의 재이주와 재정착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논의했다. 재정착 프로그램은 WRA 프로그램의 법적 토대 강화—소개자의 민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으로부터 WRA를 보호하기 위해—와 소개자의 민권 보장을 위해 도입되었다. 실제로 법무부 송무 차관은 전쟁 이후 WRA를 겨냥한 소송 가능성을 고려해 일본인 집단 구금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WRA 역시 소개자 다수—약 7만 명의 니세이—가 미국시민이라는 점을 고려해 상황에 따라 구금의 강도를 조절할 계획을 세웠다. 소개자 취업 및 재이주의 형식으로는 단기 석방, 계절노동이주, 학생 재이주, 군사지역이 아닌 장소로의 “무한 강제휴가(indefinite furlough)” 등이 논의되었다.¹²⁾

1942년 7월 20일에 WRA는 기본석방규정(basic leave regulations) 초안을 확립하고 루즈벨트 행정부를 설득했다. 국장 아이젠하워는 일본계 미국인 소개자의 석방 및 재이주가 절실하다고 워싱턴에 호소하면서 인력이 귀한 전시에 이들을 감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학령 연령에 속한 시민인 니세이가 “미국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캠프] 환경에서 성장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¹³⁾ 7월의 초안에서는 석방 자격자를 시민권자인 니세이로 한정했다. 소개자의 장기 재정착 지역으로는 서부 군 기무사령부의 관할 지역인 서부 해안, 그리고 동부 군 기무사령부 관할 지역인 대서양 해안을 제외하면—동부 군 기무사령부는 일본인의 동부 해안 접근 가능성을 우려했다—남는 곳은 중서부였다. 당국의 판단에 따르면, 중서부 도시들은 서부에 비해 일본인에 대한 편견이 심하지 않았고 일본인의 재이주를 환영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현 정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조할 의사가 있었다. 가장 큰 논란거리는 한시적으로 석방을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영구 석방할 지였다. 영구 석방을 지지하는 관료들은 “미국인의 정상적인

경제적 삶에 [소개자들이] 빠르게 흡수”되게 하려면 이들을 다시 캠프로 불러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¹⁴⁾ 실제로는 두 입장이 절충되는 식으로 결론이 났다. 원칙상 WRA 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석방 허가를 취소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한 번 석방되어 이주한 소개자의 허가를 취소한 사례는 4년간 단 한 번뿐이었다.

비록 실현되진 못했지만 WRA 내부 논의에서 나온 “가장 극단적이고 논쟁적인 제안”은 “WRA가 모든 센터의 문을 활짝 열고 센터를 떠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잔류할 지를 특별한 절차나 과정 없이 개별 소개자의 판단에 맡기자”는 것이었다.¹⁵⁾ 하지만 WRA는 전시 긴급 상황이라는 현실 앞에 일찌감치 이상을 포기했다. “국익과 소개자의 권리를 최대한 도모하면서 무질서와 분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석방을 진행해야 하는 것의 어려움, 그리고 극심한 반일 여론을 고려할 때 “자유방임적 재정착 정책을 채택할 경우 혼란, 유혈사태, 심각한 국제적 혼선이 예상”되었기 때문이었다.¹⁶⁾

1942년 10월 1일자로 확립된 최초의 석방 규정은 신청자가 연방수사국의 신원조회와 WRA 자체 내부 규정을 충족한 경우 “전원 재이주 All-Out Relocation” 시킨다는 내부 원칙을 담았다. 미국시민인 니세이뿐만 아니라 외국인인 이세이, 그리고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일본에서 교육받은 키베이도 모두 석방을 신청할 수 있었다. 일단 석방 허가를 받으면 무기한 연장이 가능했다. 군사지역으로 선포된 서부 해안 지역 및 일본인에 대한 적대가 심한 지역을 제외하면 이동 지역에도 제한을 두지 않았다. WRA는 소개자 석방 프로그램을 “재이주센터의 자연스럽지 못한 환경에 무고한 이들을 가두는 것이 과연 타당하고 바람직한가에 대한 WRA 국장, 송무차관, 고용부 수장의 고민”이 축적된 결과라고 자체 평가했다.¹⁷⁾

WRA의 재정착 정책은 일본계 미국인들을 수용소에서 최대한 빨리 석방시켜 정상적인 미국인의 삶을 회복하게 도와준다는 선의에서 출발

했다. WRA 관료들은 다수의 일본계 미국인들이 캠프를 떠나길 원할 것이라고 가정했지만 재정착 정책에 대한 일본계 미국인의 반응은 생각보다 적극적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루즈벨트는 일본계 미국인의 석방과 재정착을 반대할 여론을 고려해 일본계 미국인 인구의 고른 분산과 점진적 석방을 WRA에 주문했다.

일본계 미국인 인구의 분산 수단으로서 재정착 정책의 집행, 1943-1946

1943년 9월 루즈벨트는 미 상원에서 “전시 군사적 필요에 의해 소개라는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흔들리지 않은” 일본계 미국인들이 많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들의 석방과 재정착을 지지했다.¹⁸⁾ 루즈벨트 행정부가 최종적으로 확립한 재정착 정책의 원칙은 일본계 미국인 인구의 점진적이고 고른 분산이었다. 1944년에 루즈벨트는 서부 해안 지역으로 일본계 미국인의 귀환을 허락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들을 나라 전역으로 흩뜨리는 작업이 잘 진행 중”이며 “미국 전역에 7만 5천 [일본계 미국인] 가족이 흩어져 있다면 그 어느 누구도 화내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한다.¹⁹⁾ 역사가 존 하워드에 따르면, 루즈벨트는 전쟁 중 일본계 미국인 석방이 그의 역사적인 4선 도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하고 “점진적 석방 프로그램을 운영해 수용자들을 분산”시키길 원했으며 서부 해안 이외의 지역에 “한 카운티당 한 두 가족만” 보내야 여론 악화를 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²⁰⁾ 대통령의 극단적 지시를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WRA는 일본계 미국인을 비교적 고르게 “분산”해 한 주당 “인구의 0.1%를 구성하게 만들려 계산”했다.²¹⁾ 역사가 그렉 로빈슨은 서부 해안의 반일 여론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루즈벨트가 일본계 미국인을 “문제라고만

보고 이들이 스스로 살 곳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무시”했다고 평가한다.²²⁾

재정착 정책의 집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WRA는 일본계 미국인 집단 배제 명령의 부분적 취소를 제안했다. 1943년 3월 WRA의 2대 국장 딜런 마이어는 전쟁부 장관을 비밀리에 찾아가 충성심이 입증된 니세이, 제1차 대전 참전 일본인 군인, 현재 군복무 중인 니세이 가족 등 세 집단에 대한 배제명령을 철회하고 이들의 시민권을 복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1943년 3월 니세이를 미군에 통합하지 않고 분리 부대를 만든다는 전쟁부의 결정이 내려졌다. 캠프에서는 니세이 분리 부대 징집에 반감을 가진 소개자들이 WRA의 ‘무기한 석방 신청서’에 포함된 미국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 맹세를 거부하며 다른 이들도 선동했다.²³⁾ 전쟁부 장관은 불충한 소개자의 분리 수용이 더 시급한 문제라며 마이어의 제안을 거부했다. 마이어는 “충성스러운 이들에 대한 제약을 제거하고 이들의 권리를 회복하지 않은 채로 불충한 이들에 대한 제약을 추가하는 분리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충성스러운 이들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반발했다.²⁴⁾ 마이어의 요청에 전쟁부는 귀를 닫았고 충성 맹세 거부자의 분리 수용에 몰두했다.

WRA는 일본계 미국인의 재정착으로 이들에 대한 미국사회의 편견을 깨뜨리고 긍정적 인식을 심을 수 있다고 믿었다. 이들의 예측대로라면 “중서부와 동부 해안지역에 수천 명의 [미국화된] 니세이를 점진적으로 흩어지게 하면 괴물로 그려진 소개자들이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다 많은 미국인들이 깨달을” 것이었다.²⁵⁾ WRA는 주요 재이주도시에 현장사무소를 설치하고 일본인에 대해 관용적인 지역사회 단체나 교회 조직을 모아 지역재정착위원회를 구성했다. 1943년에 중서부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동부 워싱턴디씨에 이르는 지역에 총 26개의 지역재정착위원회가 설립되어 재이주자의 주거지 확보 및 지역사회 적응에 도움을 주었다. 1944년 초부터 WRA는 중서부와 동부 해안 지역의 주요 도시

에서 “인종적 관용에 관심을 가진 교회 및 기타 사설 기관”과 함께 니세이 분리부대의 충성심과 성과를 널리 알리는 선전 작업도 진행했다.²⁶⁾ WRA의 자체 평가에 따르면 당국의 “선전”이 진행되면서 1944년 가을이 되면 반일 정서는 수그러들기 시작했고 전국 단위 잡지와 신문은 “무고한 이들이 불의를 겪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태도를 보였다.²⁷⁾

1943년에 총 1만 7천명의 소개자들이 재이주를 선택했다. 이들은 대체로 18-30세 사이의 니세이였고 이들의 이세이 부모와 미성년 형제자매는 캠프에 남았다. 이세이는 집이 있는 서부 해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굳이 낮은 지역에서 재적응하기보다는 캠프에서 일본계 미국인 사이에 있길 원했다. “보다 활기차고 기민하며 미국화”된 니세이에게 가장 매력적인 재이주 장소는 “높은 인구 밀도에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며 반오리엔탈 정서가 상대적으로 없었던” 시카고였다.²⁸⁾ 덴버와 솔트레이크시티는 그 다음으로 인기가 높았는데 이 두 도시에는 전쟁 이전에 형성된 작지만 안정된 일본인 공동체가 존재했다. 위 3개 주요 재이주 도시 이외에 중서부와 서부산간지역 주에 소개자들이 고루 퍼져 정착했다. 동부 해안 지대에도 일자리는 많았지만 1943년에는 이 지역에 일본인의 도래를 꺼리는 전쟁부의 입장으로 인해 재이주가 활발하지 않았다.²⁹⁾ 서부 내륙 지대에 소재한 캠프 수용자들은 인종차별과 취업기회 부족으로 남부로의 이주를 꺼렸고 캠프 관리들도 권장하지 않았다. 유일한 남부 지역 캠프였던 아칸소 소재 로우워 캠프의 수용자들은 캠프 인근 플랜테이션에 농업노동자로 취업하거나 미시시피의 도시로 이주했다.³⁰⁾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본인 배제명령이 1944년 12월 17일에 철회되면서 일본계 미국인에게는 서부 해안으로 돌아갈 길이 열렸다. WRA는 소개자들이 서부 해안으로 신속히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하며 센터의 폐쇄 일정을 확정하고 센터에 남아있는 소개자의 재이주를 추진

했다. 놀랍게도 많은 소개자들이 캠프에 잔류하길 원했다. 1944년 12월까지 석방 절차를 활용해 센터를 떠난 이들은 군 입대 혹은 군수산업에 취업한 이들 2천 3백 명을 포함해 3만 5천명에 불과했다.³¹⁾ 일 년 안에 센터를 폐쇄하기로 결정한 WRA는 짧은 시간 안에 수만 명의 소개자들을 재이주시켜야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소개자들 중 상당수는 삶의 터전이었던 서부 해안으로 다시 돌아가길 원했지만 고향으로 돌아간 이웃들이 테러와 살해 위협에 시달리고 적절한 주거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1945년 1월에서 6월 사이 서부 해안으로 귀환한 일본계 미국인을 겨냥한 테러가 34건 발생했다.³²⁾ 로스앤젤레스의 경우 전쟁 중 급증한 도시 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택 공급 상황 및 유색인을 차별하는 주택 계약 관행으로 인해 일본계 미국인이 돌아갈 집이 사실상 없었다.³³⁾ 당연히 소개자들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최대한 오래 센터에 남고 싶어 했다.

진보 언론 매체는 연방정부가 서부로 돌아오는 일본계 미국인의 주거와 복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거, 인종 폭력, 사회적 보호망 부재 등 재정착자가 처할 어려움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WRA는 주거는 재정착자 스스로, 인종 폭력과 복지는 지역사회가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을 고집했다. 이들을 위한 특별 공공주택 건설 제안에 대해서는 “일본인을 특별 대접을 받는 집단으로 설정해 전체 인구로부터 분리시키려는 해결책”이라고 정의하며 “일본인 후손을 제약하건 혹은 환영하건 간에 특별 대접을 받는 집단으로 만드는 것은 민주국가로서 나쁜 선례”가 된다고 주장했다.³⁴⁾ 서부 해안의 반일 정서와 테러 위협에 대해서도 WRA는 그럴수록 소개자들을 더 많이 귀환시키고 이들에게 우호적이고 “시민정신이 투철한” 지역 내 집단이 “인종편견과 지속적으로 싸우는 일”을 수행해야 효과적이라며 우기며 연방정부의 책임을 회피했다.³⁵⁾ 캠프를 끝까지 떠나지 않으려는 이들을 내보내기 위해 WRA는 마지못해 약 3천 명의 공적 부조가 필요한 일본계 미국인—어린 자녀를

둔 가정, 상이군인, 노약자 등—을 수용하기 위한 트레일러 공원을 캘리포니아의 도시들에 건설했지만 이마저도 1946년에 차례로 문을 닫았고 당국은 세입자를 강제로 퇴출시키려고 물과 전기를 끊어버렸다.³⁶⁾

1942년 10월부터 1946년 3월 격리수용소였던 툴리레이크 센터가 폐쇄될 때까지 4년간 총 5만 7천 명의 일본계 미국인이 서부해안으로 돌아갔고 5만 2천 명은 다른 지역으로 재이주했으며 약 3천 명은 법무부의 보호관찰 대상자로 남았다.³⁷⁾ 일본인 인구가 서부 해안지대에 집중되고 고립된 것을 문제로 보고 이들을 타 지역으로 고루 분산시킨다는 정부의 계획은 완수되지 못했다. 1946년 WRA 보고서는 일본계 미국인들이 서부로 다시 돌아간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서부 해안 주에서 겪은 모든 차별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개자들이 이 지역에 대한 센터멘탈한 호감과 이곳을 ‘집’이라고 보는 경향을 보였다.”³⁸⁾

서부가 아닌 지역을 선택한 5만 2천 명의 일본계 미국인이 있었고 미국 전역으로 고루 퍼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주에서 일본인은 전체 주 인구의 약 0.1%를 구성하게 되었음을 지적하며 WRA는 전시 일본인 재정착 정책을 “미국 역사상 가장 급속한 인구 재조정 사례 중 하나”이자 “일본인 소수자를 재통합시키는 데 큰 발전을 이룬” 사례로 평가했다.³⁹⁾ WRA는 재정착 정책이 다른 미국인들로 하여금 일본계 미국인을 알아가는 “첫 씨앗”을 뿌렸다고 자축했다.⁴⁰⁾ 이들을 “일본 천황 광신도”로만 알고 있던 중서부 도시와 농촌 지역 주민들은 “처음으로 직접 보고 알게” 되면서 이들 역시 “품위 있고 예의바르며 신실한 사람이자 다른 미국인과 같은 문제들에 직면해 적응하려 노력”하는 같은 사람이라고 받아들였다는 것이다.⁴¹⁾ 물론 일본계 미국인 인구의 물리적 분산이나 일부 미국인들과의 대면 접촉만으로 이들을 미국사회로 통합시킬 수 없다는 것을 WRA는 잘 알고 있었다. 일본계 미국인을 진정한 미국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려면 강제 소개와 구금으로 인한 이들의 재산 손실 보상, 아시아인을 차별하는 주법과 연방 이민귀화법의 개정,

소개자의 정착과 재통합을 돕는 지역 시민위원회의 집단적 활동이 필요하다고 WRA 보고서는 제안했다.⁴²⁾

재정착 계획에 대한 일본계 미국인의 반응과 재정착 경험의 다양성

서부 해안 지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전에 일본계 미국인들은 수용소를 떠나 서부 해안 이외의 지역에서만 취업과 진학이 가능했다. 가장 먼저 재정착의 기회를 포착하려 했던 집단은 니세이, 그 중에서도 대학을 다니던 중 소개명령을 받아 학업을 중단해야 했거나 수용소 생활 중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였다. WRA 역시 고등교육이 필요한 니세이의 재정착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워싱턴에 호소했다. 1943년 4월 WRA 국장 딜런 마이어는 재이주센터에서의 삶을 “부자연스럽고 비미국적인 삶”이라고 묘사하며 “약 4만 명에 달하는 미성년자들을” “유자철선 뒤에서 무장경비대의 감시를 받으며 성장하게 내버려두는 것은 미국적인 방식이 아니”라고 개탄했다.⁴³⁾

일본계 미국인 소개가 시작된 직후 WRA의 초대 국장 밀턴 아이젠하워는 1942년 5월에 미국퀘이커봉사위원회(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의 지도자 클라렌스 피켓이 조직한 전국 일본계 미국인 학생 재이주 위원회(National Japanese American Student Relocation Council, NJASRC)에 니세이 재이주 프로그램의 운영을 의뢰했다. NJASRC에서 니세이 대학 진학 추진에 크게 기여한 사람은 워싱턴대학 사회학자 로버트 오브라이언이었다. 퀘이커교도이자 인종정의를 추구하던 오브라이언은 시민인 니세이의 강제 수용에 반대했고 이들에게 시민적 자유를 돌려주어야 한다고 믿었다. 니세이의 석방과 대학 진학은 이들의 자유를 회복하는 방법이자 동시에 이들을 동화시키는 수단이기도 했다. 『니세이 대학생』에서 오브라이언은

대학 진학으로 니세이가 “일본식 관습과 제도와 단절되어 동화 과정에 들어가는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⁴⁴⁾ NJASRC는 WRA와 함께 대학, 민간기업, 종교기관과 긴밀한 협조 망을 구성해 수천 명의 니세이를 중서부, 동부, 남부 소재 6백여 개 대학에 보냈다.⁴⁵⁾ 1942년 초에는 약 7만 명의 서부 출신 니세이 중 약 3천 3백 명이 대학에 등록했고 1946년까지 학생재이주프로그램 아래 추가로 5천 5백 명의 니세이들이 캠프를 떠나 대학에 진학했다.⁴⁶⁾

오브라이언에 따르면 대학 진학 및 재정착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정책에 대한 저항이었다. 니세이는 수용소를 떠나 중서부나 동부 대도시에서 대학을 다니는 전망을 선뜻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이들은 부모 형제와의 이별, 낯선 도시에서 정착하는 데 예상되는 재정 불안정 및 인종 편견을 이유로 재정착에 저항했다. 대학생이 될 자녀를 둔 부모들도 일본계 미국인이 거의 없는 지역으로 자녀를 보내길 두려워했다. 치즈코 키타노는 스미스칼리지에서 장학금을 받았지만 법무부 구금에서 풀려나 캠프로 온 아버지, 병에 걸린 어머니와 함께 있기 위해 대학 진학을 포기했다. 키타노는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부모와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이 멋진 기회를 지나가게 해야 하는 것이 힘들다”고 고백했다.⁴⁷⁾

이주와 초기 정착 과정에서 니세이 대학생들은 캠프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이동의 자유를 누리 행복하다고 고백했다. 덴버대학 도서관학과 대학원에 입학한 메리 오기는 1942년 가을에 덴버 행 기차를 타기 위해 서부로 잠시 돌아갔을 때 “이제 나는 자유다”라고 생각했다고 회고했다.⁴⁸⁾ 하트마운튼 캠프 수용자였던 M.M.은 1943년 1월 덴버에 도착하고 약 3주가 지나 덴버에 대한 소감을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자유와 프라이버시는 멋진 것이다. 센터에서의 생활은 벌써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마치 악몽같다. 이 곳 덴버에서 기차에서나 버스에서나 사람들은 개인적이지 않아 지금까지는 불쾌한 일이 없다.”⁴⁹⁾

일본계 미국인을 실제로 본 적이 거의 없었던 백인 미국인들은 거리나 대중교통기관의 행인으로서, 혹은 고용자로 이들을 만날 때 공손하게 대해주려 했던 것 같다. 매사추세츠 노스햄턴에 소재한 스미스칼리지에 입학한 콘스탄스 무라야마와 그녀의 니세이 친구 헬렌은 등갓길에 동네 가정주부들로부터 아침인사를 받았다고 전했다.⁵⁰⁾ 릴리안 오타는 버클리에서 3학년에 재학하던 중 수용소로 오게 되었다. 니세이 대학 진학 재이주 정책의 첫 수혜자 중 하나였던 오타는 1942년 8월 장학금을 받고 탄포란캠프를 떠나 웰슬리칼리지로 가는 기차를 탔다. 아직 일본계 미국인에 대한 반감이 극심했던 시절이었지만 동부로 가는 기차 안에서 승객들은 오타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 하는 승객이 딱 한 명 있었다. 이 중년 여성—아마도 백인—은 중국에서 잠시 교사로 일했던 경력이 있어서 오타를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며 중국과 중국인을 칭찬했고 오타도 수긍했다. 곧 그녀는 “위험한 일본인을 수감한 것이 잘된 일”이라고 언급했고 오타에게 중국 어느 지역에서 왔냐고 물어보았다. 오타가 “장제스 부인의 모교인 웰슬리칼리지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한 일본계 미국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자 그 여성은 오타를 “더 반갑게 대해” 주었고 몇 주 뒤 선물을 보내기도 했다.⁵¹⁾ 1943년 초 시카고로 이주한 T.F.는 “온 지 4주가 지났지만 아직도 흥분이 꺼지지 않는다. 어딜가나 따뜻하게 맞아준다”며 좋아했다. 한 교수의 가정에 가사 도우미로 취업한 T.F.는 그의 아내와 세 딸 모두 그녀에게 “맞춰 주려 신경 써 주어서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 것처럼 느낀다”며 이 가족을 “말뿐만 아니라 행동에서도 진정한 리버럴”이라고 표현했다.⁵²⁾

미국인이면서 ‘적국’ 일본인의 후손이던 니세이 대학생들은 캠프에 남은 부모와 다른 가족을 대변하고 일본계 미국인의 충성심을 증명해야 하는 압박을 받았다. 1944년 봄 프랭크 이노우에는 “아직 캠프에 남아있는 이들이 그들의 문제에 대해 일관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니세이 대학생들이 이들에게 큰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기술했다.⁵³⁾ 오타는 웰슬리에서 “이 나라의 모든 일본인은 어떤 식으로든 ‘사보타주와 스파이 네트워크’에 얽어 있다”고 믿는 학생을 대면했다. 오타는 “최선을 다해 그녀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고 나중에 그 학생에게 일본계 미국인 시민연맹^{JACL}의 기관지인 〈태평양 시민^{Pacific Citizen}〉을 보내주었다 (1942년 당시 JACL은 일본계 미국인 소개와 강제 수용에 찬성했다). 이후 그녀는 “자신이 틀렸었다고 인정”했다.⁵⁴⁾

재정착 정책을 통해 정부가 달성하려던 것은 일본계 미국인의 집단 정체성 약화와 미국 사회로의 강제적 동화였다. WRA 관리들과 NJASRC는 일본계 미국인 재정착자에게 다른 미국인과 어울리려 노력하고 여가나 종교 활동을 할 때도 일본계 미국인끼리 모이지 말라고 경고했다. 학교, 직장, 집 혹은 공공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찾는 데 WRA 지부와 협동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낯선 도시에서 일본계 미국인 이주자들은 외로움을 느끼고 서로를 찾았다. 앞서 언급한 오기, 그리고 무라야마에게 대학에서 만난 니세이 여학생들과의 우정은 낯선 환경에 적응하게 해주는 윤향유였다.⁵⁵⁾ 소수가 모이는 것은 괜찮았지만 다수가 한 장소에서 모임을 가지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니세이 대학생도 있었다. 유타대학에 다니던 한 학생은 NJASRC에 보낸 편지에 동료 니세이들이 “120명 이상 모여 거부할 정도로 눈에 띄게 행동”한다면 “니세이가 언제나 교훈을 배울 것인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썼다.⁵⁶⁾

전쟁 기간 중 다른 어느 도시보다 더 많은 일본계 미국인들이 재이주했던 시카고에서 WRA는 서부에서처럼 일본계 미국인의 집중 거주 지역이 형성되지 못하게 하려 안간힘을 썼다.⁵⁷⁾ 인류학자 재켈린 하든과의 인터뷰에서 빌 무라사키는 전쟁 기간 중 WRA가 재이주자들에게 강조한 규칙은 “뭉쳐 모이지 말고 눈에 띄지 않는 것”이었고 그런 이유로 “시카고에서 우리 [일본계 미국인] 동네를 가져본 적이 없었다”고 회고

했다. WRA는 시카고의 개별 사업주에게도 일본계 미국인의 모임을 감시하라고 주문했다. 알 카와이의 회고에 따르면, 재이주 초기였던 1943년 초 시카고의 한 무도장에서 유명한 트럼펫 연주자를 보러 많은 일본계 미국인이 모이자 무도장 주인은 이후로 일본계 미국인 관객의 비중을 “전체 5%”로 제한했다. 일본계 미국인은 종교 활동을 위한 모임에서도 제약을 받았다. 일본계 미국인 소개자를 위한 연합기독교사역이 1942년에 결성되었고 소개자 교인들은 지정된 장소—시카고대학 손다이크 힐튼 채플—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교파별 모임이나 소개자들만의 예배는 허용되지 않았다. 이들은 “초교파 환경에서 모여서 예배해야 하며 이 때 분리된 일본인 회중을 형성하거나 일본어로 예배를 진행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일본계 미국인 목사들과 회중은 초교파 예배 형식이 신자의 선택을 방해한다고 반발하며 교파 예배모임을 형성했다.⁵⁸⁾

미국 대도시 주거지의 극심한 인종 분리, 그리고 전쟁 중 대도시 군수공장 취업 및 인구 증가로 인한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해 일본계 미국인 재정착자들은 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시카고나 로스앤젤레스가 대표적인 예였다. 시카고의 백인들은 일본계 미국인에게 세를 주길 꺼렸다. 1943년 6월 찰스 기쿠치와 그의 여동생들은 시카고 사우스사이드 내 유대계 미국인 소유 아파트에 두 달째 거주하던 중 퇴거 통보를 받았다.⁵⁹⁾ 자초지종을 알고 보니 집 주인은 “중국인”이나 다른 비백인 입주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웃의 말을 들었던 것이었다.⁶⁰⁾ 지역 관청의 중재로 문제가 해결되긴 했지만 이 일을 계기로 기쿠치는 시카고에서 백인과 비백인 사이의 인종분리가 얼마나 심각한 지 깨닫게 되었다. WRA는 “백인과 흑인 주민 사이의 완충지 역할을 하는 곳”에—시카고의 남부와 북부지역에 소재—일본계 미국인 거주지를 지정했고 여기서 일본계 미국인들은 주로 일본계 미국인을 상대하는 아파트, 하숙집, 호텔 등을 운영했다.⁶¹⁾

전쟁 전 로스앤젤레스와 인근에 거주하던 일본계 미국인은 약 3만

6천 명으로 이들은 리틀도쿄에 주로 거주했다. 강제수용이 시작된 후 리틀도쿄에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유입되면서 이 지역은 브론즈빌(Bronzeville)이라고도 불렸다. 일본계 미국인의 서부 해안 지역으로의 귀환이 시작되던 1945년 초 로스앤젤레스의 주거 부족 현상은 매우 심각해서 당시 흑인 가족 중 절반 이상이 영구 거주지가 없었다. “일본계 미국인이 돌아오면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점유한 그들의 공간을 되찾으려 인종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경고”가 나돌았고 이에 시장과 흑인 교회 지도자들은 일본계 미국인의 귀환을 환영한다는 공식 메시지를 보냈다. 리틀도쿄/브론즈빌에서 일본계 미국인과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주거와 종교시설, 사업장을 두고 경쟁과 갈등이 벌어지긴 했지만 후자가 전자의 귀환을 방해하는 행동을 했다는 증거는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주택 품귀 현상으로 인해 귀환한 일본계 미국인 중 절반 정도만 영구 주거지를 확보했고 나머지 절반은 임시변통으로 지은 집이나 하숙집, 호텔을 전전했다.⁶²⁾

미국에 대한 충성심을 의심받은 일본계 미국인들은 그들이 아무리 원해도 캠프를 영구히 떠나 서부 이외의 지역으로 재정착할 수 없었다. 재정착 허가를 받으려면 연방수사국의 까다로운 신원조회를 거쳐야 했다. 신청자는 교육, 전쟁 이전 소속 단체와 지인 등의 항목에서 친일적 요소가 없고 미국 주류사회에 동화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1943년 2월 경 최종 확정된 무기한 석방신청서에 기입해야 할 필수 항목 중 하나는 충성심 선언이었다. 일본 천황 혹은 다른 정부나 조직에 대한 맹세를 포기하고 오직 미국에만 충성하겠다는 충성심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변해야 했다. 이에 부정적으로 답변한 이들에게는 재정착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미노루 키요타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일본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니세이 중에서 키베이로 분류되었다. 1942년 중반 토파즈 캠프 수용 당시 18세였던 키요타는 니세이 대학 진학 프로그램이 시작된다는 소식을 듣고 캠프 사무실에 석방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한 달 뒤

그는 연방수사국 직원의 심문을 받게 된다. 연방수사국 직원은 그를 “더러운 일본 놈”이라고 부르면서 그를 일본 정부와 깊은 연관이 있는 “일본무술협회^{Butoku-kai} 회원”이라고 몰아붙였다. 키요타는 어린 시절 협회에서 취미로 검도 수업을 받은 게 전부이며 아무 연관이 없다고 답변했지만 소용없었다.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해 서양철학과 동양철학을 비교하는 학자가 되고 싶었던 그의 꿈은 무너졌다. 연방수사국은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 일본에서 검도를 배우고 일본 문화에 친밀하기 때문에 미국에 진심으로 충성을 맹세할 것 같지 않다는 이유로 그를 석방시키지 않았다. 연방수사국 직원의 근거 없는 비방에 분노하던 그는 캠프를 탈출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캠프를 둘러싼 유자철선망 근처에서 산책만 해도 경비대에 총살당하는 걸 보고서는 탈출 계획을 포기했다. 그가 캠프를 잠시나마 떠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캠프 근처 농장에 농업노동자로 취업하는 것이었다. 1943년 2월 재정착정책이 확립되고 모든 일본계 미국인 수용자가 무기한 석방신청서의 충성심 질문에 답변해야 했다. 토파즈 캠프 안의 다른 니세이는 미국정부에 대한 일방적 충성 맹세를 결의했지만 키요타는 “미국 시민인 그에게 미국정부가 행사하는 지나친 강요”에 분노했다. “이 정부는 내 의지와 무관하게 나를 투옥시켰고, 내 자유를 가져가 버렸고, 교육의 기회를 방해했으며 연방수사국의 치욕스런 심문을 받게 해 캠프를 떠나고 싶을 정도로 절망에 빠뜨려 놓았는데 이제는 나보고 이 정부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을 맹세하라고 강요하려 한다.” 충성심 질문에 그는 “아니오”라고 답변했다. 이후 토파즈 수용소 근처에서 농장 노동자로 일하던 중 그는 탈출할 생각으로 동부로 가는 기차 화물칸에 올라탔다가 동료들이 겪을 고초를 생각해 기차에서 내렸다. 몇 달 뒤인 1943년 가을 그는 미국 정부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 맹세를 거부한 수용자들의 분리수용소인 툴리레이크로 송치되었다.⁶³⁾

재정착 정책이 일본계 미국인들에게 약속한 이동성에는 조건이 달렸다.

일본계 미국인들은 일본인 부모, 일본 문화와 전통, 일본계 미국인 공동체를 떠나 충성스런 미국인으로서 미국사회에 통합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제한적 이동의 자유가 허락되었다. 동화의 의지를 증명해도 이들에게는 이동 장소를 선택할 권한도 없었다. 중서부 대도시에서 반일 정서가 서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했는지 몰라도 유색인에 대한 차별은 미국 어디에나 있었다. 인종차별과 정서적 공동체의 부재 속에 중서부나 동부로 이주했던 일본계 미국인들은 미국 시민으로서 그들의 지위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재확인했다.

일본계 미국인 재정착 정책의 유산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 정부는 소개 및 배제 명령으로 일본계 미국인의 이동성을 제약하고 이들을 재이주센터라고 불리던 집중수용소로 몰아넣었다. 미국 정부는 WRA의 재이주프로그램을 통해 일본계 미국인 소개자에게 이동의 자유라는 미국시민의 기본권을 다시 부여하고 이들의 민권을 회복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들에게 주어진 이동의 자유에는 단서가 붙었다. 일본인들끼리 모여 살거나 문화적 특수성을 드러내지 말고 미국의 주류집단과 문화에 동화되어 더 많은 미국 대중으로 하여금 일본인이 “괴물”이 아니라 동료 시민임을 인식할 수 있게 행동하라는 것이었다. 정부가 주도하고 감시했던 일본계 미국인의 재정착 정책에 대해 다수의 일본계 미국인들은 회의를 느꼈고 이주의 기회 대신에 캠프에서 동료 일본계 미국인들과 남기로 선택했다. 미국에 대한 충성심과 동화 의지를 증명하려 중서부 지역으로 재이주했던 소개자들은 사실상 인종분리가 지배적인 중서부 대도시에서 일본인 공동체와 문화의 부재 속에 외로움을 느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계 미국인 재이주 정책과 이에 대한 일본계

미국인의 양가적 대응은 인간 기본권으로서 이주의 자유라는 개념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 이주 정의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누가 이주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권력이 특권 집단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모든 사람이 이주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⁶⁴ 하지만 이주자를 진정한 일원으로 받아들여 줄 공동체가 부재하다면 이주의 자유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전쟁 중 일본계 미국인들은 낯선 지역으로 떠날 이주의 자유 대신에 수용소나 서부 해안 지역에서 동족 사이에서 살길 선택했다. 일본계 미국인 재정착 프로그램은 이들의 문화적 소속과 집단 정체성을 지워 버리고 미국인과 어울리라고 지시했다. 일본계 미국인들 사이에서 재이주 지역으로 인기가 높았던 시카고에서 이들은 백인과 흑인 주거지의 중간 지점 어딘가에 흩어져 살아야 했고 다른 에스닉 미국인과 달리 그들만의 공동체를 만들 수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 사회의 주류였던 백인이 이들을 받아들인 것도 아니었다. 1944년 말 일본계 미국인의 서부 귀환이 가능해지자 많은 이들은 시카고를 떠나 서부로 돌아가길 선택했다.⁶⁵

뉴딜 자유주의 정부는 민족 소수자인 일본계 미국인의 문화와 자유주의 국가 미국의 시민권이 양립할 수 없다고 보았지만 시카고에 남기로 선택한 니세이들은 이 둘이 양립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일본계 미국인 공동체를 시카고 내 다양한 에스닉 공동체들 중 하나로 정립하려 했다. 1945년에 시카고에 남아있던 니세이들은 ‘시카고 재정착자 위원회 Chicago Resettlers Committee’를 결성했다. 위원회 지도부는 일본계 미국인만 참여하는 행사와 활동에 참여해도 충분히 미국사회에 동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 지도부는 “일본계 미국인의 시민권 복구와 동화를 증명하는 부담은 일본계 미국인이 아니라 주류사회에 달렸다”고 내세웠다.⁶⁶ WRA와 협력기관은 이들의 주장을 결국 수용했고 1946년 시카고 시 정부는 시카고 재정착자 위원회를 시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시민단체로 인정했다. 시카고의 일본계 미국인들은 그들의 문화적 정체

성을 포기하지 않고도 시카고의 주민이자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관철시키며 전후 다문화사회의 이상을 제안했다.

일본계 미국인 재정착 정책의 기본 원칙—소수인종집단 인구를 집중 거주지에서 대도시로 분산 이주시켜 이들의 집단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미국 주류사회로 통합하기—은 1952년 트루먼 행정부의 인디언 도시 재이주 프로그램에서 다시 부활했다.⁶⁷⁾ 이 프로그램을 집행한 사람은 WRA의 국장이던 딜런 마이어였다. 인디언 재이주 프로그램은 인디언 뉴딜이라고 불리던 1930년대 인디언 부족 문화 및 보호구역 보호를 위한 인디언 취업 프로그램과 같은 연방정부 정책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 연방정부는 개별 인디언들에게 대도시로 이주해 취업과 자기 개발의 기회를 개인이 알아서 찾고 부족 전통과 보호구역 등 인디언 정체성을 탈각하라고 요구했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와 전후 시기 뉴딜 자유주의 행정부는 일본계 미국인과 인디언에게 그들의 고립된 공동체를 떠나 대도시에서 다른 미국인—백인 미국인—과 어울려 인종 소수자가 아니라 평범한 미국인으로 살라고 권유하면서 이들에게 이주할 곳과 정착할 공동체를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허용하지 않았다. 뉴딜 자유주의가 추구한 소수자의 이동성은 백인 중심주의적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1940년대 일본계 미국인 재정착 정책에서 가장 흥미로운 결과는 일본계 미국인 공동체의 탄력성과 역동성이라고 할 수 있다. 제한적으로 허락된 이동의 자유를 수용한 일본계 미국인은 앞서 언급한 시카고 재정착자 위원회처럼 미국 대도시에서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할 권리를 요구했다. 뉴욕으로 이주했던 니세이 유리 코치야마는 말콤 엑스의 유산을 이어 1960년대 말부터 급진적 민권운동에 참여했고 1970년대 일본계 미국인 강제수용 보상운동을 이끌기도 했다. 서부 해안으로 되돌아간 일본계 미국인들은 무너진 그들의 공동체와 조직을 재건했다.



〈원문출처〉

이 글은 아래의 글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

권은혜, 「제2차 세계대전 미국정부의 일본계 미국인 재정착 정책에서 드러나는
조건부 이동성(mobility)과 그 한계」 『호모미그란스』 27, 이주사학회, 2022

〈저자소개〉

권 은 혜 (한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 이주의 인문학 사업단 전임연구원)

권은혜는 아시아계 미국인과 인종 간 결혼을 주제로 미국 플로리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북미로의 아시아인 이주, 아시아계 미국인의 역사와 문화, 현대 미국의 인종관계를 다룬 다수의 학술 논문을 국내 저명 학술지에 출간했습니다. 현재 한성대 이주의 인문학 사업단 전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3부

동아시아 한인 디아스포라와
에스닉 경제



VII

심양_{沈阳} 서탑_{西塔} 코리아타운의 한인사회와 초국가 공동체

김혜련
한성대학교

중국 심양의 한인 디아스포라

1) 문제제기

국경을 횡단하는 초국가적 인구이동이 빈번해지고 있는 이주의 시대, 이주민과 주류사회의 문화가 만나고 융합되는 문화접변지역, 즉 에스닉 타운 *Ethnic town* 이라고 불리는 이주민 밀집지역이 세계 곳곳에 등장하고 있다. 과거의 이주민 밀집지역은 치안 및 빈곤문제로 거주국 주류사회로부터 주변화되고 게토화 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이주민의 문화적 특성을 경험할 수 있는 다문화공간으로 인정받으며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 코리아타운, 차이나타운, 아랍스트리트, 리틀인디아 등이 대표적이다.

전 세계 181개국에 분산거주 하고 있는 708만 재외동포는 지난 백여 년 동안 세계 곳곳에 코리아타운을 조성해왔다.¹⁾ 코리아타운은 한민족의 문화와 전통, 민족 정체성을 전승하고 민족공동체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한민족의 문화와 거주국 문화를 융합하는 복합적 문화플랫폼이기도 하다.²⁾ 2,109,727명³⁾ 재외동포가 정착하고 있는 중국에도 북경_{北京}, 심양_{沈阳},

상해^{上海}, 광주^{广州} 등 대도시 중심으로 코리아타운이 조성되어 있다. 그 중심양은 연변조선족자치주^{延边朝鲜族自治州} 다음으로 중국 조선족이 밀집 거주하는 지역으로, 1992년 한·중 양국 수교 이후 한국인의 심양 유입과 함께 현재는 한국인, 중국 조선족과 한족 및 기타 소수민족, 나아가 북한인이 공존하고 어울리는 초국가 공간으로 성장하였다.

역사적으로 봉천^{奉天}, 성경^{盛京}으로 불려왔던 심양은 중국 요녕성^{辽宁省}의 성도로 중국의 중요한 산업 중추이자 동북지역의 최대 도시이다. 2023년 기준 심양의 상주인구는 920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그 중 심양 거주 중국 조선족은 88,676명에 이른다.⁴⁾ 한인 디아스포라^{Diaspora}의 심양 이주는 19세기 70-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서탑^{西塔} 지역에 정착하기 시작한 것은 1910년 전후이다. 역사기록에 의하면, 1910년 전후 한반도에서 심양 서탑지역으로 이주한 한인은 50여 가구에 달했다.⁵⁾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중국 조선족으로 신분전환을 완성한 한인은 점차 서탑지역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으며,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서탑은 조선족의 경제·문화 중심지로 탈바꿈하였다. 그리고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국 기업 및 한국인의 심양 진출과 함께 오늘날의 서탑은 조선족백화점, 조선족학교, 조선족 문화관이 운영되고 있는 조선족거리인 동시에 경회루, 백제원 등 한국인이 운영하는 가게가 공존하는 중국 국내 대표적 코리아타운이다. 비록 사드^{THAAD} 사태 이후 한중관계 악화, 한한령^{限韓令}을 비롯한 문화산업 규제 강화, 중국 국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한국 기업 퇴출 등으로 코리아타운이 위기에 직면하였으나, 심양 서탑은 여전히 중국 국내 최대 규모의 다문화 공간이자 이주민 밀집지역이다.

19세기부터 중국으로 이주한 한인 디아스포라와 현재의 코리아타운은 초국가주의의 산물이다. 바스치^{L.B. asch}는 초국가주의를 이주민들이 송출국과 유입국 사회를 연결하는 여러 가닥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 유지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⁶⁾ 즉 오늘날 많은 이주민들은 지리적, 정치적, 문화적 국경을 횡단하고 가로지르는 사회적 장을 건설하며, 이러한 사회적 공간에서 그들

만의 초국가적 공동체를 구축한다.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에도 경제·사회·문화 영역에서 이러한 초국가적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다. 2002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심양한국주^{沈阳韩国周}” 행사를 통해 한중 양국 한인 경제인은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서탑 코리아타운에서 밀집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과 한국인은 심양한국인회, 조선족연의회 등 단체를 구축하면서 글로벌한 사회 공동체를 형성하였으며, 또한 한류의 영향과 함께 한국 위성 TV, 한국 대중문화를 공유하면서 한민족 문화공동체를 형성하였다.

이렇듯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에서 밀집 거주하고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는 경제·사회·문화 차원에서 국경을 초월한 초국가적 공동체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현지조사와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의 형성 과정과 발전 현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중국 조선족과 한국인이 공존하는 코리아타운의 경제·사회·문화 공동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이 연구의 목적은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의 형성 과정과 한인 디아스포라의 현지 적응 실태를 검토하고, 코리아타운의 초국가적 공동체 구축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2023년 6월 28일부터 7월 8일까지 심양시를 직접 방문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중국 조선족 5명과 심양시 거주 한국인 3명, 총 8명을 선정하여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표1〉 심층면접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번	참여자	연령	성별	국적	심양 거주 기간	직업
참여자1	전춘○ 全春○	60대	여	중국 조선족	심양 출신	반찬 가게 운영
참여자2	조운○ 曹云○	30대	남	중국 조선족	심양 출신	부동산 가게 운영
참여자3	로○ 罗○	20대	남	중국 조선족	심양 출신	대학생
참여자4	김해○ 金海○	50대	여	중국 조선족	심양 출신	화장품 가게 운영
참여자5	김동○ 金东○	40대	남	중국 조선족	심양 출신	물류회사 경리(经理)
참여자6	이재○	50대	남	한국	11년	식당 운영
참여자7	권선○	50대	여	한국	15년	화장품가게 운영
참여자8	김경○	60대	여	한국	23년	미용실 운영

심층면접은 현지조사 기간 심양시 서탑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조선족과 한국인 총 8명을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심층면접 참여자는 모두 심양 서탑지역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한인 디아스포라이며, 서탑 코리아타운의 변화와 발전을 직접 경험하고 초국가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다. 원활한 심층면접을 위해 반구조화 된 질문지를 활용해 한인 디아스포라의 현지 정착 실태, 초국가적 공동체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표 1〉에서도 나타나듯이 심층면접 참여자는 심양시 거주 중국 조선족과 한국인이 포함되며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포함된다. 또한 심층면접 참여자는 코리아타운에서 식당 혹은 부동산 중개업체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이주민 밀집지역의 초국가 공동체

1) 선행연구 검토

최근 이주민의 이국적 문화 자원이 인정받고 이주민 밀집지역이 도시 재생의 원동력으로 간주되자 코리아타운, 차이나타운 등 이주민 밀집지역에 대한 연구가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진정되면서 한국 체류 외국인의 규모가 259만 명⁷⁾에 이르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자 인천 차이나타운, 대림 차이나타운, 몽골타운, 중앙아시아거리, 고려인마을 등 이주민 밀집지역의 화제성이 향상되고 있으며, 학계에서의 관련 연구도 활성화되고 있다.

중국 국내 최대 코리아타운으로 손꼽히는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에 대한 연구는 한중 양국에서 일부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성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중국에서의 서탑 코리아타운 관련 연구는 대부분 2017년 사드^{THAAD} 사태 이전 즉 코리아타운 전성기에 이루어졌으며, 한중관계가 악화되면서 대폭 감소된 실정이다.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 관련 중국 학계의 연구는 아래와 같이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서탑거리^{西塔街}의 역사와 발전과정에 대한 연구이다. 위이핑⁽²⁰⁰⁷⁾은 현재의 심양 서탑거리를 "리틀 서울^{小汉城}"으로 표현하면서 중국 조선족의 서탑지역 유입 역사와 백여 년 전의 빈민촌^{棚户区}에서 오늘날의 서탑거리로 발전된 과정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다.⁸⁾ 지궈시우·리샤오린^(吉国秀·李晓林, 2015)은 공간사회학 이론으로 심양 서탑을 접근함으로써 서탑은 역사적으로 종교적 공간, 마을 공간, 조선인 밀집지역을 거쳐 현재의 조선족 문화 특색 거리로 발전하였다고 주장하였다.⁹⁾

둘째는 코리아타운 정착 중국 조선족의 민족정체성 관련 연구이다. 류위통·탕메이^(刘昱彤·唐梅, 2011)의 연구에 따르면, 서탑 코리아타운은 길림^{吉林} 연변^{延边} 지역 이외 중국 조선족이 가장 밀집 거주하는 지역으로, 코리아타운을 중심

으로 그들의 전통문화와 민족정체성이 전승되었으며, 이러한 민족정체성은 코리아타운의 성장과 발전에 긍정적인 촉매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¹⁰⁾

셋째는 코리아타운의 상권 및 경제 성장 관련 연구이다. 귀명치(郭夢琪, 2011)는 서탑 코리아타운의 한상(韓商)과 그들의 경제활동에 주목하여 서탑 코리아타운의 성장과 발전은 한상의 투자와 한류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¹¹⁾ 류치우웨이(劉秋月, 2012)는 서탑 코리아타운의 경제 발전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현재의 서탑 코리아타운은 인문 경관, 역사 문화, 민족 문화가 어우러진 거대한 상권으로 성장하였으며, 이는 심양시의 지원과 조선족사회의 노력이 병행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¹²⁾

이렇듯 중국 국내 학계에서는 서탑 코리아타운을 서탑거리(西塔街)로 지칭하면서 코리아타운의 변화와 발전, 경제 성장, 아울러 중국 조선족의 민족정체성에 초점을 두고 연구해왔다. 중국 학계와 달리 한국 국내에서는 서탑 코리아타운의 민족문화축제, 도시 포용성 등 주제로 코리아타운을 접근하고 있다. 한국 학계의 관련 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는 서탑 코리아타운의 축제문화 관련 연구이다. 신춘호(2011)는 서탑 코리아타운에서 개최되는 “심양한국주” 행사, “2010중국글로벌한상대회”의 개최 과정과 행사의 성격, 주요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한류행사가 한국문화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동시에 향후 신한류의 지속성 및 확산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¹³⁾ 임영상(2014)은 미국 로스앤젤리스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의 변화과정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동시에 조선족련의회, 조선족민속절, 심양한국주 등 서탑 코리아타운의 민족문화축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¹⁴⁾ 송해련(2017)은 에스닉타운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에스닉 축제라고 주장하면서 심양한국주 축제와 심양조선족민속절을 중심으로 서탑 코리아타운 축제 지식맵을 구축하였다.¹⁵⁾

둘째는 서탑 코리아타운의 도시 포용성 관련 연구이다. 이심홍·김민형(2020)은 서탑 코리아타운의 장소성을 규명하기 위해 행위자-연결망 이론을

기반으로 코리아타운의 발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고, 나아가 시기별로 코리아타운의 행위자-연결망 네트워크 그래프를 작성하였다. 연구결과 서탑 코리아타운의 도시 포용성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¹⁶⁾

요컨대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은 중국 국내 최대 규모의 코리아타운이지만, 한중 양국 학계의 기존 연구는 코리아타운의 형성과 발전 과정, 전통문화, 민족축제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코리아타운 내부에 형성된 초국가 공동체 관련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 연구는 현지조사를 통해 2017년 사드 사태이후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의 변화와 현주소를 규명하고, 아울러 초국가주의라는 이념 하에 코리아타운의 경제·사회·문화공동체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2) 이주민 밀집지역과 디아스포라의 초국가 공동체

이주민 밀집지역은 일반적으로 주류사회에 쉽게 진출하지 못하는 이주민 집단이 거주국에서 살아남기 위한 독자적 생존전략으로서 소규모의 자영업에 종사하면서 형성되는 사회·경제적 공동체로 이해할 수 있다.¹⁷⁾ 이주민은 이러한 밀집지역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등 경제활동에 종사하거나, 모국의 전통과 문화를 재생하는 등 생활인프라를 구축한다. 아브람슨(Abrahamson)은 이주민 밀집지역의 설립 요건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그 이주민 집단에 해당되는 구성원이 집중되어 있어야 하고, 그 이주민 집단의 전통적 문화 상품을 취급하고 판매하는 상업구역이 형성되어 있어야 하며, 그 이주민 집단의 문화 및 사회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¹⁸⁾

이주민 밀집지역은 거주국과 이주민의 모국을 연결하는 초국가적 공동체인 동시에 이주민이 주류사회로부터 소외된 공간에서 집중 거주하면서 모국에 대한 향수, 전통문화와 민족정체성,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민족공동체이기도 하다.¹⁹⁾ 앤더슨(Anderson)은 민족을 근대이후 형성된 역사·사

회적 구축물로 이해하면서 정보기술 및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민족은 지리적·물리적 거리를 소멸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²⁰⁾ 앤더슨은 민족공동체를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y)’로 이해하며,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러한 ‘상상의 공동체’는 ‘현실 공동체’와 ‘가상 공동체’ 변모된다고 지적한다. ‘현실 공동체’란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공동유대가 형성되며, 아울러 특정 공간 및 장소가 마련됨으로써 기존의 ‘상상 공동체’가 현실 속의 공동체로 전환된다는 것이다.²¹⁾ 이주민 밀집지역에서 이주민들이 경제 활동에 종사하고, 문화적 특성을 공유하는 것이 바로 ‘현실 공동체’이다. 다른 한편, 정보기술 및 인터넷이 발달하기 이전까지 ‘상상의 공동체’로 머물러 있다가 구성원 간의 소통, 교류 등 상호작용이 인터넷을 통해 발생할 경우 기존의 ‘상상의 공동체’는 ‘가상의 공동체’로 변모한다고 설명한다.

중국 현지에서 “심양서탑민족문화가(沈阳西塔民族文化街)”라고 불리는 서탑 코리아타운은 현재 중국 국내 최대 규모의 코리아타운이다. 중국 조선족, 한국인, 북한인이 공존하고 있는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은 한인 디아스포라의 경제 활동, 문화적 특성, 사회적 네트워크가 활성화된 초국가 공동체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코리아타운의 초국가성에 주목하여 한인 디아스포라의 경제·사회·문화 공동체 구축 현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의 형성, 발전, 그리고 위기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의 초국가 공동체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게 위해서는 한인 디아스포라의 심양 이주 역사와 코리아타운의 발전과정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음은 서탑이 ‘조선족거리’에서 ‘글로벌한 코리아타운’으로 성장한 과정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1) 한인 디아스포라의 심양 서탑 이주

요녕성(辽宁省)의 성도 심양시(沈阳市)는 동북지역 최대 도시이자 경제·문화·교통·군사 중심지이기도 하다. 한인 디아스포라의 중국 유입은 19세기부터 시작되었으며, 한반도의 자연재해,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가난과 굶주림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중국 동북지역으로 이주하였다. 『심양조선족지(沈阳朝鲜族志)』의 기록에 의하면, 1910년 전후로 한인이 서탑지역에 유입되기 시작했고, 1931년 기준 심양시에는 이미 5,425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1941년에는 한인 규모가 46,125명으로 증가하였다.²²⁾ 심양시 정착 한인의 규모가 증가하자 점차 그들이 밀집 거주하는 지역이 조성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심양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화평구(和平区) 서탑지역이다.

서탑(西塔)이라는 지역 명칭은 심양시의 4개의 탑에서 유래되었다. 서탑은 청태종(清太宗) 황타이지(皇太极)가 건립한 동, 서, 남, 북 4개 탑 중 서쪽에 위치해 서탑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1643년에 착공해 1645년에 준공한 서탑 아래에는 연수사(延寿寺)라는 사원도 함께 건축되었다. 1980년대 동, 남, 북쪽에 위치한 3개의 탑은 정부 지원에 의해 복구되었으나, 서탑의 경우 1968년에 철거되었다가 1998년에 이르러서야 심양시정부에 의해 복구되었다.²³⁾

〈사진 1〉 심양시 서탑(西塔)과 연수사(延寿寺)



출처: 2023년 6월 심양시 현지조사 중 저자 촬영

심양역 근처에 위치한 서탑은 교통이 편리하고 장사하기 좋은 지역으로 인식되면서 점차 많은 한인들이 유입하여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1949년 이후 중국 조선족으로 신분 전환한 한인은 서탑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다. 서탑지역은 심양 시내 조선족이 밀집 거주하는 지역으로 변모되었으며, 한민족 음식서비스업의 발원지가 되었다. 조선족은 보따리 장사로부터 시작해 점차 냉면, 김치 등 민족 음식을 판매하는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면서 서탑지역을 조선족거리로 발전시켰다. 심양시의 빈민거리에 불과했던 서탑은 조선족의 유입과 정착에 따라 조선족민족집거지로 성장하였다.

100여 년 전부터 심양 서탑지역으로 유입해 생활해온 중국 조선족은 조선족백화점沈阳朝鲜百货, 조선족전통시장 등을 운영하면서 경제활동을 이어왔고, 조선족병원을 설립해 그들의 의료 건강문제를 해결하였다. 또한 조선족문화예술관을 설립해 조선족의 전통 문화를 꾸준히 전승해왔으며, 조선문서점을 운영해 민족도서의 출판, 판매를 지원하였다.

〈사진 2〉 심양 서탑의 조선백화 朝鮮百貨



〈사진 3〉 심양 서탑의 전통시장



출처: 2023년 6월 심양시 현지조사 중 저자 촬영

다른 한편, 심양 서탑지역에는 차세대 조선족이 그들의 민족언어와 전통 문화를 전승하고 민족정체성을 계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민족교육의 장을 마련하였다. 현재 서탑에는 서탑조선족소학교 西塔朝鲜族小学와 심양시조선족제6

중학교沈阳市朝鲜族第六中学가 설립 운영되고 있다. 1920년에 설립된 서탑조선족 소학교는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는 900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고, 78명의 교사가 재직하고 있다.²⁴⁾ 서탑조선족소학교와 인접해있는 심양시조선족제6중학교는 1980년에 설립되었으며, 2023년 기준 518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고, 108명의 교사가 재직 중이다.²⁵⁾

〈사진 4〉 서탑조선족소학교



〈사진 5〉 심양시조선족제6중학



출처: 2023년 6월 심양시 현지조사 중 저자 촬영

2) '조선족거리'에서 '글로벌 코리아타운'으로

심양 서탑의 비약적 발전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에 이루어졌다. 개혁개방 당시 서탑은 “질퍽이는 골목길과 난잡한 상점, 허물어진 벽돌담과 일그러진 양철지붕”²⁶⁾이 전부였다. 이때의 서탑은 여전히 빈민촌에 불과했다. 1988년 심양시전기기계국주택개발공사가 서탑을 심양 조선족의 경제, 사회, 문화 중심지로 건설하고자 공사를 시작하였다. 3억 6천만 위안을 투자하여 서탑의 중앙로를 확장하고 연장하는 동시에 호텔, 백화점, 병원, 문화센터를 건립하고 녹색공원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6년 정도 지연되었다.²⁷⁾ 그리고 1992년 한중수교이후,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과

함께 심양 서탑지역이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면서 서탑의 개발과 발전은 다시 가속화되었다. 한중수교이후 심양 서탑은 기존의 ‘조선족거리’에서 글로벌 코리아타운으로 탈바꿈하였다. 남북을 가로지르는 500m가량의 서탑가를 중심으로 2.58km² 부지에 상가와 주거단지가 밀집해있다.

한중수교를 계기로 한국인의 중국 진출이 본격화되었다. 사업목적으로 심양에 유입한 한국인은 중국어능력 미흡, 중국의 법·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중국 문화에 대한 몰이해로 인해 나타나는 현지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선족이 밀집거주하는 서탑지역으로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1994년 말 서탑에서 첫 한국식당이 오픈하고, 한국 문화 요소가 유입되면서 서탑은 기존의 ‘조선족거리’에서 글로벌한 ‘코리아타운’으로 변모하였다. 현재 서탑 코리아타운에는 한국인이 운영하고 있는 한국백화점, 아울렛, 명품관, 치과, 미용실 등이 있다.

다른 한편, 백제원·신라성·경희루 등 한국식당이 운영되고 조선족, 한국인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여 상권이 형성되자 2005년 이후에는 평양관, 모란관을 비롯한 북한 식당도 문을 열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의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은 중국 조선족과 한족 기타 소수민족은 물론 한국인, 북한인 등 한인 디아스포라가 공존하고 화합하는 만남의 장으로 발전하였다. 서탑 코리아타운은 국경을 초월하는 명실상부한 초국가 공간이다.

현지에서 “심양서탑민족문화가_{沈阳西塔民族文化街}”라고 불리는 서탑 코리아타운에서는 한민족의 전통 문화를 나타내는 민족경관이 다양하게 조성되어 있다. 한글간판은 물론, 장고·한복 등 한민족 문화요소를 나타내는 건축이나 조형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냉면·김치·떡·삼계탕 등 전통음식을 판매하는 가게나 식당도 즐비하다.

참여자 1: 나는 여기서 20년 넘게 장사했어요(웃음). ... 서탑은 "작은 한국(小韩国)"으로 불려요. 여기 오면 없는 것이 없어요. 김치, 순대, 삼계탕, 된장, 고추장 ... 옛날에는 조선족이 김치 사러 많이 왔는데

요즘에는 한쪽사람이 더 많아요. 장사하는 사람도 이제는 조선족보다 한쪽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조선족은 한국에 많이 가고(한숨).

참여자 6: 중국에서 최대 코리아타운이라고 알고 있어요. 서탑에서는 우리 한민족 문화를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한글 간판, 한복, 한식, 한국 사람도 오면 깜짝 놀라요.

〈사진 6〉 서탑 코리아타운의 민족경관



출처: 2023년 6월 심양시 현지조사 중 저자 촬영

3) 서탑 코리아타운의 위기

한중수교 이후 한국 기업의 심양 진출, 대한항공의 심양 노선 취항과 함께 한민족의 전통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서탑지역을 방문하는 한국인의 규모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어만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서탑지역에서 거주하고 정착하는 한국인의 규모도 점차 확대되었다. 2002년부터 시작한 “심양한국주_{沈阳韩国周}”를 계기로 서탑 코리아타운은 한국문화를 중국사회로 홍보하는 창구로 거듭났고, 2014년에는 한중교류문화원이 개원했다. 백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서탑 코리아타운은 “리틀서울_{小汉城}”로 불리면서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다.

불야성으로 불리던 서탑 코리아타운의 위기는 사드^{THAAD} 사태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2017년 사드 배치 이후 ‘선린우호관계^{善邻友好关系}’로부터 시작해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战略合作伙伴关系}’로 발전한 한중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급기야 한한령^{限韩令}을 비롯한 문화산업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국에서 전성기를 누렸던 한류^{韩流}가 침체되기 시작했다. 아울러 2019년 말에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과 도시 봉쇄 조치로 인해 대규모의 한국인이 중국을 떠나 한국으로 귀환하였다. 다시 말해 한중 양국 간의 정치 갈등, 한한령을 비롯한 문화산업에 대한 규제 및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심양 진출 한국 기업이 중국시장에서 퇴출하기 시작했으며, 서탑 및 심양에 거주하고 정착하던 한국인의 규모도 대폭 감소하여 서탑 코리아타운의 규모도 축소되고 있는 현실이다.

참여자 7: 사드 때문에 한동안 험한정서 심했어요. 서탑에 오는 사람도 많이 줄었어요. 이전에는 한류 때문에, 드라마에 나오는 한식 먹어보고 싶어서 사람들 많이 왔는데, 사드 이후부터는 관광객이 반 이상은 줄었어요. 그때 문닫는 가게 정말 많았어요.

참여자 8: 코로나 때 한국사람 많이 들어갔죠. 초반에는 중국에서 (코로나)단속 강하게 하니까 어느 나라보다도 안전하다고 했는데, 나중에 도시 봉쇄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 때 못 버티고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의 초국가 공동체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은 한인 디아스포라가 유입되면서 조성된 초국가 공간이다. 중국 조선족, 한국인, 북한인을 비롯한 한인 디아스포라가 공존하고 있는 서탑은 국경을 초월한 초국가 공동체를 구축하고 있다. 다음은 경제·사회·문화 차원에서 코리아타운의 초국가 공동체 구축 실태를 검토하고자 한다.

1) 초국가 경제공동체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서탑 코리아타운은 조선족이 유입되고 뿌리를 내리면서 상권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1992년 한중수교이후 한국 기업과 한국인이 유입되면서 기존의 조선족집거지에서 코리아타운으로 변모하면서 상권이 한층 확대되었다. 아울러 2005년 이후 평양관, 모란관을 비롯한 북한 식당이 운영됨에 따라 현재의 코리아타운은 한인 디아스포라가 공존하는 초국가 경제공동체로 발돋움 하였다.

〈지도 1〉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 상권



출처: 송해련, "서탑 코리아타운과 심양한국주 축제의 지식맵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박사학위논문(2017), p.29.

현재 서탑가를 중심으로 양측에는 대략 140여개의 가게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 대부분은 요식업체이다. 또한 서탑 코리아타운에는 중국 조선족과 한국이 운영하는 조선족백화점, 서점, 병원, 식당, 반찬가게, 환전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이 운영하는 한국백화점, 아울렛, 명품관, 치과, 미용실이 있고, 북한인이 운영하는 식당, 갤러리도 있다. 다시 말해, 오늘날의 서탑 코리아타운은 한인 디아스포라가 경제활동에 종사하면서 구축한 초국적 경제공동체이다. 서탑 코리아타운에 이러한 상권과 경제공동체가 구축될 수 있었던 것은 2002년부터 개최된 ‘심양한국주(沈阳韩国周)’ 행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심양시정부와 한국주심양총영사관이 공동 주최한 ‘심양한국주’ 행사는 200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23년까지 총 20회 개최되었다. 한중수교 이후 한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획된 ‘심양한국주’ 행사는 20여 년의 발전을 거쳐 현재는 한중 양국 교류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매년 9월에 개최되는 ‘심양한국주’ 행사를 통해 한국기업과 중국(조선족)기업의 경제 협력은 물론, 사회·문화교류 활성화도 촉진하고 있다. 예컨대 지난 2023년 9월 25일 “기회를 함께 공유하고, 발전을 함께 도모하며, 미래를 함께 창조하자(共享机遇·共谋发展·共创未来)”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20회 ‘심양한국주’ 행사에서는 한중 양국 기업이 159개의 협력 계약을 체결하였고, 2,613억위엔의 투자를 유치하였다.²⁸⁾ 일주일동안 개최되는 ‘심양한국주’ 행사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2023년의 경우, 기업전시회를 운영해 한중 양국 기업이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LG전자, 현대자동차, 대웅제약, 농심 등 한국 기업이 전시회에 참여해 제품을 전시함으로써 중국 기업과의 협력을 도모하였다. 경제교류 프로그램 외에도 ‘심양한국주’ 기간에는 한중 양국의 문화예술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공연, 패션쇼, 미식회를 개최한다. ‘심양한국주’ 기간에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에서도 해마다 다양한 축제와 이벤트를 개최해 관광객을 유치한다. 한민족 전통의상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한복 퍼레이드는 물론, 한민

족의 문화를 선보이는 전통 공연, 나아가 한식을 맛볼 수 있고,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미식회(美食會)도 개최한다.

참여자 3: 한국주는 심양이나 서탑에서도 중요한 행사예요. 요즘에는 미식회를 해마다 하고 있어서 중국 친구들로 관심가지고 찾아와요. 서탑에 오면 한복도 입어볼 수 있고, 한식도 먹어볼 수 있어서 특히 한류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참여자 6: 심양에서 한식, 조선족음식을 맛보려면 사람들이 먼저 서탑을 떠올려요. 그만큼 서탑에는 한국식당도 있고, 조선족 식당, 그리고 공연도 볼 수 있는 북한식당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우리 삼계탕 집에 찾아오는 손님도 다양해요. 한국사람, 조선족, 지금은 한족이 제일 많아요.

참여자 2: 서탑은 이미 큰 상권(商圈)이 만들어졌어요. 여기에는 조선족도 있고, 한국사람도 있고, 북한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한족이 장사를 많이 해요. 반찬가게도 이전에는 다 조선족이었는데, 지금은 한족도 많이 하고 있어요. … 조선족, 한국사람, 그리고 북한사람이 같이 어울려서 큰 상권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해요.

참여자 5: 저희 물류회사는 주로 한국과 무역을 하고 있어요. 평소에도 한국 기업과 교류를 제일 많이 해요. … 사무실을 서탑에 두고 있는 이유도 한국인과 더 쉽게 만나고 협력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듯 한인 디아스포라가 어울리고 공존하며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서탑 코리아타운은 이미 거대한 경제공동체로 성장되었다. 특히 서탑 코리아타운에서 중국 조선족은 한국인, 북한인, 그리고 중국 한족 사이에서 중개역할을 수행하면서 경제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2) 글로벌 사회공동체

서탑 코리아타운에 유입되는 한인 디아스포라의 규모가 확대되고 인적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중국 조선족과 한국인을 중심으로 그들만의 사회공동체가 구축되었다. 다양한 사회단체 중 가장 대표적인 단체는 심양조선족련의회(沈阳朝鲜族联谊会)와 심양한국인(상)회이다. 1988년에 설립된 심양조선족련의회는 조선족의 친목 도모를 취지로 설립된 사회단체로 심양시조선족기업가협회, 심양시조선족청년협회, 심양시조선족교육협회 등 다양한 조선족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²⁹⁾ 다른 한편, 심양 한국인사회에서 대표단체로 손꼽히는 심양한국인(상)회는 심양에 유입한 한국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심양 조선족사회와 한국인사회를 대표하는 심양조선족련의회와 심양한국인(상)회는 서탑 코리아타운의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있다. 예컨대 두 단체는 서탑에서 해마다 개최되고 있는 ‘미식회’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한민족 전통명절 축제인 ‘정월대보름맞이 축제’도 함께 협력하여 개최함으로써 심양시 조선족과 한국인이 함께 소통하고 어울리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국경을 초월한 서탑 코리아타운의 이러한 사회공동체는 민간단체에 의해 구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상을 공유하고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개인생활에서도 잘 체현되고 있다. 특히 중국 조선족과 한국인은 거주지역이 중첩되고 같은 상권에서 경제활동을 이어가면서 교류와 소통이 일반화되어 있다. 연구 참여자와의 인터뷰 중에서도 중국 조선족과 한국인의 교류가 확인되었다.

연구자: 서탑 코리아타운에서 조선족과 한국인은 어느 정도로 교류하고 있나요?

참여자 4: 거의 매일 한국사람 만나요. 주변에 한국인 친구도 많고요. 저는 화장품 가게를 하다보니까 한국 손님이 많아요. 저도 한국 자주 가요. 서탑에서는 한국사람 만나는거 일상이예요.

참여자 2: 저희 아파트 위층에 바로 한국사람 살아요. 그 친구가 또 서탑에서 식당도 하고 있어요. 자주 만나죠. 그 한국 친구 식당에 가서 밥 먹

기도 하고 … 말도 통하고 문화도 비슷하니까 편하게 만나요.

참여자 8: 한국사람들이 처음에 중국에 왔을 때 조선족을 통해서 자리 잡았잖아요. 우리는 중국말도 모르고 여기 문화도 모르니까 … 조선족과는 자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듯 서탑 코리아타운에서 공존하고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는 그들의 민족단체를 통해 사회공동체를 구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글로벌한 사회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사회공동체는 국제정세의 변화, 한중관계의 갈등 등으로 인해 긴장감과 모순이 동반되는 등 미묘하게 변화되기도 한다.

3) ‘한류’ 중심 문화공동체

중국 조선족과 한국인을 비롯한 한인 디아스포라가 공존하고 있는 서탑 코리아타운은 한국어가 일반화되어 있고, 곳곳에서 ‘한류’를 확인할 수 있는 한민족 문화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한민족 문화공동체는 1998년 심양에서 한국 위성 TV가 보급되면서 시작되었다. KBS, MBC, SBS를 비롯한 한국 위성 TV가 보급되면서, 한국어에 능통한 중국 조선족은 K-Pop, 한국 드라마 등 한류 문화콘텐츠를 쉽게 접하게 되었다. 한중관계가 악화되고 한한령이 발표되기 이전, 중국은 한류의 진원지이자 한류 확산의 거점지이었다.³⁰⁾ 1997년의 “사랑이 뭐길래”로부터 시작해 “가을동화”, “겨울연가”가 중국에서 인기를 얻었으며, 2005년에 방영된 “대장금”은 열풍을 일으키기도 했다. 중국 언론에서 처음 등장한 ‘한류韓流’는 드라마를 넘어서 K-Pop, 한국 영화, 한국의 언어, 음식, 패션, 메이크업 등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³¹⁾ 한류가 중국에서 확산되고 열풍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 조선족이다.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 문화에 익숙한 중국 조선족은 한류 문화 콘텐츠를 중국에 전파하는데 촉매역할을 담당하였다.

참여자 1: 집에 당연히 한국 TV 나오지요. 매일 봐요. 드라마도 보고, 전국 노래자랑도 보고. 없으면 안돼요. 한동안 안테나 설치 불법이라고 떼어간 적도 있는데 너무 불편했어요. ... 주변 조선족 친구들은 다 한국 TV 보고 있어요.

참여자 2: 저희는 한국 음악을 듣고 한국 드라마 보면서 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한국 TV를 접했고, 지금은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드라마 많이 보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거의 실시간으로 한국 드라마를 볼 수 있을 정도예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한국 문화가 익숙해요. 한한령 때문에 한류가 좀 영향은 있지만, 그래도 한국 드라마 좋아하는 중국 친구 많아요.

‘한류’ 문화를 기반으로 한국 문화에 공감하고 친근감을 느끼는 중국 조선족은 점차 심양 정착 한국인과 문화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다. 2000년 8월 한인회가 주최하는 서탑 거리 공연 ‘동북3성 한민족화합노래자랑’에 중국 조선족이 함께 참여하였고, 2000년 10월에 개최된 ‘2000 심양 미스조선족 선발대회’는 심양 정착 한국인과 조선족이 공동으로 기획하였다. 그리고 2009년 심양에서 개최된 ‘KBS전국노래자랑’은 한민족 문화를 공유하는 한국인과 조선족의 화합의 장이었다. 나아가 2002년 이후 해마다 개최되고 있는 “심양한국주” 행사와 서탑 코리아타운에서 개최되는 “미식회”에서 서탑 정착 한국인과 조선족은 협력하여 한복 퍼레이드, 전통 문화 공연을 기획함으로써 문화공동체를 재차 확인하고 있다.


한인 디아스포라 공존의 장

전 세계에 분산 거주하고 있는 708만 한인 디아스포라는 중국의 북경과 상해, 미국의 LA와 뉴욕, 일본의 도쿄와 오사카, 영국 런던, 브라질 상파울루 등 대도시 중심으로 밀집거주하면서 코리아타운을 형성하고 있다. 그 중

1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은 중국 국내 최대 코리아타운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연구는 현지조사와 심층면접을 주요한 연구방법으로 선정하여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의 형성 과정과 실태, 그리고 사드 사태 이후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검토하였으며, 나아가 중국 조선족, 한국인, 북한인이 공존하고 있는 서탑 코리아타운의 초국가적 공동체를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한인 디아스포라의 심양 유입은 1910년 전후부터 시작되었으며, 교통이 편리한 서탑 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그들만의 밀집거주지역을 형성하였다. 심양시의 빈민촌에 불과했던 서탑지역은 조선족 유입 이후 점차 경제가 활성화되어 상권을 형성하기 시작하였으며, 개혁개방 이후에는 점차 심양 조선족사회의 경제·사회·문화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1992년 한중수교이후 한국 자본의 유입과 함께 서탑은 기존의 '조선족거리'에서 현재의 글로벌한 코리아타운으로 변모하였다. 비록 사드 사태 이후 한국인의 규모가 감소됨에 따라 코리아타운도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나, 서탑 코리아타운은 여전히 중국 국내 최대 코리아타운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인 디아스포라가 공존하고 있는 서탑 코리아타운은 초국가주의의 산물이다. 이 연구는 서탑 코리아타운의 초국가적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서탑지역에 구축된 경제·사회·문화공동체를 세부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우선, 심양시 주요 상권 중의 하나로 손꼽히는 서탑 코리아타운은 한인 디아스포라가 구축한 초국가적 경제공동체이다. 현재 서탑 코리아타운에는 중국 조선족이 운영하는 조선족백화점, 서점, 병원, 식당 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이 운영하는 한국백화점, 아울렛, 치과, 미용실이 있으며, 북한인이 운영하는 식당, 갤러리가 있다. 즉 현재의 서탑 코리아타운은 한인 디아스포라가 구축한 거대한 경제공동체이다. 다음, 서탑 코리아타운은 중국 조선족과 한국인을 중심으로 형성된 글로벌한 사회공동체이다. 서탑에 정착하고 있는 중국 조선족과 한국인은 심양조선족련의회, 심양한국인(상)회를 비롯한 그들만의 사회단체를 조성하였는데, 이러한 사회단체는 서로 협력하고 소통

하면서 한인 디아스포라 사회공동체를 구축하였다. 마지막으로, 서탑 코리아타운은 한류를 중심으로 한민족 문화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오랜 이주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여전히 민족언어와 전통문화를 전승하고 있는 중국 조선족은 한류 확산과 함께 한국 문화에 공감하면서 서탑 정착 한국인과 문화행사를 함께 하는 등 문화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원문출처〉

이 글은 아래의 글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

김혜련, 「중국 선양(沈阳) 시타(西塔) 코리아타운의 초국가 공동체에 관한 연구」
『디아스포라 연구』 18(1),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2024

〈저자소개〉

김 혜 련 (한성대학교 이민다문화트랙 조교수)

저자 김혜련은 중국 심양공업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전남대학교 디아스포라학과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연구교수를 거쳐 현재 한성대학교 이민다문화트랙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화교·화인, 다문화, 재외동포 등에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공저서로는 『화인 디아스포라의 현지적응과 정착기제』 『화인 디아스포라의 초국가적 성격』 『화인 디아스포라의 이주 흐름과 초국가적 공동체』 등이 있다.

VIII

자이니치의 해방구에서 공생의 플랫폼으로 -오사카 조선부락-

정 혜 경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보이지 않는 동네’에서 만든 역사

<p>없어도 있는 동네 그냥 그대로 사라져 버린 동네 전차는 애써 먼발치서 달리고 화장터만은 짹짹 눌러앉은 동네 누구나 다 알지만 지도엔 없고 지도엔 없으니까 일본이 아니고 일본이 아니니까 사라져도 상관없고 아무래도 좋으니 마음 편하다네</p>	<p>거기선 다들 목청을 돋우고 지방 사투리가 활개치고 밥사발에도 입이 달렸지 엄청난 위장은 콧등에서 꼬리까지 심지어 발굽 각질까지 호르몬이라 먹어 치우고 일본의 영양을 몽땅 얻었노라 의기양양 호언장담</p>
--	--

‘보이지 않는 동네’이지만 “다들 목청을 돋우고” ‘활개 치는 씩씩하고 활발

한 동네’. 『장편시 - 이카이노^{猪阿野}시집』(1978년)에서 시인 김시종이 표현한 조선부락이다. 재미작가 이민진의 작품 ‘파친코’가 그린 1920년대 오사카 조선부락의 이미지는 열악한 생활공간이었다. 그러나 1920년대 일본 전역의 조선부락은 그저 좁고 더러운 곳에 그치지 않았다. 조선적인 정서와 언어, 교육, 문화를 유지하던 곳이자 경제력을 갖춘 곳이었다.¹⁾

역동성, 해방구. 바로 일제강점기 조선부락의 특징이다. 그리고 전후에는 일본에서 새로운 공생의 사례를 만들어가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본 사회는 다문화공생 정책을 내세우지만 100년 이상 같은 공간에서 생활한 자이니치^{在田}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있다. 타자화, 배제. 일본 사회가 자이니치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참정권과 법적 지위는 일본 사회가 자이니치를 공생의 대상으로 여기는가 하는 점에서 근본적인 의문을 낳는 지점이다. 세금을 내지만 정치적 권리는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조선적’이라 불리는 무국적자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모국인 한국의 재일동포 정책도 일본 정부와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재일동포의 존재를 방기했고, 1965년 체결한 「한일기본조약 및 제협정」 중 ‘재일한국인 법적지위협정’을 통해 재일동포 사회의 분열을, ‘한일 청구권 및 경제협력 협정’에서도 재일동포의 재산과 권리 및 이익을 제외해 재일동포 사회에 소외감과 깊은 상처를 남겼다.²⁾

그런 속에서 자이니치 사회의 아이덴티티는 변하고 있다. 모국지향성 일변도였던 한반도를 바라보는 시선도 다양해졌다. 영화 ‘Go’에서 볼 수 있듯이 3세부터는 국적이나 민족이 아닌, ‘도쿄인’이나 ‘오사카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간다. 올드커머의 경제력 향상과 함께 뉴커머의 존재는 자이니치 사회의 공생 대상이 확대됨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일제강점기 일본에 형성된 조선부락의 역할과 기능을 토대로 광복 이후 공생의 플랫폼으로써 코리안타운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러 사람이 일본에 가다 - 도일 : 도항과 밀항

광복 이전 한인의 도일은, 첫 번째 조선의 개항, 두 번째 1910년 한일강제병합, 세 번째 일본의 총동원체제기에 일본으로 강제동원을 본격화한 1939년 등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표1〉 일본 거주 한인 현황 (단위:명)³⁾

연도	거주 한인수			연도	거주 한인수		
	(1)	(2)	(3)		(1)	(2)	(3)
1882	4			1924	118,152	168,002	172,130
1895	12	12		1925	129,870	187,102	214,657
1896	19			1926	143,798	207,853	247,358
1898	71			1927	165,286	246,515	308,685
1900	196			1928	238,102	341,737	358,121
1905	303	303		1929	275,206	387,901	398,920
1907	459	459		1930	298,091	419,009	419,009
1909	790	790		1931	311,247	437,519	427,275
1911	2,527		5,728	1932	390,543	504,176	433,692
1912	3,171		7,796	1933	456,217	573,896	500,637
1913	3,635	3,952	10,394	1934	537,695	689,651	559,080
1914	3,542	4,176	12,961	1935	625,678	720,818	615,869
1915	3,917	5,064	15,106	1936	690,501	780,528	657,497
1916	5,624	7,225	17,972	1937	735,689	822,214	693,138
1917	14,502	17,463	22,218	1938	799,878	881,347	796,927
1918	22,411	27,340	34,082	1939	961,591	1,030,394	980,700
1919	26,605	35,995	37,732	1940	1,190,444	1,241,315	1,241,315
1920	30,189	40,755	40,755	1941	1,469,230	1,469,230	1,484,025
1921	38,651	48,774	62,404	1942	1,625,054	1,625,054	1,778,480
1922	59,722	82,693	90,741	1943	1,882,456	1,768,180	1,946,047
1923	80,415	112,051	136,557	1944	1,936,843	1,911,307	2,139,143

(1) 『日本帝國統計年鑑』, 해당연도

(2) 朴在一, 『在日朝鮮人に關する綜合調査研究』, 東京: 新紀元社, 1957, 23~29쪽

(3) 田村紀之, 「內務省警保局調査に依る朝鮮人人口(1)」, 『經濟と經濟學』46, 1981, 58쪽

한인 도일정책은 1910년부터 1939년간에도 일본 경제 상황, 당국의 정책 수립에 따라 여러 차례 변화했다. 그러나 한인의 도일이 합법적인 테두

리에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값싸고 질 좋은 노동력이 필요한 기업의 요구는 당국의 정책 방향을 넘어 비합법적 방법을 넘나들었다.

한인의 도일을 활성화한 배경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정기항로 개설이었다. 1876년에 부산과 일본 규슈九州 나가사키長崎 간 정기항로를 시작으로 1880년 원산과 나가사키, 1883년 인천과 나가사키, 1890년 부산과 오사카大阪, 1893년 인천~모지門司~오사카, 1902년 원산~모지~오사카 간 정기항로를 개설했고, 1905년에는 부산~시모노세키 간 정기항로인 부관釜關 연락선이 취항했다.⁴⁾ 1901년에는 부산~경성~신의주를 잇는 철도를 완성했고, 고베와 시모노세키 간 철도 노선을 완성함으로써, 한·일 간 거리를 단축했다. 부관연락선 개설은 신의주~부산 간 한반도 전역과 일본 규슈~간사이關西 간 교통망을 마련했다.⁵⁾

정기항로의 개설은 한인의 도일을 촉진한 배경이기도 하지만 한인의 도일을 활성화한 결과물로 이해할 필요도 있다. 정기항로를 개설했기에 도일이 촉진된 것이다. 관련 연구 성과는 찾을 수 없지만, 일본의 적극적인 조선통치 의지와 조선으로 향하던 일본인을 위한 조치가 아니었을까. 통계를 통해 추측의 실마리를 풀어보자.

통계가 절대적 지표는 될 수 없으나 추이를 살펴보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1905년 부관연락선이 취항한 시기를 기준으로 전후 시기의 거주 통계를 보면, 한인의 일본 거주 인원은 1911년에 급증할 때까지 큰 변동 추이를 찾기 어렵다. 이에 비해 일본인의 조선 거주 인원은 1881년과 1889년, 1895년, 1906년, 1909년, 1911년에 큰 폭으로 늘어났다. 1888년은 오히려 거주 인원이 크게 줄었다.

〈표2〉 한인과 일본인의 거주 현황 (단위:명)

연도	한인의 일본 거주 현황 (일본제국통계연감)		일본인의 조선 거주 현황 (조선총독부 통계 ⁶⁾)	
	인구수	전년 대비 증가 인원	인구수	전년 대비 증가 인원
1876	-	-	54	-
1877	-	-	345	291
1880	-	-	835	490
1881	-	-	3,417	2,582
1882	4	-	3,622	205
1885	-	-	4,521	899
1888	-	-	1,231	-3,290
1889	-	-	5,589	4,358
1890	-	-	7,245	1,656
1893	-	-	8,871	1,626
1895	12	8	12,303	3,432
1896	19	7	12,571	268
1898	71	52	13,615	1,044
1900	196	125	15,068	1,453
1904	-	-	31,093	16,025
1905	303	-	42,460	11,367
1906	-	-	83,315	40,855
1907	459	-	98,001	14,686
1909	790	331	126,168	28,167
1911	2,527	1,737	210,689	84,521
1912	3,171	644	243,729	33,040

〈표2〉의 통계를 정기항로 개설과 연관해 본다면, 한인보다는 일본인 도항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식민지 경영에서 자국민의 식민⁷은 필수적이었으므로 강제병합 직후부터 일본 당국은 적극적으로 일본인과 기업을 상대로 ‘조선 진출 권유’를 했다. 이들의 조선 진출에 정기항로는 필수 요건이었다. 물론 정기항로 개설은 한인과 일본인 도항의 유일한 배경이 아니라 여러 배경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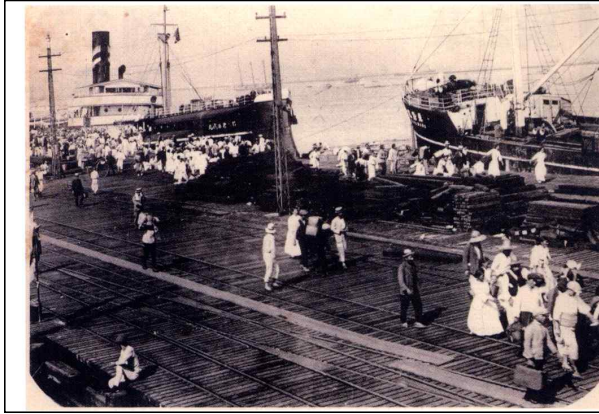
두 번째 배경은 여권제도 개선이다. 조선 관리가 도입하려는 한인에 대한

여권 발급을 거부함에 따라 한인의 도일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일본기업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 문제는 1905년 제2차 한일협약(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되면서 변화를 맞았다. 1906년 9월 15일부터 시행된 통감부령 제34호 「한국인의국외권규칙韓國人外國旅券規則」에 따라 한인의 여권 휴대가 면제된 것이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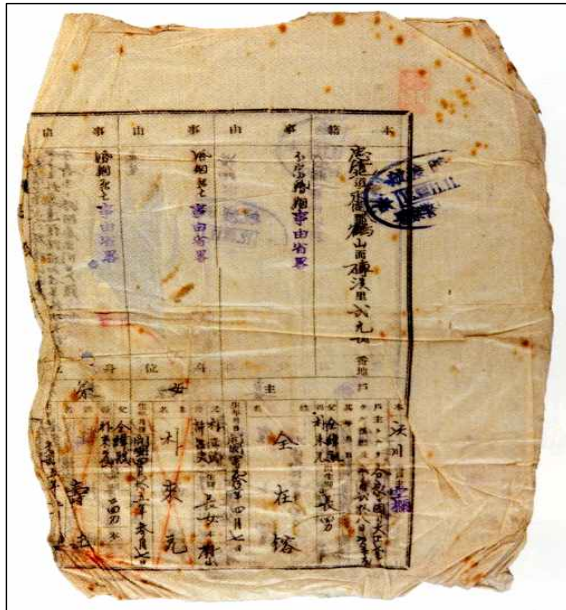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 1910년 강제병합 후 한인의 도일은 증가했다. 1910년 이전에 수백 명 단위였던 한인이 수만 명 단위로 급증하자 당국도 체계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조선총독부와 내무성이 중심이 되어 도일과 거주 상황을 관리하고 통제했다. 한인 도일 통제 정책의 핵심부서는 내무성이었다. 내무성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경찰과 권업勸業이었다.⁸⁾ 사회의 안녕질서를 위해 경찰업무를 장악해야 했고, 일자리를 관장하는 일도 소홀히 할 수 없었다. 실업자의 존재는 사회의 안녕질서를 해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국가와 사회의 안녕질서를 위한 당국의 통제와 관리체제 아래에서 한인은 도일했다. 그러나 모두가 합법의 길을 택한 것은 아니었다.

“그날 저녁 나는 유씨와 약속 시간에 약속한 장소로 나갔다. 희미한 달빛이 비치는 부산 다대포多大浦의 어느 바닷가였다. 파도치는 바닷가 바위 곁에는 백여 명의 장정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가 노동자 밀수업자인 유씨의 알선으로 밀선에 실려 일본으로 팔려 가는 가난한 장정들이었다.”⁹⁾

일본에서 돌파突破로 유명했던 노동운동가 김태엽金太燁이 1915년 열세 살 어린 나이에 밀항하는 모습이다. 1910년대 일본 정부의 밀항 관련 자료는 없다. 그러나 김태엽의 사례를 볼 때 밀항은 1910년대 한인들이 주로 이용했던 방법이었다. 이들이 밀항을 택한 이유는 부관연락선 승선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었다.¹⁰⁾



〈그림22〉 한복을 입고 오사카 축항에 상륙하는 한인(재일한인 역사자료관, 『재일한인역사자료관 도록 - 사진으로 보는 재일 코리안 100년』, 2008, 15쪽)



〈그림23〉 경찰서가 발행한 도항증명서, 호적등본에 직인을 찍는 방식으로 발행(재일한인역사자료관, 『재일한인역사자료관 도록』, 10쪽)

자이니치의 해방구, 조선부락

“독자들이여, 나와 함께 다마가와^{多摩川} 벌판에 서 보자. 자갈을 캐는 곳, 내 고향 대구 부근의 하천에서 매일 볼 수 있는 풍경이다. 가까이 있는 산들을 보며 하천을 걷고 여성들의 자갈 캐는 것을 보면서 마치 내 고향 하천에 서 있는 듯 착각하기도 한다. 내가 착각을 일으키는 이유는 이곳의 집들이 마치 조선의 농가와 같기 때문이다. 말은 모두 조선말이고 조선 김치도, 고추도 있다.”¹¹⁾

장혁주^{張赫宙}가 르포에서 묘사한 도쿄 인근 다마가와 하천변과 시바우라^{芝浦} 조선부락의 모습이다. 친일 작가로 살았던 장혁주가 고향으로 착각할 정도로 익숙한 곳, 바로 자이니치의 해방구, ‘조선부락’, ‘조선인 부락’, ‘조선초^{朝鮮町}’다.

일제강점기 일본 각지에는 다양한 성립 배경을 가진 한인 밀집지역을 이루었다. 슬럼 혹은 바라크 지역이라 불렀던 일본 하층거주지구의 일종이었다.

일본에서 ‘부락^{部落}’은 법적 행정단위명이 아니라 민간에서 사용하던 용어로서 동리^{洞里} 및 정촌^{町村} 이하의 ‘자연마을’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차별적인 용어가 아닌 일반 호칭이었다. 이러한 일반 호칭과 달리 ‘피차별·특수부락’을 약칭한 개념의 ‘부락^{buraku}’이 있다. 도축업 등 특정 직업 소유자의 밀집 지역인 피차별부락과 부락민을 지칭하는 멸칭^{蔑稱}이다.

일제강점기 일본 사회가 한인 거주지역을 지칭하던 ‘조선부락’은 차별적 호칭이었다. 그러나 한인들에게 조선부락은 소중한 공간이었고, 자이니치운동의 터전이었다. 한인들이 저임금과 민족차별 속에서 생존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탄생했다. 한인들은 공터와 하천가 등지에 마을을 형성하고 일자리와 머물 곳을 찾아 모여드는 동포들을 품었다. 우리말과 역사, 풍습 등 민족 정서를 지키며 후세 교육에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은 일본 패전 후에도 남아 자이니치 사회의 구심점으로 역할하고 있다.

1) 조선부락의 형성 및 분포

돈별이^{出稼} 노동자로 일본 땅을 밟은 한인에게 시급한 과제는 일자리와 거주지 확보였다. 단신으로 도일한 한인들은 ‘미리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동포들이 운영하는 노동하숙으로 가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을 거친 후 고향의 가족을 불러 세대를 구성했다.¹²⁾

세대를 구성한 한인들이 마련한 터전은 조선부락이었다. 직업 안정성이 취약한 자유노동자 처지였으므로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한인 밀집지역이 유리했다. 일본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집을 구하거나 일본인 거주지 생활은 두려운 일이자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도 어려웠다. 한인 노동자의 수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높은 집세와 당국과 사회의 부정적 정서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식민지 시기 내내 일본 사회는 한인에 대한 배타적 인식을 유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했다. 배타성에는 주거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포함되었다.¹³⁾

낮선 일본 땅에서 한인들이 갈 곳은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한인들의 손으로 마련한 삶의 터전. 한인들의 취로 사업장(공장이나 공사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조선부락이었다.¹⁴⁾ 한인들은 오사카 교토·도쿄·가나가와·요코하마·규슈 등 주요 도시에 작업장 근처와 빈민지구, 공터 및 빈집, 시장터를 중심으로 조선부락을 형성했다. 가장 급증한 시기는 1930년대였다.

가장 이른 시기에 조선부락을 형성한 곳은 오사카다. 히가시나리구^{東成區} 히가시오바시초^{東小橋町} 157번지 조선부락은 1907년에 탄생했다. 그러나 오사카 최대의 조선부락은 히가시나리구 이카이노초^{猪飼野町}이다. 이카이노^{猪飼野}는 ‘돼지 키우는 마을’이라는 의미다. 최대 거주 한인을 기록한 곳이며, 지금도 4만 명이 사는 대표적 코리안타운이다.

“오사카시 이쿠노^{生野}구의 한 구역이었으나 1973년 2월 1일에 없어진 조선인 밀집지이며 옛 정명^{町名}. 옛날에는 이카이노쓰^{猪甘津}라 했고 5세기 무렵 조선에서 집단 도래한 백제인이 개척했다는 백제향^{百濟郷}의 터전이기도 하다. 다이쇼 말기 백제천을 개수해 신히라노가와^{新平野川}를 만들었을 때 공사를 위해 모인 조선인이 그대로 살게 된 마을, 재일조선인의 대명사와도 같은 동네”¹⁵⁾

재일코리안 시인 김시중^{金時鐘}이 『이카이노 시집』에서 설명한 ‘이카이노’다. 이처럼 오랫동안 한인들의 밀집지였으나 현재 이카이노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인접한 나가가와초^{中川町} 모모타니 O초메^{桃谷 O丁目}로 통합되었다. 1970년대 주변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1973년 2월 1일 오사카시가지도에서 지워버린 탓이다.

〈표3〉 1930년대 주요 지역의 조선부락 형성 상황

지역 및 장소	조사시기	부락수	세대수(명)	세대원/ 인구수(명)	거주한인수 대비(%)
도쿄시	1939	26	1,468	5,740	10.71
요코하마시	1935	14	264	749*	-
교토시	1935	31	862	5,898	14.0
오사카부	1933	109	5,602	29,739	26.6

* 미확인 세대원수 다수 포함

〈자료〉 外村 大, 『在日朝鮮人社會の歴史學的研究』, 東京: 綠陰書房, 2004, 44쪽, 120~130쪽 수정

2) ‘조선부락을 거부’하는 일본 사회

일본 사회는 빈민가를 형성한 조선부락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일본 사회는 부담스럽다는 의지를 집약해 표출했다. 다양한 방법의 추방 시도다. 당국과 일본 사회가 주도한 추방 시도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¹⁶⁾

첫째, 하천 주변이나 해안 등 국유지·사유지의 불법점거, 차지차가(借地借家)에서 추방하는 경우다. 당국의 자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례다. 집주인에 의한 추방과 당국의 행정조치 등이 있다. 둘째, 일본 주민들에 의한 조선부락 철거 요구이다. 일본인 집주인들은 가옥수선 등 여러 구실을 내세우거나 한인들이 ‘잡거생활을 하고 위생풍속사상이 저급’하다는 이유로 퇴거를 요구했다. 셋째, 일본정책과 행정조치에 의한 철거다. 조선부락을 몰아내려는 주체는 지자체와 경찰 등 행정당국이 더 많았다. 당국은 조선부락의 근거지가 국유지임을 내세우고 ‘도시미관을 더럽힌다는’ 등 여러 이유를 들어 행정력으로 몰아내고자 했다. 전쟁 말기에 공습에 대응하기 위해 철거하기도 했고, 내무성의 다마가와 자갈(砂利)채취금지령으로 철거한 경우(도쿄)도 있다.

일본 사회의 추방 시도 앞에서 거주권을 지켜야 하는 한인들은 절박했다. 초기에는 사회운동단체를 찾아가 호소하고 일본 차지차가인조합 등 단체의 도움을 받아 소송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다가 독자적인 한인 단체를 결성해 대응했다. 대표 사례는 김문준이 1928년 7월 결성한 오사카조선인거주권회득동맹이다.¹⁷⁾

3) 전전기(戰前期) 조선부락의 역할

조선부락은 한인사회의 큰 버팀목이었다. 조선부락이 있기에 살아갈 수 있었고, 가족을 지킬 수 있었다. 지연과 혈연적 상호부조가 잘 이루어져 취직 등 생활상 편의도 쉽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부락이 있었기에 한인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고 실천성을 담보한 대중운동이 가능했다. 일본전국노동자협의회나 일본반제동맹 등 혁신운동세력도 조선부락과 한인 학교를 조직화 근거지로 삼았다. 그러므로 당국은 집요하게 조선부락 해체를 시도했다. 그러나 해방 후 한인들은 조선부락이 있던 곳에서 민족교육을 부활하고 재일코리아 문화와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¹⁸⁾

(1) 삶의 버팀목을 넘어 합법운동의 근거지로

조선부락은 도일한인들에게 단순한 주거지를 넘어 실질적인 삶의 터전이였다. 혈연과 지연으로 똘똘 뭉친 곳이었으므로 고향을 옮겨놓은 듯한 생활 공동체였다. 돈이 없어도 굶어 죽지 않고,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었다. 또한 미래를 꿈꾸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이었다. 이곳을 터전 삼아 행상인이나 노동자에서 자영업자로 성장하는 이들이 늘어났고, 1930년대에 상공업과 서비스업을 펼쳐 경제적으로 성공한 한인들도 등장했다.¹⁹⁾

조선부락은 한인들에게 다른 지역 동포들의 삶과 고향을 돌아볼 여유를 갖게 해주었다. 조선부락이 중심이 되어 수해와 기근 및 각종 재해에 대한 의연금을 모금하고, 고향에 필요한 도로나 상하수도 설치까지 담당했다.²⁰⁾ 지연과 혈연의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조선부락의 부조 기능은 1920년대 후반 각종 협동조합 결성과 관련 있다. 1920년대 중반까지 조선부락의 주요한 경제 기능은 공동구매나 계(契) 형태가 담당했다. 1920년대 후반 결성되기 시작한 소비조합이 조선부락을 연계한 조직으로 확대되면서, 협동조합은 비중 있는 경제 활동의 주체가 되었다.²¹⁾ 소비조합은 1930년대 후반에 들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²²⁾

소비조합에 대한 한인들의 호응도는 높았다. 생활상 편리함이 컸기 때문이다. 소비조합 활동에서 공동구매는 큰 도움을 주었다. 민중시보 제4호(1935년 8월 15일자) 기사에서 공동구매를 강력히 추천했다. ‘열집식 스무 집식 공동으로 샅시다’ ‘누가 물건을 사다가 난와 줄 것인가’ ‘외상으로 사는 것은 큰 손해다’는 소제목에서 알 수 있듯 공동구매의 요령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²³⁾

한인사회의 특징을 드러낸 협동조합은 동아통항조합(東亞通航組合)이다. 동아통항조합은 제주도과 오사카를 왕래하는 한인의 편익을 위해 오사카 한인들이 결성한 선박협동조합이다.²⁴⁾ 그러나 한인들의 호응에도 동아통항조합의 운영은 순조롭지 못했다. 경제적 어려움, 선박 좌초와 지속적인 당국의 방해와 탄압 등으로 1934년 2월 문을 닫았다.²⁵⁾

조선부락의 생활공동체 역할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는 진료소 운영이다. 조선인무산자진료소^{朝鮮人無産者診療所}는 오사카 거주 한인들이 언어가 통하는 한인 의사에게 치료받기 위해 만든 의료조합이다. 그동안 한인 진료는 조선부락 내 한약방에서 담당하고 있었는데, 외과 수술 등은 한약방이 치료할 수 없었다. 한인들은 위험하고 위생시설이 열악한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었으므로 사고와 질병 위험이 높았다. 종종 발생하는 일본 의료기관의 진료 거부하는 한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만든 것이 진료소다. 1930년 1월 초 오사카의대 출신의 정구충^{鄭求忠} 등이 ‘실비 진료소^{北區 吉山町}’를 개설하기로 하고 한인 의사와 간호사를 갖추고 2월에 개업했는데, 개업 당일부터 60여 명이 몰려 성황을 이루었다. 그러나 역시 경찰의 폐쇄 명령으로 1931년 8월 13일 문을 닫았다. 당국의 폐쇄 이유는 허가 위반이었으나 실제 이유는 ‘진료소라는 이름을 내걸고 조선독립기념일에 격문을 뿌리고, 이익금으로 한인아동교육기관을 운영하는 등 민족운동을 했기 때문’이다.

이같이 1930년대에 더욱 활발히 전개된 소비조합이나 동아통항조합, 진료소 운영은 조선부락의 상호부조 활동에 바탕을 두고 출발해 조선부락 간 연계조직으로 운영했다. 소비조합을 통해 조선에서 재배한 배추를 동아통항조합 소속 선박으로 실어와 김장을 할 수 있었고, 일본어를 몰라도 진료소에서 치료받을 수 있었다. 국내 수재나 화재를 당한 다른 지역의 동포들을 구제하는 일도 소비조합의 역할이었다. 이들 조합은 조합원의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역할만 하지 않았다. 재일코리아운동의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고 조선 및 일본 운동단체와 공동전선을 취하며, 합법운동의 창구 역할도 병행했다. 그러므로 당국의 탄압을 피할 수 없었다.

(2) 조선부락, 민족적 아이덴티티를 지키는 울타리

“때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향수에 사로잡히게 되는 때에는 대개 간다(神田)의 조선 식당이라도 찾아간다. <중략> 거기서 동포들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거나 신나게 떠드는 소리를 듣거나 하게 되면 때로 나도 모르게 웃고픈 마음이 생긴다. 눈물이 흐를 정도로 희열 속에 잠긴다. 저 장난 섞인 야유. 그 조선말을 듣는 기쁨을 가득 안고 돌아온다. 어느새 울음이 터져 나온다.” - 김사량의 ‘고향을 생각한다’ 중에서.²⁶⁾

조선부락은 ‘고향’이었다. 고향 정서를 갈망했던 작가 김사량은 동포의 모습을 찾아 ‘웃고, 조선말을 듣는 기쁨’을 느끼며 향수병을 이겨냈다.

1930년대 오사카 고바야시초^{小林町} 조선부락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최석의^{崔碩義, 1927년생}가 회상하는 조선부락은 “소란이 그치지 않는” 거친 곳이었다.²⁷⁾ 거칠고 무질서했으나 ‘해방구’였다. 문자 그대로 ‘조선인 마을’이었다. 일본어도 제대로 모른 채 일터에서 옥죄었던 긴장감을 풀고 거리낌 없이 쉴 수 있는 곳이었다. 일본이면서 일본인들의 세계와 떨어진 곳이었다.

“밤은 별세계였다. 밀조한 막걸리가 있고 마늘과 고춧가루를 넣은 김치가 있고 술이 취하면 고향의 민요가 흘러 나왔다. 일본의 학정을 한탄하는 청춘가가 나오면 아리랑, 도라지, 노들강변, 소상팔경, 춘향가 등 아는 노래 전부가 흘러나와 저녁 여섯 시부터 시작된 술자리가 새벽 두세 시까지 이어지는 일도 많았다.”²⁸⁾

조선의 어느 농촌과 다를 바 없는 ‘조선적’ 모습이다. 그러므로 조선부락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한인들에게 ‘풍부한 민족 색채’는 자연스러웠다. 정월이나 추석이면 화려한 민족의상을 입고 나들이를 했다. 여성들이 길고 술이 많은 머리를 곱게 쪽을 지어 올리고 가는 모습은 장관이었다.²⁹⁾

“일상생활의식부터 관혼상제의식에 이르기까지 모국의 관례가 오로지 중시되었다. 〈중략〉이 모든 것은 모국의 습관이기 때문이다. 얼핏 보아 완고하게 비치는 사람들의 태도에는 민족의 전통을 존중하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고집하는 절실한 심정이 나타나 있었다. 나아가 잃어버린 모국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만회할 수 있는 그날을 남몰래 기다리는 희망이 배어 있었던 것이다.”³⁰⁾

김태생^{金泰生}에게 모국의 관례는 습관이나 생활상의 편의만이 아니라 ‘민족의 전통을 잊지 않으려는 절박함과 모국의 역사를 만회할 그날을 기다리는 희망’을 담은 숭고한 행위였다. 한인 대부분이 김태생과 같은 생각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부락이 없었다면, 당국의 동화정책은 막힘없이 추진되었을 것이고, 김태생과 같은 한인들이 ‘희망’을 품기 어려웠을 것이다.

조선부락에서는 우리말과 우리 문화가 통용되었다. 민족적 아이덴티티는 교육을 통해 이어졌다. 나라는 없어도 조선말은 한인의 모국어이자 일상어였다. 모국어에 갖는 힘은 소통 이상이다. 민족이라는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고 가치를 번성하게 만든다. 작가 김사량이 조선말을 듣기 위해 찾아 헤맨 결과 얻은 것은 고향만이 아니었다. 당국의 강요로 황군위문행사를 다녀야 하는 현실에서 연안의 조선의용대를 찾아가는 용기도 얻었다.

조선부락의 우리말과 우리 문화는 열악한 여건이 나온 산물이기도 했다. 학령대상아동은 증가하는데, 일본학교에 보낼 수 없는 처지의 한인들이 자체 교육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견지한 문화였기 때문이다. 당시 기류부에 등록되지 않는 한인들은 아동을 취학시킬 수 없었고, 경제문제로 아동들이 노동현장을 지켜야 했으므로 정규 교육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한인사회는 이들 미취학 아동의 교육을 방치하지 않았다. 1920년대부터 조선부락 부근에 야학과 학원을 설립해 우리말과 역사를 가르쳤고, 한인노동조합도 조선부락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를 운영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우리말은 조선부락에서 일상어로 확고한 위치를 가졌다.

이러한 전통은 일본 패전 후에 민족학교로 이어졌다. 1982년에 재일본

대한민국청년회가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광복 당시 귀환하려 한 동포들은 67%였으나 다수가 정주를 택해야 했다. 일본의 방기와 모국의 정치 경제적 혼란으로 인해 발생한 정주이다. 그러나 귀국에 대한 희망은 버리지 않았으므로 해방 이전부터 있었던 교육의 전통을 이어 1945년 9월부터 노천교실에서 등사판^{謄寫版}으로 만든 교과서로 민족교육을 시작했다. 1948년에 학생이 6만 명에 이를 정도로 왕성했다. 당시 한인 아동의 취학률은 100%였다고 한다. 1948년 1월 GHQ의 통달과 일본 정부의 탄압으로 전국 200여 개에 달하던 학교는 강제 폐쇄를 당했으나 5월에 타협이 이루어져 현재까지 민족 학교와 민족학급을 이어가고 있다.

조선부락에서 조선적인 생활과 풍습은 자연스러운 삶이었고 주류였다. 그러나 식민지 본국인 일본 땅에서 한인들의 이러한 ‘조선적 삶’은 당국의 정책과 정면으로 맞서는 행위였다. 한인들의 조선적 풍습은 동화정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조선부락에서 사용하던 언어와 풍습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민족적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당국은 내선협화회(1924년) → 교풍회(1935년) → 협화회(1936년)으로 이어지는 통제조직을 통해 한인의 민족적 정체성을 말살하고자 했다.

오사카 히라오카^{平岡}에 살며 지퍼공장에 다니던 박윤경은 출근길에 경찰서가 있었다. 하얀 조선 옷을 보면 먹물을 쏟았기 때문에 경관이 있으면 멀리 돌아가고 없으면 뛰어서 지나갔다. 공장에서 복장을 단속하는 일도 있었다. “정신없이 일하고 있으면 말이야. 단속이 들어와. 저고리를 면도칼로 찢는 일도 있어. ‘기모노 입어!’ 라면서 말이지. 조선 옷은 금지였어.”³¹⁾

조선적 관습을 유지하려는 한인에 대한 당국의 단속과 탄압은 집요하고 다양했다. 이같이 조선부락은 주거문제와 생존권 해결을 위해 탄생했지만, 주거문제 해결이라는 의미를 넘어섰다. 밀집이라는 특성을 토대로 우리말과 풍습을 유지하면서 민족적 아이덴티티 유지로 이어졌고, 민족공동체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특히 1930년 한인 단체의 해산으로 자이니치운동의 지형이 다각화한 후 자이니치운동에서 조선부락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한인의 생활터전으로써 교육적 기능까지 담당했던 조선부락은 1930년대 자이니치운동의 토대로 작용했다.

광복, 공생의 플랫폼을 향해

1) 자이니치 사회의 경제적 안정

(1) 1930년대 말 증가하는 자영업

한인의 대부분은 도일 후 고향과 전혀 다른 경험 세계에 들어섰다. 대부분 농민 출신이었으나 도일 후 대부분 노동자의 삶을 살았다. 노동자는 1910년대 이후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재일 한인의 직종이 되었다. 그러나 시기가 지남에 따라 노동자 비율은 감소하고 상업 종사자는 높아졌다.

조선일보에 게재한 명함 광고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전국 1,178건의 재일 한인 사업주들은 금속기계 등 제조업과 판매업, 하숙업, 각종 상점, 한방약국, 이용업, 보험대리점, 운수업, 변호사나 행정서사, 서비스업, 신문 보급소 등 다양한 업종을 경영하는 자영업자였다.³²⁾

자영업은 조선부락을 토대로 활성화되었다. 당시 조선부락 거주자들의 회상에 의하면, ‘조선부락의 도로가에는 쌀집, 잡화점, 생선가게, 건어물점, 한복집, 이발소, 세탁소, 각종 음식점, 과자점, 금은방, 김치나 미역 등 소매업 가게, 한약방, 철공소, 목재소, 폐품처리장 등이 즐비’했다.³³⁾

자영업자의 증가는 한인 노동자들의 직업 전환과 무관하지 않다. 이 가운데 주목할 정도로 상승세를 보이는 직종은 상업이다. 상업은 1935년부터 10%를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 1940년 상업 세부 직종 가운데 넘마주이가 8.29%에 차지하는 점은 특이하다. 1930년대 중반 조선부락에 자리한 고물상(폐품처리장) 때문이었다. 당시 조선부락에서 “수백 명이나 되는 하얀 옷을 입은 여성들이 등에 어린이를 업은 채 노천 고물상(폐품처리장)에 늘어

서서 소각 대상과 재활용 대상을 구분해 금속과 철선, 유리 등을 골라내는 모습은 장관”이었다.³⁴⁾

<표4> 광복 이전 재일 한인 직업 구성비³⁵⁾ (단위 : %)

직업		1920년	1925년	1930년	1935년 ³⁶⁾		1940년	
관공리·사무·전문직*		0.42	0.19	0.17	유식적 직업	0.35	0.56	
	농업	1.21	1.51	0.85	1.07		1.26	
어업		-	-	-	0.10		0.06	
상업	각종 행상	0.01	-	-	-		노점· 행상	1.32
	넝마주이	-	-	-	-		8.29	
	각종 상업	0.33	-	-	-		-	
	보통 상인	-	-	-	1.49		1.64	
	인삼·과자류·잡품	-	-	-	2.32		-	
	기타 잡업	-	-	-	6.37		-	
	소 계	0.34	1.68	5.70	10.19		11.26	
노동자	토공*	16.66	-	-	토건	24.82	23.58	
	탄광산 탄갱부*	22.09	9.67	5.38	광업	2.81	12.73	
	각종 고용인*	3.40	6.71	5.88	섬유 ³⁷⁾	10.59	6.74	
	각종 직공*	26.47	22.85	21.62	금속· 기계	6.56	7.77	
	일용직·인부*	20.54	52.67	58.35	화학	10.93	7.87	
	운수·교통	-	0.55	0.55	-		-	
	수상(水上) 취업자	-	1.63	1.49	-		-	
	소 계	89.16	94.09	93.26	82.82		81.85	
요리점 및 하숙업*	0.13	0.77	-	接客업	1.62	0.80		
토건청부	0.71	-	-	-		-		
예창기(藝娼妓)	-	0.14	0.02	-		-		
기타 유업자	8.03	1.62	-	3.87		4.18		

* : 1935년 이후 유업자는 해당되지 않음

특히 상업 종사자 가운데 행상이 한인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컸다. 단지 물품 판매에 그치지 않고 고국이나 외부의 소식을 전해주거나 도서대여점의 역할까지 했기 때문이다. 한인들은 행상을 통해 책을 사거나 빌릴 수 있었다. 행상을 통해 구한 춘향전, 심청전 등 고전이나 이광수의 소설과 같은 신간 서적은 단지 오락물에 그치지 않았다. “저녁이면 평상에 모여 행상인을 통해 구한 한글본 소설을 서로 돌려가며 읽기도 했다.”³⁸⁾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인들은 자연스럽게 우리말과 조선 문화를 공유할 수 있었다.

〈표4〉에서 1920년과 1940년 외에는 행상에 대한 통계를 확인할 수 없다. 1930년대 한인의 정주화가 강화되면서 행상의 일부는 노점상이나 자영업으로 전환되었다. 1940년 통계에서 행상이라는 직종은 노점과 함께 분류되었다.



〈그림24〉 1920년대 엿을 파는
고학생들(재일한인역사자료관,
『재일한인역사자료관 도록』, 32쪽)

행상이나 노점상은 큰 자본금 없이도 가능했으므로 한인들의 일본 정착에 긍정적 역할을 했다. ‘떡’이나 ‘엿’ 등 행상을 한 고학생도 많았다. 가가호호 방문하는 행상의 특성은 도일 초기 한인이 일본의 다양한 면과 만나는

경험이자 인식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1930년대에 정착한 한인 상점은 조선부락과 한인사회를 지탱하는 데 중요한 순환 구조 역할도 담당했다. 노동자였던 한인들이 상업이나 제조업으로 업종을 전환하면서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한인 세계가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2) 광복 이후 자이니치의 직업생활

광복 후 한인들은 당국의 정책으로 귀국을 보류하고 잔류했다.³⁹⁾ 일본 정부가 공식 발표한 1945년 8월 이후 1946년 3월까지 남한으로 귀국자는 약 94만 명이고, 1950년까지는 약 100만 명에 달한다. 현재 자이니치 사회의 원점을 형성한 인원은 1947년 12월 말 기준 외국인 등록자 639,368 명이라 할 수 있다. 1992년 기준 자이니치의 수는 668,144명이다.⁴⁰⁾

1950년대 자이니치의 통계를 보면, 1950년 544,903명(외국인 총수 대비 91%)이고, 1952년 535,065명, 1954년 556,239명, 1955년 577,682명, 1958년 611,084명, 1959년 607,533명, 1960년 581,257명(외국인 총수 대비 89.3%)이다.⁴¹⁾ 1954년에 1952년 대비 21,174명의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6.25전쟁으로 인한 ‘선회(旋回) 도일’이라 부르는 ‘역밀항’의 결과로 보인다.

〈표5〉 1952년 10월 기준 한인 직업 구성비 (단위 :명/%)

직업	합계(%)	직업	합계(%)
농업	10,156(1.8)	무역업	163
공업	24,573(4.6)	광업	53
상업	31,023(5.8)	어업	801
운수업	5,266(0.9)	지적노무자	7,237(1.3)
토건업	19,991(3.7)	일용노무자	35,585(6.6)
요식업	5,157(0.9)	실업자	13,269(2.4)
유흥업	7,207(1.3)	무직자	328,624(62.0)
해운업	612	기타	46,084(8.5)
합계			535,803(100)

1950년대 초 직업별 분포를 보면, 해방 이전과 차이는 업종의 다양화이다. 해방 이전이 노동자와 상업이 다수를 차지했다면, 비중은 작지만 1952년에는 해운업과 무역업 등 새로운 업종을 볼 수 있다. 강재언과 김동훈의 연구에 따르면, 도쿄도와 오사카부 등 지역에 따른 업종별 분포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쿄도는 파친코, 불고기 식당, 소비자금융업, 플라스틱제조업,再生资源, 도매업의 순서로, 오사카는 플라스틱제조업, 금속제품과 기계기구 제조업, 토건업, 음식점, 파친코의 순서로 비율이 높다.⁴²⁾

(3) 올드커머 기업과 뉴커머 기업의 성장

현재 자이니치 사회는 크게 올드커머와 뉴커머로 구분할 수 있는데 경계는 명확하지 않다.⁴³⁾ 일반적으로 일제강점기 도일자 및 1950년대까지 주로 제주도 출신자를 중심으로 한 ‘밀항’을 통한 도일자를 올드커머라 한다면 뉴커머는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정식 허가를 얻어 도일해 공식 체류 허가를 받은 한인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올드커머와 뉴커머에 대해 본절적으로 분석하는 경향도 있으나 현재는 본절점은 희박하다.⁴⁴⁾

〈표5〉에서 자이니치의 새로운 업종은 일본 패전 직후 혼란 속에서 성장한 올드커머 기업을 포함하고 있다. 올드커머 기업은 각지의 파친코 산업 등 다양하지만 대표 기업은 1948년 창업한 (주)롯데와 소프트뱅크를 꼽을 수 있다. 신격호가 일본에서 식품업계를 일으켜 성공한 후 한국에 진출해 한국 재계 10권 내의 재벌기업으로 성장한 데 비해, 손정의는 1978년 미국에서 유니슨월드를 창업한 후 1981년 일본에서 소프트뱅크를 창업해 일본의 미성숙업체인 컴퓨터 소프트 유통업과 IT업 분야를 선도했다.⁴⁵⁾ 이들 올드커머는 차별과 배제의 일본 사회를 경험하면서 일본인 이상으로 적극적인 일본인화를 수용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⁴⁶⁾

뉴커머는 1980년대 이후 약 20만 명 정도로 비중이 높고, 2016년에는 뉴커머 출신이 도쿄상공회의소 회장에 취임할 정도로 ‘재일코리언 기업’에서 자리 잡았다. 뉴커머를 자이니치에 포함할 수 있는가에 대해 자이니치

사회에서도 논의가 있었으나 2천년대 이후 도쿄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뉴커머를 자이니치 범주에 포함하면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뉴커머 기업은 올드커머와 같이 대규모는 아니다. 대표적인 뉴커머 기업은 도쿄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낸 에이산^{Eisan} 면세점 대표 장영식^{張永軾}이다. 1993년 도일한 장영식은 아르바이트와 행상에서 시작해 1995년 전자제품 판매회사를 설립했다. 그가 당시 주로 한인들이 주력하는 파친코나 식당이 아닌 가전제품 유통업을 시작한 이유는 면세점이 일본의 틈새시장이라는 점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도쿄국제대학 대학원 유학 중 창업한 이동재팬의 김효섭^{金孝燮} 대표, 일본대학 경제학부 출신의 테크노피아 박재세^{朴裁世} 대표, 유학생 신분으로 도일한 국제익스프레스 나승도^{羅勝道} 대표 등도 성공한 뉴커머 기업가이다.⁴⁷⁾

2) 공생의 플랫폼 - 코리안타운

(1) 조선부락에서 코리안타운으로 - 오사카를 중심으로

일반적으로 일본의 코리안타운이라고 하면, 도쿄의 신오쿠보와 오사카의 이쿠노구를 떠올린다. 신오쿠보가 뉴커머 중심이라면 이쿠노구는 올드커머의 집거지로 구분할 수 있다.⁴⁸⁾ 이쿠노구의 역사가 조선부락의 역사와 무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쿠노구는 현재 가장 많은 자이니치가 거주하는 집거지이기도 하다. 2018년 현재 가장 다수의 자이니치가 거주한 지역은 오사카시이다. 오사카시가 공개한 2018년 3월말 현재 총 외국인 131,949명 가운데 한국·조선적(무국적)은 67,454명(51.1%)이고, 이 가운데, 이쿠노구에서 한국·조선적(무국적)은 외국인 거주자의 81.4%를 차지하고 있다.⁴⁹⁾

오사카에서 이쿠노구의 코리안타운은 ‘섬’이라고 불렸다. 접근성이 떨어진 곳이기 때문이다. 그런 외진 곳이 지금은 연간 20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있으며, 유튜브에서 ‘코리안타운 찾아가는 길’이 있을 정도로 일본 젊은

이들의 핫 플레이스가 되었다.

이쿠노구의 코리안타운은 미유키도리(御幸通り) 상점가, 쓰루하시(鶴橋) 국제시장, 이마자토신지(今里新地)이다. 이 세 곳에서도 가장 연원이 깊고 조선부락과 직접 관련을 맺은 곳은 미유키도리 상점가이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한인들이 시장을 형성한 곳은 현재 미유키도리 상점가가 아니라 상점가에서 남쪽으로 100미터 정도 내려간 골목이다. 이곳에서 김치나 나물, 고무신 등을 판매하면서 시작했다. 현재 상점가는 미유키도리신사(御幸森天神宮)로 가는 신사길이다.

1926년에 신사 앞 산도(參道)에 오사카시립 쓰루하시 공설시장을 개설한 후 쓰루하시역과 이쿠노역을 개통하면서 시장은 미유키도리 상점가로 변성했는데, 물자통제와 1945년 6월부터 시작된 연합군 공습으로 유지할 수 없었다. 일본 패전 이후에도 일본인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적어 상점가가 빈집으로 남게 되자 1948년경에 아래 골목에서 장사하던 자이니치가 입주하면서 현재 조선시장으로 자리잡게 되었다.⁵⁰⁾ 1951년 한인 상점주의 진출이 늘어나자 거부감을 가진 일본인 상점주가 주도권을 잡으려 했으나 상점가가 세 군데로 나누어지면서 중앙 상점가는 자이니치 중심의 상점가로 특화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코리안타운’이라는 이름은 1993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상점가에 ‘백제문’이라는 게이트를 세우게 된 것은 공설시장의 쇠락 때문이었다. 슈퍼마켓 등 대형 점포의 진출로 일본 각지에서 상점가가 쇠퇴하면서 미유키도리 상점가도 1988년 공설시장 기능이 폐지되자 상점가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코리안타운 구상이 추진되었다. 중심 추진세력인 자이니치 청년단체와 일본인 청년단체들은 지역 재생을 위해 공동으로 구상을 제창하고 오사카시의 행정지원을 받아 1991년부터 구체화되었다. 1993년 게이트 설치 후 이 상점가를 중심으로 주변 일대에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온 자이니치나 뉴커머가 늘어나면서 이쿠노는 자이니치의 집거지가 되었다.⁵¹⁾

오사카의 코리안타운은 단지 상업지구 기능만이 아닌 문화체험과 친선교류의 공간으로서 이미지에 많은 변화를 도모한 곳이기도 하다. 재일코리안

청년들을 중심으로 각종 기념 강연회나 공연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일본 사회에 한국의 전통문화와 예술을 발신하고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교류의 장이자 민족적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 1994년 3월에 개최된 ‘이쿠노민족문화제(生野民俗文化祭)’를 비롯해 2009년부터 ‘이쿠노 코리아타운 공생축제’를 매년 11월에 3개 상점가 연합으로 개최함으로써 다문화공생과 문화융합의 메카라는 이미지 표상에 노력하고 있다. 즉 이쿠노 코리아타운은 다문화공생과 문화융합을 실천하고 실현하는 문화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⁵²⁾

또한 이곳은 민단과 총련의 각 지부들, 교회와 한국계 불교사찰 등 종교 시설, 재일 고령자 시설, 민족학교 등이 점점이 퍼져 있는 곳이다. 울드커머와 뉴커머, 중국 조선족, 귀화한 자이니치 등 저마다 다른 배경을 지닌 코리안들이 경제활동을 비롯해 문화, 교육, 정보 교환, 민족마다당이나 축제, 관혼상제에 이르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21세기 자이니치 세계의 핵심을 이루는 관습이나 문화를 지키는 곳이다.⁵³⁾

(2) 협한, 한류 그리고 공생 : 한류에 가려진 공생인가

1959년 12월부터 시작한 ‘귀국사업(북송사업)’이 1984년 8월 종료된 후 자이니치 사회에서 일본 사회와 공생은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총 93,340명에 달한 북한행 자이니치의 집단적 행렬이 멈춘 후 이제는 한반도가 아닌 일본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생을 지향한 주체는 자이니치만이 아니었다. 일본 정부와 일본 사회에게 다문화공생은 시급한 아젠다였다. 1980년대 말부터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 인구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일본의 외국인등록자는 급증했다. 일본 법무성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외국인등록자 2,232,189명은 1986년 말에 비해 162.4% 증가한 규모였다. 이와 함께 일본 인구의 감소도 다문화공생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한 이유가 되었다. 연평균 인구증감율이 2016년 -0.32%에서 2020년 -0.47%로 감소했고, 2060년에는 -1.16%라는 높은 감소율이 예상된다.⁵⁴⁾ 일본 인구의 감소는 일본 사회가

다문화공생에 대해 인식을 달리해야 할 상황을 맞았다.

일본의 외국인 거주자 정책이 나타난 것은 1970년대 이후 자이니치에 대한 일본 지역사회의 주민정책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주민정책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마련된 ‘지방공공단체의 국제교류 양상에 관한 지침’, ‘국제교류를 위한 지역 만들기 지침’, ‘지역국제교류추진대강의 시책에 관한 지침’ 등의 지침을 통해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외국인 노동자와 거주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본 정책과 계획 수립을 보다 체계화하고 종합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가와사키시^{川崎市} 남부의 자이니치 집주지역인 사쿠라모토^{櫻本}의 가와사키교회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공생 실천이다.⁵⁵⁾

그러나 일본 사회가 지향하는 다문화공생과 자이니치의 공생이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이니치 형성이라는 역사적 배경이 가장 큰 허들이다. 자이니치 사회 자체가 한반도의 분단 현실과 거리를 둘 수 없다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다.

공생은 자이니치가 일본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자이니치 사회에서 뉴커머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올드커머 사회는 뉴커머 사회와도 공생해야 한다. 이 같은 자이니치 사회에 한류는 공생의 긍정적인 요소이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문화 개방정책은 무분별한 일본문화가 쇄도할 것이라는 국내의 우려와 달리 일본에 한류의 문을 열었다. 1990년대부터 일본과 중국에서 드라마와 영화, 대중가요, 애니메이션, 게임 등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한류는 2003년 방영한 드라마 ‘겨울연가’를 통해 본격화되었다.⁵⁶⁾

한류의 확산은 한일 양국의 문화적 교류에 기여하고 일본 사회에서 일본인의 한국인 호감도를 높이는데 영향을 미쳤다. 한류가 시작된 1998년부터 2004년간 일본 여론조사는 ‘한국에 대해 친근감을 느낀다’는 항목이 37.9%에서 증가해 56.7%까지 상승했다.⁵⁷⁾ 그러나 이와 함께 나타난 현상이 혐한류이다. 혐한류는 2005년 출간한 야마노 샤린^{山野車輪}의 『만화혐한류

『マンガ嫌韓流』를 계기로 인터넷 공간에서 민족배외주의와 인종차별주의를 표방하는 행동으로 이어졌다.⁵⁸⁾

자이니치의 공생은 한류에 가려진 공생인가.

여전한 자이니치 기피증과 배외주의적 선동^{헤이트스피치} 속에서도 지역 차원에서 공생을 위한 노력은 속도를 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오사카 미유키도리 상점가의 모습이다. 이곳에 일본 젊은이들이 폭발적으로 몰려드는 현상은 가능성의 하나이다. 가능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는 미유키도리 신사^{御幸森天神宮}이다. 이 신사는 약 400년경(1,600년 전)에 세운 신사로써 오사카(구 지명 難波)에 도읍을 정한 닌토쿠^{仁德} 천황과 관련해 유서깊은 곳인데, 다문화공생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곳이다.⁵⁹⁾ 이 신사에는 닌토쿠 천황 시절 백제의 왕인박사가 닌토쿠 천황 치세의 번영을 기원하며 지은 노래비 '나니와즈^{難波津}의 노래'가 있다. 일본어와 한글로 새겨져 있어 일본에서 유일한 일본어와 한글 병기 노래비이다. 한글이 들어간 이유는 에도 시대에 이 노래말을 대마도 통역관이 한글로 번역해 조선통신사에게 증정했기 때문이다. 2009년에 현지의 일본인과 재일동포들이 건립위원회를 구성해 노래비를 건립했다.⁶⁰⁾



그림 25 노래비 기부(2023년 3월 촬영)

노래비의 건립은 일본 지역사회가 오사카 자이니치를 공생의 대상으로 인정한 사례이다. 공생하려는 양측의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백제 시절에 백제계가 일본 땅에서 지은 노랫말이 조선통신사라는 교역의 역사를 통해 한글로 번역되고, 이후 일본 사회에서 일어난 공생의 움직임 속에서 자이니치와 일본 시민들에 의해 탄생했다는 점에서 노래비 건립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참배길인 산도를 상점가로 사용하게 한 신사 측에서도 공생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국민의 논리’를 넘어

1995년은 무라야마 담화가 나온 해이자 하시모토^{橋本大二郎} 고치현^{高知縣} 지사가 “재일한국 조선인들의 공무원 진출 문호 개방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발언이 나온 해이며, 최고재판소가 헌법 판단을 한 해이기도 하다. 공무담임권이나 지방참정권은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제이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자이니치 처우 문제는 ‘주민’이나 ‘시민’의 범주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변화는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 여전히 미흡하다. 그러나 조선부락이었던 코리안타운은 공생의 플랫폼으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적지 않은 과제가 있다. 가장 큰 과제는 참정권과 법적 지위 문제이다. 교육권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이다. 민족교육을 받을 권리는 인류가 누려야 할 기본권 가운데 하나이지만 여전히 일본학교에서 민족교육의 기회는 제한적이며, 민족학교에 대한 일본 사회의 시선이나 재정적 부담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자이니치에 대한 한국 사회의 물역사적 시각도 해결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광복 후 자이니치 사회는 한반도 분단 여파를 동시에 겪고 있다. 그들에게 총련이나 민단이라는 구분은 큰 의미가 없으나 한국 사회의 인식은 분절적이다. 올드커머와 뉴커머에 대해서도 분절적으로만 인식한다. 한국 사회의 이러한 인식은 여전히 자이니치 사회를 국적과 국민의

범주에 가두어 둔 결과라고 생각한다.

2023년 3월, 월요일인데도 미유키도리 상점가는 일본 젊은이들로 발을 내딛기 힘들 정도로 붐볐다. 역사 문제와 무관하게 한류를 경험하기 위해 온 이들이다. 이 현상을 올드커머들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금은 역사라는 무거운 주제를 정면으로 대하지 않지만 향후 정면으로 인식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1991년 일본의 침략행위를 ‘엄중하게 반성한다’는 가이후^{海部俊樹} 총리의 싱가포르 연설 이후 1990년대 내내 일본 사회는 식민지배의 반성과 가해자로서 자각이 국민적으로 널리 공유되었다. 이와 함께 ‘국민의 논리’를 넘어선 글로벌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그러나 일본의 ‘과거사 반성’이 일본의 ‘근대’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일본인의 정체성의 혼란으로 이어질 것을 두려워한 위기감은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을 비롯한 일본의 신우익 결속을 낳았다. 글로벌화에 따른 타자의 수용은 항상 타자에 대한 반발과 서로 얽혀 착종된 기류를 만들어낸다. ‘잃어버린 20년’이라는 경제의 장기 침체도 낡은 내셔널리즘의 소환에 역할을 했다.⁶¹⁾

자이니치. 일본에 살고 있는 한인. 단일 국적주의와 혈통주의라는 사고방식에서 변경에 서 있는 존재들이다. ‘국민’에 대한 획일적인 시각을 전제로, 국적의 구분에 따라 일본이나 본국이나, 또는 남쪽 정부나 북쪽 정부나 하는 선택에 내몰렸던 시간이 적지 않았다. 그러기에 이런 틀을 비틀 수 있는 역할도 가능한 존재들이다. 엄혹한 일제강점기에 해방구로 자리했고, 광복 후 타자화와 배제가 공고한 일본 사회에서 경제력을 키우며 공생의 길을 도모하는 자이니치 사회이므로, ‘국민의 논리’를 넘어 글로벌한 세계를 열어가는 역할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소개〉

정 해 경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대표연구위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식민지 시기 재일 조선인의 역사를 주제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5년부터 구술사(Oral History)를 시작했고, 1999년부터 기록학(Achival Science)도 공부했다. 현재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대표연구위원이며, 역사에 관심을 가진 이들과 함께 국내외의 아시아태평양전쟁유적을 찾고 있다. 『항일과 친일의 재일코리안운동』(도서출판 선인, 2021),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연표』(도서출판 선인, 2018), 『우리지역의 아시아태평양전쟁 유적 활용 - 방안과 사례』(도서출판 선인, 2018), 『일제강제동원 - 이름을 기억하라』(사계절, 2017), 『터널의 끝을 향해』(도서출판 선인, 2017), 『일본 제국과 조선인 노무자 공출』(도서출판 선인, 2011) 등 저서와 논문 40여 편을 발표했다.

IX

에스닉 경제와 디지털 기술의 아상블라주

김 지 윤
한성대학교

사고 팔 것이 있을 때

“자바(Java)에서와 마찬가지로 버마(Burma)를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유럽인, 중국인, 인도인, 원주민 등 다양한 그룹이 뒤섞여 있다는 것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들은 뒤섞여 있지만 긴밀히 연합되지는 않은 메들리(medley)와 같다. 각 그룹은 고유한 종교, 문화, 언어, 사상, 그리고 삶의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개인으로서 그들이 서로 만나는 곳은 오로지 시장에서 무언가를 사고 팔 때이다.”¹⁾

아시아 식민지에 대한 연구에서 영국 태생의 식민지 관리인이자 작가였던 퍼니발(Furnivall, J. S.)은 당시 자바나 버마와 같은 식민 도시에서 다양한 인종 혹은 민족들(ethnic groups)이 절대 통합되지 않고 각 민족마다 나름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았다. 정치적, 경제적 영역에서는 강압적인 식민 권력에 의한 통합된 구조가 적용되었으나 실제 생활에서는 결코 통합되지 않던 이런 사회를 퍼니발은 “다원주의 사회(a plural society)”²⁾로 명명하였다. 퍼니발의 다원주의 사회 개념은 이후 사회학자들로부터 과학적인 모델이나 개념으로서는 부족하다며 비판받았다(Morris 1967). 그러나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 서로 분화되어 있던 민족 그룹들이 유일하게 조우하던 공간이 시장(market)이었다는 점이다. 서로 무언가를 사고 팔 것이 있을 때 그리고

교환할 것이 있을 때 서로에게 타자인 이들이 시공간적으로 조우하게 된다. 관광객들은 낯선 곳에서 타자의 문화나 역사를 배운다는 ‘고귀한’ 목적으로 박물관이나 유적지를 열심히 찾아다니지만, 이미 과거가 된 죽어 있는 타자들의 문화를 구경하기를 반복하다 지쳐 이윽고 뽀비는 거리와 시장에 들어서야 생기를 느낀다.³⁾ 거리와 시장에는 동시대성을 공유하며 나와 유사성 혹은 차이를 가진 타자들이 살아 움직인다. 시장에서 무언가를 소비한다는 것은 타자의 문화에 매혹되고 이를 흡수한다는 것과 같다.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Zygmunt Bauman)은 이제 도시에서 낯선 이방인과의 대립은 피할 수 없는 조건이 되었고 이러한 도시는 타자들 간의 물질적·비물질적 재화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공간임을 지적하였다.⁴⁾ 이제 사람들은 타인과 어떤 방식으로 공존할 것인가에 대한 협상을 매일 수행해야 하는데 누군가는 타자와의 뒤섞임에 대한 공포인 이질공포증(mixophobia)으로 “유사성의 공동체(a community of similarity)”를 추구함으로써 타자와의 상호작용에서 물러나 후퇴한다. 이로 인한 공간적 분리는 서로에 대한 무지함과 공포를 키울 뿐이다.⁵⁾ 바우만은 그러나 도시의 양가성은 도시가 제공하는 타자성이라는 것이 혐오감과 공포증뿐만 아니라 도시 생활의 매력과 호기심의 원천이 될 수도 있고 이에 대한 이질애착증(mixophilia)을 유발하기도 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이질애착증의 대상은 생소한 타자의 음식, 향기, 음악, 사상, 건축 등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일 것이다. 바우만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시공간적인 분리가 서로에 대한 불안과 공포의 원천이 되지 않도록 서로에게 매혹적인 열린 상호 공간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며 이미 퍼니발의 다원주의 사회에서 관찰된 것처럼 시장은 바로 이런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장에서 문화적 타자성(othersness)의 교환이 개인 간에 그리고 그룹 간에 더 나아가 현대 사회에서 이주민들 사이 그리고 이주민 사회와 수용국 사이에 점차 확장되어가면서 에스닉 경제라는 것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앞서 퍼니발이나 바우만이 관찰하거나 희망했던 것과 달리 에스닉 경제는 타자의 문화가 서로에게 매력적으로 교환되는

시장이기보다 가장 활발히 교환되는 것은 바로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신체이며 그 신체의 가장 효율적인 배치가 디지털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에스닉 경제가 아닐까?

본 연구는 에스니시티(ethnicity)라는 타자성이 교환되는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장이자 노동력, 문화, 정보, 자본과 임금이 교환되는 장으로서 유무형의 시장을 에스닉 경제(ethnic economy)로 정의한다. 초국가적 이주가 가속화되는 글로벌 시대에 에스닉 경제는 아룬 아파두라이(Arjun Appadurai)가 분석한 글로벌화의 다양한 경관들(landscapes)⁶⁾ 중에서 민족경관(ethnoscapes)과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경관(technoscapes)이 서로 결합하여 다양한 사회적 변화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1990년대 중후반 이후 한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이주노동자와 결혼 이주자의 일부는 점차 다른 이주민을 주 고객으로 하거나 자신의 에스닉 그룹의 문화적 특성을 상품화하여 창업을 하는 에스닉 기업가(ethnic entrepreneurs)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소수민족 밀집 지역으로 알려진 몇몇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에스닉 사업들이 번성했고, 일부 성공한 요식업은 한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공간적으로 확장하면서 주류 경제로 진입하기도 하였다. 에스닉 경제는 이민자의 문화적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제한적이고 경직된 자국민 중심의 정책들은 이민자가 사업 유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한국도 이주민들의 이주 역사가 30여년에 이르고 에스닉 경제의 주요 주체이자 참여자인 이주민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에스닉 경제의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

에스닉 경제에 대한 이해와 쟁점

주류 사회에서 인종적, 민족적으로 소수인 이주자가 소유 혹은 경영하고 주로 동일한 에스닉 구성원을 고용, 이들의 문화적 특색이 반영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 그리고/혹은 에스닉 집거지를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할

경우 이를 에스닉 비즈니스(ethnic businesses)라고 하며, 그 에스닉 비즈니스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주체를 에스닉 기업가(ethnic entrepreneurs)라고 한다.⁷⁾ 이러한 범주는 주로 에스닉 그룹에 기반한 소규모 비즈니스 활동에 국한하여 초국적 거대 자본에 의한 기업 활동은 제외한다.⁸⁾ 에스닉 기업가(ethnic entrepreneurs)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그 내적 구분에 주목하여, 주류 사회의 엘리트 계층과 대중에게 에스닉 비즈니스를 제공하는 “중개인 소수자(middleman minorities)”와 자신이 속한 에스닉 공동체를 주요 비즈니스 대상으로 하는 “집적지 기업가(enclave entrepreneurs)”를 구분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에스닉 기업가는 동일한 에스닉 그룹과의 높은 상호작용과 연결성에 기반하고 있어서 특정 에스닉 공동체 활동에 대한 관여 정도가 높다는 것이다. 즉 다양한 정보와 자원을 이동시키고 거래하는 노드(node)로서 새로 공동체에 합류하는 초기 이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주류 사회로의 진입에 기여하기도 하고 에스닉 공동체와 주류 사회와의 협상에 있어서 매개자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한 주류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침체되어 있던 지역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기도 하고 거대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초국가적 무역 연결성을 만들어내기도 한다.⁹⁾ 그러나 에스닉 비즈니스나 에스닉 기업가라는 개념은 주류 사회로부터 ‘호혜적으로 일자리와 시민권을 제공받는다’는 노동자가 아닌 스스로 고용 창출을 한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을 가진 능동적 주체로서의 에스닉 기업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들에게 고용되는 상당한 수의 피고용인의 노동 현장과 그들의 주체성을 간과하고 있다. 이들은 자리만 옮긴 또 다른 이주 노동자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에스닉 경제(ethnic economy¹⁰⁾)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통해, 고용주와 피고용인, 주류 사회와 에스닉 그룹 간의 관계, 초국적 이동과 로컬에서의 공동체 관계를 역동적으로 보려 한다. 또한 뒤에서 분석하겠지만 에스닉 경제라는 개념을 통해 기술경관에 초점을 맞출 경우,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거나 디지털 경제의 가장 말단의 노동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이주 노동자가 만들어내는 확장된 의미의 에스닉 경제를 포괄하기에도 적합할 것이다.

초기의 에스닉 경제 연구는 특정 에스닉 집적지에서의 비즈니스에 초점을 두었다. 공간적으로 특정 에스닉 공동체에 한정된 소규모의 잡화점이나 음식점은 고용 구조도 특정 에스닉 그룹을 중심으로 단일하게 구성되어 이 내적 네트워크에서만 관찰되는 특정 연대감, 신뢰, 가치관, 규범 등을 문화적 특수성으로 규정하며 분석하려 하였다. 경제학적 측면에서 에스닉 경제에 주목하는 지점은 에스닉 경제가 수용국 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정치적 영향이다. 에스닉 기업가들이 이주자들의 주류 사회로의 동화, 그들의 사회경제적 이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들의 가족 혹은 사회적 네트워크 연결망은 어떻게 자원화되는지, 왜 특정 에스닉 그룹은 다른 그룹에 비해 에스닉 경제에 대한 참여율이나 성공률이 높은지 등이다.¹¹⁾ 이러한 연구들에 의하면 이주자들이 에스닉 경제에 진입하는 주된 이유는 실업에 대한 대안으로서 자영업^{self-employment}이다. 대개 이주민은 수용국 사회의 인종적 배제나 차별, 언어 장벽, 자국민 고용을 보호하는 정부 정책, 이주자의 자질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노동시장에서의 미스매치^{mismatch} 등의 이유로 자국민에 비해 높은 실업률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런 노동 시장의 조건에서 경제학자들은 특히 에스닉 집거지^{enclaves}에 기반한 에스닉 비즈니스를 일종의 “트랩^{traps}”으로 본다. 주류 사회와의 연결성 부족으로 인해 이주민의 주류 사회로의 사회적 이동성의 기회가 제한되면서 경제적으로 그리고 직종별로 이주민을 종속적 지위에 묶어 두게 된다는 것이다.¹²⁾ 이주자들이 흔히 겪게 되는 노동시장에서의 주변화와 배제가 이주민들의 소자본 창업에 이르게 되고 이러한 비즈니스는 대개 노동집약적이고, 소수의 이주민 시장을 두고 치열한 가격 경쟁을 하게 되므로 에스닉 경제로의 진입 자체가 사회적 배제의 과정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¹³⁾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주민의 창업 추세가 주류 사회로의 통합이라는 상반되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임금을 받던 이주 노동자들이 창업을 할 경우 대체로 이전보다 높은 수익을 버는 것으로 나타나 이주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독립과 자율성이 상승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¹⁴⁾

그 이면에는 가족이나 동일한 에스닉 그룹에 제한된 피고용인을 장시간 저임금으로 고용하는 착취적 구조가 존재하기도 한다. 현실적으로는 에스닉 경계를 주류 사회로부터의 고립 혹은 주류 사회로의 통합이라는 이분법적 시각보다는 주류 사회와 에스닉 그룹을 매개하는 일종의 “회전문(revolving doors)”¹⁵⁾으로 바라보는 것이 유의미해 보인다. 에스닉 경제에 진입하는 대부분의 노동자는 특별한 훈련 과정 없이 저임금의 노동 현장에 바로 투입되는데 주류 사회의 입장에서는 단기간 내에 이주민을 위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다. 이주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투여되지만 비숙련 노동자로서 일을 배우면서 유일한 소득을 올리는 비공식적 훈련을 받는 셈이다. 어떤 이는 주류 사회로의 진입 없이 비숙련 노동자로서 이 트랩에 갇히게 되고 누군가는 숙련을 통해 잠재적인 비즈니스 창업가가 되거나 더 나은 교육이나 취업 기회의 발판으로 삼아 주류 시장에 진입하기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에스닉 경제는 초국가적 경계를 넘어 송출국과 수용국 사회에서 상품, 노동력, 자본을 이동시킴으로써 이윤을 창출한다.¹⁶⁾ 초국가적 이동성(transnational mobility)과 창업 정신이 결합된 이주자들은 글로벌 흐름에 순응적인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여러 국가의 경계를 넘으며 다수의 사회에 걸쳐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을 읽어내고 변화하는 국제 시장의 정책들을 이해하고 협상하여 적극적으로 시장을 탐색하는 주체임을 보여준다. 이렇게 고전적 의미의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은 새로운 방식의 자원 결합을 통한 가치 창출을 의미하며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에서 위기에 대한 혁신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받았다. 에스닉 경제에서 이주민 기업가가 주목받아온 이유도 이러한 기업가 정신의 성공사례로서 발굴되어 문화적·경제적 동화에 성공한 이상적인 이주자(model minority)로 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¹⁷⁾ 그러나 소수 에스닉 기업가의 성공 사례가 에스닉 경제의 대표성을 가지는 것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대개 에스닉 기업가들의 출발은 고용시장에서의 불평등과 배제에서 벗어나 스스로 고용기회를 창출하는 데에서 비롯되고

주류 사회로부터 외면되어 온, 스케일 자체가 제한적인, 혹은 불안정하거나 불확실한 수요의 시장에 진입하는 약점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는 것도 사실이다.¹⁸⁾

이러한 에스닉 경제에 대한 연구들은 주류 사회의 관점에서 혹은 각 개별 에스닉 그룹에 초점을 맞춰 수행되어 왔다. 그러므로 이주민의 창업 추세가 주류 사회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각 에스닉 그룹의 창업 활동 자체를 민족별 고유한 정체성과 연계시켜 본원적 가치로 환원하고 평가하려는 경향들이 있다. 이에 대한 비판으로 미국 내 라틴계 에스닉 기업가에 대한 분석에서 즐레마 발데즈^{Zulema Valdez}는 단지 민족성^{ethnicity} 뿐만 아니라 계급, 젠더, 인종, 개인별 교육 수준과 숙련도 등 이들의 비즈니스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의 교차성^{intersectionality}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이주민들이 위치를 지어진 송출국과 수용국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적 맥락도 고려해야 한다. 가령 미국 사회의 자본주의, 가부장제, 백인우월주의라는 구조적 특성이 어떻게 계급, 젠더, 인종, 에스닉 그룹 간의 위계 관계에 영향을 주어 각 교차 그룹의 사회적 지위가 더 큰 맥락 내에서의 불평등한 구조에 기반하고 있는지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¹⁹⁾ 궁극적으로는 단순히 “에스닉”과 “비-에스닉^{non-ethnic}”간의 구분을 강화하고 각 에스닉 그룹의 특성을 강조하려는 연구는 에스닉 정체성을 고착시킴으로써 점점 초국가적 이동성을 지니며 혼종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에스닉 경제의 역할을 보는데 인식론적 편견으로 작용할 수 있다.²⁰⁾

특히 다른 현대 사회의 구성원들과 마찬가지로 난민, 미등록 이주민, 계절노동자, 결혼이주자 등 초국가적 이동을 보여주는 개인들도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적극 활용하고 있어서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요소들도 점점 에스닉 경제의 지형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가령 동일한 에스닉 그룹의 사회적 연결망에만 의존하여 고용이 이루어진다거나 동일 에스닉 그룹의 집거지를 중심으로 하던 에스닉 비즈니스들은 점점 디지털 기술과 접촉하는 이주민들이 증가하면서 그 정의 자체가 도전받고 있다. 이제 초국적

이동을 하며 인터넷을 통해 활발한 정보 검색이 가능한 개인들은 더 이상 지리적 근접성이나 고국에서의 사회적 연결망에만 의존하지 않게 되었다. 가령 영국 런던처럼 전 세계에서 이주자가 유입되는 상황에서 이주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높은 건설, 기술, 헬스 분야에서는 이주 전 이미 선발과 고용 과정이 인터넷을 통해 원격으로 이루어지면서 동족 에스닉 그룹에 대한 의존성이 약화되고 있으며, 이주 노동자의 수가 원주민 노동자의 수를 압도하는 헬스 분야의 노동시장에서 적어도 수적으로는 다수가 된 이주노동자들은 주류 사회에 더 적극적으로 통합되기 위해 동일 에스닉 그룹의 자원이 아닌 다른 경로를 탐색하기 시작한다.²¹⁾

에스닉 경제의 문화적 경관 너머 기술경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가간 이동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물리적 위협이 사라지고 동시에 국가 간 이동을 가속화하는 교통, 통신의 기술 발전은 이주의 양적 팽창을 가져온다. 유럽에서는 1945년 이후, 미국에서는 1965년 이후 새로운 이민자들의 가속화된 유입이 수용국 사회의 질적 변화로도 이어지는데 도시의 슬럼을 중심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곳에 가시적으로 등장하는 에스닉 집적지^{enclave}에는 이들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소자본의 작은 잡화점, 식당 등이 등장하고 주류 사회가 알아보기 어려운 언어로 된 간판과 에스닉 그룹이 만들어내는 색다른 경관은 글로벌 도시의 모퉁이에서 접하게 되는 하위문화의 하나에서 이제는 도시생활의 일상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1980년대까지 한국에서는 이태원과 같은 외국인 집적지에서 주로 미군 부대 관련 군인들과 다양한 소수 에스닉 그룹들을 위한 비즈니스 거리가 형성되었지만 소수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비즈니스 주체는 한국인 상인들이었다.²²⁾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에서 유입된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자라는 두 축의 외국인이 주로

산업공단이 위치한 경기도와 지방의 소도시 그리고 농어촌 지역으로 유입 되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혹은 이들이 기업가로 변모하여 형성하는 에스닉 경제라 할 만한 구조와 경관이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주요 대도시에서도 이제 에스닉 비즈니스라 할 만한 상점들이 가시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경관들 중에는 혜화동의 필리핀마켓, 대림동 조선족 중심의 대림중앙시장, 안산 원곡동의 다문화거리, 이태원의 이슬람거리, 동대문 창신동 일대의 네팔음식거리,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주변의 중앙아시아거리 등이 익히 알려져 있다. 한국인들에게 가시적으로 에스닉 경관으로 인식되는 이러한 거리들은 한국인들이 타자의 문화를 소비하고 경험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만큼 고립되어 있지 않다. 물론 그 중에는 다른 에스닉 그룹들에게는 잘 포착되지 않는 자본의 흐름과 노동구조의 변화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안산이나 대림처럼 특정 에스닉 그룹의 비중이 높은 경우 에스닉 집적지로서의 경제활동이 두드러지는 장소들도 존재한다. 가령 한국 내 다양한 이주민 관련 활동의 공간적 집적지로 알려진 안산 원곡동에서는 기존의 한국인 노동자 수가 감소하자 이들을 대상으로 했던 기존 업소들이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동족 이주민들이 직접 창업을 하면서 서서히 비즈니스의 내용과 형태가 변화해 왔다. 거주자 비율이 가장 높은 조선족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들이 증가하면서 중국어로 손님을 상대하기 어려운 한국인 사업주와 직원들이 점점 중국어가 가능한 조선족이나 중국인 이주민으로 교체되고 있다. 거주자가 적은 에스닉 그룹을 상대하는 사업주들은 한 점포 내에 여러 업종을 겸하고 있거나 상거래의 공간적 범위가 안산시를 넘어 전국에 걸쳐 있기도 하다(정영진 2006: 533-534).²³⁾ 최근에는 에스닉 집거지에서의 성공과 높아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수용국 사회인 한국의 주류 사회에 진출하는 에스닉 기업가들이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 내 베트남 이주민의 음식점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베트남 여행 이후 ‘진정한^{authentic}’ 베트남 음식에 대한 한국인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결혼 이주민과 유학생 등 장단기로 체류하는 베트남인이 증가하면서 일할 수

있는 베트남 직원의 인력풀이 증가하면서 베트남 음식점들의 주류 사회로의 진입이 매우 용이하게 되었다.²⁴⁾

에스닉 경제가 창출하는 새로운 도시 경관은 글로벌 도시의 인구와 문화의 다양성이 내적으로 경합하는 내파(global implosion)적 경관을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시각적 요인 중 하나이다. 민족주의적 주체에게 이는 민족적 동일성에 기반한 국가주권의 훼손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세계시민적 주체에게는 글로벌 문화의 다양성 도래로 받아들여지기도 할 것이다. 가령 원주민이 독해할 수 없는 ‘그들만’의 언어는 공간적인 배제를 의도한 불쾌한 기호로 읽히기도 하고 그림에도 불구하고 궁금증을 자아내는 타자의 언어는 호기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동대문의 네팔 타운에 대한 서선영의 연구는 이 두 개의 다른 에스닉 경관이 공존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네팔 타운 초기 형성기에 영업을 시작한 한 네팔 레스토랑은 에스닉 비즈니스의 성공적 사례로 유명한데, 네팔인이 운영하고 직원의 다수가 네팔인이며 가게의 안과 밖은 모두 네팔의 상징기호들로 넘쳐난다. 네팔 음식들을 소개하고 있지만 다수의 손님이 한국인으로 네팔을 여행했거나 여행하고 싶은 한국인은 이 곳의 음식을 소비하며 ‘진정한’ 네팔의 음식문화를 경험한다. 이 가게의 바로 주변에 한국인에게는 배타적인 공간적 전략들을 채택하여 네팔 노동자들만을 고객으로 하는 가게들도 있다. 가령 가게의 간판이나 메뉴에 한글 표기를 하지 않아 외부자들에게는 ‘모호한’ 느낌을 줌으로써 이들을 환영하지 않는 전략이다. 이들 가게는 주 고객인 네팔인들의 니즈에 맞게 평일보다는 주말 위주로 영업을 하고 큰 흡을 유지하여 네팔인들에게 중요한 이벤트나 모임을 개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한국인에게는 영업을 활발하지 않은 실패한 비즈니스로 보이지만 이러한 배타적인 공간적 전략은 오히려 이주민 네팔인들에게는 위안의 장소이자 네팔 공동체에게는 연대와 정치적 활동의 장을 마련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²⁵⁾

이와 같은 에스닉 비즈니스가 형성하는 문화적 경관은 한국에서 “-거리”라는 명명 하에 지리적, 공간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앞에서 살펴본 에스닉

경제의 정의들과 부합하고 있다. 에스닉 집적지를 중심으로 하거나 성공 이후 일부는 중개인 소수자로서 주류 사회로 진입한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인터넷과 SNS를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기술이 에스닉 경제와 결합하면서 소수 에스닉 그룹간의 긴밀한 연결성이나 에스닉 집적지를 넘어서 거대한 자본의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에스닉 경제의 경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2010년대 이후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과 이주자의 급증이 플랫폼 경제와 접속하고 특히 COVID-19 팬데믹 이후 점점 가속화하고 있다. 아직 한국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가 집중된 운송과 돌봄노동 등에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이 제한적이어서 이러한 현상이 지연되고 있으나 단계적으로 이러한 제한이 느슨해지거나 철폐될 경우 에스닉 경제의 범위가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에서는 이동하는 주체의 디지털 기술 활용에 따른 계층적 분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중상위층에서는 이들의 자유로운 노마드적 이동을 가속화하는 방식으로, 하위계층에서는 거대한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자본에 직접적으로 동원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COVID-19 팬데믹 이후 중상위 계층에서는 지리적 업무공간에서 벗어나 원하는 장소에서 모바일 기술들을 활용하여 일을 하는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s}”²⁶⁾가 다시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일과 여가의 밸런스를 중요하게 여기고 재택근무를 넘어 휴양지에서 일을 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최근 몇몇 북유럽과 동유럽 국가들이 이러한 디지털 노마드와 스타트업^{start-up} 창업자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디지털 국가^{digital nation} 개념을 만들어 ‘전자 거주자’에게 디지털 신분증을 발급하고 이들의 기업 활동을 지원한다.²⁷⁾ 디지털 노마드에게 인기 있는 지역들에서는 이들의 경제력과 구매력으로 지역 경제가 재편되고 있는데 새로운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라는 긍정적 영향과 동시에 물가 상승과 상업 및 주거용 부동산 매입 증가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여 지역 주민이 밀려나는 부정적 영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노마드는 새로운 이주민이기는 하지만 수용국가에게 호혜적 시민권을 기대하며 지역에 발을 딛고 있는 사회적 의무감을 갖기

보다는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글로벌 기업가 혹은 프리랜서로서 큰 자율성과 높은 이동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아래의 사례는 하위 계층의 이주노동자가 디지털 경제와 결합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두바이에서 이주노동자 수천 명이 독일 배달업체 딜리버리히어로(Delivery Hero)를 위해 도시를 누비며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좁은 공간에 살면서 완전히 탈진할 때까지 일한다. … 나딤이 딜리버리히어로에서 일한 이래 그의 일상은 항상 똑같은 리듬의 반복이다. 일을 시작하면서 나딤은 앱에 로그인한다. 앱은 그에게 주문을 할당하고 도시에서 다닐 곳을 알려준다.²⁸⁾

위에서 인용된 배달업체 플랫폼은 독일 기업가가 스위스에서 시작하여 성공하였는데 앞서 언급한 디지털 노마드의 전형일 것이다. 이러한 배달 앱의 큰 성공은 많은 나라에서 위에서 인용된 파키스탄인 나딤처럼 하위계층의 이주노동자들을 대거 고용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platform} 기업들에 고용된 이주 노동자들은 바로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의 가장 말단에서 직접적인 물자와 서비스의 이동을 책임지고 있다. 여기서 디지털 경제는 인터넷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모두 포함한다. 유럽의 독일, 프랑스, 영국 등에서 2010년대 이후 이주민과 난민의 유입이 급증하면서 이들 국가들은 자국 내 디지털 경제의 부족한 노동력과 국가 간 기술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주 노동자의 재교육과 고용 기회를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호혜적 정책의 외피를 쓰고 있으나 실상은 수용국가들의 노동력 수요와 자국민들의 반난민^{anti-refugee} 정서에 대한 설득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실제 이런 정책에 의해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코딩^{coding}, 디지털 창업 교육을 받은 이주민들에 대한 연구 결과가 최근 유럽에서 부상하고 있는 디지털 이주 연구^{digital migration studies}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다.²⁹⁾

이들 연구들은 단기간 이주민이나 난민들에게 코딩 기술과 온라인 정보 탐색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디지털 경제의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술이 경제적·사회적 불평등과 언어적·문화적 차이의 간극을 쉽게 초월할 수 있다는 헛된 믿음에 근거한다고 강조한다. 상당수의 이주 노동자가 디지털 경제에 참여하는 방식은 우버^{Uber}, 아마존^{Amazon}과 같은 킷 이코노미^{gig economy}³⁰⁾의 물류서비스나 돌봄 노동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아닌 플랫폼 기업들이 만들어낸 가장 열악한 노동환경에 내몰리고 있다. 이들 분야는 다른 고용 시장에 비해 이전 직무 경험을 요구하지 않고 시간적으로 ‘유연한’ 편이라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이주 노동자들이 진입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유럽의 플랫폼 경제에서 외국 태생의 노동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미 이들 일자리는 불안정한 이주노동자들의 일자리로 알려져 복지의 사각지대가 되고 시민권과 임금을 연계시키고 있는 강압적인 시스템은 점점 더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이주 노동자들을 내몰고 있다.³¹⁾ 특히 플랫폼 경제에서 강조하는 이주민의 기업가 정신의 실현은 그 전제부터가 잘못 되었다. 대부분의 이주노동자가 플랫폼 경제의 창업가로 참여하기보다는 노동자로 편입되고 있다. 또한 플랫폼 경제 자체가 이들과의 계약에서 노동자를 프리랜서로 상정하고 있어서 실제 노동자들도 프리랜서 혹은 자영업자로 인식된다. 실제 창업을 한 경우 요식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에스닉 푸드^{ethnic food}가 플랫폼 기업에 진입하는 사례를 보았을 때, 요리는 압도적으로 여성들이 전담하는데 플랫폼 서비스를 통한 판매의 운영과 관리는 압도적으로 남성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³²⁾ 성 별 역할의 재생산이 디지털 경제에서도 그대로 재생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디지털 기술 자체는 이주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에스닉 경제의 내적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주 노동자가 디지털 경제에 참여할 때 이들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특정 측면을 숨기고 디지털

경제가 기대하는 특성에 자신을 맞춰야 한다는 암묵적인 메시지에 노출된다.³³⁾ 디지털 앱과 인터넷을 통해 일자리에 대한 정보 탐색과 번역 서비스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에스닉 집거지나 네트워크 망을 넘어서는 비율이 다소 증가할 수는 있지만 노동시장의 가장 말단에서 노동이 지속되는 것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들이 대거 고용되는 플랫폼 경제의 말단은 그 자체로 인종화^{racialization}되어 주류 사회와 분리된 또 다른 의미의 에스닉 경제로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과 이주자의 아상블라주^{assemblage}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는 한국에서 허가된 5년여 간의 비자가 만료되면 본국으로 돌아간 후 그 동안 한국에서 쌓은 네트워크와 경험을 살려 다른 길을 모색하곤 하는데 그간 보아온 소무역상의 길이 꽤 매력적으로 보인다. 주수인의 연구에 의하면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들은 특히 본국에서의 두터운 신뢰 관계가 한국에서도 그대로 작동하여 신뢰에 기반하여 송금과 소무역의 물자들을 인편으로 이동시키는 경향을 보인다³⁴⁾. 자본주의적 금융업과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잘 판매될 만한 아이템들, 가령 방충망, 의류, 자동차 부품 등의 판매 가능성을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모두에 발을 딛고 탐색하고 한국에서의 임금을 모아 본국의 가족들과 함께 좀 더 나은 거주지와 점포의 위치를 탐색한다. 한국에 입국하기 전 이주 노동자나 소무역상으로 일하기 위해 한국에 거주하는 동족 지인들과의 정보 교환에서부터, 우즈베키스탄 내 가족들과의 유대관계 유지와 투자 탐색을 위한 논의, 자신의 인맥과 자본력을 과시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모든 과정에서 SNS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국에서처럼 두터운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들은 특히 SNS를 통해 “거미줄”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³⁵⁾. 비단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

뿐만 아니라 많은 초국적 이주민들은 송출국과 수용국 사회 간 물리적 경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정보를 검색하고 비즈니스의 기회를 창출하며 다양한 선택지들 간의 협상력을 높이고 있다.

에스닉 경제에서 창업의 주체는 물론 피고용인 모두 각자의 목적으로 인터넷 서비스와 SNS를 활용하고 있다. 2020년대 초반 학생비자를 받고 대학원생으로서 한국에 입국한 미얀마인 A씨는 입학하고 학기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일을 하기 시작했다. 학생비자로는 불가능했지만 현금을 거의 가지고 올 수 없었기에 돈을 벌고자 열심히 일자리를 찾게 되었다. 처음엔 부평에 있는 미얀마인이 운영하던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시작으로, 서울에 있는 의류공장에서 패키징 보조, 수원 의 핸드폰 가게에서 미얀마인을 대상으로 핸드폰, 그리고 서울과 부평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여러 식당에서 요리와 서빙 등 다양한 일을 하게 되었다. 초기 부평에 있는 미얀마 식당에서의 서빙이 첫 노동의 경험이었는데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페이스북^{Facebook}에 개설되어 있던 유명한 미얀마인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공지를 보고 가게 되었다.

“제가 일한 곳 중에 가장 힘들었어요. 하루 일하고 그만뒀어요. 13시간을 일하고 9만원을 받았는데 계산해보니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이었어요. 제대로 된 휴식시간이나 식사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힘들어서 자주 그만두는지 사장도 일단 먼저 일해보고 계속 일하지 결정하라고 할 정도였어요. 거기 있던 직원들 4-5명 모두 미얀마인이었어요. 나중에 깨달았는데, 미얀마인 사장이 한국말 못하고 한국에 온지 얼마 안돼서 여기 임금 수준도 잘 모르는 미얀마 동족들을 착취하는 거였어요. 나중에 이런 사정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돈 올려달라고 하니깐 그 사장은 이렇게 한국 온지 얼마 안 된 사람들만 고용하는 것 같았어요. 계속 새로 온 미얀마인들만 고용하는 거죠.” (2024년 2월 2일 인터뷰)

A씨는 대학원 과정에서 필수 과목으로 한국어 기초 교육을 받으면서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되자 온라인의 미얀마 공동체에만 한정하지 않고 한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구직 앱^{app}이나 웹사이트를 모두 검색해서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다. A씨의 핸드폰에는 5개 이상의 구직 앱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신원 확인을 위해 자신이 원하는 지역 기반의 특정 앱을 통해 연락하기를 요구하면 새로운 앱을 추가로 설치해야만 했다. 한국에 입국한 초기에는 이런 정보들도 없고 한국어도 읽을 수 없었기에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자국어로 소통하는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였다. 언어 장벽이 없는 같은 미얀마인에게 고용되거나 미얀마인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는 일자리들이 처음에는 선호되었다. 그러나 이런 곳에서 자국민 고용주에게 더 쉽게 착취되거나 미얀마인에게 핸드폰과 같은 상품을 판매해야 수당이 나오는 구조가 더 불편하게 느껴졌다. 한국어가 가능해지면서 다양한 구직 앱을 활용하여 외국인이어도 상관없다는 한국인 고용주의 광고를 보고 찾아가더라도 그런 착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미 많은 외국인들을 고용해 본 경험이 있는 한국인 식당 운영자들은 자신과 의사소통이 어렵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외국인들에게 한국인보다 늘 낮은 시급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자국민 고용주와 일할 때 가장 착취의 경우가 심하다면서 한국어 실력과 구직 앱의 결합이 착취를 피할 수 있고 자신의 조건에 맞는 일을 찾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이야기한다.

디지털 기술이 상품과 판매자의 진정성^{authenticity}을 확보하는 수단으로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진정성이란 ‘권위 있는’, ‘가짜나 복제가 아닌 진짜’를 의미하는데 그런 진정성을 확보해주는 게 바로 “여기, 지금”이라는 점이다. 실제 그 장소에 내가 직접 존재함으로써 다른 누군가가 대신하는 것이 아닌 경험처럼 말이다. 여행에서 유명한 랜드마크를 배경으로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Instagram}과 같은 SNS에 올려야 하는 것은 자신이 실제 그 장소에 존재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기록함으로써 그 여행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2010년대 이후 소무역상들 특히 중국에서 동대

문으로 오는 소무역상들은 중국의 SNS 서비스인 위챗(WeChat) 등을 통해 구매 대행을 위한 물품 주문은 물론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자신의 구매 대행 제품들이 ‘진정한’ 한국의 상품임을 보증한다.

“워낙 중국에서 팔리는 가짜들이 많다 보니 제가 사오는 제품들이 진짜라는 걸 보증하기 위해 저의 쇼핑 경로마다 사진을 찍고 구매할 만한 제품들을 실시간으로 보여줘요. 그러면 위챗을 통해 실시간으로 주문을 받고 주문 받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영상으로 보여줘요” (30대 중국인 구매대행업자 C, 2016년 1월 인터뷰)³⁶⁾.

C씨는 2011년부터 의류 구매대행을 위해 중국과 한국을 정기적으로 오가고 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구매 대행을 할 만한 옷들의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위챗에 올리면 실시간으로 댓글을 통해 주문을 받기도 하고 한국에 머무는 3-4일 동안 지속적으로 주문이 들어오기도 한다. 중국으로 돌아가기 전, 주문 수량을 확정하고 주문을 완료하면 한국의 배송대행 업체들이 중국으로 물건들을 배송해 준다. 라이브 방송이 활발해지면서 C씨는 의류뿐만 아니라 이동 중에 자신이 방문하는 카페나 레스토랑과 서울의 관광지 등도 보여주면서 스스로를 한국 제품과 사회에 익숙한 숙련된 전문가로 재현한다. 인터넷은 제품의 진위여부는 물론 판매자의 전문성을 보증해주는 도구로서 적극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대만 및 중국과 한국을 오가던 상인으로서 ‘보따리 장사꾼’으로 불리던 한국 화교 무역상이 있었다. 이들은 3개 국가 사이를 오가며 에스닉 정체성과 언어 능력을 활용하여 활발한 무역상으로 활동하였다.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서도 긴밀한 화교 사회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안정성을 추구하고 독자적인 정보를 공유해왔다.³⁷⁾ 그러나 한국과 중국과의 교류가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의존성이 거의 사라진 상황에서 에스닉 네트워크에 기반한 화교 무역상보다는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개인 소매상들이 새로운 무역의 통로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나 핸드폰을 통한 SNS와 앱의 일상적 사용이 아직은 에스닉 경제에 큰 전환을 가져온다고 볼 수는 없다. SNS와 핸드폰을 통한 실시간 연락과 정보 검색을 통해 더 두터운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더 빨리 더 많은 정보를 탐색함으로써 착취를 피하거나 착취를 용이하게 하거나, 소자본으로도 더 많은 물량 주문과 판매를 가능하게 하고, 비즈니스의 신용을 높이기도 한다. 디지털 미디어가 정보의 탐색과 확산, 네트워크의 양적 확장을 통해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확실하지만, 디지털 기술의 활용 자체가 홀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자와 어떻게 접속하느냐에 따라 그 역능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객체지향존재론(Object-Oriented Ontology)은 에스닉 경제와 디지털 기술 간의 접속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아상블라주(asssemblage)를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객체지향존재론에서는 물질, 관념, 개념 등을 포괄하는 비인간과 인간 등 모든 존재자들을 일종의 '기계(machine)'로 본다. 기계가 특정 입력물을 변환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출력물을 산출하는 방식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러하다.³⁸⁾ 이들 기계는 서로 다른 기계들과 접속함으로써 새로운 '기계 회집체(machinic assemblages)'가 되고 홀로 존재했을 때 찾아볼 수 없던 새로운 역능을 창발(創發)함으로써 생산적이다.³⁹⁾ 인간들도 사물과 다름없이 세계라는 이 기계에 속하는 하나의 기계이고 매 순간 다른 기계들의 매개를 통해 상호작용하는 기계들이 느슨하게 접속하여 구성한 회집체이다. 우리는 이런 접속을 통해 개인을 넘어서는 네트워크 구성체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에스닉 기업가나 그 노동자들은 핸드폰이라는 기계와 접속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얻지만 모두 같은 출력물을 산출하는 것은 아니다. 앞의 사례에서, 미얀마인 A씨는 한국어 능력이 향상된 이전과 이후에 인터넷에 접속했을 때 서로 다른 결과물을 산출하게 되었다.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다른 미얀마인의 신체기계는 언어 장벽으로 인해 구직 앱과 접속할 수 없어 동족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머물게 되고 저임금의 트랩에 갇혀 있을 확률이 높다. 반면 한국어 리터러시를 장착한 A씨는 다수의 구직 앱과의 접속 지점을 확장시켜 임금과 노동형태에서

더 많은 선택지를 갖게 된다. 물론 이러한 새로운 산출물이 이미 외국인 노동자를 둘러싼 한국 노동시장의 차별적 구조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기제가 되지는 못한다.

디지털 기술의 결정력이 제한적일 수 있는 사례로서 국내 이주민의 송금 경제(remittance economy) 관련 금융 서비스를 살펴보려 한다. 유럽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과 에스닉 기업가가 결합된 분야로 송금 관련 금융 분야가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에스닉 집거지를 중심으로 이주민의 송금을 특별히 지원하는 기존 은행들과 에스닉 기업가들이 창업한 송금 업체들이 다수 존재한다. 송금 거래와 관련된 기술 자체에 초점을 맞출 경우 디지털 기술의 영향력은 두드러질 수 있지만, 앞서 지적한 것처럼 에스닉 경제에 종사하는 이주민들로 시각을 확장해 보면 기술의 영향력은 결정적이지 않아 보인다. 동대문에는 유학생, 이주노동자, 결혼 이주민 등 외국인 유동인구와 거주자가 많은 만큼, 환전 및 송금 서비스를 지원하는 업체들이 다수 존재한다. 그 중 주 고객이 네팔인이고 이들을 응대하기 위해 네팔인 직원을 다수 고용한 한 송금 업체의 직원 세 명을 인터뷰하였다. 이들의 주요 업무는 인터넷 전산망, 핸드폰의 बैं킹 앱, 영상통화 등 디지털 금융 기술 없이 불가능하다. 하루 200-300여 통의 전화 통화로 고객에게 송금이나 대출 서비스를 안내하고, 전용 बैं킹 앱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문제가 발생할 경우 비밀 번호 설정, 환율 고지, 자세한 송금 방법 등을 상담해 준다. 30-40대의 네팔인 직원들은 모두 한국에 이미 거주하고 있던 상태에서 고용되었는데 이들의 고용은 인터넷의 커뮤니티나 구직 앱과 상관없이 지인의 소개를 통해 이루어졌다. 한국인 사장은 학력과 한국어 능력 수준이 모두 높은 직원들을 안정적으로 계속 고용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대학원 등록을 알선해주었고 인터뷰에 응한 세 명 중 두 명은 실제 대학원에 등록하여 학생비자를 유지하고 있어 최소 2-3년간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한국어로 의사소통도 자유로운 편이고 공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

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월급을 받으며 시간적 여유도 있지만 이들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지리적으로는 동대문에, 민족적 구성으로는 네팔인 동료들에 제한되어 있는 편이었다. 이들이 속해 있는 이 에스닉 경제는 한국인과의 접촉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다. 송금과 대출 등의 업무는 인터넷과 बैं킹 앱과의 접속 없이는 불가능하지만, 동대문의 네팔 커뮤니티와의 접속 자체가 너무나 안정적이어서 이들은 이 경계를 벗어나는 다른 것과의 이상블라주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즉 디지털 기술이 에스닉 경제와 접속하여 만들어내는 새로운 이상블라주는 기존의 에스닉 경제의 경관을 획기적으로 변모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 디지털 기술에 접속하는 기계로서의 개인의 문화, 언어, 가치관 등의 요소들에 따라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에스닉 비즈니스에 대한 디지털 기술의 한계


본 연구는 에스니시티^{ethnicity}에 기반한 노동력, 문화, 정보, 자본과 임금이 교환되는 장으로서 유무형의 시장을 에스닉 경제^{ethnic economy}로 정의한다. 초국가적 이주가 가속화되는 글로벌 시대에 에스닉 경제는 글로벌화의 다양한 경관들^{-scapes} 중에서 민족경관^{ethnoscapes}과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경관^{technoscapes}이 서로 결합하여 다양한 사회적 변화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1990년대 중후반 이후 한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이주민들은 자신이 속한 에스닉 그룹의 문화적 특성을 상품화하거나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을 하는 에스닉 기업가^{ethnic entrepreneurs}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비즈니스는 소수민족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일부 성공한 비즈니스는 공간적으로 확산하여 주류 경제로 진입하기도 하였다. 주류 사회에서의 에스닉 비즈니스와 기업가에 대한 개념은 특정 에스닉 그룹에 기반한 소규모 비즈니스 활동을 의미하며, 이들은 종종 중개인 소수자와 집적지

기업가로 구분되기도 한다. 공통적으로 이들은 에스닉 공동체와의 높은 상호작용과 연결성에 기반하고 있다. 이들은 동일 에스닉 이주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경제적 활동을 촉진하며 새로운 무역 연결성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러나 기존의 에스닉 비즈니스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창의적 기업가 정신’을 실현하는 에스닉 기업가에 초점을 맞추거나 특정 에스닉 그룹의 특성에 주목해 왔다. 이러한 경향들은 이주 노동자들의 주체성과 에스닉 경제에 참여하는 그들의 노동 현장을 간과할 수 있다. 에스닉 경제라는 포괄적 개념을 통해 에스닉 경제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의 주요한 역할도 이를 다시 고려해야 한다. 또한 에스닉 기업가와 노동자 모두가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활용하면서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으로 에스닉 경제의 형태와 특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지에도 주목해야 한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가 간 이동은 물리적 위협이 줄고 교통과 통신 기술 발전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기후문제와 내전의 증가는 난민과 같은 비자발적 이주자의 이동성도 증가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이민자들의 유입이 증가했고, 이들은 주로 도시의 슬럼에서 발견되는 에스닉 집적지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들 집적지를 중심으로 이주민 주도의 소자본의 작은 가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러한 에스닉 경제의 출현은 다원주의 사회의 시장과 같이 타자성이 조우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기도 하였고, 혹은 주류 사회로부터 배제되는 에스닉 그룹의 활동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였다. 최근 유럽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에스닉 경제가 디지털 경제와 결합하면서 자본력 있는 안정적인 이주자가 디지털 노마드로 환영받는 반면, 주류 사회에 하위계층으로 진입하게 되는 다수의 이주 노동자들은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가장 말단에서 가장 강도 높은 착취작 노동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에서 유입된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주자 중 에스닉 기업가로 변모하는 이들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대도시에서도 에스닉 비즈니스가 관찰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에스닉 경제의 경관은 전 세계의 도시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글로벌 문화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아직 한국에서는 안정적인 영주권이나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제외하면 다수의 이주 노동자가 디지털 플랫폼 경제에 진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럽과 같은 계층적으로 분화된 이주민의 디지털 경제 양상은 적극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 정보를 탐색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만큼 동시대성을 지닌 이주자들도 이들의 일상에서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본문의 사례 연구에서처럼 다수의 이주민들은 에스닉 특성보다는 각자의 환경에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일자리를 찾는 등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상품 판매의 새로운 채널이자 판매자의 신뢰성을 보증해주는 미디어로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이 모든 이주 노동자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미얀마인 A씨가 겪은 것처럼 언어 장벽과 정보 접근성의 문제로 인해 일부 이주 노동자들은 저임금의 트랩에 빠지기도 한다.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송금 업체의 직원들은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오히려 물리적인 에스닉 집적지에 기반한 한정된 에스닉 경제에 참여하고 있다. 이미 그 안에서 지위와 재정적 안정을 획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디지털 기술이 아직은 한국 사회에서 에스닉 경제를 변혁시키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에스닉 경제의 구성원들은 온라인 상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지만, 그 네트워크를 벗어나 또 다른 가능성을 탐색하거나 노동의 조건에 있어서 더 큰 협상력을 갖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보다 언어적 장벽의 극복이나 새로운 욕망의 추동 같은 다른 요인들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디지털 기술이 어떤 욕망과 역능을 가진 신체와 접속하는가, 즉 디지털 기술 외에 다른 정동적, 문화적 요소들의 교차성이 만들어내는 효과들이 에스닉 비즈니스에서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원문출처〉

이 글은 아래의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지윤, 「에스닉 경제와 디지털 기술의 활용: 한국 이주민 사례」 『디아스포라 연구』 18(1),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2024.

〈저자소개〉

김 지 윤 (한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 '이주의 인문학' 사업단 전임연구원)

김지윤은 현재 한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 전임연구원이다. 연세대 문화학과에서 문화학 석사학위를 마치고,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싱가포르 국립대학) 사회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Singapore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Design(SUTD)에서 박사후 과정을 마친 후 한성대 인문과학연구원 전임연구원으로서 이주의 인문학 사업단에서 이주와 도시공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태원에 대한 박사 학위 논문에서 타자성과 공간의 관계를 연구한 이후, 다문화주의와 도시, 고령화와 글로벌 도시, 아시아 도시 간 비교 연구 등에 관한 다수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다.

4부

젠더, 민족, 이주



X

‘자랑스러운 민족’을 넘어 ‘행복한 개인’으로 살아남기: 독일 튀빙겐 한인 여성 디아스포라 구술생애사

육 영 수
중앙대학교

“정말로 중요한 것은 기억이 수동적인 사실의 보관소가 아니라 의미를 창조해 내는 적극적인 과정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가에게 구술자료의 특수한 유용성은 과거를 보존하는 능력이라기보다는 바로 기억이 가져오는 변화들에 있다.”¹⁾

“기억은 과거의 한순간에 완전히 고정된 채,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자료를 생산하지 않는다. 순수한 기억은 없고, 단지 화상이 있을 뿐이다. 즉 기억은 항상 현재로부터 시작해서 과거로 간다. …[그래서] 역사가는 사실적 자료로서 기억의 내용보다는 기억의 발달 단계에, 그 신빙성보다는 기억의 작동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²⁾

들어가며: 우연한 만남

2023년 6월 한 달을 독일 서남부에 있는 튀빙겐대학교 Eberhard Karls Universität Tübingen 한국학연구소 방문학자 신분으로 보낼 기회를 얻었다. 한국학과 사무실에서 소개해 준 게스트하우스 Gästezimmer를 예약했는데, 현지 도착 당일에

그 집 안주인이 간호인력으로 독일로 건너온 지 50년이 된 팔순 할머니(오현주, 1942년 말띠 태생)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예쁜 정원으로 둘러싸인 단독주택 3층 방을 배당받아 첫날밤을 보내면서 문득, ‘오 여사 생애에 대한 구술사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번개처럼 찾아왔다. 미시사, 기억문화사, 일상생활사, 트랜스 내셔널 역사학 등 내가 지난 한 세대 동안 익혔던 방법론을 종합적으로 응용한 사례연구에 도전해 볼 기회이리라. 무엇보다도 ‘죽은 텍스트’보다는 ‘살아있는 사료’를 마주하는 구술사의 색다른 매력 또는 위험을 경험해 보고 싶었다.

다음날, 나의 ‘밤샘 결심’을 오 여사에게 조심스럽게 전하고 그녀의 흔쾌한 동의를 얻었다. 이후 모두 아홉 차례에 걸쳐 대략 총 24시간 분량으로 구술면담이 진행되었다. 숙소 1층 오 여사 정원에서의 바비큐 저녁 식사, 집 부근 보리밭 너머 숲길 산책과 야외 소풍, 막내딸·사위 집 뜰에서의 바비큐 점심 파티, 오 여사가 경영했던 튀빙겐 중심가 옛 피부·미용실 가게 자리 답사, 카레밥과 만두를 함께 만들어 먹는 저녁 식사 모꼬지, 오 여사가 담근 막걸리와 독일식 순대를 겸한 오후 새참 깜작 모임 등 다양한 형식으로 구술사를 위한 사료 채집을 함께 엮어갔다. 오 여사 배우자(Mr. G라고 부르겠다)는 가끔 잠깐씩 참석했고, 나의 아내는 일종의 읍저버로 대부분 구술사 미팅에 동참했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가도록 녹음기를 사용하지 않고 현장에서 속기록을 남겼다.

구술 채집의 기억이 휘발유처럼 날아가지 않도록 귀국 즉시 원고 쓰기에 돌입했다. 구술된 ‘1차 사료’를 바탕으로 연관된 역사적 배경과 ‘맥락적 지식’을 보태 반죽한 초고를 일단락했다. 몇 가지 부정확한 사실 확인과 공백으로 남겨진 내용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긴 x톡 통화를 했다. 또한 추가 질문을 문서로 만들어 보낸 이메일에 오 여사가 몇 차례에 걸쳐 보낸 음성녹음 답변 파일을 참조하여 수정 원고를 갈무리했다. 별도로 오 여사의 가족 구성원(아들딸·사위 며느리·손녀 손자 등)에게 오 여사의 배우자를 중계자 삼아 “본인이 간직한 어머니/할머니와 연관된 좋았거나 나쁜

기억과, ‘한국적 뿌리(Korean Heritage)’가 본인에게 끼친 긍정적·부정적 영향이 무엇인가?”를 묻는 편지를 이메일로 보냈다. 장녀의 장남(외손자)과 막내 따님이 마감일까지 보낸 답변도 최종 원고 완성에 귀한 자료가 되었다.

독일로 간 이주노동자에 관한 구술사 선행연구는 양적·질적으로 제법 축적되어 있다. 1960~70년대 독일파견 광부와 간호인력에 관한 기초 조사와 구술자료를 바탕으로 이 두 집단이 주도했던 사회운동이 한독관계사와 한국 현대사에 남긴 발자취에 대한 재조명 작업도 현재진행형이다.³⁾ 그러나 많은 연구가 한국의 경제 발전/인력수출과 근대(민주)국가 만들기라는 거대 담론에 짜 맞춰 독일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표준화·보편화함으로써 이들의 다양한 욕망과 개인적인 목표를 구체적으로 관찰하는 데 일정한 한계와 약점을 보였다. 그리고 구술사를 여성사와 공공역사(Public History) 등과 접목하여 두텁게 실행함으로써 각 연구방법론의 지평을 확장하려는 시도가 아직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⁴⁾ 독일인과 ‘국제결혼’한 이주노동자의 구술생애사와 한인 1세대~3세대를 아우르는 사례연구가 절대적으로 빈약하다는 사실⁵⁾도 이 글을 비틀거리며 끝까지 밀고 가는 힘이 되었다. ‘관념이 아니라 몸으로’ 맺은 “가장 직접적이고도 농도 짙은 사건”으로 꼽히는 간호인력을 통한 한국과 독일의 관계 맺음⁶⁾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위에서 요약한 선행연구의 해석상의 편견과 약한 고리 및 공백을 고치고 메우며, 다양한 방법론을 유기적으로 횡단·연결하기 위해 본론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본론의 전반부에서는 식민시대에 일본에서 태어난 오현주가 해방 후 한국으로 귀국하여 제주도→부산→대구→서울 등지로 유랑하면서 공장의 여성 노동자로 생존하며, 결혼과 이혼을 겪으며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 독일에 파견되기까지의 32년의 고된 삶을 추적한다. 후반부에서는 독일 슈투트가르트 병원에 배치되어 간호인력으로 근무하던 오현주가 독일 남성과 재혼한 후에 튀빙겐으로 옮겨서, 주경야독으로 피부미용관리사와 헤어-드레서 자격증을 획득하여 30년 동안 개인사업을 경영했고, 은퇴

후에는 부동산 임대업자로 변신한 사연과 그 파란만장한 과정에서 영킨 한 인사회와의 관계와 사랑하며 미워했던 대가족의 역사 반세기를 스케치한다. 논문 제목에 묻어있듯이, 오현주의 생애를 우리 현대사를 폭력적으로 옥죄었던 ‘민족주의’라는 덫에서 구출하여 그 격자 바깥에서 행복을 추구했던 개인으로 재발견하려는 것이 이 글의 궁극적인 의도이다.

한국에서 보낸 서른 몇 해: 일본에 텃줄을 묻고 ‘고향’ 제주도로 건너와 부산, 대구 찍고 서울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오 여사는 여러 개의 이름을 가졌다. 각기 다른 이름마다 그녀의 인생 역경과 무게가 매듭처럼 각인되어 있다. 그녀는 일본 혼슈의 북쪽 끝에 있는 아오모리에서 태어났다. 호적에 올린 첫 이름은 ‘오 임자_{吳林子}’이다. 오씨 성을 가진 아버지와 임씨 성을 가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라는 뜻으로, 일본식으로는 ‘릿코’라고 불렸다. 아버지는 16세 때에 고향 제주도에 ‘본토’ 일본으로 이주하여 운동화 공장을 경영하던 청년 실업가였다. 어머니는 오사카에서 사업하는 아버지(오 여사의 외할아버지) 집을 방문했다가, 그녀에게 첫눈에 반한 남자와 속성으로 부부관계를 맺었다. 어머니는 오 여사를 낳다가 1942년에 21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아버지는 도쿄로 옮겨 일본 여자와 재혼하여 아들(오 여사의 이복동생)을 낳고 이혼했다. 그리고 한국 여자와 다시 결혼했지만, 29세 젊은 나이에 세상과 작별했다. 낯선 일본 땅에서 출지에 고아가 된 별거승이 ‘오임자’는 외할아버지와 함께 1948년에 본가와 외갓집 있는 제주도로 ‘귀국’했다.

어린이 오임자는 외갓집에서 키워졌다. 외할아버지는 귀국 후 1년 만에 사망했고, 외할머니가 그녀의 보호자가 되었다. 비교적 부유했던 외할머니는

불쌍한 외손녀를 잘 돌봐 주었다. 고아에게는 수업료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큰아버지의 도움으로 오임자는 13살 때에 초등(국민)학교 3학년으로 편입했다. 음악 수업 장기 자랑 시간에 아버지 ‘18번’이었던 “쌍고동 울어울어 연락선은 떠난다.”라고 시작하는 유행가가를 불러서 선생님과 친구들의 놀림을 받았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17살 나이에 부산 방직 공장으로 일자리를 구해 떠났다. 타향에서의 홀로서기를 앞두고 불안했던 딸의 꿈에 죽은 아버지가 나타났다. “임자야, 잘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남기고 홀연히 떠나는 그를 쫓으며 “아버지, 나도 데려가세요!”라고 외치며 잠이 깨었다고 오 여사는 어제 일인 것처럼 생생히 기억했다.

청소년 때 겪은 공장노동자 시절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다고 오 여사는 회고했다. 기계가 직조하는 비단실이 끊어지면 달려가서 손으로 이어주는 작업을 12시간 연속으로 하고 30분의 짧은 휴식을 가지는 단순 반복 노동이었다. 화장실 다녀와서 잠시 쉴 시간마저 빠듯했던 피곤한 공장 살이였다. 그래도 자신의 배움이 짧았던 공장 사장님이 아침 6시에 열어주는 중학교 과정을 수료했을 만큼 오임자는 성실했다. 2년 남짓한 기간을 부산에서 보낸 후, 친구 소개로 월급을 더 준다는 대구 방직공장으로 옮겨 2교대 야간작업에 청춘을 갈아 넣었다. 그 후에는 외할머니 친구 아들의 소개로 서울 영등포 방직공장으로 옮겨 일했다.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지만, ‘공순이’ 오임자는 이탈리아 신부님이 주임으로 있는 영등포 성당에서 ‘요세파’라는 세례명을 받았다. 그러나 독일에 건너와서는 먹고사는 일에 바빠 지난 50년 동안 성당에 출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지금은 남편처럼 ‘무신앙인’이라고 오현주는 밝혔다.

여공 오임자-요세파는 당시 기준으로는 혼기가 찬 처녀이기도 했다. 그녀는 제주도 외할머니 증매로 제주도 청년과 1년 동안 편지를 주고받으며 연분홍 미래를 꿈꾸었다. 그러나 현실적인 인연은 다른 방식으로 맺어졌다. 영등포 자칫집 주인아주머니가 근처 공장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남자를 소개해 주었다. 객지에서 의지할 곳이 없어 외로웠던 오임자는 21살에

그 남자와 결혼했다. 남편의 고향인 인천 영흥도에서 족두리 쓰고 전통혼례식을 치렀다. 이미 임신 8개월이었던 그녀는 시댁에서 첫딸을 출산하고 영등포로 돌아왔다. 시할머니가 육아와 살림살이를 돌봐 주었고, 이들 신혼부부는 각자의 직장에서 맞벌이했다. 첫딸은 1964년, 둘째 딸은 1966년에 각각 태어났다. 오임자는 남편의 심한 음주와 도박 등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견디지 못하고 27세인 1970년에 이혼했다. (전) 남편이 두 딸 양육권을 가져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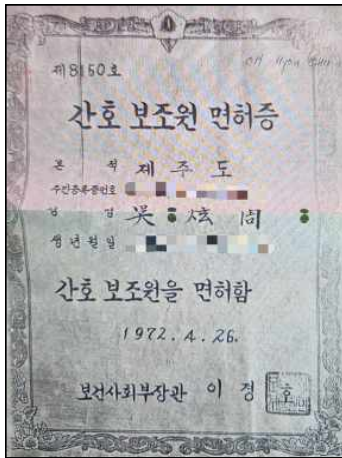
“나의 새 이름, 나의 다른 삶”

이혼 후 아모레 화장품 판매원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오임자’는 20대 후반에 ‘오현주^{吳炫周}’로 새로 태어났다.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이 많았던 ‘이혼녀’라는 주홍 글씨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미래로 향해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름이 필요하다고 확신했다. 이름난 점쟁이(명리학자)는 상처와 고생으로 얼룩졌던 ‘오 씨와 임 씨의 자식’이 ‘두루두루 세상을 골고루 밝히는’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작명으로 기원했다. 호적제도가 엄격해서 개명 절차가 매우 까다로웠지만 다행스럽게도 제주도 동사무소에 근무하던 친척 오빠가 봐줘서 통과했다. 새로운 명찰을 단 그녀는 빛나는 미래를 설계했다. 부산 여공 시절에 공장 부설 야간 중학교 과정을 어렵게 이수했던 오현주는 경기도 인천시 남구 도화동에 있던 <인화여자종합고등학교(仁花女子綜合高等學校)>에서 간호조무사 교육을 받고 1972년 2월에 졸업했다. 같은 해 4월에는 보건사회부장관 직인이 찍힌 ‘간호조무사 면허증’을 받았다. 그리고 독일에 파견할 간호조무사를 선발한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오현주는 “한국에서는 남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도망갈 곳이 더 이상 없어서” 독일 이주를 결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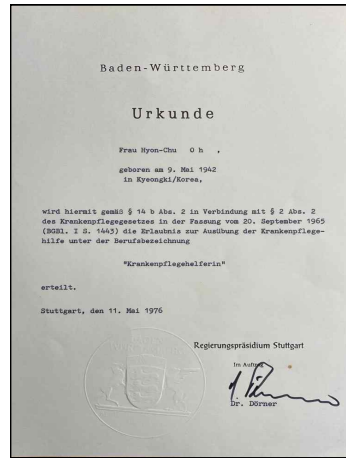
배경지식으로 덧붙인다면, ‘간호조무사’라는 지금의 공식 명칭 이전에는 ‘간호보조원’으로 불리기도 했었는데 독일파견을 위한 목적으로 처음으로 창출된 직업군이다. 상승적인 간호인력 부족에 시달렸던 독일의 특수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독일에 파견된 간호인력 때문에 정작 한국에는 간호인력이 부족하다는 불만을 해결하는 묘책으로 간호조무사 제도가 마련되었다. 1960년대 중반부터 사설 간호학원에서 양성된 간호조무사는 1966년부터 독일에 파견되었고, 1971년 이후에는 해외개발공사가 독점적으로 교육하여 9개월 이론 공부와 3개월 실습 과정을 수료한 9,800명에게 1971~1974년에 간호조무사 자격을 주었다.8)

〈사진자료 1〉



오현주가 1972년에 한국에서 취득한 간호조무사 자격증.



1965년에 제정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법에 따라 오현주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보증한 1976년에 발급된 공문서. 마지막 사진을 제외한 모든 이미지 자료는 오현주가 제공한 것임.

파독 간호조무사 티켓을 얻기 위해서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했다, 본인의 남다른 노력과 우연한 행운 덕분에 오현주는 10대 1의 경쟁을 뚫고 파독 간호조무사 후보에 뽑혔다. 1차 선발된 이들은 당시 신촌에 있던 ‘외관’(해외개발공사)9)에서 해외 파견 교양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해야만

최종적으로 선발되었다. 독일 체류 경험이 있던 중년 남성이 강사였는데, 그곳에서는 나이·직업·신분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너/당신’이라고 부르면 된다는 가르침이 새로웠다. 정규 중등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던 그녀에게는 영어 문제가 너무 어려웠다. 하늘이 도왔는지 사돈 친척이 시험감독관으로 들어와서 오현주가 작성한 답안지를 찢어버리고 그가 정답을 적어넣은 답안지와 바꿔치기해서 낙방 위기에서 구출해 주었다. 신체검사에서도 구세주가 나타났다. 파독 간호사 신체조건이 체중 42kg 이상이었는데, 체중미달(40kg)이었던 오현주는 은행에 다니던 친척 동생의 기발한 아이디어—동전을 주머니에 몰래 넣어서 체중을 상향 조정— 덕분에 통과했다. “잘 살아야 한다!”라는 죽은 아버지의 염원이 살아있는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실현되어서 오현주에게 파독 간호조무사라는 날개를 달아 주었던 것일까.

독일에서 보낸 ‘꿈만 같았던’ 반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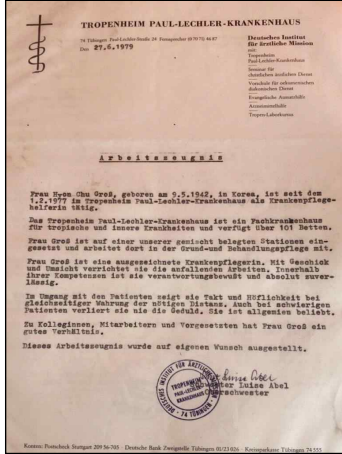
오현주는 1974년 초여름에 마침내 독일로 날아갔다. 간호인력 독일파견 제도가 공식적으로는 1976년에 종료된 것을 상기한다면, 그 끝 물결에 간신히 올라탄 것이었다.¹⁰⁾ 30여 명의 동료와 함께 앵커리지를 거쳐 20여 시간 비행기를 타고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했다.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아무런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 독일 도착 후 오현주는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다른 13여 명과 함께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바트 칸슈타트 적십자 병원(Krankenhaus vom Roten Kreuz(현재도 있음))에 배치되었다. 독일어 교육은 한국에서 6개월과 독일 현지에서 의무적으로 3개월 동안 배웠지만, 일상 회화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오현주는 사설학원에서 보충수업을 받았다. 근무 첫날인 7월 3일 아침에 병원 식당에서 독일인 직원들이 잼/버터를 바르기 위해 빵을 (가로로) 자르는 모습을 흘깃 엿본 한국 여성들은 모두 빵을 (세로로) 잘라먹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요구르트를 (두부인

줄 잘못 알고) 삶아서 환자에게 주거나, 손톱 가는 치즐로 환자의 치아를 닦아(?) 주는 실수를 한 동료도 있었다고 오현주는 웃으며 회상했다. 언어 불통이 빚은 ‘문화충돌’에 관한 에피소드는 다른 구술사에서도 등장하는 단골 메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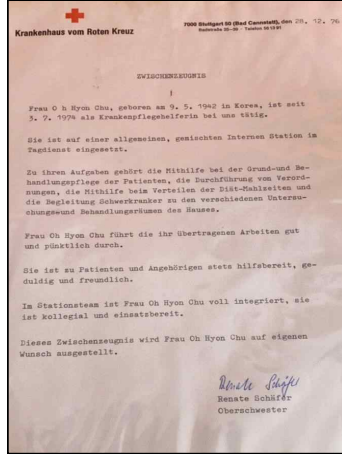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었는지를 묻자, 오현주는 “한국에서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간호사 업무와는 많이 다른 일을 했다.”라고 간략하게 대답했다. 환자 식사 먹여주기에서 대소변 갈아주기 등 거의 모든 허드레 돌봄 작업이 간호조무사가 일상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였다. 실제로 바트 칸슈타트 적십자 병원의 수간호원은 오현주가 맡은 주요 업무를 “환자의 기초 케어와 치료 보조, 처방 투약, 식단 배급, 중증 환자의 각종 검사 및 치료실 이송 등”이라고 명시했다.¹¹⁾ 독일의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간호여성(Krankenpfleger)’은 병원 입원 환자를 질병으로부터 회복시키는 치료 보조행위는 물론, 환자 목욕 시키기와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마사지와 배변 활동 등 기본간호에 중점을 둔 업무를 수행했다. 엄격히 따지자면, 몇 년에 걸친 전문 교육과정을 졸업한 간호사(Krankenschwester)와 단기속성과정을 이수한 간호조무사(Krankenpflegehelfer) 두 집단을 포함한 상위개념이다.¹²⁾ 파독 한국 간호인력이 ‘간호여성’이라는 두루뭉술한 이름으로 구별 없이 요양원이나 양로원 등에 많이 종사했던 배경이다.

당시 한국 간호인력은 환자와 언어소통은 서툴렀지만 상냥하고 성실하여 인기가 많았다는 사실을 오현주도 확인해 주었다. 그녀가 근무했던 병원 부서의 책임자가 작성해 준 문서(추천서와 재직증명서)에 따르면, 오현주는 “책임감이 있으며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친절”하고 “까다로운 환자를 대할 때도 그녀는 결코 인내심을 잃지 않”는다고 칭찬했다.¹³⁾ ‘인내심(Geduld)’을 최고의 미덕과 직업윤리로 꼽은 두 독일 수간호원의 평가는 오현주 뿐만 아니라 파독 한인 간호인력 대부분에게도 적용되리라. 일찍이 1968년에 원조 ‘국민가수’ 이미지는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견딜 수가 없도록 외로워도 슬퍼도 …아~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이라고 목매어 부르짖지 않았던가.

〈사진자료 2〉



슈투트가르트 병원 독일인 수간호원이 오현주 요청으로 작성해 준 추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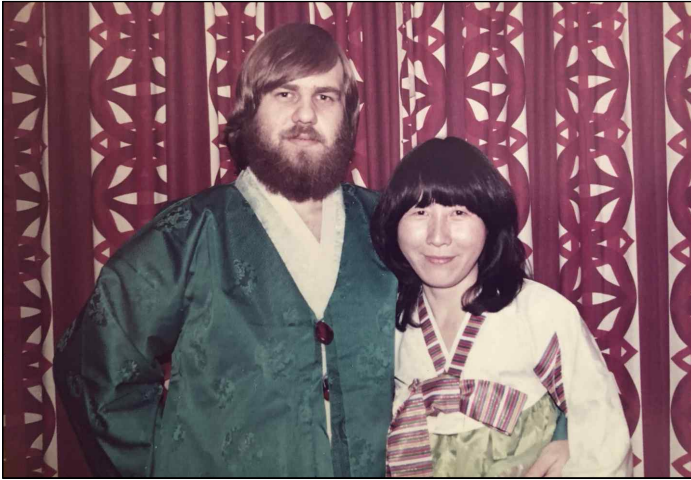
튀빙겐 병원 독일인 수간호원이 작성한 오현주의 취업 증명서.

“나는 돈벌이가 아니라 이혼의 도피처로 독일에 건너왔다.”

병원 기숙사에서 살았던 오현주가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장면은 남편에 대한 첫인상이다. 환자들 식사 준비를 하기 위해 들린 식당 부엌에서 야쿠르트를 끓이고 있는 Mr. G와 우연히 마주쳤다. 부엌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가정교육 받았던 보통 한국 남자와 다르게 부엌살림을 하는 서양 남자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느꼈다. 갓 20세였던 그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유”로 징집 의무를 거부하고 병원에서의 1년 대체 근무를 수행 중이었다. 징집거부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두 달 동안은 기본 군사훈련을 받았다고 Mr. G는 설명했다.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은 1949년에 제정된 기본법 제4조 3항에서 “누구도 양심에 반해 전투행위를 위한 병역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명기함으로써 “헌법에서 병역거부를 보장한 최초의 서구 국가”가 되었다. 그리고 1956년에 통과된 병역법 제25조 1항은

“양심의 이유로 무기를 든 복무를 거부하는 사람은 군 복무를 위해 징집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확인함으로써 대체복무가 제도화되는 토대를 마련했다.¹⁴⁾ “전쟁보다는 섹스!”라는 구호를 외쳤던 ‘68혁명 이후에는 징집 거부자들이 증가했는데, 이들 대체 복무자들은, Mr. G처럼,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사진자료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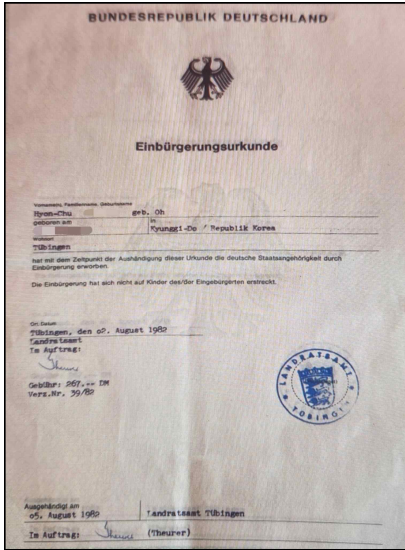
슈투트가르트 병원 기숙사에서 한복차림으로 찍은 오현주와 Mr. G의 결혼 기념사진.

오현주와 Mr. G는 우연한 처음 마주침을 일어 교섭을 핑계 삼아 필연적인 인연으로 만들었다. 파견 간호인력의 기본자격조건이 ‘아이가 딸리지 않은 미혼여성’¹⁵⁾이었기 때문에, 30세 초반의 이혼녀이며 본국에 두 명의 딸을 오현주가 띠동갑 연하 독일 남자와 연인으로 교체하는 것은 당시 한국인인 기준으로는 ‘남사스러운 사건’이었다.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한 사랑은 결혼 약속으로 발전했다. 슈투트가르트 병원에서 대체복무 기간을 마친 Mr. G는 직업으로서의 간호인력이 되고자 기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튀빙겐에서 간호 전문교육 과정을 신청했다. 오현주는 그를 따라 1977년 초에 튀빙겐으로 이주했다. 의무 고용 기간 3년을 몇 달 못 채우고 간호조무사를 그만두었기 때문에 계약위반 범칙금으로 전년도에 받은 성탄절 보너스를 반납해야만 했다고 오현주는 아쉬워했다. 그녀는 1977년 2월부터 튀빙겐 소재 트로피컬 클리닉 폴 레클러 병원Tropenlinik Paul-Lechler Krankenhaus에서 근무했다.

“돈벌이가 아니라 이혼의 도피처로 독일에 건너왔”던 오현주는 3년 연애 끝에 마침내 1977년 Mr. G와 결혼했다. 슈투트가르트 시청에서 간소하게 기념식을 하고 오현주는 ‘Hyon-Chu G.’라는 서양어 새 이름을 부적처럼 획득했다. 파독 간호인력의 30%인 대략 600~700명이 독일인과 결혼했다는 통계¹⁶⁾가 있는데 그중 한 명이 된 것이다. 연애 시절 사진에 찍힌 신랑 Mr. G는 장발에 수염을 덩수룩하게 기른 자유로운 영혼의 히피처럼 보였다. “나는 원래 결혼 생각이 없었던 비혼자였고 아이들도 좋아하지 않았지만, 병원에서 같이 일하고 사귀었던 불임성 많은 그녀가 계약만료 후에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했다고 말했다. 결혼식에는 동료 간호사 몇 명만 참석했고 시댁에서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시아버지는 신랑이 어릴 적에 사망했고, Mr. G와 시어머니는 오랫동안 냉담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이종사촌 동생이 부부 한복과 이불 등을 결혼 선물로 보내주었다. 결혼 5년 후인 1982년 8월에 오현주는 독일귀화증명서 Bundesrepublik Deutschland를 발급받았다.

〈사진자료 4〉



서독 정부가 발행한
오현주의 귀화 증명서.

신혼생활은 달콤하지만은 않았다. 한국에 두고 온 딸 걱정으로 오현주가 시름이 잠겼기 때문이었다. 새색시의 불행했던 과거(이혼)를 알고 있던 Mr. G는 두 딸을 독일로 초청하여 입양하는 데 동의했다. 오현주는 옛 남편에게 두 딸을 먼저 독일로 데려오는데 협조한다면 나중에 그도 초청하겠다고 전략적인 거짓말을 했다. 두 딸은 각각 13세(1964년생), 11세(1966년생)인 1977년에 독일로 왔다. 도착 첫날 부부가 살림을 차렸던 공공 임대 아파트에 들어선 두 딸은 엄마가 젊은 백인 남자와 함께 산다는 사실에 놀랐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양탈을 부리는 자식에게 본인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한국으로 갈 수 있지만, 자신(오현주)은 결코 함께 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그리고 그동안 옛 남편과 주고받았던 편지몽치를 보여주었다. 당시 오현주가 받았던 월급 1천3백 마르크 중에서 1천 마르크를 양육비로 한국에 보내주었지만¹⁷⁾ 피 같은 그 돈이 그(아빠)의 술값으로 탕진되었음을 뒤늦게

알게 된 두 딸은 어머니와 화해하고 독일에서 함께 살기로 했다.

그런데 스물이 조금 넘은 ‘입양 아버지(Mr. G)’와 ‘입양 딸’의 나이 차이가 열 살 정도밖에 되지 않아 힘든 행정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사회복지사가 매달 집을 방문하여 두 딸이 잘 성장하는지 점검했고, 두 딸은 법정에 보호자 없이 출석하여 본인들이 자유의지에 의해 Mr. G의 가족이 되고 싶은지 등을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그리고 한국 일간지에도 두 딸의 입양 수속을 공지하고, 반대하는 가족이 있다면 1년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광고를 게재했다. 거의 2년이 지나서야 두 딸은 공식적으로 한국 이름을 버리고 서양식으로 바뀌며 아버지의 성을 얻었다. 지금은 환갑에 가까운 나이가 된 두 딸이 단 한 번도 “괜히 먼 독일로 데려와서 고생시켰다.”라고 원망하지 않아서 정말 고맙다고 오현주는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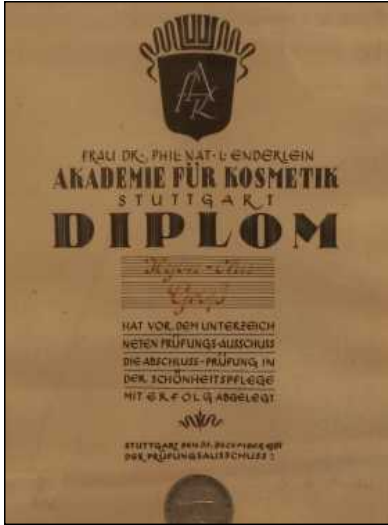
네 명의 가족이 겪은 튀빙겐에서의 초창기는 힘들었다. 인종적인 차별과 따돌림이 특히 아팠다. 지리적으로 독일 서남부 쾰트머리에 있는 튀빙겐은 1970년대 후반~1980년대에는 동양인이 매우 적었던 소도시였다. 오현주 가족이 지나가면 발일하던 사람들이 일손을 멈추고 ‘신기한 동물’을 구경하는 듯한 시선을 쏘았다. ‘슬리츠아우젠(Schlitzauge)’—‘옆으로 길게 찌진 눈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으로 동양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라는 모멸적인 분위기가 팽배한 튀빙겐¹⁸⁾에 살기 싫다고 남편에게 투정을 부렸지만, 자신의 간호교육 수련이 끝날 때까지 참아달라고 Mr. G는 애원했다. 인종적인 불관용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다. Mr. G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가 어릴 때 놀러 나갔다가 “칭챙총(ching chang chong(중국놈?))”이라고 손가락질당해 얼굴을 붉히며 돌아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동양 여자와 결혼해서 불편했던 경험이 없었는가?”라고 내가 Mr. G에게 직설적으로 물었다. “가난한 동양 여자를 돈으로 사 와서 아내로 삼았는가?”라는 놀림을 당했었지만,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인격적으로 무시했다”라고 그는 (요즘 유행어로) ‘쿨하게’ 대답했다. 오현주는 멋지고 부자인 독일 남자와 결혼했던 동료들이 남편과 시댁 식구로부터 ‘김치’라고 따돌림당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맞장구 아닌

맞장구를 쳤다.

튀빙겐에서 남편이 간호 수련을 마무리하는 동안, 오현주는 간호조무사 근무를 1981년 봄까지 계속했다. 독일 환자들로부터 “당신의 손은 비단^{Seide}처럼 부드럽고 도자기^{Porzellan}처럼 매끄럽다.”—오 여사는 갑자기 독일어로 그때 그 장면을 묘사했다—라는 칭찬을 자주 들었다. 피부미용 관리사로 일하면 손님이 많겠다는 오지랖 넓은 제안에 오현주는 솔깃했다. 환자 곁을 잠시도 떠날 수 없는 간호조무사와는 다르게 피부미용 관리사는 고객이 얼굴 팩을 하는 짬을 내서 아이들을 잠깐 돌볼 수 있다는 점도 직업을 바꾸는데 고려 사항이 되었다고 오현주는 설명했다.

오현주는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앞뒤 따지지 않고 즉각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다. MR. G와의 사이에 첫 아이(아들)를 잉태 중이었던 오현주는 6개월 임신 휴가를 이용하여 피부미용관리사 자격증에 도전했다. 쌈짓돈을 털어서 슈투트가르트 피부미용학원 6개월(1981년 6월~12월) 과정에 등록했다. 기다리던 첫아들이 1981년 2월에 태어났다.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부에 쫓겨서 둘째 딸이 초등학교를 휴학하고 갓 태어난 남동생을 돌보도록 임시조처했다. 부부가 살고 있는 집 지하실 벽에 전시해 놓은 1982년 12월 31일에 발행된 자격증^{Diplom: Akademie Für Kosmetik}에는 Hyon-Chu G.라는 이름이 훈장처럼 새겨져 있다. 막내인 딸이 오빠와 한 살 터울로 1982년에 출생했다는 가족 연대기에서 되짚어 보면, 임신·육아·취업 공부·개업 준비 등을 씬없이 오가는 바쁘고 피곤한 나날이 40대에 들어선 오현주의 일상이었다. Mr. G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빨리 태어나면 두 사람의 ‘축복받지 못했던’ 부부관계가 더 안정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오 여사는 털어놓았다.

〈사진자료 5〉



오현주가 1981년 12월에 발급받은 화장-피부 미용관리사 자격증.

피부 관리사 자격증을 딴 이듬해에 오현주는 개인사업자로 변신했다. 임시방편으로 살고 있던 아파트의 방 1개를 고객 공간으로 꾸며 임시로 개업했다. 1983년에는 저금 800마르크와 은행 용자를 종갓돈 삼아 튀빙겐 시내 중심가에 52평 크기의 가게를 열었다. 처음에는 사업이 어려워서 용자 받은 도이치뱅크에 가게를 압류당할 위기까지 몰렸지만, 은행을 옮겨 더 좋은 조건으로 가게를 확장(102평)하여 운영했다. 미용업이 피부미용보다 더 짧은 노동으로 더 높은 수익을 올리는 사실에 착안하여 미용실도 함께 차리는 사업수완을 발휘했다. 가게 앞쪽에는 향수-화장품 판매대를 설치하고 뒤쪽 공간에는 피부관리 시설을 마련하고, 복층구조인 위층에는 미용실을 설치한 복합적인 비즈니스 공간이었다. 남편도 피부과 진료 간호인력으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도움이 되었다. 가게 이름은 자기 이름과 남편 성을 조합하여 H-C G. 라고 지었고, 개업 기념품으로 고객을 위한 커피-음료 잔도 디자인해서 주문할 만큼 신바람이 났다.

“나는 바보천치라서 겁이 없었네”

자기표현처럼 ‘겁도 없이’ 크게 시작한 개인사업에서 인력관리가 제일 힘들었다. 화장품 판매원 2명, 피부관리 보조원 2명, 미용사 1명 등 모두 5명의 종업원을 고용했는데 특히 기술자(마스터)인 미용사가 말썽을 피웠다. 임신, 알코올 중독, 상습적인 지각과 결근 등으로 애를 먹었다. 결국은 말썽꾸러기 미용사를 해고했는데, 앙심을 품은 그녀가 “마스터 없이 영업한다”라고 <미용사노동조합>에 고발했다. “손기술로 돈 버는 직업은 자격증 있는 기술자가 없으면 장사를 할 수 없다”라는 평범한 사실을 깨달은 오사장은 자신이 직접 미용 기술을 배울 수밖에 없다고 결심했다. 1997년 5월에 150km 떨어진 콘스탄츠Konstanz에 있는 미용사 교습학원 문을 두드렸다. 가족과 떨어져 3개월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공부했는데 실습과목에서는 합격했지만, 이론시험에서는 2번이나 낙방했다. 1997년 12월에 간신히 합격하여 이발사Friseur-Handwerk 마스터Meister가 되었다. 남편은 “늙은 당신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모양이 애처로워서 일부러 합격시켜 준 것 같다”라며 늦깎이 헤어 드레서를 격려해 주었다.

사장-피부미용관리사-미용사라는 3개의 타이틀을 갖고 오현주는 2011년까지 거의 30년 동안 개인사업에 몰두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가게를 열었고, 일요일 하루만 휴일이었다. 1974년에 독일에 온 이후 30년 동안 한국에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했을 정도로 바쁘고 전쟁 같은 나날이었다. 늘그막에 시작한 미용사 자격증 공부에 정신이 없어서 가게 계약이 종료된 것을 깜빡해 자신을 고발했던 미용사에게 가게를 빼앗기다시피 넘겨준 뼈아픈 사건도 있었다. 시련을 삼키고 사업장 규모를 줄여서 시내 변두리에서 다시 영업을 시작할 정도로 끈기와 성실을 잃지 않았다. 2007년에는 미용·화장품Friseur und Kosmetik 비즈니스에서 25년 동안 헌신한 공로를 축하하는 명예-증서Ehren-Urkunde를 로이틀링엔 수공예협회Handwerkskammer로부터 받았다.

〈사진자료 6〉



로이틀링엔 수공예협회가 2007년에 오현주에게 수여한 25년 근속 개인사업 명예-증서

개인 비즈니스 30년을 되돌아보면, 조건 없이 응원해 준 남편과 바쁜 업무를 견뎌준 자식들의 희생이 함께 만들었던 ‘패밀리 엔터프라이즈(Family Enterprise)’에 다름없었다. Mr. G는 10여 년 동안 남자 간호인력으로 일했는데, 두 사람 사이에 얻은 아들딸이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방과 후 학습 도우미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조기 은퇴했다. ‘워킹 맘’ 부인이 사업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자식 교육과 집안 살림을 도맡았다. “내가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끝까지 살아남았던 것은 항상 말없이 기다려 주고 단 한 번도 ‘안돼!/하지 마!’ 같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은 남편이 뒤에서 든든하게 받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오현주는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가게에 매여 집밥을 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가족 식사는 퇴근 후 근처 단골식당에서 때우다시피 했다고 미안해했다. 오랜 자영업으로 큰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4명의 자녀를 잘 키워 시집·장가를 보내고, 노후생활을 위한 부동산을 구매하여 관리할 만큼 재정적으로 편해졌다.

튀빙겐 시내에서 북쪽으로 언덕배기를 30분 정도 걸어서 올라가면 오 여사의 3층 집이 있다. 1997년에 저축과 남편 친구로부터 빌린 돈을 보태서 집값의 20%에 해당하는 현금을 주고 은행 용자를 받아서 장만했다. 원래는 2층이었으나 2004년에 3층을 얻는 확장 공사를 했다. 1층은 오 여사 부부가 사용하고 2층과 3층에 있는 방 5~6개를 단기 또는 장기 임대하여 손님을 받고 있다. 비교적 넓은 정원에는 장미와 피오니(복단)가 만발하고 텃밭에 서는 고추와 깻잎 등 ‘한국적인’ 푸성귀가 자라고 있다. 오 여사는 왜 언제부터 부동산 임대업에 관심을 두게 되었을까?

서독은 주택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거주권을 시민의 기본권리로 보장하는 ‘사회주택^{Sozialwohnung}’ 정책을 지금까지도 고수하고 있다. 연방정부와 지방자치기관이 사회주택 건설에 투입한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해당 주택은 일반/개인 주택으로 전환되었다. 주거보조금^{Wohngeld} 제도는 1965년에 서독에서 폐지화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가족 수, 연간소득층액, 담보대출금 등을 합산하여 주거보조금이 지급되었다. 오현주는 간호조무사 월급 1,300마르크에서 월세로 월 500~700마르크를 지출했었다고 어렵פות이 셈했다. 신혼 시절 정부 주택보조금을 받아 1977년에 첫 등지를 틀었던 공공아파트가 건축 10년이 지나 민간아파트로 전환되었다. 기존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 여사는 1981년에 살고 있던 30평대 아파트를 처음으로 구매·소유했다. 동서독 통일 이후 1990년대 들어 부동산 수요가 증가한 탓인지 이 아파트를 팔아 짭짤한 수익을 올렸다. 자영업보다 훨씬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 시장의 매력에 뜬 오 여사는 환갑이 지난 2005년 전후에 임대업 사업을 구상했다. 사업 은퇴 후의 돈벌이를 미리 걱정한 것이다. 2007년 뒤늦게 퇴직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부부가 받는 연금을 합쳐도 노후생활 자금이 부족하다는 현실감각도 임대업에 뛰어들게 된 계기가 되었다.

“여자(아내)가 돈주머니를 꼭 쥐고 있어야지 그 집안이 잘 경영된다.”

오 여사는 2009~2020년 사이에 본격적으로 아파트를 사고 되파는 과정을 반복하여 재미를 톡톡히 봤다. 2004년 미국 투자-벤처 금융 기업 파산으로 촉발된 세계 금융 위기로 주택가격이 폭락하고 낮은 은행 이자로 부동산을 살 수 있었다. 운이 좋게도 투자(투기)한 아파트가 수년 사이에 2배 넘게 가격이 상승했다. 2023년 9월 현재 오 여사는 부부 공동 900평 단독주택 외에 본인 이름으로 총 3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오 여사가 집중적으로 투자한 해발 350m 산 구릉 지역은 공기가 좋고 대중교통도 편리하여 비싼 거주지이다. “서울 강남지역 부동산 가격과 비슷하다”라고 오 여사는 땅의 가치를 쉽게 비유했다. 단독주택 집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막스 플랑크 연구소가 있고, 튀빙겐대학 의과대학과 병원도 도보 15~20분이면 갈 수 있어서 인기가 많다고 오 여사는 자랑했다. 참고로 2019~2020년 통계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의 자기 집 보유율은 노르웨이 80.3%, 이탈리아 72.4%, 영국 65.2%, 프랑스 64.1%, 독일 50.4%, 스위스 41.6% 등이다.¹⁹⁾

임대 수입 관리는 누가 하는지 묻는 말에 오 여사는 ‘와타시私, わたし’라고 뜬금없이 일본어로 대답했다. 임차인/숙박 손님과의 예약과 사무 처리 등을 도맡고 있는 Mr. G에게 불만이 없는지 되묻자, “아내가 그 돈을 잘 사용할 것으로 믿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며 웃었다. 오 여사는 “여자(아내)가 돈주머니를 꼭 쥐고 있어야지 그 집안이 잘 경영된다.”라는 외할머니의 가르침을 지키고 있다고 그 웃음에 대답했다. 독일 보통 사람 평균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서 세금 등의 부담이 없는지 물었더니, 증여를 통해 자식들에게 나눠주려고 궁리하고 있다고 그녀는 말했다. 최근에 신설된 (부동산과 별개로 부과되는) 토지세도 무섭지만, 10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을 판매하면 그 수익금의 40%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나, 가족, 공동체: 미시적 사생활의 역사

30대 초반에 손님 노동자 신분으로 독일로 건너와 부동산 임대업자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 여사가 지난 반세기에 축적(안)한 독일-한국 커뮤니티와의 사회관계망은 어떤 모양일까? 간호조무사 시절 옛 동료들과는 지금까지 가깝게 지내며 초창기 튀빙겐 한인사회 구성에 한몫했을까? 나의 이런 상투적인 의문에 대해서 오 여사는 지역 한국인과는 왕래와 사교가 거의 없이 일종의 고립된 삶을 살았다는 뜻밖의 대답을 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어린’ 독일 남자를 ‘피어서’ 재혼한 자신을 ‘양공주’—그녀가 직접 끄집어낸 단어이다—취급하는 동료들의 날 선 시선이 싫었다. 또한, 독일에서는 하층민들이 도맡는 간호-간병인이라는 힘든 육체노동을 직업으로 가진 남편도 한국 사회에 내 세우기에 떳떳하지 못했다고 오 여사는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한국 전통 예절에 어두워 저지른 실수 또는 ‘나쁜 경험’도 한몫했다. 한국에서 방문학자로 온 가족을 반갑게 집으로 초대하여 음식 대접을 했을 때, 식사 예절에 어긋나게 거실이 아닌 부엌에서 커피를 서빙 했다는 비난 어린 뒷담화도 한국인과의 교제를 꺼리게 했다. 그리고 60년대 말 일찍부터 독일로 ‘유학’ 온 간호 학생, 한국에서 정규 간호대학을 졸업한 간호사, 단기 속성과정을 수료한 간호조무사—이런 내부의 ‘다른 계급’ 사이에 존재하는 경쟁과 구별 짓기가 오현주를 미운 오리 새끼처럼 바깥으로 튕겨낸 또 다른 이유일 것으로 짐작된다.

자신을 “얕잡아 본다”라고 오해(?)하여 한인사회를 자발적으로 멀리한 오현주의 불통은 자식들에게 번졌다. 교포사회와의 접촉이 의도적으로 단절된 환경에서 성장한 1.5세대—한국에서 태어난 두 딸—은 한국 전통문화와 낮가림하며 자랐다. 독일과 한국이라는 두 개의 다른 문화·인종·가치관의 틈바구니에 끼여 정체성의 혼란을 외롭게 겪어야만 했다. 13세 때 독일에 온 첫째딸은 한국말을 이해는 하지만 쓰기와 말하기를 거의 잊어 버렸다. “엄마는 자기 사업밖에 모르는 예고이스트!”라고 오 여사에게 대들기도 했다.

둘째 딸도 ‘접경지대’에 방치된 희생자였다. 그녀가 학교로 가는 버스에는 튀빙겐 대학병원에서 일하던 한국 간호사들이 많았다. 이들은 동양 아이에 대한 호기심으로 국적과 가족관계 등에 대한 사적인 질문을 퍼부었다. 그래서 둘째 딸이 “엄마에게 이력서 제출하라고 할게요!”라고 쓰아붙였다는 에피소드를 오 여사는 쓸쓸한 표정으로 들려줬다.

독일어를 전혀 모른 채 독일학교 시스템에 던져진 청소년 두 딸은 어떻게 되었을까? 약간의 배경지식이 필요하다. 서독 연방정부는 1970년대부터 외국인 노동자가 동반-초청한 자녀도 독일 아동과 같은 교육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했다. ‘손님 가족’이 모국으로 돌아가서도 잘 적응하도록 ‘동화’보다는 ‘통합’을 기본원칙으로 삼아 공교육을 했다. 독일어로 진행되는 정규 수업과 구분하여 출신 국가별 ‘민족학급’을 편성해 모국어 수업을 병행하는 “이중전략”을 펼쳤다. 흥미롭게도 연방정부의 이중언어 교육방침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실행한 모범 사례가 1970년대에 가장 많은 외국인 학생이 살았던 바덴-뷔르템베르크주(튀빙겐이 속한 광역 지역)와 노스트라인-베스트팔렌주였다.²⁰⁾ 오 여사의 두 딸이 이 경우에 정확히 해당하지는 않지만, 이들은 튀빙겐 시내에 있던 ‘외국인 학교’에서 1년 동안 독일어 교육을 받았다. 정규학교에 같은 학년으로 편입한 두 딸은 ‘왕따’ 같은 큰 어려움 없이 공부했다.

이때의 경험 때문일까? 둘째 딸은 보훔 대학교에서 언어교육학/한국학을 전공하여 외국인들에게 독일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녀는 자식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밝아 한국 드라마를 즐기고 있다. 두 자매는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을 단 한 번도 찾지 않았고 그리워하지도 않았으며 “독일을 고향처럼” 여기며 살고 있다. 독일로 도망(?)간 엄마가 남긴 빈자리에서 아빠와 살아야만 했던 3년의 세월이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에 그 옛 기억과 마주하기를 무서워하는 것 같다고 오 여사가 대변해 주었다.

다른 한편, 이주 2세대에 해당하는 독일에서 태어난 아들과 딸은 한국어를 전혀 못 한다. 아이들이 빨리 독일어를 배워서 현지에서 쓸모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국어 교육은 일부러 멀리했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에는 여러 개의 외국어 습득이 가능하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 오 여사는 후회했다. Mr. G와 사이에 태어난 장남(D)은 앞에서 언급했던 어린 시절의 ‘인종차별적인 손가락질’이 지워지지 않은 트라우마로 남았다. 결혼 후 가족여행으로 중국과 베트남에 갔을 때, 현지인들이 자기를 모국어도 모르는 ‘ABC(American Born Chinese)’로 취급했다고 냉소적으로 뻔었다. 싸구려 동남아 패키지 단체여행과 비교하면, 한국에 가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비싸서 지금까지 ‘어머니 나라’에는 가보지 못했다고 덤덤히 말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들은 한국적인 뿌리에 전혀 관심과 호기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오 여사가 내게 귀뜸해 주었다.

장남이 겪었던 자기 정체성의 분열과 인종차별적인 피해는 3세대에게도 대물림되었다. 오 여사 장녀의 아들인 외손자 J(1999년생)도 외삼촌 D와 비슷한 나쁜 기억을 성장통처럼 삼켜야만 했다. 어린 시절의 J는 자신을 반-독일인 + 반-한국인이라기보다는 100% 독일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포함하여 누구도 일상생활에서 한국말을 사용하지 않았고 유별나게 한국 전통을 강조하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김새를 따져 ‘중국인’이라는 놀림을 당하면서 ‘한국적 뿌리(Korean Heritage)’를 “극복해야 할 나쁜 감정(bad feeling)”으로 여겼다. 본인이 바꿀 수도 없는 차이점을 끄집어내서 자신을 ‘외국인(alien)’ 취급하는데 상처받았고, ‘출생지(origin)’를 묻는 것을 아주 싫어했다.

청년이 될 무렵부터는 이런 ‘타고난’ 약점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고자 J는 의식적으로 노력했다. 자신의 ‘외모’를 빌미 삼아 던지는 무례한 질문을 열린 마음으로 접수하여 친밀한 대화를 이어가는 연결고리로 삼았다. ‘한국적인 것’에 대한 타자의 호기심에 자신도 접속하여 좀 더 깊은 사김으로 발전시켰다. 좋은 싫든 자신의 일부가 된 한국 전통·문화를 미래 아들딸(4세대)에게도 자랑스럽게 전달하겠다고 J는 다짐했다. 오 여사의 손녀 손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외손자 J는 외할머니는 SNS를 이용해서 자기에게 음성 파일 메시지를 보낼 정도로 젊은 세대와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멋진 사람이라고 자랑했다.²¹⁾

“어머니는 제 롤-모델입니다”

막내딸(M)이 어머니에게 갖는 감정은 복잡하고 이중적이다.²²⁾ “한편으로는 큰 감사, 존경, 감탄과 이해”를 보내는 대상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고난과 상처”를 안겨준 사람이기 때문이다. M의 회고에 따르면, 어머니(오현주)는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자기 사업에 눈코 뜰 수 없을 만큼 바빴지만, 자식들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어릴 때부터 승마, 스키, 발레, 악기, 윈드서핑 등을 배우도록 주선했고, 아들이 기죽지 않도록 필요하면 직원이나 친한 이웃 사람을 자기 대신 보내서 돌보게 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비밀스러운’ 삶은 M에게 당황함을 안겨줬다. ‘입양아’로 알고 있던 두 언니와 자신은 ‘이복 자매’ 관계임을 뒤늦게 알고 충격을 받았다. 또한, 한국 교포사회와 멀리하는 어머니 탓에 튀빙겐 한인 교회²³⁾에서 운영하는 한글학교를 중도 포기한 아픈 기억도 있다. 교회까지 차를 태워주고 간식거리를 챙겨주는 다른 한국인 부모님과는 달리 가게 운영에 쫓겨 응원하지 못하는 엄마를 원망하며 한국말 배울 기회를 놓친 것은 큰 후회로 남는다.

청소년으로 성장하면서 M은 자신들이 다른 평범한 독일 가정과는 다른 태도와 가치관으로 양육되고 있다고 느꼈다. 독일 친구들이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과 배려를 듬뿍 받으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랐다면, 자기 형제자매들은 “항상 공손한 거리와 위계질서”를 존중해야 하는 엄격한 가정교육을 받았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라는 각기 다른 가치관을 앞세우는 “두 문화에 걸쳐 있는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 자란 사람들은 두 문화 중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난관을 마주하게” 됨을 경험으로 체득했다. 다행스럽게도, 바쁜 여성 사업가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자신이 대학생-직장인-아내와 엄마라는 인생의 고비를 통과하면서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M은 고백했다. “여성에 대한 나의 이미지는 강하고, 독립적이고, 기꺼이 싸울 줄 알고 이뤄내는 어머니에 의해 형성되었기” 때문에, 자신은 “결코 ‘약한

여성'의 이미지를 내면화하지 않았다.” 어머니에 대한 미성년 시절의 애증^{愛憎} 관계는 ‘마이 웨이’를 실천했던 여성 선배-동지에 대한 존경과 고마움으로 마침내 승화되었다. M이 자기 아들딸의 이름에 어머니의 이름 한 자씩을 끼워 넣어 각각 ‘Tom Hyon’과 ‘Ben Chu’로 지은 것은 개인 오현주의 삶에 보내는 헌정^{獻呈}이었다.

반세기 가까이 튀빙겐 교포사회와 의도적으로 단절된 일상을 살았던 오 여사가 한국(인)과 다시 선이 닿은 것은 5~6년 전부터이다. 부부가 거주하면서 공유-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단독주택에 2017년에 처음으로 한국 손님이 찾아왔다. 지금까지 대부분 투숙객은 다른 도시에서 튀빙겐으로 출장은 회사원이나 공부하러 온 대학생, 튀빙겐 대학병원에 입원한 환자 보호자 등 독일인 단기숙박객이었다. 그런데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 유학하러 온 한국 대학원생을 파격적으로 낮은 가격에 받아들인 이후 한국인 손님들과 인연이 닿기 시작했다. 그의 친구들에게도 홍보되면서 한국인 교환학생과 방문학자 등이 손님으로 머물렀다. 이들은 장기 투숙객이기 때문에, 같은 집에 살면서 한국의 소식을 한국 음식 등과 교환할 수 있었다. 고맙게도 이들이 자발적으로 연줄을 놓아주어서 튀빙겐대학교 한국학과 비공식적인 게스트하우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오 여사는 덧붙였다.

“따뜻한 손으로 줄 때 받아요”

어느 날 오 여사는 자신이 직접 담근 막걸리 한 병을 들고 우리 방을 노크했다. 대구의 이름난 장인이 만든 값있는 장독을 특별히 장거리 구매하여, 아마존을 통해 국제소포로 받은 귀한 효소에다가 튀빙겐의 —수돗물을 그냥 마셔도 될 만큼— 좋은 물로 빛은 가양주^{家釀酒}라고 자신의 수제품을 선전했다. 남편 Mr. G를 포함해서 아들딸 사위 며느리가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아서 가족 모임이 재미가 없다고 말했었는데, 어른이 주는 술마다 덩석덩석 받아 마시는 내가 어여뻐했을까. 아닐 것이다. 오 여사가 정성으로 숙성시킨

막걸리는, 정원 귀퉁이에 키우는 깻잎처럼, 자신마저도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한국적인 것’에 대한 오마주 또는 향수병 달래기의 상징적인 의례이리라. 염치가 없어 팔순 할머니가 내미는 막걸리를 사양하는 시늉을 하니, “따뜻한 손으로 줄 때 받아요”라고 오 여사는 내 어깨를 두드렸다.

근검절약 정신이 투철한 오 여사에게 막걸리 담그기는 호사스러운 취미 아닌 취미이다. 십 년이 훨씬 넘은 벤츠 고물 밴을 아직도 털털거리며 끌고 다니는데, 디젤 엔진 차량의 도회지 운행이 법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에 아들 가족이 사는 슈투트가르트에 갈 수 없어 불편하다고 말했다. 이렇게 아낀 돈을 ‘할머니’ 오현주는 가족에게 베푼다. 멀리서 늘 걱정해주고 잘 살기를 응원해주는 이종사촌 동생에게 두유 만드는 전기제품과 그 사용법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었다. 나는 막내딸 점심 파티에서 만난 며느리에게 금일봉을 전달하는 오 여사의 ‘따뜻한 손’을 보았다. 첫째(손녀)가 쓰던 고장 난 유모차를 둘째(손자)에 힘들게 사용하는 것을 눈여겨보았던 할머니가 독일 며느리에게 주는 육아용 선물이다.

귀국하기 하루 전 오후에 집주인 부부 정원에서 번개 모임을 했다. Mr. G가 특별히 사 온 ‘독일식 순대’를 안주 삼아 남은 막걸리를 나눴다. 낫술 탓일까. 오 여사는 장남에게 걸었던 남다른 기대에 못 미치는 섭섭함을 토로했다. 다른 여자 자식들과는 다르게, 아들이 베를린에서 대학 다닐 때 매달 용돈을 넉넉히 주었다. 딸들처럼 자립한다고 힘들게 아르바이트하지 말고 학업에만 전념하도록 특별히 배려했다. 아들에게 결혼 후에는 자기 집 2층에서 함께 살 것을 권유했지만, 도회지 생활이 더 좋다는 핑계로 현재 슈투트가르트 좁은 아파트에서 고생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무엇보다도 패씸한 것은 결혼 후에 상의도 없이 아들 맘대로 아버지 성을 버리고 아내 성을 선택한 일이다. 손녀 손자에게 친할아버지의 성이 아니라 어머니의 성을 물려주어 ‘집안의 대가 끊기는’ 불효를 저질렀다고 오 여사는 말했다.

〈사진자료 7〉



오현주 집 정원에서 필자가 2023년 6월에 찍은 부부 사진.

“해외에서 비단옷 입고 밤길을 걷는다.”

오현주는 독일 체류 30년 만인 2004년에 한국을 방문했다. 개인사업으로 짬이 당연히 없었겠지만, 무슨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오 여사는 “한국에 갔다가 독일에 있는 가족들 품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할까 늘 두려웠다.”라고 말했다. 옛 남편과의 숨바꼭질 또는 권위적 국가권력에 대한 피해의식? 구체적으로 어떤 공포와 두려움이 그녀의 한국방문을 한 세대 동안 망설이게 했는지 나는 물어보지 못했다. 첫 방문에는 남편 Mr. G 대신에 막내딸 M이 동행했다. 제2세대 중에서 예외적으로 어릴 때부터 한국문화·전통에 유난한 애착과 호기심을 가졌던 그녀가 가족 대표로 뽑힌 셈이다. M이 9살 때 다니던 한인교회의 한글학교를 그만두게 했던 엄마의 뒤늦은 보상이었을까? M은 첫 한국 기행 또는 ‘엄마의 한국 나들이’ 인상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우리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단지 또 다른 세상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인생과 같았습니다. 그곳에 있을 때마다 혹은 제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때마다, 저희 어머니는 매 순간 달라 보였습니다. 아마 둘 다일 겁니다. 어머니의 새로운 이야기, 또 다른 삶에 빠져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두 인생사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저희 어머니를 알아보고 챙겨주시는 한국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M은 한국말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엄마가 ‘이모’, ‘삼촌’, ‘누나’라고 서로 부르는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밤늦게까지 이야기 삼매경에 빠지는 낯선 모습을 보고 매우 놀랐다. 튀빙겐에서 숨어 살던 외톨이가 서울에서 친척을 만나 갑자기 감정적이고 바쁜 일상을 보내는 것을 옆에서 신기하게 관찰했다.

오 여사는 이후 2007년, 2012년, 2022년 등 모두 4번 한국을 방문했다. 두 번째 방문에는 남편 Mr. G와 막내딸과 사위가 동행했고, 세 번째 방문에는 막내딸, 손녀 손자와 함께 다녀왔다. Mr. G에게 한국방문 소감을 묻자, “아내의 친척들을 만나서 좋았지만, 너무 다른 나라였다.”라고 짤막하게 응대했다. 한국 여행의 단골 동반자인 막내딸과 세 번째로 방문했을 때는 ‘고향’인 제주도까지 날아가서 그리운 이모 이모부와 함께 옛 추억에 빠지기도 했다. 막내딸 M은 처음에는 자기도 외국인 취급을 받고 한국식 예의범절에 서툴러 친척 만나는 것이 불편했지만, 세 번째 방문했을 때는 서울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서 독일의 어느 도시에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고 촌평했다. 주인공인 오 여사에게 네 차례에 걸친 한국방문 인상을 묻자, “어릴 때 고아가 된 나를 불쌍하게 여겼던 친척들을 반갑게 만나 잘사는 모습을 보여줘서 좋았지만, 지난 60년 동안 한국이 너무 많이 변해서 오히려 낯설었다.”라고 종합 평가했다. 제주도 외할머니가 단골이셨던 점쟁이 예언처럼 “해외에서 비단옷 입고 땀길을 걷는” 것이 자기 팔자인 것 같다고 오현주는 혼자 말처럼 중얼거렸다.

구술사 면담을 마무리하면서 오 여사가 ‘독일에서의 파란만장한 반세기 삶’에 대해서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독일로 이주해 온 결정을 후회하거나 살면서 겪었던 차별이나 나쁜 기억은 없었을까? 1970~1980년대 당시에는 한국과 비교하면 독일(서독)이 안전, 주택, 교육, 생활수준 등에서 훨씬 좋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기뻐다고 그녀는 회상했다. 독일어에 익숙해지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이 유일한 불편한 점이 었다. 이주노동자-자영업자로서 시련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자식-손자 세대까지 이어진 인종차별적인 배타성과 종업원에게 고발당해 가게를 빼앗기다시피 했던 사건은 아직도 속이 시리다. 독일 남자 손님 요구대로 전기 칫으로 안면 피부 털을 하나하나 뽑는 시술을 하면서 맡았던 살타는 냄새 때문에 아직도 독일의 그 유명한 소시지를 잘 먹지 못한다고 오 여사는 털어놓았다. 이런 사소한 에피소드를 제외한다면 자신을 ‘독일 시스템’ 혜택을 받은 행운아라고 확신했다. 약간의 개인적인 흥망성쇠가 있었지만, 그것은 독일 사회의 구조적(사회경제적인) 불평등 탓이 아니라 자기 개인 능력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겼다.

오 여사는 독일인 평생 친구를 사귀었거나 가깝게 참여하는 모임이 있을까? “하나도 없다.”라는 의외의 답변이 돌아왔다. 연애-신혼 시절에 잠시 왕래했던 남편 친구들과 간호(보조)사 직장 동료들은 (위에서 설명했던 이유로) 점점 떨어져 나가고 지금은 늙은 부부만 남았다. 그리고 ‘음식 문제’만을 대입해 보면 오 여사와 Mr. G 사이에도 건너지 못하는 간격이 있다. 오현주는 이제는 목이 까칠까칠해서 더 이상 독일 빵을 주식으로 삼지 못하여 간단한 한국요리를 일상적으로 먹고, 남편은 자기 스스로 ‘독일식으로’ 끼니를 해결한다.

한국 커뮤니티와도 단절되고 독일 이웃과도 교류가 거의 없는 오현주는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할까? 일반적으로 이주민·디아스포라는 ‘정체성 협상’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초국적인’ 자기 주체성을 만들어 간다.²⁴⁾ 오현주에게 이 개념을 적용한다면 그녀는 독일 이주를 또 다른

‘삶의 기회’로 환영하여, 능동적인 직업적 변신으로 현실을 자기 의지대로 개조하고, 국제결혼 여성에게 쏟아지는 내부(한인사회)와 외부(독일사회) 공격을 자발적인 ‘외톨이 되기’라는 자기방어적 방식으로 돌파하면서 ‘정체성 협상’의 에움길을 완성했다. 초국적 자기 정체성의 민족적·문화적 뿌리를 어디에서 찾느냐는 보충 질문에 오 여사는 ‘일본’이라는 또 예상 밖의 대답을 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묻자, 오현주는 자신도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난처해했다. 일본에서 태어나 7살까지 그곳에서 살았고, 제주도에 돌아와서도 15살까지는 일본말을 잊어버리지 않았던 소녀-청소년이 간직한 일종의 ‘노스텔지어 아이덴티티’일까? 여든 플러스 나이에 재발견한 무의식적인(?) ‘일본 친화성’은 그녀가 20년 전인 2007년에 남긴 다음과 같은 민족주의-글로벌 시각의 발언과 어긋난다.

“제 인생의 나무는 한국 소나무에 뿌리를 두고, 독일 참나무의 튼튼한 줄기와 같으며, 내 자식과 손주들이 공부하고 일하며 살아가는 튀빙겐, 보훔, 에센, 베를린, 바이블링엔, 만하임, 하일브론, 뒤스부르크에 걸쳐 건강한 나뭇가지를 뻗어냅니다. 제게 조국과 고향은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면서도, 참 신기하게도 닮아있습니다.²⁵⁾”

위 인용문은 2007년에 출간된 『내국인: 외국인은 어떻게 튀빙겐 시민이 되었나』라는 소책자에 실린 오현주의 인터뷰 기사에서 따온 것이다. 자신의 한국적 뿌리가 독일 이주 이후에 자손들을 통해 어떻게 독일 전역으로 갈래를 쳐서 뻗어가는 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했다.

이주노동자로서의 자신의 출발점이 한국이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던 오현주는 팔순이 넘은 지금(2023년)에 왜 민족주의적 감정이 퇴색했을까? 한국에 관해 간직했던 ‘원형’ 기억이 독일에서 ‘생성된 기억’과 섞여서 국적 없는 ‘재구성 기억’으로 변질 또는 격상된 것일까?²⁶⁾ ‘조국의 배반자’를 대하듯 따지는 나에게 그녀는 “민족이나 나라보다는 평생 애들만 생각하며 살았어요.”라고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파독 간호인력 단체와 한인교포가 펼치는

각종 사회-정치(민주화-통일)운동과는 저만치 떨어져 ‘자랑스러운 한민족이 아니라 행복한 개인으로’ 살았다는 변명 아닌 항변이다. 잠들어 있거나 깡그리 잊힌 ‘민족주의적 감정’의 불씨를 살리려는 것처럼, 나는 ‘한국 정부는 만 65세가 지난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 동포가 원한다면 국적을 회복시켜 주고 있다’라는 최신 뉴스를 알려줬다. 오현주는 “한국 국적을 갖고 싶다”라고 망설임 없이 즉답했다. 그리고 독일 교포들이 귀국하여 살고 있는 경남 남해의 ‘독일인 마을’에도 (그곳에서 여생을 보낼 의도는 없지만) 가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나오며: 흠어진 기억, 다시 쓰는 이야기

구술사는 말을 걸고 기록하는 연구자(역사가)와 이야기보따리를 풀어 놓는 연구대상자의 공동작업이다. ‘사실’에 근거한 객관성을 가치중립적으로 탐구하는 사람과 ‘기억’의 실타래를 주관적인 무늬와 패턴으로 풀어내는 사람이 함께 연출하는 춤 또는 씨름이다. 역사가가 주제넘은 개입과 유도 질문으로 ‘살아있는 사료’를 압박하거나 오염시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면, 구술자는 가능한 정직하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하찮거나 위대했던) 삶이 역사의 한 페이지에 삽입되도록 협조해야 한다. 오현주는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구술면담을 준비했다. 개인/가족사진 자료, 자격증과 같은 증빙 문서, 자기 이야기가 실린 팸플릿, 가게 터 답사와 개인사업 때 사용하던 용품 등과 같은 ‘증거^{evidence}’를 나에게 제공했다.

풍부한 구술자료와 증거물을 확보한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나의 논문’으로 윤색, 편집, 번역, 또는 오남용한다. 내가 결정해야 할 마지막 과제는 이 구술사의 장르이다.²⁷⁾ 한국-독일 수교 140주년^{1883~2023년}을 기념하여 온갖 나쁜 조건과 역경을 딛고 성공한 한인 디아스포라의 모범적인 사례연구에 맞추어 꾸밀 것인가? 고아-공순이-이혼녀-양공주로 차별받으며 숨어

살았던 ‘하층민 여성’의 얼룩진 삶을 복권 시키는 ‘아래로부터의/서발턴 역사’로 연출할 것인가? 구술된 콘텐츠를 어떤 격자에 끼워 넣어 어떤 앵글로 편집해야 좀 더 ‘객관적인’ 의미와 가치를 갖는 구술사로 갈무리될 것인가? 이런 딜레마를 마주하면서 이 사례연구에 내포된 의의, 유용성, 기대효과 등을 가족사, 공공역사, 이주-이민사, 구술생애사, 트랜스내셔널 역사 등이 교차하는 관점에서 아래와 같이 요약한다.

첫째, 오현주의 구술생애사는 20세기 후반 대한민국 역사의 역사에 대한 민족주의 과잉 담론에서 벗어난 대안적인 역사 쓰기의 가능성을 실험한다. 가난한 ‘조국’의 볼모가 되어 독일에 ‘수출’된 해외인력의 피와 땀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는 거대 담론은 그녀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오현주는 분단되고 전쟁으로 파괴된 조국을 부흥시키려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독일로 건너간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혼녀라는 운명을 돌파하기 위해 부러진 무거운 날개를 꺾매고 닦아서 그곳으로 날아갔다. 자랑스러운 조국의 딸이 아니라 행복한 개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외길 모험이었다. 오현주가 한국말을 매개로 하는 언어공동체를 가족들에게 계승시키지 못했고, 한국의 문화 전통을 지키지 못했던 것은 ‘민족주의적 실패’라기보다는 현지 적응의 ‘글로벌 전략’이었다. 근대화와 민족주의 담론이 공범이 되어 하층계 취급·삭제했던 미시적 사생활 역사의 복권이라는 측면에서 재평가하면, 오현주의 삶은 해피엔딩이다.

둘째, 오현주의 구술생애사는 ‘말할 수 있는 서발턴’²⁸⁾이 서술하는 ‘공공 역사’의 한 페이지이다. 디아스포라 사회학자의 분류법을 적용한다면, 한국과 독일에서 살아냈던 그녀의 전 생애는 통합과 동화에 편입되지 못한 ‘고립과 주변성’이라는 공통 분모로 수렴된다.²⁹⁾ 일본에서 태어나 조실부모하고 가까운 혈육이라고는 이복동생과 외할머니밖에 없었고, 청소년기에는 타지를 홀로 떠돌며 제 밥벌이를 했던 ‘불쌍한 인간/레미제라블^{Les Misérable}’이었다. 20대 후반에 이혼하여 간호조무사 신분으로 독일로 건너와 착한 독일 남자와 재혼했지만, 오현주는 독일 사회에 동화되지도 못했고 민족공동

체에서도 소외된 이중적인 의미에서의 서발탄이었다. 오현주의 이런 독특한 주체적인 위치가 역설적으로 주류 역사에서 제외된 전형적이지 않은 이단적인 이야기를 구술할 힘이며 자격이다. 그녀의 구술생애사가 공공역사에 포함되어야 마땅한 이유이다.

셋째, 여성 이주노동자 오현주의 증언은 1970년대 한독관계사의 맨얼굴과 박정희 정부가 추진했던 ‘해외 인력수출’의 역사적 성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그녀의 솔직한 고백 덕분에, 파독 간호사-광부 선발 절차에 작동했던 개인적인 인맥과 뒷거래 관행 등을 우리는 더 잘 알게 되었다. 파독 간호인력의 주요 업무와 근무지, 급여와 주거환경 등에 대한 사전정보가 당사자들에게 공유하지 않았던 ‘깜깜이 해외 취업’이었다는 사실도 오현주의 구술로 재확인된다. 제각기 다른 배경/동기/목표를 품고 독일-미국-중동 등지에서 이주-정착 노동자로 고생하며 꿈꾸었던 사례연구(구술사)가 더 많이 채집된다면, 제3공화국-유신정권이 지휘했던 국민-국가 만들기 운동이라는 큰 열개 그림의 무늬와 색깔이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러므로 오현주의 구술사는 예외적인 비정상적인 이야기기 아니라, 민족과 국가가 무엇이었는지를 되물어 보는데 결코 생략할 수 없는 한 조각 모자이크이며 퍼즐로 재조명되어야 한다.

넷째, 이 글은 주인공 오현주의 독백이 아니라 대가족의 진술과 증언이 보태진 입체적인 구술생애사라는 장점이 있다. 대부분 선행 연구가 초창기 독일 이주노동자(광부 포함) 본인의 파란만장하고도 입지전적인 이야기에 한정되었다면, 오현주 구술사는 1.5세대(한국에서 데려온 장녀와 차녀), 2세대(재혼하여 독일에 서 태어난 장남과 막내딸), 그리고 3세대(손녀·손자)가 다 함께 입을 모아 합창하는 가족의 역사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 상세하게 적지는 않았지만, 가부장주의에 젖은 어머니 오현주와 딸들의 애증 관계, 어머니와 장남의 갈등과 충돌, 한국적 뿌리를 대하는 세대 간의 다른 가치관 등—해외 이주-정착 3세대가 펼치는 일종의 ‘가족 로망스’³⁰⁾를 파편적으로나마 스케치하려고 노력했다. 오-G 부부가 낳고 기른 총 12명의 2·3세대가 불협화음으로 부르는 ‘가족의

노래'는 다문화 시대가 전 세계적으로 잉태(발명)하는 '새로운(정상)' 가족관계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성찰을 자극한다.

다섯째, 디아스포라 오현주에 대한 구술생애사는 직업으로서의 역사가의 본질(의무)과 작업 관행을 곱씹어 보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역사가는 과거의 객관적이며 실증적인 사실과 진리를 가치중립적으로 탐구하는 사회과학자인가? 아니면, '불완전한 과거'가 남긴 희미하고도 주관적인 '흔적_{trace}'을 감정 이입적으로 되짚어 복원시키려는 일종의 —막스 베버가 주창한— 문화과학자인가? 이 글에서 필자는 후자의 입장을 선호했다. 이제는 더 이상 '지금 여기에' 없는 그리운 사람과 알게 모르게 옷깃을 스쳐 지나간 인연에 왜 나는 (먼저) 말을 걸지 않았던가! 그(녀)는 수백 년 전부터 이미/반복적으로 진술했지만, 왜 나는 아직도/처음처럼 그 메시지에 접속하지 못하고 있는가! 오현주 막내딸 M의 멋진 표현을 빌린다면, '나와는 다른 이야기,' '나보다 훨씬 이전에 시작된 이야기,' '여기서 멀리 떨어진 전혀 다른 문화에서 시작된 이야기,' '그들은 말하지 않는 이야기...' 이런 흩어진 기억과 '소리 없는 아우성'에 비로소 귀를 기울이는 시늉을 하는 나는 "역사는 끊임없이 다시 고쳐 쓰여야만 더 잘 보이는 안개 속의 거울"이라는 결론 아닌 결론으로 미끄러진다.



〈원문출처〉

이 글은 다음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작성되었다.

육영수, 「'자랑스러운 민족'을 넘어 '행복한 개인'으로 살아남기: 독일 튀빙겐 한인 여성 디아스포라 구술생애사」 『호모미그란스』 29, 이주사학회, 2023.

〈저자소개〉

육 영 수 (중앙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저자 육영수는 중앙대학교 역사학과 대학원 문화연구학과·독일유럽학과 교수이다. 미국 워싱턴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 시애틀)에서 근현대 서양 지성사 전공으로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역사이론과 방법론, 여성사, 과학기술사, 트랜스내셔널·탈식민주의 역사 등에 관심을 두고 공부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파견 교수(2009~2010)로 네덜란드 레이던 대학교와 벨기에 루뱅가톨릭 대학교에서 한국 근현대사를 영어로 강의했다. 미국 코넬 대학교, 독일 자유베를린 대학교와 튀빙겐 대학교, 일본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등에서 방문학자로 연구했다. 한국출판학술대상을 수상(2010)했고, 한국서양사학회 회장(2018~2020)을 역임했다. 저서로 『근대유럽의 설계자: 생시몽·생시몽 주의자』(2022), 『지식의 세계사: 베이컨에서 푸코까지, 지식권력은 어떻게 세계를 지배해왔는가』(2019), 『혁명의 배반, 저항의 기억: 프랑스혁명의 문화사』(2013), 『책과 독서의 문화사: 활자인간의 탄생과 근대의 재발견』(2010) 등을 출간했다. 공저로는 『트랜스내셔널 역사학 탐구』(2017), 『기억은 역사를 어떻게 재현하는가』(2017), 『포스트모더니즘과 역사학』(2002) 등이 있다. 서양사 전공자의 시각으로 근대한국학의 복잡하고 뒤엉킨 계보를 추적·분석한 『근대한국학의 갈래와 뿌리』(가제)가 곧 출간될 예정이다.

XI

하와이 이주민 안원규의 사회·경제적 삶과 민족적 활동 (1903-1947)

조 규 태
한성대학교

하와이의 한상이며 독립운동가, 안원규

안원규는 20세기 전반 미주지역의 대표적 한상^{韓商}이며 독립운동가이다. 상인 출신으로 하와이에 건너간 그는 양복점과 시계수리점 등을 경영하여 자금을 모은 후 중한제장회사^{中韓製醬會社}를 경영하는 사업가로 성장하였다. 1909년 대한국민회의 창립을 주도한 그는 1910년 2월 1일 대한인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 부회장으로 선임되었고, 그해 4월 총회장을 대리하는 등 대한인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의 주역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그는 1940년대 초반 미주지역의 분열된 한인을 통합하고자 국민회와 동지회 등 한인단체를 통합하여 재미한족연합위원회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1943~1944년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의사장과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대한인국민회 등 한인단체를 통한 민족운동과 수십 년 동안 수십 차례의 독립운동자금을 제공한 공적으로 1995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 받았다.¹⁾

이처럼 안원규는 하와이 이주 한인의 상업사 및 하와이지역 한인의 대한인국민회 활동, 그리고 정치세력과 정치노선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인물이다. 또 1940년대 재미한인의 통합 활동과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결성과

운용을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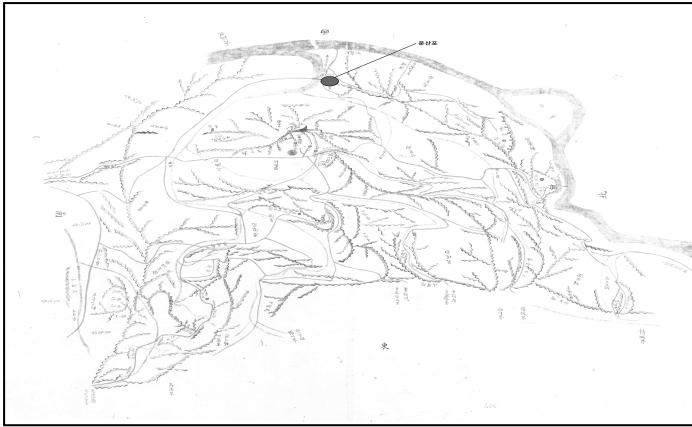
그렇지만 안원규에 대한 전문적인 논문은 아직 없다. 소략한 그의 약전^{略傳}이 소개되었고²⁾, 대한국민회와 대한인국민회의 성립과 활동, 재미한족연합위원회 등 1940년대 재미한인의 독립운동을 다루면서 그의 이름과 활동이 거론된 정도이다.³⁾

그래서 하와이 이주민 안원규의 사회·경제적 삶과 민족적 활동을 검토하여 그의 개인적 꿈과 민족적 이상의 실현 과정을 알아보려 한다. 먼저 그의 출생 및 성장과 하와이 이주 배경에 대하여 검토하겠다. 다음으로 하와이에 서의 그의 신앙 및 결혼 생활과 경제적 활동에 대하여 고찰하겠다. 이어 1906년에서 1920년대까지의 대한인국민회 등의 한인단체 활동에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1930~40년대 한인통합 및 재미한족연합위원회 활동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출생 및 성장과 하와이 이주

안원규는 1877년 8월 30일 서울의 통안에서 안문학^{安文學}과 어머니 정씨 사이에서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남동생으로 안원근^{安元根}(1887년생), 여동생으로 마리아(1889년생)가 있었다.⁴⁾ 통안은 종로구 원남동에 있던 마을로 統內라고도 불렀는데 배오개에서 박석고개에 걸쳐 있었다.⁵⁾

안원규는 1889년부터 1902년까지 경기도 파주군 문산포^{汶山浦} 상리에 거주하였다.⁶⁾ 문산포는 조선시대 초인 1495년에 파주목 문산읍이었다가 1899년 행정구역 변경에 의하여 파주군 칠정면 문산리로 변경되었다. 문산포는 임진강을 통해 한양, 장단, 개성, 연천, 포천, 철원, 평강 등에 각종 물자를 공급하는 집산지였다. 문산시장은 일제강점기 파주를 대표하는 대시장이었다고 한다.⁷⁾ 문산포가 임진강과 한강을 통한 수상교통의 요충지였음은 1872년 파주군 제작 「파주지도^{坡州地圖}」와 네이버지도에서 확인된다.



〈도 1〉 『파주지도』(1872)의 문산포文山浦



〈도 2〉 네이버지도의 문산읍

안원규가 1889년부터 1902년까지 문산포에서 살았던 것은 아버지가 경강상인으로 이곳에서 장사를 하였기 때문일 것 같다. 안원규는 16살이던 1893년부터 25살이던 1902년까지 문산포에 거주하며 상업에 종사하였다고 밝히고 있다.⁸⁾ 거주지로 보아 그 업종은 어물전이었을 것이다.⁹⁾

경강상인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근대적 교육을 받지 못하였다. 흥사단

입단 청원서에서 그는 ‘학예^{學藝}: 국문^{國文}’이라고 하고, 특별한 학력을 기재하지 않았다.¹⁰⁾ 그런데 그가 작성한 문서에 따르면, 그는 한글과 한문을 자유롭게 읽고 썼다. 어려서 서당교육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 무렵 그는 결혼하였던 것 같다. 당시 나이가 결혼할 나이였고, 하와이 입국 기록에도 결혼하였다가 사별한 것으로 되어 있다.¹¹⁾ 입국 전의 부인이 누구였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안원규는 하와이 한인 이주의 물결에 올라탔고, 1903년 3월 3일 캡틱 Coptic호 편으로 호놀룰루에 도착하였다.¹²⁾ 1881년 건조되어 Ocean Steam Navigation Company가 운영한 캡틱호, s. Coptic는 처음에 영국의 리버풀과 미국의 뉴욕 사이를 운항하다가, 1895년부터 샌프란시스코와 극동지역을 운항하였다. 운항 노선은 처음에 고베-샌프란시스코였다가 1900년부터 시모노세키-샌프란시스코로 변경되었다.¹³⁾ 이 지역을 운항한 화물여객선처럼, 캡틱호도 중국 홍콩 - 상해 - 나가사키 - 고베 - 요코하마 - 하와이 - 샌프란시스코의 항로로 운항하였을 것이다. 제1차 하와이 이주 한인의 여정으로 미루어 보면, 안원규는 1903년 2월 경 인천을 출발하여 고베^{神戸}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캡틱호에 승선하여 하와이에 도착하였을 것 같다.

『재미한인사략』에 의하면, “(1903년) 3월 3일 기선 캡틱 선편에 제2차 한인 이민 63인이 호놀룰루에 도착하여 오아후 도^島의 ‘히구 농장’에 주점하였다.”고 되어 있다.¹⁴⁾ ‘히구 농장’이 어딘지 확인되지 않는데, 캡틱호와 함께 입국한 차흥순^{Cha, Heung Soon}이 ‘와이삐’^{Waipio}: 필^峯에 거주하였던 점¹⁵⁾과 안원규가 1906년 와이파후공동회를 조직하였던 점으로 보면, 그는 오아후의 와이파후^{Waipahu} 지역에서 사탕수수 경작 노동에 종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와이파후에는 1897년에 설립된 오아후설탕회사^{Oahu Sugar Company, Ltd}가 소유한 오아후사탕수수농장^{Oahu Sugar Cane Plantation}이 있었다. 오아후사탕수수농장은 호놀룰루로부터 서북쪽으로 15마일 떨어져 있고, 12,260.33에이커 중 11,530.68에이커의 대토지에서 사탕수수를 경작하였다. 관개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300,845.74톤의 설탕을 생산하고, 관개가 이루어진 1928년 이후에는

596,550.46톤의 설탕을 생산하여 하와이 전체 생산량의 8%를 차지하는 대농장이었다.¹⁶⁾ 1915년 당시 하와이 노동자의 생활 유형은 주급노동자(wage hands)가 24,468명(56.63%)였고, 도급계약노동자가 15,121명(35%)이었고, 사탕수수를 심는 일당노동자(planters)가 3,619명(8.38%)였다. 한국인들은 어떤 민족보다도 도급계약 노동자가 많았는데 이들의 임금은 사탕수수의 가격에 좌우되었다. 1905년 당시 일당노동자 및 주급노동자는 일당 65센트를 받았고, 도급계약노동자는 평균적으로 하루당 83센트의 수입을 거두었다. 당시 그도 비슷한 임금을 받았을 것이다.¹⁷⁾ 그는 이 와이파후의 오아후 슈거 플랜테이션에서 1~2년 정도 일을 하였다.¹⁸⁾

신앙 및 결혼 생활과 경제적 활동

와이파후의 사탕수수농장에서 일하던 안원규는 1904년 경 감리교에 입교하였다. 하와이의 한인들은 1903년 11월 3일 안정수와 우병길(禹炳吉)이 피어슨 감리사와 교섭하여 11월 10일 리버 호텔 스트리트에서 집을 얻어 한인전도회를 조직하고 예배를 보았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04년 3월 2일 엠마 스쿨 스트리트에 예배당을 설립하고, 1904년 5월 1일 하와이한인감리교회의 우병길(禹炳吉)이교담(李教潭)·임동주(林桐柱) 등이 각 농장으로 보내어 전도를 시작하였다.¹⁹⁾ 그의 입교는 와이파후 농장에 찾아와 전도하던 이들의 설교와 관련이 있었다. 고국에서 멀리 떨어진 하와이의 가난한 한국인 이민자에게 사랑을 전파하는 기독교의 신앙에 감동되었던 것 같다.

그는 기독교 신앙 활동을 열심히 하여 1906년 3월 경 와이파후에서 전도사(local preacher)로 활동하였다.²⁰⁾ 1904년 말 와이파후에는 36명의 감리교인이 있었고²¹⁾, 1905년 8월 와이파후에 예배당이 설립되었다.²²⁾ 1905년 12월에는 김이제가 목회자로 활동하였다.²³⁾ 그는 이곳에서 김이제와 함께 혹은 그를 이어 전도사로 교임을 수행하였다.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던 1906년에서 1908년까지의 시기에 안원규는 최윤심(崔潤心)(1885)과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²⁴⁾ 감리교회에서 신앙 활동을 하던 것이 인연이 되어 배필을 만난 듯하다. 최윤심은 북감리교 신자인 이승만의 심복으로 미혼 남성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 국내로 파견되어 서울 시내 예배당에서 여성들에게 하와이 이주를 권유하는 활동을 한²⁵⁾ 기독교인이었다.

1909년 안원규는 최윤심과의 사이에서 딸 안월라(安月羅)(안벨라)의 탄생을 보았다.²⁶⁾ 안벨라는 1913년 11월 28일 오전 딸 리버스트리트에서 자동차 사고를 당해 퀸병원에서 수술을 하였으나²⁷⁾ 잘 성장하였다.

안원규는 1914년 4월 한인기독교청년회의 조직에 참여하고 그 임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김종학 이태수 이승만 박상하 박용만 신흥균 한재명 흥한식과 함께 이사부의 이사였다. 그리고 그는 장재로서 회장 이승만, 부회장 박상하, 서기 흥한식과 함께 활동하였다.²⁸⁾

감리교 기독교청년회원이었던 안원규는 1914년 백인 및 일본인 기독교청년회원 함께 활동하였다. 당시 하와이이에서는 감리교 기독교청년회원이 백인 1,420명, 일본인 200명, 한국인 90명이 있었는데, 안원규는 1914년 5월 5일 백인 기독교청년회에서 주최한 만찬회에 참여하기도 하였다.²⁹⁾

1919년 안원규는 이정송(李貞松)(안정송, 1895-)과 다시 결혼을 하였다.³⁰⁾ 평남 평양 출신인 이정송은 1910년 평양감리교회에서 운영하는 정의소학교를 졸업하고, 1913년 이화학당을 졸업하고, 1913-14년 평양 진남포 삼송여학교 고등과 교사, 1914-15년 이화학당 교사, 1915-16년 경기도 수원 삼일여학교 고등과 교사를 역임하였다. 1916-17년 일본 요코하마 여자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1918년 평양여자신학교의 사감 겸 교사를 맡았다. 그녀는 1919년 하와이로 이주하여 안원규와 결혼하였다.³¹⁾

안원규는 이정송의 소생으로 1남 3녀를 두었다.³²⁾ 그러니까 안원규의 자녀로 최윤심이 낳은 장녀 안월라(안벨라) 외에, 이정송이 낳은 장남 안정도, 차녀 안숙자(안플로렌스, 이숙자), 삼녀 안숙명(임숙명), 4녀 안숙화가 있었다.

장남 안정도는 매킨리중학을 졸업하고 1945년 2월 11일 이범석의 딸과 결혼하였다.³³⁾ 1920년 경 출생한 차녀 안숙자(이 플로렌스)는 1937년 여름 하와이의 매킨리중학교를 졸업하고 남캘리포니아 음악전문학원에서 성악을 전공하였다.³⁴⁾ 삼녀 안숙명은 1945년 임준호의 차남 임성희와 결혼하였다.³⁵⁾ 그리고 막내딸 안숙화는 하와이에서 루즈벨트중학교를 졸업하고, 하와이대학에서 2년간 수학한 후 패링턴 중학교에서 2년간 교사 생활을 하였다. 그녀는 1945년 버몬트주 베링턴여자대학에 편입하여 1947년 여름 졸업하였다.³⁶⁾

사탕수수농장 일을 1년 정도 만에 그만 둔 안원규는 1904년부터 1907년까지 잡화상을 경영하였다.³⁷⁾ 상업에 종사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와이파후에 거주하는 한인에게 쌀과 식료품 등의 필요 물품을 제공하여 주었던 것 같다.³⁸⁾

그는 1907년부터 재봉업에 종사하였다.³⁹⁾ 특히 1909년에 들어서, 그는 2월 12일 이후 자주 『신한국보』에 광고를 실어 양복점의 이용을 호소하였다. 그 광고에서 양복점을 개설한 이후로 동포의 사랑과 돌봄에 힘입어 사업이 확장되었다고 하고, 재봉을 매우 정밀하게 하고 염가로 판매하니 와서 사용하기를 청하였다.⁴⁰⁾

한편 안원규는 1909년 11월 양복점 안에 ‘시계개선소(수리점)’를 개설하고 각종의 시계를 수리하였다. 그는 광고를 통해 외국인에게 가지 말고 자신을 찾아오라고 호소하였다.⁴¹⁾ 그렇지만 시계개선소는 크게 발전하지 않았다.

한편 안원규는 하와이 거주 동포와 한인단체의 구성원 및 중국인들과 함께 상회 및 회사를 운영하였다. 먼저 그는 1909년 2월 경 하와이 각주에 거주하는 동포의 물품 수요를 편리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공익취집사(公益集社)를 창립하고 장정을 발표하였다. 그는 『신한국보』에 1909년 2월 12일부터 1909년 8월 17일까지 광고를 실어 한인 동포의 참여를 독려했다.⁴²⁾ 그렇지만 한인 동포의 호응이 미미하여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였다.

안원규는 1913년부터 박종수(朴鍾秀)와 파인애플 농장을 도급받아 경영하였다.

박종수는 1912년 11월 아들 박관주^{林寬柱}의 도움을 받아 편지를 번역한 후 카할루 지역의 농주 월터를 찾아 전 100에이커를 도급받아 경영하였다. 그런데 월터가 박종수의 근실함을 보고 그에게 5곳 1,300에이커 농장을 경영하기를 청하였고, 박종수는 260에이커를 경작하기를 희망하였다. 그 도급비용은 박윤옥^{朴允玉}이 대기로 하였으나 중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때 안원규가 그 비용을 제공하기로 하여, 결국 안원규는 대한인국민회 법무원 박종수^{林鍾秀}와 오아후 카할루 지역의 립비앤모넬^{Libby&Monell}사 소유 파인애플농장 400에이커를 5년 계약으로 도급을 받아 경영하였다.⁴³⁾ 농장의 경영은 박종수가 매달 40원을 받고 경영하였다. 박종수는 20여 명의 한인을 고용하고, 200원에 말을 사고, 곡물상을 차려 매월 판매대금 1,500원의 5%인 75원을 추심하여 토지임대 비용에 충당하는 등 수완이 뛰어났다. 그런데 안원규는 장래에 군단을 설립하려고 도모하는 박용만을 만나 박종수와 도급받았던 그 토지를 박용만이 운용하려는 군단의 한인들에게 경작을 맡겼다.⁴⁴⁾

안원규가 경영하던 양복점은 계속해서 발전하였다. 안원규는 1914년 5월 경 킹스트리트에 있던 양복점을 더욱 확장하여 베레타니아^{S. Beretania}와 킹^{King}스트리트의 코너에 지점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그 주무는 이호직으로 담당하게 하였다.⁴⁵⁾ 1914년 6월 경 그는 지점을 본점에 합하고, 본점 옆에 여자양복점을 아담스런 운치로 설립하여 운영하였다.⁴⁶⁾ 원래 이 여자양복점은 1914년 초 김유호가 자신의 양복점과 벽을 사이에 두고 위치하였는데, 서양인을 고빙하여 프랑스 파리에서 유행하는 양복을 만들어 판매하였고, 여자들에게 양복재봉을 교수하였다.⁴⁷⁾ 그런데 안원규는 김유호가 운영하던 여자양복점을 인수한 뒤 김유호와 달리 서양인이 아닌 한국부인을 고용하여 운영하였다.⁴⁸⁾ 1914년 7월 안원규 양복점에는 전화가 가설되었는데, 번호는 5230번이었다.⁴⁹⁾ 1914년 말 양복재봉업에 종사하던 안원규의 자본액은 6,000달러에 이르렀다.⁵⁰⁾ 그런데 이 양복점은 1916년 3월 상호는 그대로 사용되는 조건으로 송진현^{宋晉憲}에게 양도되었다고 한다.⁵¹⁾

안원규는 1916년 양복점의 양도 후 호놀룰루에서 ‘가옥 재임대업’을 하였다. 월수 약 80달러이고, 자산은 2,000달러에 달하였다. 호놀룰루에 거주하는 한인 중에서 유수의 상인이었다.⁵²⁾

안원규는 1916년 9월 양친 방문과 관광, 조선잡화 구입의 목적으로 6개월 예정으로 귀국하려고 계획하였다. 그의 귀국 목적은 상업적 이유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이와 아울러 박용만의 대조선국민군단의 운영과 관련되어 군자금을 모집하고, 모국의 유지와 기맥을 통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한인도 있었다.⁵³⁾ 혹 부인의 치료를 위하여 귀국하였을 가능성도 있다.⁵⁴⁾

1916년 9월 경 그는 내무부장(內務部長) 우좌의(宇佐義)의 소개장을 얻어 귀국의 길에 올랐다.⁵⁵⁾ 정운필(鄭允弼)과 춘양환(春陽丸)을 타고 호놀룰루를 떠난 안원규는 1916년 10월 9일 경 요코하마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10월 11일 요코하마를 출발하여 14일에 14년 만에 고향에 도착하였다. 그는 10월 22일 경성에 와서 기독교청년회 총무 윤치호를 방문하였다. 그리고 그의 소개로 공업전습소, 미술품제작소, 공진회적(共進會跡) 상품진열소, 총독부의원 등을 참관하였다.⁵⁶⁾

조선에 머무르던 중 그는 11월 10일 밤粟 17석, 조개 젓갈 4석 5두, 달래蒜 12관총, 잡어 젓갈 30관총, 소두 5두, 조선 하견(下犬) 20족, 도라지桔 83근을 하와이에 거주하는 박원걸(朴元傑) 앞으로 송부하였다. 동 11월 26일 선약(生知藥) 1근을 하와이에 거주하는 처에게 송부하였다. 그리고 그는 1917년 2월 3일 경성을 출발하여 요코하마에 도착한 후, 2월 23일 코리아(Korea)호를 타고 하와이로 돌아갔다.⁵⁷⁾ 1917년 3월 4일 호놀룰루 항에 도착하였다.⁵⁸⁾

1920년대 초반 안원규의 재산은 급속히 증가하였다. 1922년 양복재봉업을 하는 그의 자산액은 15,000달러에 이르렀다.⁵⁹⁾ 그리고 1923년 그의 재산은 무려 30,000달러였다. 그는 하와이에서 잡화상을 하는 40,000달러 재산가 정원명 다음의 두 번째 부자였다.⁶⁰⁾

1923년 안원규는 양복점을 카와이 하나페페에서 양복점을 운영하다 하와이 호놀룰루에 이주한 최두욱에게 넘겼다. 최두욱이 인수하여 운영하던 당시 이 양복점에서 고용한 직원은 30여명에 달하였다고 한다.⁶¹⁾

대신에 1923년 7월 안원규는 사우스 베레타니아^{S. Beretania} 346번지에 잡화점을 개설하였다. 이곳은 이전에 S. K. 송이 운영하던 곳이었다.⁶²⁾

1923년 7월 경 안원규는 하와이 거주 한인 중 자산액이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이었다. 일본 척식사무국의 조사에 의하면, 잡화상을 하고 호놀룰루에 거주하던 정원명이 40,000원의 자산을 갖고 있었고, 양복점을 하던 그는 30,000원의 자산을 갖고 있었다.⁶³⁾

한편 안원규는 1919년 10월 중한장유창유한공사에 참여하였다. 이는 일본의 간장이 유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한국인과 중국인이 늘 사용하는 간장과 된장 등의 제조·판매 회사였다. 류복구가 발의하였고, 여양, 박윤옥, 만방루, 연방호, 장발전, 문창호 등이 찬성하여 설립되었다. 안원규는 설립 당시 임시 이사원으로 참여하였다.⁶⁴⁾

그리고 그는 1921년 10월 하와이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 정원명, 정인수, 이호직, 정운서, 김경운, 이창준, 장봉희, 배인수, 유한흥, 안정송, 전영택, 서정일, 강영소 등과 한인장유회사의 설립을 추진하였다. 안원규 등은 “우리가 남과 같이 우리의 제품을 세계 사람의 수용을 공급하고 거대한 이익을 취하지는 못할망정 내가 하루 세 때씩 변치 않고 쓰는 식료품을 남의 손에 공급을 받으면 그 손해는 얼마나 되며 그 불편은 얼마나 하겠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발기를 추진하였다. 자본금 총액은 10,000원, 한 주당 가격은 50원으로 정하고, 1921년 12월 25일 안으로 약정금을 납입하도록 하였다. 장유제조소는 호놀룰루 갈리히에 넓이 50척, 길이 172척의 토지를 매입하여 넓이 36척, 길이 60척의 건물을 지어 사용하기로 하였다. 안원규는 임시재무로 선임되어 주무원인 박윤옥과 함께 이 일을 주관하였다.⁶⁵⁾ 한인장유회사는 일회를 배척하던 한인이 사용하여 시세가 좋았다.⁶⁶⁾ 1922년 10월 경 하와이를 방문한 김윤수^{金潤洙}의 전언에 의하면, 그 규모가 일본인이 독점하던 일본장유회사를 압도하고 있었다고 한다.⁶⁷⁾ 그러나 기술이 부족하여 중국에서 수입되는 물품과 경쟁하지 못하고 4년 후에 폐업되고 말았다.⁶⁸⁾

또 안원규는 호놀룰루한인상업회의 설립과 발전에 기여하였다. 1921년 5월 안원규는 정원명 등 실업에 종사하는 20여인과 호놀룰루한인상업회를 조직하였다. 안원규가 회장이었고, 총무는 박승준, 재무는 정원명이었다. 장사하는 한인으로 구성되고 회원은 입회금 100원, 월회비 5원을 내야 하였다. 차차 합자적 영업을 하려고 계획하였다.⁶⁹⁾ 안원규는 1926년에는 호놀룰루상업회의 회장으로 활동하였다.⁷⁰⁾ 호놀룰루한인상업회는 해방 후까지 존속하여 한인동포의 구제활동을 벌이기도 하였다.⁷¹⁾

대한인국민회와 한인단체 활동

안원규는 1906년 3월 10일 전도원, 정상교 등과 환난상구(患難相救)와 일화배척(日貨排斥)을 내걸고 와이파후공동회를 결성하고, 그 회장으로 활동하였다.⁷²⁾ 1905년 말 을사늑약이 체결된 후 하와이의 여러 지역에서 민족운동 단체가 조직될 때, 그도 와이파후농장에서 일하던 한인들과 상호 환난을 구제하고, 일화의 사용을 줄여 한인 상점을 살리기 위해 이 단체를 만들었던 것이다.

1907년 8~9월 하와이의 한인단체들이 통합운동을 벌여 합성협회를 설립하였을 때 그도 동참하였다. 그는 1907년 8월 말 전도원과 와이파후 공동회의 대표로 총 24개 단체 30명이 호놀룰루에 모인 합성협회의 합동발기대회에 참석하였다. 그리고 그는 5일 동안의 회의를 통해 합성협회를 설립하였다. 이 합성협회는 조국의 국권회복운동을 후원하며, 재류 동포의 안녕을 보장하며, 교육사업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각 단체에서 발간하던 신문을 통합하여 『한인합성신보』를 발간함으로써 실력을 집중하고, 언론을 일치시키고자 하였다.⁷³⁾

안원규는 1908년 4월 일본의 조선 통치를 변호한 스티븐스를 죽인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던 장인환과 전명운을 변호하는 활동을 선도하였다.

임시공동회에 참여한 그는 재무로서 자금 모집을 주관하였다. 자신도 5원을 기연한 안원규는 총 200원의 약정서를 받고, 당시 116원 80전을 모금하였다. 이 중 85원 70전을 장인환·전명운 의사의 구원 경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31원 10전을 샌프란시스코의 공동회에 송금하였다.⁷⁴⁾

1908년 4월 23일 호놀룰루에 도착한 해리스가 “조선은 금후 일본의 지도하에 발달해야 할 것을 대통령에게 진언하였다는 보도”가 알려지자 그는 항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심지어 1908년 5월 1일 안원규가 김건호(金建鎬), 이내수(李來洙), 이성실(李成實), 박원기(朴元基) 등과 해리스감독에게 해를 가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다.⁷⁵⁾

그는 1908년 말에서 1909년 2월 초 하와이 합성협회와 북미의 공립협회를 합하여 대한국민회를 조직하는 데 참여하였다. 1908년 11월 30일 하와이 합성협회와 북미의 공립협회의 합동을 발기하였을 때 안원규는 고석주·김성권·민찬호·이내수·강영소·한재명과 함께 한인합성협회의 대표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안원규는 제석주·김성권과 합성협회 측 규칙기초위원이 되어 공립협회의 규칙위원 3명과 회동체 명 (대한)국민회를 정하고, 규칙을 만드는 활동을 벌였다.⁷⁶⁾ 그리고 1909년 2월 1일 대한인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의 창립식에 참여하였다. 다음 <사진 1>의 첫줄 가운데가 안원규이다.



<사진 1> 하와이지방총회 임원(1909), 국가기록원

1909년 2월 19일 한일합병 소식이 알려지자 대한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에서 대동회를 개최하여 이를 막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을 때 그는 참여하였다. 공동회에서는 동경에 있는 송병준과 서울에 있는 이완용에게 전보를 발송하여 그 음모를 막기 위한 활동을 벌였다.⁷⁷⁾ 그는 이 활동을 위한 경비를 모금하였을 때 1원을 기연하였다.⁷⁸⁾

1909년 3월 대한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의 안원규는 하와이지방총회장 정원명 등과 '식산흥업회'를 창립하고 활동하였다. 사장은 대한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의 총회장인 정원명⁷⁹⁾이었고, 안원규는 감사위원이었다.⁸⁰⁾ 이 식산흥업회는 자본금을 모아 하와이의 각 지방에서 땅을 빌려 사탕수수과 커피를 직접 재배하거나 재배자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수익을 거두려고 하였다. 그 첫째는 빅아일랜드 코나의 훌나울로나 지방에서 한인 18인이 사탕수수밭 80에이커를 얻어 경작하는데 필요한 경비 1,000원을 제공하였다. 그리하여 80에이커를 한 사람당 6.75에이커씩 분배하여 사탕수수를 경작하여 생산된 사탕으로 대금 1,000원을 상환받고, 이익을 나누고자 하였다. 둘째는 코나 근방에서 땅을 빌려 커피를 경작하여 소매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올리고자 하였다. 셋째는 식산흥업회가 코나에서 직접 토지 100에이커를 빌려 사탕수수를 재배하여 수익을 올리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자본금이 필요하니 자본금을 한 구좌에 10원씩 모집하여 수만원의 자본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⁸¹⁾

1909년 6월 하와이지방총회장 정원명이 퇴각하고 이내수^{李來洙} 총회장체제가 출범하였을 때 그는 부회장에 선임되었다.⁸²⁾ 그러면서 그는 하와이와 이파후지방회에 속하여 활동하였는데, 1909년 8월 하와이에서 발간되던 『신한국보』의 발간을 돕기 위하여 1원을 기부하기도 하였다.⁸³⁾

1909년 8월 31일 안원규는 하와이에서 발간되던 영자신문 애드버타이저에 샌프란시스코의 전보^{傳報} 형식으로 사진과 기사가 소개되었다. 국민회 부회장 안원규의 사진이 고종황제 및 순종황제의 사진과 함께 실렸고, 안원규는 한인애국사의 향도자로 소개되었다.⁸⁴⁾ 이는 하와이 한인에게 안원규가

고종황제 및 순종황제와 각별한 인연이 있는 친황적 인물임을 알리면서, 안원규에게 친황적 한인애국사로 활동하게끔 하는 압력이었다.

1910년 안원규는 김성권 하와이지방총회장 시기 재무로 활동하면서⁸⁵⁾, 1910년 10월 경 한국과 하와이 간의 국제무역을 실시하는 한포무역주식회사의 재무 겸 사무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주당 10원의 주식으로 자본금 10,000원의 한포무역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국내에서 백하젓^{새우젓}, 굴젓, 암치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였다. 백하젓은 매근에 12전 반, 40근 한 통에 5원, 암치는 매근에 15전이였다.⁸⁶⁾

또 그는 1910년 7월 5일 정원명, 이내수, 민찬호 등과 하와이 각 지방의 대표를 호놀룰루에 모아 대동공진단^{大同共進團}을 조직하였다. 안원규는 재무였고, 단장은 정원명이였다. 정원명은 1909년 2월 8일 우체원^{郵遞院}의 주사로 파견된 근황적 인물로 1908년 합성협회의 회장, 1909년 대한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의 초대 회장으로 활동하였다.⁸⁷⁾ 대동공진단은 일제의 대한국 병합에 대한 반대와 독립전쟁의 전개를 위한 군인 양성을 결의하였다. 그렇지만 이것은 잘 추진되지 않아 국민회의 군인 양성 사업으로 변환되었다.⁸⁸⁾ 한편 그는 1910년 8월 무렵 국내에서 발간되던 『대한홍학보』를 위하여 제2차로 3원을 기연하였기도 하였다.⁸⁹⁾

1911년-12년 안원규는 하와이지방총회의 법무원과 농상무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1911년 정칠래지방총회장 시기 법무부 역원(임원)이였다.⁹⁰⁾ 그리고 1912년 2월 대한인국민회임원 선거에서 안원규는 하와이지방총회의 법무에 선임되었고⁹¹⁾, 신설된 농상공부의 책임자로 선정되었다.⁹²⁾

1913년과 1914년에도 그는 농상무원으로 활동하였다.⁹³⁾ 그는 도급농지의 확보를 지원함으로써 농사를 지으면서 다른 한편 군사훈련을 통해 군인을 양성하려는 박용만의 둔전병적 군인양성⁹⁴⁾을 후원하였다. 앞서 살폈듯이 그는 1913년 박용만과 박종수의 도급농지 확보를 후원하였다. 또한 그는 1914년 2월 2일 대한인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의 기념식 때 군인의 사열행진의 장관을 목격하고 파인애플농장을 군단에 들이겠다고 언약하였다.⁹⁵⁾

한편 안원규는 1911년 3월 4일 하와이지방총회의 사업으로 전前 하와이 지방총회장 정원명, 하와이지방총회 재무 한재명 등과 같이 한인농상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안원규는 한 주당 10원으로 1만주를 팔아 자본금 10만원의 한인농상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⁹⁶⁾ 그는 1913년 국민회 하와이 지방총회장 박상하가 농상무원 안원규 및 자본주가 회동하여 임원을 선정하였을 때 사무원으로 선출되었다.⁹⁷⁾ 1915년 안원규는 사장 박용만 밑에서 부사장으로 활동하였고, 한인농상주식회사는 수익이 별로 없어서 1915년 11월 폐쇄되고 말았다.⁹⁸⁾

그런데 이 한인농상주식회사는 안원규가 박용만, 이주연^{李周淵} 등과 함께 병학교의 설립운영을 위한 자금 모집의 통로로 활용되었다. 이주연^{李周淵}은 박용만이 동경에 유학 중 알던 사이였는데 국내의 각지와 블라디보스톡, 중국의 상해 등지를 유력하며 자금을 모아 물건을 구매한 후 안원규가 사장으로 있는 한인농상주식회사에 보내었다. 그러면 안원규가 그것을 시중에 팔아 자금을 마련한 후 박용만에게 제공하였다.⁹⁹⁾

이뿐만 아니라 안원규는 1913년 가을 한인중앙학원 학생으로 구성된 학도대를 위해 군복을 만들어 제공하였다. 1913년 가을 한인중앙학원은 남자 81명, 여자 18명 등 99명으로 4개 소대, 2개 중대, 1개 대대를 편성하였다. 당시 학도대는 카키색 군복과 흰 무명 군복 각 1벌을 학생에게 입힐 작정이었는데 안원규는 자신의 양복점에서 카키색 군복을 만들어 한인중앙학원에 납품하였다.¹⁰⁰⁾ 카키색의 군복은 미국 육군사관학생의 군복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고, 미국 육군병 및 네브라스카 소년병학교의 복장과 유사하였다. 다만 바지를 조금 다르게 하여 무릎 아래를 단추로 채우거나 노끈으로 엮지 않고 평복처럼 하였고, 그 위에 행전을 차게 하였다.¹⁰¹⁾

1915년부터 수년간 하와이지방총회가 내분에 휩싸였을 때 그는 하와이 지방총회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는 이승만이나 박용만·김종학의 어느 편도 들지 않았다.

그가 다시 하와이 한인단체를 위하여 활동한 것은 1921년 3월 하와이지

방총회가 해체되어 하와이 대한인교민단으로 새롭게 출범하던 때였다. 1921년 2월 대한인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의 총무에 선임된¹⁰²⁾ 그는 1921년 3월 대한인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를 해산하여 하와이 대한인교민단으로 재조직하는 일을 주관하였다. 그리고 그는 1921년 3월 21일과 22일 임원 선거를 거쳐 부단장에 선임되었다. 총단장은 민찬호였다.¹⁰³⁾

1923년 안원규는 민립대학기성과 물산장려운동을 후원하였다. 그는 1923년 7월 8일 누아누 청년회관에서 하와이민립대학기성후원회를 조직하고 재정모집원으로 활동하였다.¹⁰⁴⁾ 또 1923년 8월 안원규는 한인 상인들을 중심으로 물산장려운동후원회를 조직하고 이사원으로 활동하였다.¹⁰⁵⁾

한편 그는 강연 활동을 통해 한인의 경제력 증진과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1923년 4월 28일 호놀룰루청년회관에서 백여 명의 한인 남녀 학생 앞에서 연설을 하였다.¹⁰⁶⁾ 그리고 1924년 3월 1일 교민단 주최의 '3·1절 기념식'에서 <경제적 독립>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¹⁰⁷⁾ 그리고 1925년 3월 2일 교민단 주최의 3·1절 기념식에서는 「오인 생활의 방도」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¹⁰⁸⁾

안원규는 1923년 감리교의 교인과 감리교학생기숙소를 건설해주었다. 하와이의 감리교 유력 인사들은 여러 해 동안 감리교학생기숙소의 설립을 희망하였으나 재정의 어려움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런데 7월 29일 감리교 임원회의에서 우선 남학생 기숙소를 먼저 설립하기로 하고, 이 일은 안원규가 현순, 이태성, 강영각과 함께 주선하기로 하였다.¹⁰⁹⁾ 그리하여 1923년 9월 10일 아침에 상량식을 거행하였다. 이 기숙소의 감독은 현순 목사이고, 간사는 강영각이었으며, 안원규는 정월명, 남세운, 김이제, 현선, 박세환, 변성원 등과 이사부원으로 활동하였다.¹¹⁰⁾

1924년 5월 안원규는 교민단의 임원으로 민찬호, 광래홍, 양유찬, 김영기 등과 국내 야구단을 초청하여 기념시합을 갖는 행사를 벌였다. 그는 본국에서 하와이를 방문한 야구단을 환영하는 행사를 갖기로 하고 1,500원의 기부금을 모집하였다.¹¹¹⁾ 그리고 6월 17일 국내 야구단이 하와이를 방문하자 이들의 기숙과 연습을 후원하였다.¹¹²⁾

한인통합 및 재미한족연합위원회 활동

이승만이 탄핵되고 네 달이 지난 1925년 7월, 태평양회의에 참석하였던 서재필박사가 하와이를 방문하여 하와이의 주요 한인 인사들이 모여 한인의 단합을 위한 집담회를 개최하였을 때 안원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다.¹¹³⁾

이승만(전 대통령): 나는 모든 일을 잘하라고 하였고 아무튼지 혐의가 없소. 이렇게 모이는 것은 서박사나 계시면 될는지? 우리끼리는 어렵소.

현순(감리교 목사): 장래 우리일을 더 잘하려면 백성을 속이지 말고 참빛으로 인도 할 것이요, 인도자라는 사람이 서박사가 와 모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자기네끼리 스스로 모여서 의미도 있고 담화도 하여야 되 겠으니 이박사부터 시작하면 나같은 가난한 자도 찬잔이나 준비 하여 모으겠소. 또 무슨 정책이 있거든 두어사람만 모여서 우물 쭈물 하지말고 공중에 나와서 정견을 발표하여 봅시다.

황사용(감리교 목사): 나는 시골사람인 고로 시골인심을 잘 알우. 시골사는 한 인들은 우리 하와이에서 한인 가운데 여러 단체가 있더라도 자기 기관이 하나만 되기를 원합니다.

안원규(실업가): 합한다고 하면 도로 해가 많소. 그러므로 합한다는 말은 그 만 두고 우선 이곳에 모인 사람부터 정의를 돈목합시다. 여러분 이 원하시면 내라도 먼저 음식을 차리고 당신들을 청하겠습니다.

박용만(독립단 영수): 우리는 다 실패한 사람이야. 실패한 사람은 물러가는 것이 이치에 상당하니 실패한 우리는 물러가고 청년들에게 맡겨서 일을 진행합시다.

민찬호(기독교 목사): 나는 말은 좋아 아니하고 일만 좋아하는 사람이올시다.

이승만(전 대통령): 모이기는 무엇을 모인단 말이요. 마음은 고치지 않고 모이면 무슨 일이 되오. 그런즉 여러분이 회개들 하시오.

신흥우(본국 대표): 당신네들을 먼 데서 망원경을 끼고 들여다 볼 것 같으면 다 땀뿍들이요.

이처럼 대동단결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와이의 한인 대표자들이 분열하는 것을 보고 안원규는 우선 서로 정의를 돈독히 하고 화목하여 지내자고 하였다. 그는 사업가다운 태도로 쉬운 친목을 도모하는 일부터 먼저 추진하자고 하였다.

안원규는 1928년 교민단의 대표로 대한민족통일촉성회의 결성에 참여하였다. 대한민족통일촉성회는 “① 전 민족정신을 단결하여 운동의 전선을 일치시킨다. ② 전 민족의 역량을 집중하여 대업의 책임을 다한다. ③ 전 민족의 이상을 종합하여 국가건설을 선미^{善美}케 한다.”는 강령을 실천하려 한 단체였다.¹¹⁴⁾ 그는 1928년 4월 경 이 촉성회의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동년 5월 누아누 청년회의 한인부 고문 대표로 이 촉성회의 서무부의 7인 집행위원 중 한 사람으로 활동하였다.¹¹⁵⁾

이어 그는 1930년 독립운동의 촉진을 위하여 하와이 한인협회의 조직에 참여하였다. 1930년 1월 13일 발기된 하와이 한인협회는 “민족주의에 기인하여 대한독립운동을 촉진함”을 주의로 하였고, “임시정부로 중력을 집중함”, “운동의 방략은 최후 1인 최후 1각까지 분주함”, “독립당 통일을 기성함”을 정강으로 하였다.¹¹⁶⁾ 한인의 통합을 염원하였던 안원규는 1930년 4월 3일 동지회, 독립단, 교민단 등의 대표들이 하와이 한인의 통일을 위한 만찬회를 개최하였을 때 자신의 집을 제공하기도 하였다.¹¹⁷⁾

하와이 대한인국민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던 1936년 4월 국내에서 조선총독부의 신사참배 강요에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나자, 안원규는 하와이의 한인들과 이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현순, 김이재, 한길수, 조경천, 정원명, 이태성, 손창희 등과 “한국교회를 핍박하여 신교자유를 불허하는 위헌적 비법행동^{非法行動}이라.”고 격분하여 교회연합회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일본에 대한 항의요구서를 미국 대통령, 상의원하의원, 각 교회와 각계 명사에 보내는 활동을 하였다.¹¹⁸⁾

1937년 중일전쟁의 발생 후 그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지원 활동을 벌였다. 1937년 8월 “혈성금의 모집, 예비군의 등록과 훈련” 등을 요청하는

〈임시정부특전〉을 받고¹¹⁹⁾, 부회장 안원규는 회장 등과 공동회, 국민대회, 유지인사모임 등을 통하여 혈성금을 모아 임정에 지원하기로 하였다.¹²⁰⁾ 이어 안원규는 8월 15일 국민대회에서 사회로 혈성금 모금 결정을 도출하였고¹²¹⁾, 자신도 매달 2원을 출연하기로 약속하였다.¹²²⁾ 그리고 1937년 9월 26일 호놀룰루선교기념관에서 개최된 국민대회에 참석하여 혈성금의 모집에 기여하였다.¹²³⁾

중일전쟁의 발생 후 그가 벌인 또 다른 활동은 하와이 한인사회의 통합이었다. 1937년 9월 그는 “어느 민족이나 합동되지 않고는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도 이번에 전국이 합동된 까닭에 저 전쟁을 저만큼 잘하는 것이니 우리도 합동합시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우리 민족 극소수 사람이 합동을 반대하니 일반인들이 합동을 원한다는 의사를 발표하자고 하였다.¹²⁴⁾ 1937년 10월 8일 안원규는 대한인국민회 총임원회에서 “임시정부를 봉대하여 독립운동을 극력 후원하려는 이유로 명칭과 직원 등 문제에 구애되지 않고 무조건적 절대 합동을 주장할 것”이란 결정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런 의사를 동지회에 공문으로 알리고, 박종수박상하정인수를 ‘제2단 교섭위원’으로 정하여 합동을 추진하기로 합의를 모았다.¹²⁵⁾

1937년 10월 국민회와 동지회의 합동 문제에 있어, 안원규는 합동이 법칙상 문제가 아니고 도덕상 문제이니, 합동의 전제조건은 심리개량이라고 하였다. 그는 자신이 합동의 방해자와 큰일의 마귀가 되지 않기를 다짐하며 다음과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갖도록 권유하였다. 그 내용은 “① 남이 지는 책임을 혹 내가 회피하거나, 남에게 가는 공로보다 더 많은 공로를 내가 자허_{自許}하지 않는가? ② 나는 다 잘하는데 남이 다 잘못한다는 망상으로 도덕과 예모_{禮貌}를 손상치 않는가? ③ 빙공영사_{憑公營私}의 술책으로 개인과 개인을 이간하고 단체와 단체를 추격하지 않는가?”였다.¹²⁶⁾

대한인국민회 대의장 안원규는 1937년 11월 26일 총회관에서 임시대의회를 주재하여 국민회와 동지회의 합동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행정부에게 동지회의 적법 대표들과 합석하여 이 사항을 토의하게 하였다.¹²⁷⁾

안원규는 1938년 3월 13일 오후 7시 반에 총회관에서 개최된 <고 도산 안창호선생 추도회>에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는 국민회의 동지들과 안창호를 추도하고, “우리 2천만 형제자매는 선생의 뜻을 이어 우리의 대업을 완성키로 새로운 두터운 맹세를 지을지이다.”라며 선생의 광복을 향한 뜻을 계승하기로 하였다.¹²⁸⁾

1938년 11월 18일에서 12월 7일까지 13차로 전개된 대한인국민회와 동지회의 통합을 위한 연합회의에서 안원규는 의장으로 활동하였다. 비록 뚜렷한 합동의 성과를 내지는 못하였으나 다른 합동운동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였다.¹²⁹⁾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1940년 9월에는 대한인국민회와 동지회 간의 통합을 위한 연석회의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통합운동의 결과, 1941년 4월 19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해외한족대회가 개최되었을 때, 안원규는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였다. 4월 20일 안원규는 대회 위원과 함께 개회를 선언하고 이날 회의에서 안원규는 위원과 함께 독립전선의 통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봉대, 군사행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광복군과 의용대의 합동 촉구, 대미외교기관 외교위원회 설치, 미국 국방공작의 후원과 한길수의 국방봉사원 임명,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설립, 독립금의 납부 등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4월 27일 공동대회를 통해 조정되었고, 4월 29일 「해외한족대회 결의안」으로 발표되었다.¹³⁰⁾

안원규는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의사부의 부위원장과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1941년 5월 14일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의사부의 부위원장에 선임되어 활동하였고, 1943년 8월경부터는 의사부 위원장 대리의 역할도 수행하였다. 이어 그는 1943년 9월 20일부터 1944년 9월까지 의사부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¹³¹⁾ 1944년 9월 30일 재미한족연합위원회가 의사부와 집행부에서 비서부·재무부·군사부·조사부·선민부·교제부의 6부로 나누고 임원을 선정하였을 때 안원규는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¹³²⁾

1941년 9월 25일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의사부 부의장 안원규는 이승만에게

편지를 보내어 이승만이 독자적으로 외교위원부를 조직하고, 그 통신을 발간하고 별도로 지원금을 모집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였다. 그는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틀 아래에서 활동하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의 사항을 통지하였다. ① 우리의 민족적 대의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친구들을 존경하지만, 우리는 그 친구들이 지금까지 귀하가 작가이자 제작자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파벌 싸움에 참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친구들 가운데 몇몇은 이미 파벌 싸움에 참여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②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예산으로 매달 귀하에게 송금하는 1,200달러는 분명히 한미협회를 위한 할당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③ 귀하가 공금에 의지하는 비용은 액수가 얼마이든 반드시 고정 예산에 근거해야 하고, 귀하가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듯이 개인적인 요구에 근거해서는 안 됩니다. ④ 만약 귀하가 우리 한국인들의 통합을 유지할 수 없다면, 귀하는 다른 곳에서도 많은 것을 얻거나 지원받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¹³³⁾

1942년 안원규는 미국의 정부와 의회, 중국의 국민당 등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해주기를 거듭 요청하였다. 1942년 3월 1일 3·1절 경축행사에 참석한 안원규는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의사부 위원장 대리로 사회를 보았다. 이 자리에서 그는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승인해주기를 요청하였다. 이 자리에서 독립금을 모금하고, 마지막으로 조선독립, 임시정부, 연합국 승전, 루스벨트 대통령의 무운을 기원하였다.¹³⁴⁾ 또 1943년 6월, 안원규는 미국의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승인 요청안을 제출하고 통과를 부탁하였다.¹³⁵⁾ 그리고 1944년 5월 17일에는 중국국민당 제12차 대회에 전보를 보내어 대회의 성공을 축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식 승인을 요청하기도 하였다.¹³⁶⁾ 아울러 그는 1942년 6월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의사부 위원장 대리로 연합군의 승전과 조국의 독립을 위한 9개의 결의안을 마련하여 반포하였다.¹³⁷⁾ 이것은 한인의 독립전쟁 참여를 독려하면서, 공동으로 항일투쟁을 하는 미국에게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승인하고, 한국의 독립을 지원해달라는 의미였다.

1943년 음력 1월 3일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의사부 부위원장 안원규는 한미승전후원금을 모금하여 미국정부에 제공하기로 결정하고, 자신도 상당액을 기연하였다. 그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금번 기망일(음력 1월 3일)에 우리 성심으로 몇 만원이 되든지 미국에 바쳐서 충성을 보입시다. 우리는 다 늙어서 출전하지 못함에 그 대신에 돈을 내어 미국 정부에 바쳐서 그 돈으로 폭탄을 사서 일본공습에 쓸진데 연합국 승전이 순성(順成)될 것이외다.”라고 기연을 독려하였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100원을 출연하였다.¹³⁸⁾

1943년 7월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의사부 부위원장 안원규는 하와이주 당국과 협의하여 한인을 적국인으로 간주하지 않고, 시민 혹은 친선국의 국민으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하와이의 한인들은 재정 동결의 면제, 국방 봉사에 무차별, 단파 라디오 소유, 술 사는 허가, 국방 금지 구역 출입, 적의 공습으로 파상 당한 재산 배상 급 보험, 약재 구입 등의 제반 특권을 보유하게 되었다.¹³⁹⁾

1943년 8월 안원규는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의사부 위원장 대리로서 한인들이 미국 국방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독려하였다. 그는 소재국 정부의 국방을 돕는 데 최고의 경의와 최대의 힘을 다해주도록 요청하였다. 또 시민·비시민을 물론하고 한인들이 국방원조자금을 8월 29일까지 내주기를 부탁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일을 지방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돕기를 부탁하였다.¹⁴⁰⁾

안원규는 1943년 10월 호성저금회를 창립하였다. 10월 17일 국민회총회관에서 개최된 호성저금회 발기 모임에서 그는 임시회장에 선임되었다. 그는 10월 31일 개최된 총회에서 조제언·양유찬·김현구가 기초한 규칙을 통과시키고, 회비와 자본금을 모금하기로 결정하였다.¹⁴¹⁾

1943년 이승만과 동지회가 재미한족연합위원회에서 나가 주미외교위원부를 재미한민족운동의 중심으로 삼으려 하자,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의사부 위원장 안원규는 ‘위싱턴사무소’의 설립을 통해 이에 대항하였다. 안원규는 1943년 12월 27일 이승만과의 공식 단절을 선언하고 외교를 담당하는

‘워싱턴사무소’의 설립을 공식으로 천명하였다. 그리고 1944년 4월 6일 워싱턴사무소를 설립하였다. 그러자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44년 8월 경 재미한인의 결속을 위하여 ‘주미외교위원부’ 대신 ‘주미외무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추천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합의되지 않아 재미한족연합위원회가 1944년 11월 17일 위원장과 위원을 통보하였을 때, 안원규는 김원용과 같이 하와이 대한인국민회를 대표하여 위원으로 선정되었다.¹⁴²⁾

한편 안원규는 재미한족연합위원회와 주미외교위원부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자 와하야와에 본부를 둔 한국독립당 하와이지부 외에 별도로 호놀룰루지부의 결성을 추진하였다. 1944년 5월 21일 그는 대한인국민회 총회관에 모인 20여 인의 유지와 한국독립당 호놀룰루지부를 창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어 그는 호놀룰루지부 창립 발기회 의장으로 회의를 주관하여 최두옥·정두옥·정봉관·김익룡·도진호로 하여금 창립을 준비케 하였다.¹⁴³⁾ 그리하여 1944년 7월 30일 한국독립당 호놀룰루지부의 창립식이 개최되었을 때, 안원규는 사회로 약사, 취지설명, 선언서 낭독, 각처로부터의 축문 낭독을 하였다.¹⁴⁴⁾

1945년 4월 22일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임원 선거에서 그는 임원으로 선정되지 못하였다. 위원장은 김원용이었고, 부위원장은 정두옥이었다.¹⁴⁵⁾ 68세가 되는 고령이었기에 건강을 고려하고, 후진을 배려한 용퇴였을 것이다.

그가 해방 전 독립을 위해 벌인 마지막 활동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정헌법 통과와 거국내각 출범을 축하하는 행사였다. 그는 이 축하회의의 비용을 정두옥·최두옥·유동면과 함께 부담하였다. 백발이 성성한 모습으로 나타나 그는 개회 인도를 하였다. 이 축하회에서는 도진호의 「조선민족의 해방」이라는 연설과 현순의 “깨뜨리는 것, 새로 세우는 것 등의 철저한 이론과 분명한 사실과 재미스러운 예증을 갖춘 「혁명」이란 연제의 강연이 있었다.¹⁴⁶⁾

안원규는 1947년 5월 20일 우연히 신병을 얻어 쿤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다가 불행하게도 5월 22일 오전 8시 45분에 별세하였다. 향년 70세였다. 장례식은 6월 24일 윌리엄장외소에서 거행되었다. 당일 오전 10시부터

호상객^{護喪客}이 구름같이 몰려 장소에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화한이 가득하고, 부의금이 거액에 달하였다. 오후 2시에 입관식을 거행하고 이어 발인식을 행하였다. 운구는 국민회 총회관 앞에서 잠시 정거하고, 사택을 경유하여 따몬헤드 기념공원에 안착하였다. 그리고 안창호^{安昌鎬} 목사의 기도와 정의조 목사의 성경 일절 낭독으로 하관식을 거행하였다.¹⁴⁷⁾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대한민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 임원들은 「고 안원규공의 약사와 추도사」에서 그를 다음과 같이 평했다. “(연합회 의사가 되고 총회장으로 피선하여) 허영적 직업적 양 기선에서 초월하여 희생적 복무를 실행한 고로 공익사업이 점차 발전한바 세상창해는 고금에 슬퍼하는 바이다. 공은 70년을 1기로 엄연히 거불귀 하시나 사회의 동량이 부러졌고 민족의 불행운을 슬퍼한다. 오호라! 공의 전공을 추상하니 산과 같이 높고 바다와 같이 깊도다. 이에 오등은 삼가 향기로운 꽃 한 타래와 다만 두소사 1폭으로 공의 영전에 봉정함.”¹⁴⁸⁾ 그리고 동해수부 홍언은 안원규의 서세를 슬퍼하며 다음과 같은 사조^{詞藻}를 남겼다.

방초는 석양이오, 황토로 성분한 후, 고인이 가옵시고, 소식이 막막하니,
금강봉 푸른 바다에, 흰 달빛만 있더라.¹⁴⁹⁾



〈원문출처〉

이 글은 다음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작성되었다.

조규태, 「하와이 이주민 안원규의 사회경제적 삶과 민족적 활동(1903-1947)」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15,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23.

〈저자소개〉

조 규 태 (한성대학교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조규태는 서강대학교에서 『1920년대 천도교의 문화운동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현재는 한성대학교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의 교수와, 한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한국민족운동사학회의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한인의 해외 이주 및 이주지에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미국 맨티카 한인사회의 형성과 민족정체성(1916~1925)」(2020), 「1920년대 북간도지역의 천도교와 민족운동」(2020), 「1920년대 북경지역의 흥사단원과 민족운동」(2021), 「미주지역 한인의 적십자 조직과 민족운동」(2021) 등의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XII

알제리 식민지 개발과 프랑스의 이주 정책 (1830~1889) -프랑스 만들기와 이주-

문 중 현
세종대학교

머리말

오늘날 흔히 받아들여지는 이주는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옛 식민지 국가에서 옛 식민모국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인구이동을 의미하지만 19세기 제국주의와 대이주의 시대에 유럽과 알제리 사이에서는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 지중해 북안 유럽에서 지중해 남안 북아프리카로의 이주는 1830년 프랑스가 알제리를 침략한 이래 국가적 차원의 식민지 개발 사업의 일부로 꾸준히 추진되었다. 식민이란 식민모국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에 자국민을 정착시킬 목적으로 개발하는 활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식민지 역사는 한편으로 정착민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식민지 알제리의 역사가 오랫동안 프랑스 현대사의 중요 연구 분야로 자리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19세기 지중해 지역의 인구이동 대부분을 차지한 유럽계 정착민(colon européen)의 역사는 오랫동안 소홀히 다루어 졌다.²⁾ 1962년 알제리 독립과 함께 프랑스 제국이 급속하게 해체되면서 피에 누아르(Pied-Noir)로 불린 약 100만 명의 유럽계 이주자는 갑작스럽게 송환(rapatriements)될 수밖에 없었고

자신들의 유산과 흔적을 알제리에 남길 수 없었다. 프랑스로의 송환 혹은 귀환이라는 용어는 그들의 불안정한 정체성을 보여준다. 실제 그들에게 송환이란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대에 걸쳐 살고 조상이 묻혀 있던 고향에서 뿌리 뽑혀 유럽으로 이탈하는 것에 불과했다. 식민지 시절부터 유럽 정착민을 향한 관심은 주로 인구 통계학에 머물러 있었는데³⁾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알제리에 정착한 유럽 공동체의 이민과 정착, 생활과 문화가 연구되기 시작했다.

프랑스 정부가 알제리 전쟁 동안 알제리 독립을 부정하는 목적으로 프랑스인의 알제리 *Algérie française* 용어를 사용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알제리를 식민지로 규정하는데 주저했다. 하지만 알제리 독립 당시 전체 인구 900만 명 중 약 100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유럽계 소수 민족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은 알제리가 프랑스의 정착식민지 *colonies de peuplement*였음을 보여준다. 미국, 캐나다, 호주와 같이 원주민을 강제로 이주시켜 보호구역에 가둔 식민지와는 다르지만, 19세기에는 유럽계 정착민의 이익을 위해 원주민들이 소유하고 경작하던 지역을 축소, 약탈하는 정책이 시행된 공간이었다.⁴⁾

다소 즉흥적이었다고 평가받는 샤를 10세의 군사적 침략을 이어받은 7월 왕정(1830~1848)은 원활한 알제리 통치와 몰수한 토지에 대한 통제권을 지속시키는 방법으로 이주민의 정착을 추진했다. 정착촌 건설을 통한 식민화의 목표는 프랑스 문명을 이식하고 아랍인들의 후진적이고 정체된 관습을 대체하는 것이었다. 1834년 7월 왕령 *ordonnances*에 따라 알제리는 ‘프랑스 점령지 *les possession françaises*’가 되어 전쟁부가 관할하고 총독이 통치하는 지역 *une colonie militaire*이었다. 이후 식민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1848년 7월 왕정을 타도한 제2공화국은 알제 *Alger*, 오랑 *Oran*, 콩스탕틴 *Constantine*에 지위 *départements*를 부여해 프랑스의 일부, 즉 ‘단일한 프랑스의 영토’로 통합했다.⁵⁾ 행정적 통합에 발맞추어 이주 장려정책도 실행되기 시작했다. 한데, 1830년대와 1840년대 알제리에 첫 번째로 도착한 식민지 개척자는 프랑스인들이었지만 스페인, 이탈리아, 몰타, 그리스 등 지중해 지역에서 온 이민

자들이 빠르게 늘어나 프랑스 출신 정착민 수를 넘어섰다. 1850년에는 알제리에 거주하는 483,500명의 유럽 식민지 개척자 중 절반 이상이 프랑스 이외의 국가 출신이었다.

이 논문은 샤를 10세의 침공 이후 실행된 이주정책에서부터 속지주의 원칙에 따른 '1889년 국적법' 제정으로 유럽계 정주민에게 국적을 부여해 안정적 정착민 인구가 형성되기까지 메트로폴리스 정부와 식민지 정부에 추진된 이주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알제리 식민화가 과연 프랑스인에 의한 식민화였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알제리 식민화 과정의 초기 역사에서 유럽인 이주는 지중해 건너편에 식민 정착지를 개발하고 프랑스로 만드는 과정의 필수 요소였다. 프랑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전제로 고안된 개발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고 구체적 전략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알제리가 메트로폴리스 잉여인구 조절을 위한 적절한 정착 식민지가 될 뿐만 아니라, 노동력을 공급해 개발하면 식민지와 식민모국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추진되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프랑스계 정주민 사회 건설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실패에 가까웠다. 마그레브 지역 여름의 고온에 익숙하지 않은 정착민들은 기후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제공된 정착촌도 간이 수용소에 가까웠을 정도로 생활환경은 열악했다. 이주민을 모집하면서 프랑스 정부가 약속한 희망을 알제리에서 찾기는 쉽지 않았다.

다음으로 알제리 무슬림 원주민 인구를 압도하는 정착식민지를 건설을 위해 프랑스가 추진한 가족 단위의 이주, 여성 이주를 통한 가족 형성, 이주민을 통한 농업개발 등의 계획은 준비 부족으로 수많은 난관에 부딪혀 미미한 성과만 남았고, 비프랑스계 유럽인 이주를 통제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음을 밝히고자 한다. 특히, 메트로폴리스 정부와 식민지 정부 모두 의욕적으로 추진한 여성 이주정책 수립의 목적과 결과를 살펴볼 것이다. 식민지 정착민 사회의 불균형한 성비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인구성장을 위해 추진된 여성 이주는 정책적 차원에서 추진되었지만, 결과는 부분

적으로 성공했을 뿐 실패에 가까웠다고 평가받는다. 알제리 인구증가는 프랑스 이외의 다른 국가에서 이주해온 여성들이 ‘1889년 국적법’을 통해 프랑스인이 되면서 안정적 궤도에 진입하였다. 프랑스 국적에 대한 개방성은 인종, 민족적으로 구분되는 여성들에게 동일한 권리를 부여해 문화적, 사회적 ‘유럽 여성’으로 빠르게 만들었다.⁶⁾

알제리 유럽계 정착민은 자유롭게 이주(migrations libres)한 사람들과 프랑스 정부의 보조와 지원을 받은 이주자(migrations assistés)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두 가지 이주의 역사는 19세기 유럽 대이주(grande migration euroéenne)와 프랑스 제국주의가 북아프리카에 남긴 역사의 일부이다. 오스만 제국이 지배하던 시절부터 알제리는 지중해 전역에서 이주민을 끌어들이는 공간이었다. 군사적 정복 동안 유럽계 인구는 식민지 알제리에서 소수에 불과했지만, 영토적, 지리적 약탈을 동반한 식민화가 가속되면서 유럽계 이주자의 수가 증가하고 지리적 경계 또한 확장됐다.

이주 장려와 ‘나쁜 이주자’ 통제 정책

1830년 프랑스의 침공으로 알제리를 식민화한 이래 프랑스 정부는 꾸준히 이주장려 정책을 추진하였다. 프랑스 이주, 인종, 식민사 전문가인 리오주(Claude Liauzu)는 그의 저서 『서지중해 이민사(Histoire des migrations en Méditerranée occidentale)』에서 프랑스가 추진한 이주 정책은 상대적으로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농촌 지역까지 포함하는 알제리 전역을 식민화하려는 꾸준한 정책 추진은 목표와는 달리 스페인, 이탈리아의 해안지역, 몰타에서 온 이주민 유입이 꾸준히 증가했다. 프랑스 식민정부의 인구조사에 따르면, 1866년 217,099명의 유럽계 이주민 중 프랑스인은 56%에 머물렀고 1872년에는 245,117명 중 53%가 프랑스인, 60%가 도시에 거주하였다. 프랑스 정부의 노력에도 다수의 유럽계 외국인(Euro-étrangers)이 지중해 연안지대의 도시인

알제, 본Bône, 필립빌Philippeville에 정착했다.7)

정주민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며 늘어만 간 유럽계 정주민의 수는 알제리 식민화 정책을 출발부터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이주에 대한 조직적 통제와 필요성이 제기됐다. 다수의 혼성적인 유럽계 정주민 사회의 인구구성에 관해 북아프리카의 이국적인 정취를 찾아 떠난 여행객들은 식민지 도시의 개방성과 코스모폴리탄 성격에 찬사를 보냈지만, 식민지 정부는 경제적, 안보적 위협으로 여겼다. 1831년 3월 28일, 알제리 총독으로 임명된 피에르 베르테젠Pierre Berthezène 장군은 “스페인, 이탈리아, 특히 몰타가 이 해안으로 토해낸 모든 부랑자”라고 유럽계 이주민을 바라볼 만큼 이방인의 이주를 환영하지 않았다. 특히, 당시의 인종주의적 종족 구분에 따르면 남부 유럽과 지중해 섬에서 온 이민자는 전혀 프랑스인과 같은 유럽인이 아니었다. 1834년 아프리카 위원회Commission d’Afrique는 독일과 스위스 출신의 이주자에 대해서는 “질서와 노동의 습속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선호한다”라고 보고했다.8) 실제로 프랑스 정부는 벨기에, 스위스 독일 등 북유럽 국가에서 알제리로의 이주민 모집 사업에 적극적이었다. 이에 반해, 남유럽 이주자는 식민지 사회에서 일어나는 도덕적, 사회적 무질서의 원인으로 비난받았고, 프랑스 정부, 식민지 정부 모두 그들의 이주를 꺼렸다. 식민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프랑스계 이주자의 수와 부족한 노동력으로 인해 스페인, 이탈리아, 몰타 등에서 몰려드는 이주의 물결은 거스를 수 없는 현상이었다. 당시 프랑스인은 알제리에 대해 낭만적인 오리엔탈리즘을 불러일으키는 환상의 땅이면서도, 개발과 정착에 가혹한 불모지라는 뒤섞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식민지 의료정책 담당자들은 어쩔 수 없이 늘어만 가는 남유럽 출신 정착민을 알제리 기후에 육체적으로 더 적합한 이주민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었다. 19세기 말에 이르러 일부 식민주의자들은 북유럽인과의 ‘융합fusion’하고, 식민지 생활에 잘 적응하는 새롭고 더 활력 있는 ‘라틴 인종’과의 사이에서 정착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9)

식민화 초기 이주정책의 목표는 ‘나쁜 정착민^{mauvais colons}’이 알제리 땅에 밭 디디는 것을 억제하는 데 있었다. 초기 정착민들의 사회적 특징은 알제리에 가족 단위의 농민을 정착시키려는 식민지 정부의 의지를 좌절시켰다. 대부분의 개척 사회와 마찬가지로 알제리의 식민지화 초기 정주민의 대부분 남성이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1830년대에는 유럽인 여성 한 명당 유럽인 남성이 두 명 이상이었는데, 이러한 정착민의 성비 불균형은 이후 서서히 감소하여 1870년에 이르러서야 거의 대등한 남녀 성비에 도달했다.¹⁰⁾

식민지 정부는 가족이 중심이 되는 식민지 사회의 문명화 사명과 더불어 ‘도덕화^{moralisatrice}’를 중요한 식민화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유럽에서 성매매업에 종사했던 여성이 알제리로 유입되는 것을 크게 우려했다. 또한, 유럽 이주민 인구가 보이는 젊은 세대의 증가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자녀 수가 인구의 정주민 사회의 경제적, 문화적 활기를 나타내는 것이었지만, 메트로폴리스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미혼모의 출산율은 식민사회의 성적 타락을 보여주는 통계 지표로 이해되었다. 식민지 정부는 미혼모의 높은 출산율을 도덕적 타락으로 간주해 식민지 사회가 불안해 지고 있다고 이해했다.

그리고 초기 이민자들의 직업적 성격 역시 식민지 정부의 기대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식민지 정부는 언제나 농촌에서의 가족 단위 정착민을 선호했고, 파리 정부는 알제리 토양을 비옥하게 할 수 있는 숙련된 농부들을 유치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럽 이주민은 육체적, 도덕적, 경제적으로 알제리 식민지 개발에 적합하지 않은 도시의 가난한 농민, 미숙련 노동자, 장인 등이었다. 이들의 사회적 배경과 개인적 능력은 농촌 생활과 농업에 적합하지 않았다. 알제리 농촌 개발에 필요한 노동력은 고향과 알제리 사이 이동이 쉬웠던 스페인 출신 계절 농업 노동자들이 담당했다.

정착민 중 다수를 구성하는 인구는 노동자 계급 출신이었다. 식민지 정부 관료들은 노동계급 출신 이민자들이 국가에서 제공한 지원금을 바탕으로 정착한 이후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빈약한 저축을 빠르게 소진해 더욱더 국가 지원에 의존하게 될 것을 걱정했다. 그리고 가난한 노동자들이

술집이나 ‘부도덕한’ 업소를 출입할지도 모른다고 염려했다. 때로는 이주민 중 일부를 부동산이나 각종 투기적 사업을 통해 돈을 벌려는 ‘모험가’와 ‘투기꾼’으로 비난했다. 알제리 땅에 영구적으로 정착하지 않는 이주민에 대한 경계심이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었다. 1846년 알제리 유럽계 정착민 109,400명 중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16,422명에 지나지 않았고 담뱃가게, 카페, 식료품점 등의 도시 중소매매업에는 1,500명 일했다. 대부분의 이주민 노동자의 이직률이 높아 매우 유동적인 집단이었기 때문에 식민지 사회에 제대로 뿌리 내렸다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¹¹⁾

역설적이게도 노동계급 출신 이주자 증가는 식민 당국이 시행한 정책의 자연스러운 효과였다. 당시 알제리에서 우선적 과제는 압-델-카데르(Abd-el-Kader)와의 전쟁이었고, 무엇보다 전쟁 수행을 위한 물자 운반에 필요한 대규모 인프라 건설 등의 공공사업에 노동자와 장인이 필요했기 때문이다.¹²⁾

1838년 전쟁부 장관이 알제리로 이주자를 유도하기 위해 국영 선박에 대한 무료 탑승권을 제공했을 때, 탑승권을 얻기 위한 기준은 식민지 정부보다는 식민모국의 정책에 더 부합하는 것이었다. 식민주의 이념에는 농민의 이주가 적합한 것이었지만, 현실적인 노동력 수요가 반영됐다. 이주자 선별기준은 민간 및 군사 건설 현장에 적합한 기술을 지녔는지 가늠하는 것이었다. 프랑스 대도시의 시장들은 노동자들이 원하는 분야에서 높은 임금을 지급한다고 광고하면서 이주 지원자를 모집했다.

프랑스 정부는 공식적인 식민지화 계획에 따라 이주 지원자들에게 토지 양도를 제공했다. 1830년대와 1840년대에 364,000헥타르가 넘는 농지가 유럽인 정착을 위해 원주민으로부터 압수된 후 분배되었다. 그런데도 계속된 정복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농촌 지역 치안의 불안정성, 프랑스 통치의 불확실성, 도심에 집중된 고임금 일자리로 인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유럽 인만이 농촌에 정착했다.¹³⁾

한편, 식민지 정부는 자유 이주는 적절히 통제하고 있었지만, 노력에도 불구하고 빈곤층, 체납자, 부랑민 등 입국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 이주

통제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1830년 11월 15일’과 ‘1831년 4월 25일’ 두 차례에 걸친 법령은 알제리에 도착한 이민자들에게 여권을 제시해야만 거주 허가를 받도록 요구했다. 지중해 남부의 항구와 알제를 잇는 여객선에서 프랑스 당국이 승인한 서류를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는 것은 금지되었다. 하지만 북아프리카 여러 국가와 접한 알제리의 긴 국경, 만연한 해안 지역의 밀입국 관행, 비효율적인 통제로 인해 불법 이민을 막는 것은 불가능했다. 더불어 프랑스와 다른 유럽 국가에서는 당국이 입국이 달갑지 않은 사람^{indésirable}을 막기 위해 고안된 신원 증명서 위조가 빈번하게 발생해 이주자 통제는 더욱더 어려웠다. 프랑스 대도시에서 내국 여권이 더는 사용되지 않게 된 1862년에 이르러서야 알제리에서도 여권 요건은 폐지됐다.

1848년 이후 원주민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군사 작전이 사하라와 카빌리^{Kabylie}로 옮겨가고 토지의 수용^{expropriation}과 매각이 가속화되면서 식민지화에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은 분명 이주와 정착을 통한 정주민 사회의 인구증가를 낳았다. 1848년 이후 농업 식민지에는 수천 명의 새로운 정착민이 몰려들었고, 1850년대에는 군사적 점령이 완료된 지역에 설치된 ‘숙영지^{cantonnement}’를 통해 광활한 토지가 확보되었다. 제2제국⁽¹⁸⁵²⁻¹⁸⁷⁰⁾은 철도 및 기타 인프라 건설을 위해 계약을 맺은 민간 식민지 회사에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자유 통행권을 확대했다. 계약의 대가로 기업들은 막대한 토지를 양도받았고, 그 토지에 새롭게 인구를 수용해야 했다. 새로운 경제 구조를 창출하기 위한 개발 정책은 원주민을 이외의 충분한 노동력이 공급되어야 실현 가능했다. 이제 프랑스는 좋은 조건으로 유럽계 이주민을 유인하고, 장려하는 방식으로 이주정책을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¹⁴⁾

그 결과 유럽 인구는 두 배로 증가했고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유럽인의 비율은 35%에서 50%로 증가했다. 이후 식민지 알제리에서 출생한 인구가 성장해 유럽계 정착민들은 빠르게 ‘크레올화^{créoliser}’되었다. 출생률이 사망률에 비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1856년에서 1872년 사이에 알제리에서 태어난 유럽인의 비율이 두 배로 증가했다. 유럽인들은 여전히 알제, 오랑 등

대도시와 그 주변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프랑스 정부가 목표로 하는 이상적 정착식민지 모습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1870년 제3공화국의 출현 이후 일어난 알제리 원주민 봉기는 정착촌의 급격하고도 엄청난 확장에 따른 무슬림 전통 사회에 대한 파괴적인 영향을 반영한다.¹⁵⁾

제3공화정이 수립된 후 시민권에 대한 법률적 준비가 완료되면서 식민지 이주계획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이주를 통해 프랑스인을 늘려야 한다는 식민지 개발의 당위가 현실에 적절히 구현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화국 정부는 영구적 식민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 조건으로 프랑스 농부를 이주시켜 농업을 발전시키고, 무슬림 원주민보다 더 많은 프랑스인이 알제리에 거주하게 해 수적으로 그들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식민지로 만들기 *coloniser* 위해서는 프랑스인을 이주시키는 것 *peupler* 과 더불어 유럽계 정주민을 프랑스인으로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과제였다.

제3공화국 이전 알제리에 대한 자본 투자와 이주정책은 대체로 성공적이지 못했다. 1848 혁명 이후 국가가 주도해 이주를 실행했지만, 그 효과는 대도시의 인구를 일시적으로 증가시킬 뿐 식민지와 식민 모국을 연결하는 산업 발달과 상품 교역은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해서 민간영역의 경제 발전은 더디게 이루어졌다. 알제리는 그다지 충분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투자 대상은 아니었다.

1871년 엘-모크라니 *El-Mokrani* 반란은 프랑스의 식민화, 즉 토지 약탈에 좋은 구실을 제공하였다. 반란을 일으킨 부족에게는 무거운 벌금과 함께 약 450,000헥타르의 토지를 몰수하였고 다른 곳으로 강제 이주시켰는데, 몰수된 토지를 분배하면서 수많은 가족이민을 통한 정착민 사회가 수립될 수 있었다. 1871년~1895년 사이 약 5,655가구가 알제리 농촌에 정착하였다. 1871년 ‘6월 21일 법안’이 제정되면서 알자스 로랭 *Alsatiens-Lorrains* 주민들이 이주하였고, 1889년 아베롱 *Aveyron* 의 광부 등 13개 이상의 지역에서 대규모 이주계획이 식민지 정부에 의해 조직되었다.

제3공화국의 첫 10년은 알제리를 향한 ‘이주의 황금기’였고, 두 번째는

10년은 이주자의 정착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간이었다. 19세기 말에 알제리로 이주한 프랑스인의 대다수는 코르시카^{Corse}, 피레네조리앙탈^{Pyrénées-Orientales}, 오트잘프^{Hautes-Alpes}로 대표되는 지중해 지역 출신이었다. 알제리에 한 번도 밭을 디딘 적이 없는 ‘식민지 개척 자원자’들이 이주한 데는 프랑스 정부의 적극적인 캠페인이 크게 작용하였다. 공짜 땅에 대한 약속은 가난한 농민과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동기를 제공하였는데, 식민지 이주에 대한 정보와 이주 신청은 도의 담당 부서에서 요청할 수 있었다.

1870년대부터 알제리 식민정부^{Gouvernement Général de l'Algérie: GGA}는 파리와 지역 언론을 통해 ‘식민지 이주민 구함^{appels aux colons}’ 캠페인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프랑스 정부는 알제리 이주에 대한 소책자, 안내서, 포스터 등을 제작해 지원했다. 개별 이주희망 집단을 위한 맞춤형 캠페인도 전개되었는데, 포도나무 뿌리 진디병^{phyloxéra}로 인해 크게 피해를 본 포도 재배지역의 농민을 위한 이주 안내도 실행되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주요 이민 국가인 미국이나 아르헨티나가 주도한 이주 캠페인에 비하면 알제리를 향한 이주는 큰 효과를 달성하진 못했다. 이주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불명확해 지원자의 불안감을 상쇄시킬 수 없었기에 프랑스인에게 알제리는 매력적인 이주지가 아니었다. 알제리 출신 역사가 야코노^{Xavier Yacono}는 “이주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었다. 국가는 농부, 노동자, 상인으로 건너온 이주자의 정착을 후원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했다.¹⁶⁾ 1880~1890년 알제리 농촌 및 해안 지역의 식민지화를 위한 많은 정부 계획이 추진되었지만, 프랑스인의 상당수가 알제리 이주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탈리아인, 스페인인에 비해 적은 수가 알제리에 정착했다.

프랑스 여성이주 계획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3공화정 이전 알제리 이주 장려정책이 성과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식민지 정부를 괴롭힌 또 다른 문제는 정착민의 높은 성비 불균등 현상이었다.¹⁷⁾ 미혼 독신 남성 이주자가 정착민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은 식민지 알제리에서 안정적으로 인구증가를 가져오고, 인구를 프랑스화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간주됐다.¹⁸⁾ 이주 여성에게 인종적으로 우수한 아동을 낳고 길러 식민지의 번영과 민족을 재생^{régénérer}시키는 임무가 부여된 것이다.

이주의 역사에 있어 여성은 이주 목적지와 관계없이 항상 남성보다 이주 가능성이 적었다. 교통수단의 열악함, 정보의 부족, 전통, 관습의 걸림돌로 인해 19세기 이주 현상 속에서 여성은 낮은 이주의 주체였다. 당시 여성에게 이주를 실행한다는 것은 가족, 고향, 익숙한 환경과 결별하고 두려운 미지의 세계와 마주하는 운명적 결단이었기 때문에 큰 각오가 필요했다. 이주는 여성에게 전통과 관습을 위반하고, 자신의 삶에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용기, 가정과 가족을 떠나는 도전을 의미했다.

여성 이주는 대부분 가족과 함께 떠나거나 이주 목적지에 먼저 정착한 친척, 지인, 친구와 합류하는 방식이었다. 출신 국가와 이주지 사이의 거리도 영향을 미쳤다. 익숙한 환경, 가족과 분리되어 떠나는 이주는 비용이 부담되지 않는 신속한 귀환이 보장된다면 더 쉽게 실행될 수 있었다. 지중해 주변 유럽인들에게 알제리는 가까운 거리, 안전한 교통수단, 적은 이주비용, 쉬운 귀환의 가능성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최적의 이주지였다. 그런데도 알제리는 유럽 여성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은 이주희망 지역은 아니었다. 남유럽 사람들에게 알제리는 여성을 납치해 노예로 팔고 때로는 하렘에 가두는 바바리 해적의 거점으로 알려져 왔고, 19세기 내내 프랑스군의 정복에도 불구하고 치안이 매우 불안정하고 유럽인을 환대하지 않는 야만적인 무슬림 원주민의 땅이었다.

1830년 7월 알제^{Alger}가 프랑스군에 의해 함락된 이후 알제리 전역을 프랑스가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원주민의 반란과 이를 토벌하는 식민지 전쟁은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1857년 카빌리^{Kabylie}에서 랑동 장군^{général Randon}이 이끈 군사 작전 이후 사하라 사막을 제외하고는 정복 작전은 완전히 종료되었지만, 안정적 통치는 기대하기 어려웠다. 1871년의 대규모 반란과 1876~1879년 오레스^{Aurès} 지역 반란은 혼란스러운 식민화 초기를 잘 보여주는 사건인데, 알제리에 대규모 군대가 지속해서 주둔할 필요성은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격렬한 원주민 반란이 발생할 때마다 알제리로 이주한 여성들은 안전의 위협받았고 때로는 생사를 넘나들었다.

식민화 초기 남성 1,000명당 여성은 1833년 336명, 1842년 389명, 1842년 389명에 불과했고 그 수도 너무나 미미하였다.¹⁹⁾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 정부는 여성의 식민지 이주를 알제리 식민화 프로젝트에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할 수밖에 없었다. 인구를 안정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여성이 없이는 성공적인 식민화는 실현될 수도 지속할 수도 없고, 결국에는 실패할 것으로 판단했다.

1840년 이후 알제리 정복에 군사적으로 큰 역할을 한 뷔조^{Thomas-Robert Bugeaud} 장군은 칼뿐만 아니라 쟁기를 통해 식민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내 기대와 달리 우리 병사들이 여성을 찾지 못하면, 내 시스템은 기초에서부터 훼손될 것이며, 포기해야 할 것이다”라고 여성 정착민의 필요성을 선언한 바 있다.

알제리에서와 마찬가지로 식민모국 프랑스에서도 동일한 주장이 나타났다. 전쟁부 소속 알제리 담당 부서는 알제리 총독에게 시민 식민지화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하루를 받을 개간하거나 경작하는 데 힘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갈 때 음식을 준비해 기다리는 동반자를 찾아야 합니다 [...] 그가 집에서 가사노동, 위로 또는 기분전환, 사회적 소속감 등 적절한 만족감을 찾지 못하면 그는 다른 곳에서 이러한 것들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노동, 청결, 안녕, 도덕, 등 모든 것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²⁰⁾

이 보고서가 강조하고 있는 식민지 이주 여성에게 부여된 역할은 명확하다. 원주민과의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가정 및 공적 도덕의 수호자로서 배우자, 어머니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여성이 없는 식민지 개발은 실현되지 못할 꿈에 불과했다.

또한, 알제리에서 군의관으로 복무한 의사 카브롤(Hyacinthe Cabrol)은 1863년에 출간된 『알제리의 위생과 식민지화에 대한 보고서』(De l'Algérie sous le rapport de l'hygiène et de la colonisation)에서 다음과 같이 식민지에서의 여성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남자가 매일 자기 일을 계속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용기와 힘을 끌어내는 것은 결혼이라는 성소이며, 가족은 그의 힘든 삶에 끊임없는 목표이기에 [가족이] 없다면 낙담할 수밖에 없다. 여성 없이는 정착민도, 가족 없이는 식민화도 있을 수 없다”²¹⁾

식민지 행정을 담당한 고위 장군, 관료들은 공통으로 민간인 또는 전직 군인 남성이 가정을 일구지 않은 채 알제리로 파견되어 정착하는 것에 대해 공공연히 우려를 표명하였다. 결혼한 남성보다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미혼 남성 중심의 이주민 구성은 식민화의 위협 요소이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사실, 유럽 식민지 개척자들이 식민지에서 여성 동반자를 찾는 경우는 아프리카, 아시아, 남아메리카에서는 흔치 않게 나타난다. 하지만 알제리에서는

원주민 여성과 가족관계를 이루는 것에 많은 장애물이 있었다. 알제리 무슬림 여성들은 12세부터 가정 이외의 공간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과 접촉할 기회가 적었을 뿐더러 대가족 문화로 말미암아 여성의 가족으로부터 인정받는 혼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처음부터 어려웠다.²²⁾ 더욱이 프랑스군 지휘관들은 알제리 원주민과의 관계의 악화를 피하려 했기 때문에 종교와 관습을 존중한다는 명분으로 병사들이 무슬림 여성과 접촉을 권장하지 않았다. 이러한 초기 식민지 개척 상황 때문에 프랑스인 여성 이주 확대는 식민지 발전이라기보다 식민지 생존의 필요조건이었다.

뷔조의 여성 이주를 통한 정착민 사회 건설 계획

원주민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공을 세운 뷔조는 군사적 식민화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는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군인들이 프랑스로 귀국하지 않고 알제리에 남아,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식민지 군단에 복무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식민화 정책이라 생각했다. 1842년에서 1847년 사이에 그는 자신의 원대한 군사적 식민화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프랑스 하원에 제출했지만 모두 승인되지 않았다. 뷔조는 하원의 승인을 얻고자 1844년에서 1847년 사이에 사엘^{Sahel}과 미티자^{Mitidja} 지역에 세 개의 ‘군사 식민지^{colonies militaire}’를 건설하여 자신의 계획을 실질적으로 입증하려 했는데, 가장 많이 알려진 정착지는 알제에서 35km 떨어진 해안 도시 푸카^{Fouka}이다.

뷔조는 자신이 수립한 식민화 계획, 즉 군사적 식민화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남성 군인들에게 여성 동반자를 찾아주어야 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알제리에 여성 구호소와 보육원 설치를 검토하기도 했다.

“구호소에는 타락하지 않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그곳에 가게 된 여성들이지만, 그녀들은 여전히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좋은 가족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사 식민지가 성공하면 사회에 짐이 되기만 하는 여성과 아이들을 이곳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²³⁾

1847년 하원에서 군사 식민화에 필요한 예산을 승인받지 못했지만, 구호소와 보육원을 통한 군인 정착민 가족 만들기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고, 여성 이주에 대해서는 언제나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군인 정착민 남성을 따를 충분한 수의 여성이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나는 이 걱정을 갖지 않습니다. 10헥타르의 땅을 가진 남성과 결혼을 거부하는 가난한 시골 여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모험심이 강합니다. 결혼하는 데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일단 모범사례가 나타나면 장애물은 사라지고, 원하는 만큼의 여성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녀들은 서로를 끌고 갈 것입니다.”²⁴⁾

군사 식민화 계획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받는 문제가 더 절실했기 때문에 뷔조가 여성 이주계획을 우선적으로 실행하려 했는지는 불분명하다. 한데, 1842년 파리 언론에서 ‘공개 결혼(mariages au tambour)’라고 묘사한 증매결혼을 살펴보면 여성 이주계획은 포기되지 않았고 여전히 그의 주된 관심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의 승인과 지원 예산을 기다리지 않고 뷔조는 12월에 푸카 군사 식민지를 추진했다. 그는 프랑스 정부에 자신의 실험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나머지 결혼할 여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정을 이루지 못해 탈영하는 군인 정착민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의 해결책을 빨리 찾아야 했다.

식민지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고자 했던 뷔조는 “아랍인들은 여자들을 우리의 눈길에서 피하게 하려고 숨겨 버렸다”라며 식민지 젠더, 인종 연구

에서 자주 인용되는 말을 남겼을 만큼 혼혈을 낳는 인종 간 결혼에 매우 부정적이었다. 그는 식민자와 피식민자,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인종적, 혈통적 순수한 경계가 흐려지고, 프랑스 혈통에 근거한 시민권이 도전받을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알제리 무슬림 여성들과의 결혼은 식민화 계획에서 완전히 배제했다. 무슬림은 동맹을 맺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대인은 종교적, 인종적 편견으로 원주민 여성과의 혼인은 기피되었다. 게다가 “우리 병사들에게 여성을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데 있어 외국인 비율을 높이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페인, 이탈리아 및 몰타 등 출신의 유럽계 여성과의 통혼도 꺼렸다.

군인, 농민, 노동자, 장인, 상점주인, 투기꾼 등으로 대표되는 정착민 다수의 미혼남성이 새로운 땅에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식민화였다. 단, 원주민 유대인, 무슬림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지는 말아야 했기에 프랑스인 여성 이주가 절실했다.

1842년 7월, 뷔조는 퇴역 장군이었던 툴롱Toulon 시장에게 “보육원에서 자란 젊은이들 또는 정직한 장인과 농부 가정에서 고른 겸손하고 근면한 여성”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시장과 교분이 두터운 친구의 딸이 결혼할 여성 지원자를 찾는 일을 담당했는데, 그녀는 중매쟁이로 나서 툴롱의 부르주아 가정에서 하인으로 일하고 있는 여성 중 가톨릭 신자이며, 외국인이 아닌 프랑스 여성 신부 후보자를 찾아 만남을 주선했다. 중매결혼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해군 담당자는 20명의 병사를 데리고 왔는데, 툴롱 시의회는 뷔조의 끈질긴 요청에 따라 총 4,000프랑을 20명의 어린 소녀들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예비 신랑, 신부의 만남은 호텔에서 이루어졌다. “우리는 여성들이 배우자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라고 해군 담당자가 기록했는데, 여성들은 자신에게 맞는 남자를 선택했고, 서로를 알기 위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중매의 노력으로 17쌍의 결혼이 성사되고, 배우자를 찾지 못한 나머지 3명의 군인은 자신의 고향에서 아내를 찾는 것으로 시의회가 준비한 중매는 끝을 맺었다.²⁵⁾

오로지 뷔조 개인의 노력만으로 실험적인 여성 이주 장려정책이 추진됐다.

하지만, 공적 보조금이 지원되는 중매결혼을 통한 여성이주는 다시는 추진되지 못했다. 이전부터 군사 식민지화 프로젝트에 호의적이지 않았던 전쟁부 장관 솔트^{Soult}는 툴롱에서 이루어진 결혼이 파리의 신문을 통해 부정적 여론을 불러일으키자 더는 허용하지 않고 지원을 거부했다.²⁶⁾ 장관은 ‘이미 준비된 가족들과 함께 식민지를 건설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한데, 당시 언론이 보도한 것처럼 중매결혼이 매매혼에 지나지 않아 실패한 것은 아니었다. 1844년 푸카 식민지의 인구 조사에 따르면, 툴롱에서의 중매결혼으로 탄생한 가족 중 몇 가구를 제외하고는 모든 가정에 자녀가 태어났을 정도로 성공적으로 뿌리내렸다.

뷔조가 여성 이주를 위해 한창 노력 중이던, 1841년 몽펠리에 수도원 신부 쿠랄^{abbé Coural}은 수용된 여성들의 재활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세웠다. 마리-조셉^{Marie-Joseph} 수녀의 의지에 따라 설립된 ‘나사렛 은거^{Solitude de Nazareth}’라는 이름의 구호소는 늘어나는 운영비 지출로 재정적 문제를 겪고 있었다. 운영 보조금을 받기 위해 쿠랄 신부는 1842년 7월 프랑스의 여러 도지사 및 알제리 총독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구호 기관의 안내문을 보내었다.

쿠랄 신부가 처한 상황을 알게 된 뷔조는 ‘나사렛 은거’가 군인 정착민들을 위한 결혼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기관이라 판단해 쿠랄 신부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만약 당신의 시설에 머물면서 올바른 길로 돌아온 소녀 중에 과거의 잘못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한 가정에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군 부대와 다른 마을에 거주하기 시작한 식민지 주민 중에서 당신이 남편으로 지명해 줄 사람들을 그녀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이번 기회를 효과적으로 장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²⁷⁾

쿠랄 신부는 이 제안에 매우 만족하였다. 그는 젊은 여성들이 알제리에 도착하면 예비 신랑이 구혼하기 전에 수녀들이 알제리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종교 시설에 맡겨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1842년 8월 29일에 "두 시설을 통해 몇 명의 여성이 아니라 수백 명의 여성을 약속한다"라고 답장하면서 젊은 여성들의 결혼 이주를 준비했다.

뷔조는 신부의 편지에 바로 응답하지 않았다. 툴롱의 '공개 결혼식' 사건으로 인해 언론으로부터 심한 조롱을 당했고, 전쟁부 장관 술트^{Soult}가 결혼식을 심각하게 비난했기에 자신의 계획에 자신감을 상실한 상태였다. 여전히 군사 식민지화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1845년 봄, 쿠랄 신부와 다시 접촉하였다. 1845년 5월 7일, 쿠랄 신부는 회개한 소녀들을 알제리로 이송하기 위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다.

“알제리에 한 곳, 프랑스에 여러 곳을 같은 종교 법인 소속 아래 두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 그들이 과거의 일록을 지웠다는 충분한 보증을 할 수 있다면 아프리카로 보내질 것이며, 항상 그녀들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여러 수녀의 지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알제리에 도착한 어린 여성들은 즉시 식민지 수녀원으로 옮겨져 같은 수녀원의 수녀들 지도로 기독교인, 아내, 어머니로서의 훈련을 마칠 것입니다.”²⁸⁾

이상과 같은 서신 교환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주도한 결혼 이주계획은 실행되지 않았다. 먼저, 이주와 정착, 결혼비용을 둘러싸고 뷔조와 쿠랄 신부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또한, 두 사람이 가진 각각의 목표가 너무나 달랐다. 뷔조에게는 식민지 주민들을 위한 배우자를 빨리 찾는 것이 절실했고, 쿠랄에게는 수많은 여성을 '구원'하는 것이 중요했다. 쿠랄 신부는 군사 식민지화 계획이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자 재정적 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해, 뷔조의 제안에 더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결국, 구호소의 여성들을 알제리로 이주시킨다는 계획은 포기되었고 다시는 재개되지 못했다. 전반적으로 군사 식민지 개발을 목적으로 뷔조가 세운 이주계획의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알제리에 도착한 이주민들 낮은 기후, 토양, 생활환경 등에 적응하지 못했고 사망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식민정부의 미약한 물질적,

재정적 지원으로 말미암아 정착을 포기한 다수의 이주자가 프랑스로 돌아갔다.²⁹⁾

한편, 19세기 말 프랑스에서는 알제리를 포함한 해외 영토로의 ‘여성 이주 협회(société d’émigration féminine)’가 조직되었다. 이러한 단체는 파리에서 민간 주도로 만들어졌는데, 그 성격과 목표가 정부가 추진한 이주장려 정책과는 양상이 달랐다. 단체의 창립 목적은 프랑스 국내에서 점점 더 많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여성들에게 식민지에서 직업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레클레르(L’Éclair)』 신문이 “농부와 상업에 종사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뉴칼레도니아로, 요리사와 객실 청소부는 튀니지로, 조산사와 간호사는 알제리로 떠났다”³⁰⁾라며 여성 이주의 증가를 선전했지만, 실제로 지원하는 거의 없었고 제공된 일자리는 그 수가 적어서 지원자에 미치지 못했다. 20세기 초까지 이주를 희망하는 여성은 알제리보다 유럽 여성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았던 다른 지역을 선호했다. 원주민의 저항을 봉쇄하기 위한 알제리 정복 전쟁은 길고도 지루하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전시 상황이 지속하면서 가부장적 문화가 지배하는 가운데 여성의 권리와 지위는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이주를 계획한 프랑스 여성들에게 매력적인 목적지가 될 수 없었다. 1870년까지 알제리는 군부가 통치하고, 군대가 상시적으로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군사적 질서는 민간 질서보다 사회적으로 여성을 위한 공간을 협소하게 만들었다. 또한, 일부다처제가 허용되고 여성이 아버지, 형제 또는 남편의 모든 권위에 복종하고, 여성을 위한 공간으로 오로지 가정만이 허용되는 무슬림 문명이 지배하는 알제리에서 유럽계 여성 이주자는 유럽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식민자로 거듭났다.

결국, 알제리로의 여성 이주 캠페인을 조직할 때마다 알제리로 떠난 여성의 수는 항상 여론에서 조롱을 받으며,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다. 툴롱에서 이주한 17명의 신부와 이주 단체가 유치한 극소수의 여성만이 국가가 추진한 계획에 따라 지원을 받으며 이주했을 뿐이었다.

알제리로의 프랑스 여성 이주자는 남성과 동일한 이주 지원을 받았다.

정부의 이주정책에서 국적은 성별보다 우선하는 요소였는데, 토지 개발을 목표로 농촌 식민지화를 추진하던 식민 국가는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이주한 스페인, 이탈리아, 몰타 여성은 여행과 정착 과정에 지원하지 않았다. 이주비용과 주택에 대한 국가 지원은 농촌 및 해안지역 식민화에 조직적으로 동원된 프랑스인에게만 제공되었다.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지만, 프랑스 남성과 여성 이주자는 국가의 지원이나 개입 없이 자발적으로 알제리로 이주하기도 했다. 1870년 이후 프랑스계, 유럽계 정착민의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이끈 요인은 이주와 인구의 높은 자연 증가율이었다. 1911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알제리에서 137,746명의 스페인인, 36,795명의 이탈리아인, 492,660명의 프랑스인이 용광로_{melting-pot}를 형성해 유럽계 정주민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인구의 압도적 다수는 4,740,000명의 무슬림 원주민이었다.

프랑스가 아닌 지중해 이민의 결과

19세기 대이주의 시대 유럽에서 발생한 알제리로의 이주와 대서양 횡단 이주는 거의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 아메리카 대륙이 아닌 북아프리카로 떠나는 이주자들의 선택을 이끈 것은 프랑스 국가의 정책이었다.

원주민이 보유했던 공유지에 대한 유럽계 정착민의 사유화, 경제 대공황으로 인한 산업의 위기, 도시와 농촌의 인구 과잉은 유럽인들이 지중해를 건너게 만든 주요 원인이었다. 1848년 혁명에 참여했거나, 나폴레옹 3세의 쿠데타에 반대해 정치적 유배형을 받은 사람들이 식민지로 이송되기도 했으나 그 수는 매우 적었다. 게다가 뷔조 장군의 ‘군사 식민지’ 역시 야심에 찬 계획과 비교하면 건설된 마을은 100여 곳에 불과했고 유지되지도 못했다.

프랑스 정부와 식민지 정부가 주도한 이주계획이 실패한 가운데 알제리

정주민 사회의 다수는 비프랑스계 유럽인이었다. 식민지 알제리에서 프랑스 만들기는 유럽계 정주민의 프랑스인화를 의미했다고 볼 수 있다. 알제리가 남유럽과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은 유럽계 이주민들이 알제리를 선택한 주요 원인이었다. 이탈리아 남부, 스페인, 몰타 또는 기타 섬에서 여객선 또는 작은 어선을 타고 이동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단 몇 프랑에 불과했다. 또한, 프랑스에서 알제를 향하거나 뉴욕을 향하는 여객선 삼등석 가격은 비슷했지만, 이주 희망자에 대한 정착 지원, 토지 분배, 안정적이면서도 편리한 귀국 전망 때문에 많은 남유럽 이주자가 알제리를 향했다.

지중해를 건너 이민자들은 유럽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이주자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들의 소식은 가족, 친구나 이웃에게 빠르게 전달되었는데, 오랑에는 스페인계, 콘스탄틴에는 이탈리아계, 본과 알제 교외에는 메르노카 섬 출신의 마호네^{Mahonnais} 등이 각각의 이민자 공동체를 형성해 알제리 식민지 사회는 매우 이질적이고 혼성적인 상태로 남아 있었다. 또한, 농촌 개발을 의욕적으로 추진한 식민정부의 바램과는 달리 프랑스 정착민들은 농촌보다 도시를 선호하는 임금 노동자들이 다수였다. 스페인, 이탈리아 및 지중해의 다른 지역에서 새로 도착한 유럽계 정착민들도 도시로 몰려들어 소규모 기업가나 상점 주인으로 일했다. 알제리에서 선량한 농부들이 되지 못한 것은 정착민들이 기후 변화와 낮은 토양의 특성으로 인해 농업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19세기 후반, 세계 시장에서 미국산 곡물과 아시아산 곡물의 유통이 증가하면서 프랑스 식민모국 시장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제리의 농산물 수출에는 악영향을 미쳐 농업 발전을 저해했다.

결국,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알제리 식민화에 필수적이었던 정착민 사회 건설을 위한 지중해 양안의 메트로폴리스 정부와 식민지 정부의 노력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쳤고, 자신들이 계획한 데로 이주자를 유입하고 통제하는데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정착민 사회 건설을 통한 알제리의 프랑스화는 지중해 지역 이민자들의 다양한 실천의 산물이었다.

〈원문출처〉

이 글은 다음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작성되었다.

문종현, 「알제리 식민화와 프랑스의 이주정책(1830~1889) - 프랑스 만들기과 이주 -」 『서양사론』 157, 한국서양사학회, 2023.

〈저자소개〉

문 종 현 (세종대학교 대양휴머니티 칼리지 초빙교수)

저자 문종현은 한양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 7대학에서 프랑스 근현대사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20세기 초 프랑스의 반아시아인 인종주의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세종대학교 대양휴머니티 칼리지 초빙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프랑스 인종주의, 식민주의 역사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반인종주의 운동과 교육에 관심을 두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흑인법의 식민지성」, 「알제리 전쟁과 프랑스 정주민」, 「68년 이후의 68운동」, 「68운동과 마오주의」 등이 있다.

참고문헌 및 주석

■ 김만권, 다원성과 ‘겹’ 공동체

〈참고문헌〉

- 김미경. 2020. 「유럽통합의 위기에 관한 하나의 해석: 정치공동체, 기능적 통합, 그리고 공동체주의 정치」 『평화연구』, 28(2): 113-149. 서울: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 김범수. 2009. 「공동체주의 인권 담론 연구」 『정치사상연구』, 15(1): 54-79. 서울: 한국정치사상학회.
- 김범춘. 2020. 「다문화사회의 정치철학으로서 공동체주의의 가능성」 『시대와 철학』, 24(2): 61-89. 서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 손성철. 2012. 「공동체의 성원권과 외국인 노동자의 지위」 『윤리교육연구』, 29호: 361-380. 서울: 한국윤리교육학회.
- 아비지트 배너지-에스테르 뒤플로. 2020.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 서울: 생각의 힘.
- 양혜우. 2021. 「'이주노동 없는 공동체'를 위한 귀환 이주노동자의 꿈 - 네팔 다목적 협동조합 에카타(Ekata)를 중심으로」 『민족연구』 77호: 147-175. 서울: 한국민족연구원.
- 안윤정. 2023.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저출산 대책’인 나라,” 『매일노동뉴스』, 5월 25일.
- 임성호. 2021. 「지구화 시대의 탈경계 정치과정을 위한 이론토대: 새로운 실마리의 모색」 『한국정치연구』, 20집 1호: 서울: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21.
- 조동희 외. 2020. 「이민이 EU의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홍태영. 2009. 「인권의 정치와 민주주의의 경계들」 『정치사상연구』, 15(1): 80-100. 서울: 한국정치사상학회.
- Bauman, Zygmunt. 2011. *Collateral Damage: Social Inequalities in a Global Age*. London: Polity Press.
- Bagehot. 2016. “The Cosmopolitan-Communitarian Divide Explains Britain’s EU Split”. *The Economist*. Feb. 29.
- Blake, Michael. 2013. “Immigration, Jurisdiction, and Exclusion”. *Philosophy & Public Affairs* 41(2): 103-30. Hoboken, NJ: Wiley.
- Castañeda, Ernesto & Shemesh, Amber. 2020. “Overselling Globalization: The Misleading Conflation of Economic Globalization and

- Immigration, and the Subsequent Backlash". *Social Sciences* 9: 1-31. Basel: MDPI.
- Chang, Ya Lan. 2022. "Communitarianism, Properly Understood". *Canadian Journal of Law & Jurisprudence*. 35(1): 117-13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stello, Cathryn & Mann, Itamar. 2020. "Border Justice: Migration and Accountability for Human Rights Violations." *German Law Journal* 20: 311-33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tzioni, Amitai. 1996. "The Responsive Community: A Communitarian Perspectiv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1(1): 1-11. Thousand Oaks, CA: Sage.
- . 2004. *From Empire to Community: A New Approach to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St. Martin's Press.
- . 2021. "The Communitarian Deficit in the USA: Three Telling Cases". *SMU Science and Technology Law Review* 24(2): 171-198. Dallas, TX: SMU Scholar.
- Falk, Richard. 2002. "Revisiting Westphalia, Discovering Post-westphalia". *The Journal of Ethics*, 6(4): 311-352. New York: Springer.
- Goldgeier, James. 2005. "A Communitarian Future: What Can the EU Experience Teach U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8(12): 1545-1557. Thousand Oaks, CA: Sage.
- Lenard, Patti Tamara. 2010. "Culture, Free Movement, and Open Borders". *The Review of Politics* 72(4): 627-65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iller, David. 1988. "The Ethical Significance of Nationality". *Ethics* 98(4): 647-662.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ilton, Fisk. 1992. "Review: Varieties of American Communitarianism". *The Review of Politics* 54(4): 709-71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eiman, Paul. 2023. "Inclusive Communitarianism and Immigration". *Social Theory and Practice* 49(2): 313-335. Tallahassee, FL: Florida State University.
- Pevnick, Ryan. 2023. "Immigration, Backlash, and Democra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First View Articl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ndel, Michael. 1982. *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lzer, Michael, 1984. *Spheres of Justice: A Defense of Pluralism and*

Equality. New York: Basic Books.

. 1997. On Toleratio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Young, M. C.. 2020. "Conservatism and Communitarianism: Two in One?," Canadian Journal of Practical Philosophy 4: 57-71. Windsor, ON: The University of Windsor.

〈주〉

- 1) 이 저작이 Michael Sandel, 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 (1982)이다. 공동체주의의 다양성은 Milton Fisk(1992)의 리뷰 논문의 제목인 "Varieties of American Communitarianism"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 2) 본 논문이 월저의 논의를 다루는 이유는 초기 공동체주의 이론에서도 시민권에 대한 개방적 측면이 존재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이런 이유로 본 논문은 월저의 80년대 대표 저작인『정의의 영역들』(Spheres of Justice, 1984)에 집중해 논의한다.
- 3) 예를 들어, 2023년에 우리 정부가 출산을 장려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가사 노동자 정책은 월저의 이 표현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예를 들어, 안윤정,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저출산 대책'인 나라," 매일노동뉴스. (2023년 5월 25일)를 보라.
- 4) 원문을 그대로 옮기자면, In the usual sense of the word, however, guest workers are not "guests," (...) They are workers."
- 5) 이 사례는 양혜우(2021), "'이주노동 없는 공동체'를 위한 귀환 이주노동자의 꿈 - 네팔 다목적 협동조합 에카타(Ekata)를 중심으로"에서 왔다.
- 6) 2021년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 과정에서 이들을 아프간 현지에서 우리 기관에 협력한 이들로 수용한 사례는 '곶' 공동체가 지지하는 포용적 내러티브의 힘이 발휘된 예라고 할 수 있다. 수용하는 이와 새롭게 도착한 난민이 모두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내러티브가 작동했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2022년 3월 아프간 난민 자녀들이 첫 등교할 때 함께 했던 노옥희 교육감의 사례도 있다. 노옥희 교육감은 한국 학생들이 난민 학생들의 문화 도우미를 자처했다는 인터뷰를 통해 영토 내에 머무르는 모든 이들이 고향에 머무르는 듯 느낄 수 있는 포용적 내러티브를 만들었으며 다양한 매체들이 이를 전파했다. 예를 들어,『한국일보』(2022.03.22)는「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 첫 등교 동행한 울산교육감 "환영인사에 든든"」이란 제목으로,『뉴스1』(2022.03.21.)은 「울산 정착 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들 시민 축하 속 '첫 등교'」란 제목으로 이를 보도했다. 외국인 노동자들 역시 마찬가지다. 본문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노동력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명백하기에 이를 활용하여 포용적 내러티브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최은주, 「기후 체계의 상황적 존재들과 상상의 공동체」

〈참고문헌〉

- Bergthaller, Hannes. "Beyond Ecological crisis: Niklas Luhmann's Theory of Social Systems." *Ecological Thought in German Literature and Culture*. Ed. Gabriel Dürbeck et al. Lanham: Lexington Books, 2017.
- Chakrabarty, Dipesh. "Climate and Capital: On Conjoined Histories." *Critical Inquiry* 41.1 (2014).
- Esposito, Roberto. *Communitas: Origine e destino della comunità*. Torino: Giulio Einaudi, 1998, 2006 and 2012. 윤병연 옮김. 『코무니타스: 공동체의 기원과 운명』. 크리티카, 2022.
- Esposito, Roberto. *Immunitas: Portezione e megazione della vita*. Torino: Giulio Einaudi, 2002 and 2015. 윤병연 옮김. 『임무니타스: 생명의 보호와 부정』. 크리티카, 2022.
- Esposito, Roberto. *Termini del politico: Comunità, immunità, biopolitica*. Bologna: Il Mulino, 2008. Trans. Rhiannon Noel Welch. *Terms of the Political: Community, Immunity, Biopolitics*. New York: Fordham UP, 2013.
- Ghosh, Amitav. *The Great Derangement: Climate Change and the Unthinkable*. Chicago: U of Chicago P, 2016.
- Hauthal, Janine. "Explain Brexit: (Re-)Thinking the Nexus of Nation and Narration in Pre-and Post-Referendum British Fiction." *De Gruyter* vii, 331 (2021).
- Jay, Nancy. "Gender and Dichotomy." *Feminist Studies* 7.1 (1981).
- Latour, Bruno. *Où atterrir?*, Paris: Éditions La Découverte, 2017. Trans. Catherine Porter. *Down to Earth: Politics in the New Climatic Regime*. Cambridge: Polity, 2018.
- Lanchester, John. *The Wall*. London: Faber & Faber, 2019.
- Luhmann, Niklas. *Ökologische Kommunikation: Kann die moderne Gesellschaft sich auf ökologische Gefährdungen einstellen?* Opladen: Westdeutsches Verlag, 1986. Trans. John Bednarz, Jr. *Ecological Communication*. Chicago: U of Chicago P, 1989.
- Jacob A. Miller, "Demoralizing: integrating J.D. Peters' communication 'chasm' with Niklas Luhmann's (1989) ecological communication to analyze climate change mitigation inaction," *Kybernetes* 51.5 (2022).

- Rychter, Ewa. "Testing the Limits: Boundaries and Fault Lines of Dystopia in John Lanchester's *The Wall* (2019)." *Polilog: Studia Neofilologiczne* 12 (2022).
- Sheller, Mimi. *Mobility Justice*. London: Verso, 2018. 최영석 옮김. 『모빌리티 정의』. 서울: 앨피, 2019.
- Smith, Mick. "Ecological Community, the Sense of the World, and Senseless Extinction." *Environmental Humanities* 2 (2013).
- Urry, John. *Mobilities*. Cambridge: Polity, 2007.
- Wagner, Erica. "The Return of Dystopian Fiction: From Dave Eggers to John Lanchester and Ben Okri to Margaret Atwood, Writers are Crafting Horror Stories that Reflect Our Living Nightmare." *New Statesman*. (2019, March 20).
- Wittmann, Lucas. "What Goes Down After a Wall Goes Up." *Time Magazine*. (2019, March 7).
- Wright, Kate. "Becoming-With: Living Lexicon for the Environmental Humanities." *Environmental Humanities* 5 (2014).
- Zao, Kellie. "The East Side Coastal Resiliency Project breaks ground, but opponents aren't backing down." *The Architect's Newspaper* (2021, May 28).
- "East Side Coastal Resiliency." NYC The East Side Coastal Resiliency Project, <https://www.nyc.gov/site/escr/index.page> (2023.02.09.)
- 임동욱. 「자연재해 막는 최고 해법은 '자연」. 『사이언스타임즈』. 2013. 07. 22.

〈주〉

- 1) Bruno Latour, *Où atterrir?* (Paris: Éditions La Découverte, 2017). Trans. Catherine Porter. *Down to Earth: Politics in the New Climatic Regime* (Cambridge: Polity, 2018), p. 3.
- 2) Nancy Jay, "Gender and Dichotomy," *Feminist Studies* 7(1) (1981), p. 54.
- 3) Mimi Sheller, *Mobility Justice*(2018), 최영석 옮김, 『모빌리티 정의』(서울: 앨피, 2019), p. 42, p. 312.
- 4) Amitav Ghosh, *The Great Derangement: Climate Change and the Unthinkabl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6),p. 115.
- 5) Latour, *Down to Earth*, p. 10.
- 6) Roberto Esposito, *Immunitas: Protezione e negazione della vita*(Torino: Giulio Einaudi, 2002 and 2015), 윤병연 옮김, 『임무니타스:

- 생명의 보호와 부정』(크리티카, 2022), p. 8.
- 7) Roberto Esposito, *Termini del politico: Comunità, immunità, biopolitica* (Bologna: Il Mulino, 2008). Trans. Rhiannon Noel Welch. *Terms of the Political: Community, Immunity, Biopolitics*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2013). p. 41.
 - 8) Ibid. p. 40
 - 9) Ghosh, *The Great Derangement*, p. 121.
 - 10) Latour, *Où atterrir?*, p. 103.
 - 11) 존 어리(John Urry)는 미국에 빗대어 제국과 다중의 생산을 논한다. 제국은 매우 강력한 다중이라는 타자를 산출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금 세탁, 마약 거래, 도시 범죄, 망명 신청, 밀입국, 노예무역, 도시 테러 같은 지구적 유동체를 통해 '제국과 다중'의 생산이 크게 변화한다고 했다. John Urry, *Mobilities* (Cambridge: Polity, 2007), p. 154-155.
 - 12) Janine Hauthal, "Explain Brexit: (Re-)Thinking the Nexus of Nation and Narration in Pre-and Post-Referendum British Fiction," *De Gruyter* (2021), p. 316.
 - 13) Ewa Rychter, "Testing the Limits: Boundaries and Fault Lines of Dystopia in John Lanchester's *The Wall* (2019)," *Polilog: Studia Neofilologiczne* 12 (2022), p. 300.
 - 14) Erica Wagner, "The Return of Dystopian Fiction: From Dave Eggers to John Lanchester and Ben Okri to Margaret Atwood, Writers are Crafting Horror Stories that Reflect Our Living Nightmare." *New Statesman* (2019. 3.20).
 - 15) Lucas Wittmann, "What Goes Down After a Wall Goes Up," *Time Magazine* 193(10). (2019. 3. 18).
 - 16) Rychter, "Testing the Limits" p. 293.
 - 17) John Lanchester, *The Wall* (London: Faber & Faber, 2019), p 4.
 - 18) Ibid. p. 5.
 - 19) Ibid. p. 5.
 - 20) Urry, *Mobilities*, p. 259.
 - 21) Ibid. p. 259.
 - 22) Ib. p. 45.
 - 23) Sheller, *Mobility Justice*, p. 60.
 - 24) Ibid. p. 16.

- 25) Esposito, *Immunitas*, p. 53.
- 26) *Ibid.* p. 53.
- 27) Urry, *Mobilities*, p. 272.
- 28) Esposito, *Immunitas*, p. 44.
- 29) Lanchester, *The Wall*, p. 35.
- 30) Rychter, "Testing the Limits" p. 291.
- 31) *Ibid.* p. 295.
- 32) Lanchester, *The Wall*, p. 112.
- 33) *Ibid.* p. 48.
- 34) Rychter, "Testing the Limits" p. 295.
- 35) Lanchester, *The Wall*, p. 203.
- 36) 레푸기아 또는 레퓨지아(refugia)는 ①피난, 피신, 도피, 대피 또는 의지, ②피난처, 대피소, 피신처, 은신처라는 뜻으로, 258만 년 동안의 플라이스토세(Pleistocene)에 척박한 삶을 연명했던 인류가 피해 있던 곳곳의 작은 피난처를 일컫는다. 플라이스토세의 끝에 있었던 최근최대빙하기가 갑자기 끝나고 홀로세기가 시작되었다. 레푸기아는 빙하기처럼 대륙 전체가 기후 변화기에 놓여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멸종되었으나 그중에서도 비교적 기후 변화가 적어 동식물군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지역이다.
- 37) Rychter, "Testing the Limits" p. 299.
- 38) Niklas Luhmann, *Ökologische Kommunikation: Kann die moderne Gesellschaft sich auf ökologische Gefährdungen einstellen?* (Opladen: Westdeutsches Verlag, 1986). Trans. John Bednarz, Jr. *Ecological Communic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9), p. 6.
- 39) 루만의 독일어 원전(*Ökologische Kommunikation*)에는 'Umwelt,' 베드나즈의 영어 번역판(*Ecological Communication*)에는 'Umwelt'와 'environment'가 병기되어 있다. 독일어 'Umwelt'는 'environment,' '환경'으로 번역되지만, 원뜻은 인간과 동떨어져 있지 않은 '주변 세계'이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 또는 물리적·자연적 환경의 세계로써 자연의 법칙이나 자연의 순환과정이라는 점에서 19세기적 관점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 40) Luhmann, *Ökologische Kommunikation*, p. 6.
- 41) Dipesh Chakrabarty, "Climate and Capital: On Conjoined Histories." *Critical Inquiry* 41(1) (2014), p. 15.
- 42) Luhmann, *Ökologische Kommunikation*, p. xvii.
- 43) Hannes Bergthaller, "Beyond Ecological crisis: Niklas Luhmann's

- Theory of Social Systems.” *Ecological Thought in German Literature and Culture*. Ed, Gabriel Dürbeck et al. (Lanham: Lexington Books, 2017), p. 128.
- 44) Jacob A. Miller, “Demoralizing: Integrating J. D. Peters’ Communication ‘Chasm’ with Niklas Luhmann’s (1989) *Ecological Communication* to Analyze Climate Change Mitigation Inaction,” *Kybernetes* 51(5) (2022), p. 1781.
- 45) Luhmann, *Ökologische Kommunikation*, p. 1.
- 46) Ghosh, *The Great Derangement*, p. 9.
- 47) “East Side Coastal Resiliency,” NYC The East Side Coastal Resiliency Project, <https://www.nyc.gov/site/escr/index.page> (2023. 2. 29.)
- 48) Kellie Zao, “The East Side Coastal Resiliency Project breaks ground, but opponents aren’t backing down,” *The Architect’s Newspaper* (2021. May 28).
- 49) 임동욱. “자연재해 막는 최고 해법은 ‘자연’”, 사이언스타임즈 (2013. 6. 22).
- 50) Mick Smith, “Ecological Community, the Sense of the World, and Senseless Extinction,” *Environmental Humanities* 2 (2013), p. 31.
- 51) ‘세계 만들기’ 또는 ‘세계 짓기’로 번역되는 worlding은 인간과 비인간의 엄격한 구분을 넘어 물질이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일컫는다.
- 52) Kate Wright, “Becoming-With: Living Lexicon for the Environmental Humanities,” *Environmental Humanities* 5 (2014), p. 280.
- 53) Roberto Esposito, *Communitas: Origine e destino della comunità* (Torino: Giulio Einaudi, 1998, 2006 and 2012), 윤병연 옮김, 『코뮤니타스: 공동체의 기원과 운명』(크리티카, 2022), p. 10.
- 54) 같은 책, p. 16.

Ⅲ 황해성, 엔젤섬이민국의 가려진 이야기: ‘깨어진 꿈’

〈참고문헌〉

- 김남현. 『미국의 중국이민정책 연구: 1880~1904』 서울: 서경문화사, 2012.
-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21.
- Byee, Veeda. *Li on Angel Island*. Minnesota: Stone Arch Books, 2021.
- Chang, Iris. *The Chinese in America: A Narrative History*. New York: Viking, 2003.
- Chin, Tung Pok and Winifred C. Chin. *Paper Son: One Man's Story*.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2000.
- Chinn, Thomas. "Paper Sons."
<http://www.sfmuseum.org/hist11/papersons.html>
- Cresswell, Timothy. *On the Move*. Taylor & Francis Group, 2006. 최영석 옮김. 『온더무브: 모빌리티의 사회사』 서울: 엘피, 2021.
- Dooner, Pierton W. *Last Days of the Republic*. 1880. reprint. New York: Arno Press, 1978.
- Fong, Jann Mon. "A Gold Mountain Man's Monologue." *Rejian Shi*. mar. 5, 1935, 15-16.
- Hing, Bill Ong. *Defining America Through Immigration Policy*.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2004.
- Ktoussan. "Paper Sons and Twentieth Century Chinese Immigration." A UMW History Project. Nov. 14, 2014.
- Lai, Him Mark, and Genny Lim, and Judy Yung. *Island: Poetry and History of Chinese Immigrants on Angel Island, 1910-1940*.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91.
- Lai, Him Mark. *Becoming Chinese American: A History of Communities and Institutions*. Walnut Creek, CA: Alta Mira Press, 2004.
- Lee, Erika. *The Making of Asian America: A History*. New York: Simon & Schuster Paperbacks, 2015.
- Lee, Erika, and Judy Yung. *Angel Island: Immigrant Gateway to Americ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 Leung, Julie, and Chris Sakaki. *Paper Son: The Inspiring Story of TYRUS WONG, Immigrant and Artist*. New York: Schwartz & Wade Books, 2019.

- Lew-Williams, Beth. *The Chinese Must Go: Violence, Exclusion, and the Making of the Alien in Americ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18.
- Nagle, John D. "Exposing the Ramification of the Coaching Evil." Jan. 15, 1925.
- Powderly, Terence V. "Exclude Anarchist and Chinaman!," *Collier's Weekly* (Dec. 14, 1901), 5~7.
- See, Lisa. "Paper sons,' hidden pasts." *Los Angeles Times* (Oct. 18, 2015) <http://articles.katimes.com/2009>,
- Young, Iris Marion.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김도균 공역, 『차이의 정치와 정의』 서울: 모티브북, 2017.
- Yung, Judy. *The Chinese Exclusion Act and Angel island: A Brief History with Documents*. Boston and New York: Bedford/St. Martins, 2019.
- Yung, Judy. "Trump's Anti-Immigration Campaign: Will We Repeat a Historic Mistake?" <http://nomoreexclusion.org/unity-statement/>
- "The Overlooked History of Angel Island, Where the U. S. Enforced Rules Designed to Keep Asian Immigrants Out," *Time* (May 3, 2021).
- Chinese Defender*. November, 1910.
- San Francisco Chronicle*. Aug. 8. 1920. Nov. 1, 1922. March 30. 1928.
- The Wasp*. vol. 8, no. 292
- News Letter*. 2002, 1. 22. Angel Island Immigration Station Foundation
- Angel Island Oral Project. (Ethnic Studies Librar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소장)
- You, Lee Puey. Interview #11.
- Fong, Jann Mon, Interview #32.
- Sims, Emery. Interview #47.
- Lee, Edward, Interview # 50.
- <https://www.aiisf.org>
- https://www.nps.gov/nr/trave/asian_american_and_pacific_islander.
- <https://angelisland.org/history/united-states-immigration-station-usis>.
- <https://time.com/5954114/angel-island-aapi-immigration-history/>

〈주〉

- 1) Julie Leung & Chris Sakaki, *Paper Son: The Inspiring Story of TYRUS WONG, Immigrant and Artist* (New York: Schwartz & Wade Books, 2019), 1-6.
- 2) *ibid.*, 6-11; Erika Lee, *The Making of Asian America: A History* (New York: Simon & Schuster Paperbacks, 2015), 95, 98: ‘서류상의 아들과 딸’, ‘서류상의 자식’ 용어는 ‘서류상의 딸’로 입국한 중국인 여성 사례가 연구되면서 근자에 사용이 늘고 있다.
- 3) Ktoussan, “Paper Sons and Twentieth Century Chinese Immigration,” A UMW History Project, Nov. 14, 2014.
- 4) Lisa See, “Paper sons, hidden pasts”, <http://articles.katimes.com/2009>, *Los Angeles Times*, Oct. 18, 2015; Thomas Chin, “Paper Sons,” <http://www.sfmuseum.org/hist11/papersons.html>
- 5) Erika Lee & Judy Yung, *Angel Island: Immigrant Gateway to Americ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9-12; 역사적으로 엔젤섬은 오랫동안 인디언의 낚시와 사냥터 였다. 1775년 주앙 아얄라(Juan Manuel de Ayala)가 이끈 스페인 탐험대가 이 섬에 정착하고 이를 엔젤섬이라고 이름 부쳤다. 이후 스페인, 프랑스, 러시아, 영국의 탐험대나 바다표범과 고래 사냥꾼, 해군선원들이 연료나 물 공급을 위해 잠시 들르는 정박항으로 사용 되었다. 1821년 멕시코 정부기 이 섬을 소유하자 이후 소목장으로 활용되다가 미국과 멕시코와의 전쟁 후 미국령이 되었다. 1850년 필모어 대통령은 이 섬을 군사기지로 정했고, 남북전쟁시기에는 남부연합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요새로 사용되었다. https://www.nps.gov/nr/trave/asian_american_and_pacific_islander
- 6) Lee & Yung, *Angel Island: Immigrant Gateway to America*, 19-20; <https://angelisland.org/history/united-states-immigration-station-usis>.
- 7) “The Overlooked History of Angel Island, Where the U. S. Enforced Rules Designed to Keep Asian Immigrants Out” *Time*, may 3, 2021. <https://time.com/5954114/angel-island-aapi-immigration-history/>
- 8) Him Mark Lai, Genny Lim, and Judy Yung, *Island: Poetry and History of Chinese Immigrants on Angel Island, 1910-1940*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91), 66.
- 9) <https://www.aiisf.org>; “The Overlooked History of Angel Island“, *Time* May 3, 2021.
- 10) 지난 50년 동안 중국계 미국인 커뮤니티와 학자들은 엔젤섬이민국과 관련된 기록들을 보존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1975년부터 1990년까지 U.C. Berkeley대학 Asian American Studies 와 캘리포니아 Department of

Parks and Recreation이 함께 엔젤섬구술사 프로젝트(Angel Island Oral History Project)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62개의 인터뷰 기록이 현재 버클리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2010년 이후부터 이 기록들을 바탕으로 자료집과 연구서가 출간되었고, 아동용 동화집, 청소년과 일반인 교육용 영상이 활발하게 제작되고 있다. 특히 엔젤섬이민국에 억류되었던 중국인의 후손들인 Him Mark Lai, Judy Yung, Genny Lim은 32명의 생존자들과 7명의 이민국 관련자들과 인터뷰한 내용과 69개의 시를 영어로 번역하여 1980년에 *Island: Poetry and History of Chinese Immigrants on Angel Island, 1910-1940*로 출간하였고, 이는 엔젤섬이민국 연구에 있어서 매우 소중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중국계 미국인 5세대인 Judy Yung은 2019년에 *The Chinese Exclusion Act and Angel Island* 연구서를 발간하고 엔젤섬이민국과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2부에 수록하여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 교육용 아동 및 청소년 도서로 Julie Leung & Chris Sakaki, *Paper Son: The Inspiring Story of TYRUS WONG, Immigrant and Artist* (New York: Schwartz & Wade Books, 2019), Veeda Byee, *Li on Angel Island* (Minnesota: Stone Arch Books, 2021), *Chinese American Voices: Teaching with Primary Sources* 등을 들 수 있다.

- 11) 중국의 이민정책 연구로는 김남현, 『미국의 중국이민정책 연구: 1880~1904』 (서울: 서경문화사, 2012)를 참조하시오. 영미문화 전공자들이 중국계 미국인의 소설을 분석하는 논문들을 찾아 볼 수 있으나 미국사 전공분야에서는 아직 엔젤섬이민국 연구는 부재하다.
- 12) Beth Lew-Williams, *The Chinese Must Go: Violence, Exclusion, and the Making of the Alien in Americ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18), 28-37.
- 13) Pierton W. Dooner, *Last Days of the Republic* (1880, reprint, New York: Arno Press, 1978), 15~40, 127~145, 202, 256~258.
- 14) Lew-Williams, *The Chinese Must Go*, 31~33.
- 15) *The Wasp*, vol. 8, no. 292: 136-137, Bancroft Librar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16) Lew-Williams, *The Chinese Must Go*, 29~30, 40.
- 17) 중국인배척법이 제정되고 보완되는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김남현, 『미국의 중국이민정책 연구: 1880~1904』를 참조하시오; Erika Lee, *The Making of Asian America: A History* (New York: Simon & Schuster Paperbacks, 2015), 89-90.
- 18) Terence V. Powderly. "Exclude Anarchist and Chinaman!," *Collier's Weekly*, Dec. 14, 1901, 5~7.
- 19) *San Francisco Chronicle*, Aug. 18, 1908, 4; 미국 이민 역사에서 엘리스섬과 엔젤섬은 각각 동부와 서부로의 이주의 관문이었다. 1892년 1월 1일에 뉴

- 육에 위치한 엘리스섬에 이민국이 세워졌고, 주로 유럽으로부터의 이민자들이 이곳에 도착한 후 입국심사를 받았고, 1954년에 문을 닫았다.
- 20) 역사가 에리카 리(Erika Lee)의 연구에 따르면 엘리스 섬으로 들어 온 1200만 정도의 이민자 중에서 10%만 법적, 의학적 이유로 몇 일간 억류되었고, 본국으로 송환된 사람은 2%도 되지 않았다. 신체검사를 받는데 걸린 시간은 평균 하루 또는 이틀이었으며 거의 98%가 입국이 허용되었다.
 - 21) Lee, *The Making of Asian America*, 100.
 - 22) *San Francisco Chronicle*, Aug. 8. 1920, 52; Nov. 1, 1922, 8.
 - 23) Judy Yung, *The Chinese Exclusion Act and Angel Island: A Brief History with Documents* (Boston and New York: Bedford/St. Martins, 2019), 18-19.
 - 24) *ibid.*, 18-19.
 - 25) Veeda Byee, *Li on Angel Island* (Minnesota: Stone Arch Books, 2021), 13-15.
 - 26) Yung, *The Chinese Exclusion Act and Angel Island*, 18-19.
 - 27) 추방사유에 1910년에는 십이지장충, 요충이, 1917년에는 간흡충 역시 추방요인으로 첨가되었다.
 - 28) <https://www.aiisf.org>; Yung, *The Chinese Exclusion Act and Angel Island*, 19-20.
 - 29) Jann Mon Fong, "A Gold Mountain Man's Monologue," *Rejian Shi*, mar. 5, 1935, 15-16.
 - 30) *Chinese Defender*, November, 1910, 1.
 - 31) Byee, *Li on Angel Island*, 37
 - 32) Yung, *Chinese Exclusion Act and Angel Island*, 24.
 - 33) Emery Sims, Interview #47, Angel Island Oral History Project, Ethnic Studies Librar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34) Edward Lee, Interview #50 Angel Island Oral History Project, Ethnic Studies Librar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35) John D. Nagle, "Exposing the Ramification of the Coaching Evil" (Jan. 15, 1925); Judy Yung, *The Chinese Exclusion Act*, 105.
 - 36) Yung, *The Chinese Exclusion Act*, 21-24; Edward Lee, Interview #50; 2009 CNN News Story by Richard Liu.
 - 37) <https://www.aiisf.org>; Yung, *The Chinese Exclusion Act*, 22-23.
 - 38) Yung, *The Chinese Exclusion Act*, 23; Edward Lee, Interview #50.

- 39) Lee, *The Chinese Must Go*, 98-99.
- 40) Edward Lee, Interview #50.
- 41) Edward Lee, Interview #50.
- 42) "The Overlooked History of Angel Island," *Time*, may 3, 2021.
- 43) Yung, *The Chinese Exclusion Act*, 27-28.
- 44) "The Overlooked History of Angel Island," *Time*, May 3, 2021.
- 45) Lee Puey You, Interview #11, Angel Island Oral Project, Ethnic Studies Librar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46) Lai, Lim, and Yung, *Island*, 19-22; *San Francisco Chronicle*, March 30, 1928.
- 47) Lai, *Lim and Yung Island*, 73-74.
- 48) Yung, *The Chinese Exclusion Act*, 30; Lai, Lim and Yung, *Island*, 17-19, 77-78; Lee & Yung, *Angel Island*, 60-62.
- 49) Jann Mon Fong, Interview #32, Angle Island Oral History Project, Ethnic Studies Librar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50) Jann Mon Fong, A Gold Mountain Man's Monologue, Renjian Shi 15-16; Lee Puey You, Interview #11, Angel Island Oral Project, Ethnic Studies Librar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51) 필자가 2021년 10월 엔젤섬이민국을 방문하였을 당시 막사건물 1층에 전시된 시들 중 한 편이다.
- 52) 필자 방문시 엔젤섬이민국 막사건물 1층에 전시 된 시들 중 한 편으로, 작가는 '철의도시 출신의 한 도교주의자 (a Taoist from the town of Iron)가 씀'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 53) 필자 방문시 엔젤섬이민국 막사건물 1층에 전시 된 내용이다.
- 54) *News Letter*, 2002, 1. 22, <https://aiis.org>; 필자는 2021년 10월 엔젤섬을 방문했다, 이때에도 한 무리의 학생들이 과거 막사였던 건물을 견학을 하고 있었다.
- 55) Lee & Yung, *Angel Island*, 22-23.
- 56) 1956년 연방이민국화국(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은 'Confession Program'을 통해 신분을 위장한 채 살아가는 이민자들에게 자신의 위장신분을 자인하고 원래 이름을 되찾을 기회를 제공했다.
- 57) Timothy Cresswell, *On the Move* (2006), 최영석 옮김, 『온더무브: 모빌리티의 사회사』, (서울, 애플, 2021), 303-327.
- 58) 앞의 책, 328-329.
- 59) Iris Marion Young,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1990), 김도

- 균 공역, 『차이의 정치와 정의』 (서울: 모티브북, 2017), 272-299.
- 60)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21), 31, 64-65.
- 61) 트럼프의 이민제한정책에 관해 Judy Yung, “Trump’s Anti-Immigration Campaign: Will We Repeat a Historic Mistake?”, <http://nomoreexclusion.org/unity-statement/>.를 참조하십시오.

Ⅳ 이찬행, 아이스 큐브와 인종위기의 리듬

〈참고문헌〉

1. 아카이브

Los Angeles City Records Center and Archives
Tom Bradley Administrative Papers, Department of Special Collections,
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

2. 신문 및 잡지

Billboard

Korea Times

Los Angeles Sentinel

Los Angeles Times

『한국일보』 로스앤젤레스판

3. 음반

Ice Cube. *Death Certificate* [CD] (Los Angeles: Priority Records, 1991).

_____. *AmeriKKKa’s Most Wanted* [CD] (Los Angeles: Priority Records, 1990).

NWA. *Straight Outta Compton* [CD] (Los Angeles: Ruthless/Priority Records, 1988).

4. 단행본

Chang, Jeff. *Can’t Stop Won’t Stop: A History of the Hip-Hop Generation* (New York: Picador, 2005).

_____. “Race, Class, Conflict and Empowerment: On Ice Cube’s ‘Black Korea’”, Edward T. Chang and Russell C. Leong, eds., *Los Angeles: Struggles toward Multiethnic Community*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94).

- Cross, Brian. *It's Not about a Salary...Rap, Race and Resistance in Los Angeles* (London: Verso, 1993).
- Curtis, Edward E. "The Nation of Islam", Muhammad Afzal Upal and Carole M. Cusack, eds., *Handbook of Islamic Sects and Movements* (Leiden, Netherlands: Brill, 2021).
- Davis, Mike. *City of Quartz: Excavating the Future in Los Angeles* (New York: Vintage Books, 1992).
- Freer, Regina. "Black-Korean Conflict", Mark Baldassare, ed., *The Los Angeles Riots: Lessons for the Urban Future* (Boulder: Westview Press, 1994).
- Gilroy, Paul. *Against Race: Imagining Political Culture beyond the Color Line* (Cambridge, MA: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 Gordon, Allen. "Ice Cube: *Death Certificate*", Oliver Wang, ed., *Classic Material: The Hip-Hop Album Guide* (Toronto: ECW Press, 2003).
- Kelley, Robin D. G. *Yo' Mama's Disfunktional! Fighting the Cultural Wars in Urban America* (Boston: Beacon Press, 1997).
- _____. *Race Rebels: Culture, Politics, and the Black Working Class* (New York: Free Press, 1996).
- _____. "The Black Poor and the Politics of Opposition in a New South City, 1929-1970", Michael Katz, ed., *Underclass Debate: Views from Histo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 Kim, Elaine H. "Between Black and White: An Interview with Bong Hwan Kim", Karin Aguilar-San Juan, ed., *The State of Asian America: Activism and Resistance in the 1990s* (Boston: South End Press, 1994).
- Koch, Nadine and H. Eric Schockman. "Riot, Rebellion or Civil Unrest? The Korean American and African American Business Communities in Los Angeles", George O. Totten III and H. Eric Schockman, eds., *Community in Crisis: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after the Los Angeles Civil Unrest of April 1992* (Los Angeles: Center for Multiethnic and Transnational Studies,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1994).
- Leonard, David J. "Ice Cube", Mickey Hess, ed., *Icons of Hip Hop: An Encyclopedia of the Movement, Music, and Culture*, Vol. 2 (Westport, CT: Greenwood Press, 2007).

- Lipsitz, George. "Cruising around the Historical Bloc: Postmodernism and Popular Music in East Los Angeles", Simon Frith, ed., *Popular Music: Critical Concepts in Media and Cultural Studies*, Vol. 4 (New York: Routledge, 2004).
- Min, Pyong Gap. *Caught in the Middle: Korean Communities in New York and Los Angeles*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6).
- Quinn, Eithne. *Nuthin' but a "G" Thang: The Culture and Commerce of Gangsta Rap*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5).
- Rose, Tricia. *The Hip Hop Wars* (New York: Basic Books, 2008).
- _____. *Black Noise: Rap Music and Black Culture in Contemporary America* (Hanover, NH: Wesleyan University Press, 1994).
- Samuels, David. "The Rap on Rap: The 'Black Music' that Isn't Either", Murray Forman and Mark Anthony Neal, eds., *That's the Joint!: The Hip-Hop Studies Reader* (New York: Routledge, 2004).
- Watkins, S. Craig. *Hip Hop Matters: Politics, Pop Culture, and the Struggle for the Soul of a Movement* (Boston: Beacon Press, 2005).
- Yang, Mina. *California Polyphony: Ethnic Voices, Musical Crossroads*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2008).

5. 논문

- 이찬행. 「Korean Americans' Responses to John's Liquor Store Boycott in Los Angeles, 1991」 『역사와 담론』, 83호, 2017, 137-164쪽.
- _____. 「한흑갈등, 베이크웰,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로컬 정부」 『인문과학』, 66호, 2017, 5-37쪽.
- _____. 「두순자-할린스 사건에 관한 연구」 『미국사연구』, 39호, 2014, 191-220쪽.
- 채현경. 「음악 인류학(Anthropology of Music)의 최근 연구」 『민족음악학』, 18호, 1996, 31-62쪽.
- Canton, David A.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Tensions in Gangsta Rap," *Reviews in American History*, 34(2), 2006, pp. 244-257.
- Ice Cube and Angela Y. Davis. "Nappy Happy," *Transition*, 58, 1992, pp. 174-192.

〈주〉

- 1) 이찬행, 「두순자-할린스 사건에 관한 연구」 『미국사연구』, 39호, 2014, 191-220쪽; 이찬행, 「Korean Americans' Responses to John's Liquor Store Boycott in Los Angeles, 1991」 『역사와 담론』, 83호, 2017, 137-164쪽.
- 2) Tricia Rose, *Black Noise: Rap Music and Black Culture in Contemporary America* (Hanover, NH: Wesleyan University Press, 1994); Robin D. G. Kelley, "The Black Poor and the Politics of Opposition in a New South City, 1929-1970", Michael Katz, ed., *Underclass Debate: Views from Histo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pp. 330-333. 백인성(whiteness)과 대중문화를 연구하고 있는 조지 립시츠가 로스앤젤레스 동부 지역의 차icano 로큰롤 가수들을 두고 커뮤니티 문화를 기록하는 "유기적인 지식인"이라고 치켜세웠듯이, 로즈와 켈리에게는 갱스터 래퍼들이야말로 피지배자들의 경험과 그들의 목소리를 아래로부터 생생하게 들려주는 길거리 저널리스트였다. George Lipsitz, "Cruising around the Historical Bloc: Postmodernism and Popular Music in East Los Angeles", Simon Frith, ed., *Popular Music: Critical Concepts in Media and Cultural Studies*, Vol. 4 (New York: Routledge, 2004), p. 333. 갱스터 힙합 그룹 NWA(Niggaz With Attitude)의 멤버이자 1987년에 루스리스 레코드사(Ruthless Records)를 설립했던 이지-이(Eazy-E, 본명 Eric Wright)도 자신들은 각자 살고 있는 지역의 "실제 이야기"와 "진실"을 전하는 리포터와 같은 존재라고 주장한 바 있다. Dennis Hunt, "The Rap Reality: Truth and Money: Compton's N.W.A. Catches Fire with Stark Portraits of Ghetto Life", *Los Angeles Times*, April 2, 1989.
- 3) Mike Davis, *City of Quartz: Excavating the Future in Los Angeles* (New York: Vintage Books, 1992), p. 87.
- 4) Paul Gilroy, *Against Race: Imagining Political Culture beyond the Color Line* (Cambridge, MA: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pp. 177-181.
- 5) 인류학적 음악학은 "세계음악을 그 각각의 문화적 배경 또는 상황(cultural context) 안에서 연구, 분석하여 이해하는 학문"으로 정의될 수 있다. 채현경, 「음악 인류학(Anthropology of Music)의 최근 연구 동향」 『민족음악학』, 18호, 1996, 31쪽.
- 6) David J. Leonard, "Ice Cube", Mickey Hess, ed., *Icons of Hip Hop: An Encyclopedia of the Movement, Music, and Culture*, Vol. 2 (Westport, CT: Greenwood Press, 2007), pp. 294, 300. NWA가 결성되기 전 힙합 음악 산업은 뉴욕의 래퍼들이 주도했다. 뉴욕의 힙합 뮤지션 중 KRS-One(본명

Lawrence Parker)은 1987년에 첫 번째 앨범 『Criminal Minded』(비-보이 레 코드사)를 발표했다. 브루스에서 활동한 KRS-One은 레게(reggae)와 랩을 결합 시켰으며, 폭력적인 가사 덕분에 갱스터 랩의 선구자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 대중문화에서 힙합은 아직까지는 소외된 장르였기에 그의 앨범은 대중으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 David A. Canton,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Tensions in Gangsta Rap”, *Reviews in American History*, 34(2), 2006, p. 244.

- 7) Jeff Chang, *Can't Stop Won't Stop: A History of the Hip-Hop Generation* (New York: Picador, 2005), p. 321.
- 8) Robin D. G. Kelley, *Race Rebels: Culture, Politics, and the Black Working Class* (New York: Free Press, 1996), p. 191; Kelley, *Yo' Mama's Disfunktional! Fighting the Cultural Wars in Urban America* (Boston: Beacon Press, 1997), p. 39. 적어도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갱스터 랩은 지배적인 사회 질서에 대한 상상적인 전복을 시도하는 정치적 장으로 기능했다. NWA의 앨범 『Straight Outta Compton』에 실린 「Fuck Tha Police」가 대표적이다. 이 노래는 LAPD 경찰국장인 대릴 게이츠가 오퍼레이션 햄머(Operation Hammer)라는 작전을 통해 교통법규 위반 등 경범죄를 저지른 1,500여 명의 흑인 청년들을 단순히 의심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체포하자,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Fuck Tha Police」에서 NWA의 멤버 Dr. Dre(본명 André Romelle Young)는 판사로 등장한다. 피고인이 LAPD 소속 경관인 이들의 모의 법정에서 아이스 큐브는 검사의 역할을 맡았다. 1990년대 초 트리샤 로즈가 쓴 것처럼 힙합 음악은 “힘없는 자들의 연극”을 위한 “무대”였다. 그러나 14년 후 그녀가 고백하듯이, 힙합 음악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이윤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갱스터나 거리의 사기꾼 같은 인물이 지니고 있는 사회적, 예술적, 정치적 중요성이 비정치적(apolitical)이고 단순하며 거의 희극적인 고정관념으로 전락”하게 되는 이른바 “하이퍼-갱스터화”(hyper-gangsta-ization)를 경험하였다. 어떤 의미에서 힙합 음악은 S. 크레이그 왓킨스가 “힙합 자신의 파우스트적 거래”라고 불렀던 이러한 상업화로 말미암아 흑인들에 의해 공연된 청각적 민스트렐쇼(sonic minstrelsy)로 퇴보하고 말았다. Tricia Rose, *Black Noise*, p. 101; Rose, *The Hip Hop Wars* (New York: Basic Books, 2008), p. 2; S. Craig Watkins, *Hip Hop Matters: Politics, Pop Culture, and the Struggle for the Soul of a Movement* (Boston: Beacon Press, 2005), pp. 2, 119.
- 9) Allen Gordon, “Ice Cube: *Death Certificate*”, Oliver Wang, ed., *Classic Material: The Hip-Hop Album Guide* (Toronto: ECW Press, 2003), p. 87.
- 10) Brian Cross, *It's Not about a Salary...Rap, Race and Resistance in Los Angeles* (London: Verso, 1993), p. 63.
- 11) Ice Cube and Angela Y. Davis, “Nappy Happy”, *Transition*, 58, 1992, p. 180.
- 12) Ice Cube, *Death Certificate* [CD] (Los Angeles: Priority Records,

1991). 이슬람 국가(Nation of Islam, 이하 NOI)는 1930년 디트로이트에서 만들어진 흑인 민족주의 단체이다. 창립자는 아랍계 이민자 윌러스 D. 파드(윌러스 파드 무함마드라고도 불림)이다. NOI는 1934년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 일라이자 무함마드가 조직 헤게모니를 장악하면서 성장하기 시작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말콤 X(본명 Malcolm Little)와 권투선수 무함마드 알리(본명 Cassius Marcellus Clay, Jr.) 등 수만 명 이상의 미국 흑인을 추종자로 끌어 들였고, 1970년대에는 종교 사원 숫자가 전국에 걸쳐 70여 곳에 달했다. 종교 학자 에드워드 E. 커티스에 따르면, NOI의 핵심은 이슬람이 본래 흑인의 종교 였으나 이것이 대서양 노예무역 시기에 백인에 의해 탈취당했다는 생각이다. 백인을 악마라고 규정하면서 완전한 인종분리를 추구했던 NOI는 기독교야말로 흑인의 육체적, 영적 노예 상태를 가져온다고 말하면서 기독교와 결별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흑인에게 영어식 노예 이름을 버리거나 아니면 자신의 역사적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의미로 “X”라는 이름을 사용하라고 강권했던 일라이자 무함마드를 이어 1970년대 후반 이후 NOI의 지배권을 장악한 인물은 루이스 파라칸이었다. 파라칸이 이끌었던 NOI는 실업과 마약 중독에 시달리고 정치 구조에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흑인사회의 무능함을 극복하고자 했던 수많은 청년들을 유인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로빈 켈리가 비판하듯이, NOI의 정책은 자조, 흑인 비즈니스 창업, 남녀 사이의 전통적인 관계 유지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대부분의 경우 혁명적 흑인 민족주의로 무장했던 블랙팬더와 달리 매우 보수적인 아젠다를 지지하고 있었다. NOI의 경제 조직인 파워(POWER: People Organized and Working for Economic Rebirth)와 공화당 흑인 보수주의자들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양자 모두 실업 및 빈곤의 원인을 미국의 구조적인 인종 불평등에서 찾지 않고 흑인의 노동윤리 결핍에서 찾았다는 데 있다라는 비판은 NOI의 보수성을 잘 보여준다. NOI는 아이스 큐브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아이스 큐브는 동부로 갔을 때 멘토에 해당하는 래퍼들 (Chuck D와 S1W 멤버들)로부터 NOI를 소개받은 바 있었다. 비록 그가 NOI에 공식 가입을 하지는 않았으나, 파라칸 스타일의 흑인 민족주의, 흑인 국가의 형성, 영적인 갱생, 커뮤니티 컨트롤 담론 등은 아이스 큐브에게 적지 않은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제프 창에 의하면, 아이스 큐브는 또한 사우스 센트럴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왔을 때 NOI 계열의 래퍼 크레이그 밀러(Craig “Kam” Miller)와 활동가 칼리드 압둘 무함마드 등과 자주 어울렸는데, 이러한 만남은 그에게 일종의 은신처(refuge)를 제공하기도 했다. Edward E. Curtis, “The Nation of Islam”, Muhammad Afzal Upal and Carole M. Cusack, eds., *Handbook of Islamic Sects and Movements* (Leiden, Netherlands: Brill, 2021), p. 658; Kelley, *Yo’ Mama’s Disfunktional!*, p. 87; Chang, *Can’t Stop Won’t Stop*, p. 333.

- 13)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한 서부 지역의 갱스터 래퍼들은 아프리카에 초점을 둔 흑인 민족주의가 20세기 후반 미국의 “가난한 흑인들이 치러야 하는 매일마다의 전투”를 외면한다고 비난하였다. 아이스 큐브도 솔로 앨범인 『AmeriKKKa’s Most Wanted』에 수록된 곡 「The Nigga Ya Love to Hate」에서 “진정한 흑인이라고 지껄이는 개자식들 / 모두 바다 건너 멀리 [아프리카

- 로] 보내버려 / 돌아오게 해달라고 애원할걸”이라고 노래하면서 흑인 민족주의의 아프리카중심주의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바 있다. Kelley, *Race Rebels*, p. 212.
- 14) Jeff Chang, “Race, Class, Conflict and Empowerment: On Ice Cube’s ‘Black Korea’”, Edward T. Chang and Russell C. Leong, eds., *Los Angeles: Struggles toward Multiethnic Community*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94), p. 88; Chang, *Can’t Stop Won’t Stop*, p. 346.
- 15) Mina Yang, *California Polyphony: Ethnic Voices, Musical Crossroads*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2008), pp. 122-124.
- 16) 퍼블릭 에너미의 「Fight the Power」 가사는 다음 책에서 인용하였다. David Samuels, “The Rap on Rap: The ‘Black Music’ that Isn’t Either”, Murray Forman and Mark Anthony Neal, eds., *That’s the Joint!: The Hip-Hop Studies Reader* (New York: Routledge, 2004), p. 150.
- 17) Ice Cube, *Death Certificate*.
- 18) Regina Freer, “Black-Korean Conflict”, Mark Baldassare, ed., *The Los Angeles Riots: Lessons for the Urban Future* (Boulder: Westview Press, 1994), p. 191.
- 19) Korean American Alliance, “Press Release: Rap Album Denounced for Promoting Racial Violence”, November 4, 1991; Korean American Alliance, “Press Release: KAC Releases Statement on Ice Cube Album”, November 13, 1991, folder 9, box 4248, Tom Bradley Administrative Papers, Department of Special Collections, 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
- 20) *Korea Times*, November 11, 1991; “A Letter Sent to Mayor Bradley by Korean Restaurant Owners Association of Southern California”, November 15, 1991; Yoon Hee Kim, “Rap Group Ice Cube’s New Album Entitled ‘Death Certificate’ (Latest Incident of Current B/K and Race Relations Issues)”, November 4, 1991; “A Letter Sent to Bryan Turner by Mayor Bradley”, December 12, 1991, folder 9, box 4248, Tom Bradley Administrative Papers.
- 21) *Los Angeles Times*, November 2, 1991. 사이먼 비젠탈 센터는 이전에 건즈 앤 로지스(Guns N’ Roses), 퍼블릭 에너미, 마돈나의 노래에 반(反)유대주의가 담겨 있다고 항의한 적은 있지만, 이들의 노래에 대한 보이콧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한편, 로스앤젤레스의 모든 유대인이 사이먼 비젠탈 센터의 주장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록 음악 매니저이자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남가주 지부 회장인 대니 골드버그는 사이먼 비젠탈 센터가 헌법 수정조항 제1조에 의해 보호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Korea Times*, November 25, 1991.

- 22) *Billboard*, November 23, 1991.
- 23) 『한국일보』, 1991년 11월 9일.
- 24) *Los Angeles Times*, November 2, 1991; *Korea Times*, November 25, 1991.
- 25) *Billboard*, December 14, 1991.
- 26) Eithne Quinn, *Nuthin' but a "G" Thang: The Culture and Commerce of Gangsta Rap*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5), pp. 1-3.
- 27) 『한국일보』, 1991년 11월 8일.
- 28) National Korean-American Grocers Association, "Organization Profile", *National KAGRO Journal*, 1(1), 1991, pp. 30-31, folder 24, box 4245, Tom Bradley Administrative Papers.
- 29) 『한국일보』, 1991년 11월 9일; 『한국일보』, 1991년 11월 12일; *Korea Times*, November 18, 1991.
- 30) Jeff Chang, "Race, Class, Conflict and Empowerment", p. 97; Pyong Gap Min, *Caught in the Middle: Korean Communities in New York and Los Angeles*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6), p. 147.
- 31) 『한국일보』, 1991년 11월 22일. 한편, 『빌보드』에 따르면 워싱턴은 이러한 조치를 "일시적인" 것으로 간주했다. 그는 「Black Korea」에 대한 논란이 해결되면 아이스 큐브와 계속 작업할 수 있으리라 예상했다. *Billboard*, December 14, 1991.
- 32) 『한국일보』, 1991년 11월 22일.
- 33) "A Facsimile Message Sent to Yoon Hee Kim by Annie E. Cho, Executive Director of the Korean American Grocers Association of Southern California", March 6, 1992, folder 24, box 4245, Tom Bradley Administrative Papers. 아이스 큐브의 편지는 애니 E. 조가 보낸 팩스 메시지에 첨부되어 있다.
- 34) Office of Mayor, "News: Bradley Announces Major Jobs Program to Be Sponsored by Korean American Grocers Association for South Central Residents", November 14, 1991, folder 8, box 0187, Tom Bradley Administrative Papers.
- 35) Los Angeles City Human Relations Commission, *Doing Business in South Central Los Angeles: A Training Design for Newcomer Merchants*, December, 1991, file HR/00 P037e-002, box D-1295, Los Angeles City Records Center and Archives.
- 36) Korean American Grocers Association, "The Korean American Grocers Association (KAGRO) Statement of 'Good Business Practice'"

- Principles”, January 24, 1992, folder 8, box 0187, Tom Bradley Administrative Papers.
- 37) 재판을 둘러싼 담론 분석을 위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이찬행, 「두순자-할린스 사건에 관한 연구」.
- 38) 『한국일보』, 1991년 11월 22일.
- 39) Elaine H. Kim, “Between Black and White: An Interview with Bong Hwan Kim”, Karin Aguilar-San Juan, ed., *The State of Asian America: Activism and Resistance in the 1990s* (Boston: South End Press, 1994), p.86.
- 40) *Los Angeles Sentinel*, November 21, 1991.
- 41) *Los Angeles Sentinel*, December 12, 1991.
- 42) 베이크웰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이찬행, 「한혹갈등, 베이크웰,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로컬 정부」 『인문과학』, 66호, 2017, 5-37쪽.
- 43) *Los Angeles Times*, November 20, 1991.
- 44) 『한국일보』, 1991년 12월 14일.
- 45) Nadine Koch and H. Eric Schockman, “Riot, Rebellion or Civil Unrest? The Korean American and African American Business Communities in Los Angeles”, George O. Totten III and H. Eric Schockman, eds., *Community in Crisis: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after the Los Angeles Civil Unrest of April 1992* (Los Angeles: Center for Multiethnic and Transnational Studies,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1994), pp. 67-70, pp. 74-76.
- 46) Los Angeles City Human Relations Commission, “Recent Incidents of Anti-Asian Sentiment”, file HR/00 O037e-0009, box D-1295, Los Angeles City Records Center and Archives; *Korea Times*, December 30, 1991; 『한국일보』, 1991년 12월 20일.
- 47) *Korea Times*, December 23, 1991; *Korea Times*, December 30, 1991; 『한국일보』, 1991년 12월 17일.
- 48) *Korea Times*, January 20, 1992.
- 49) 『한국일보』, 1992년 1월 25일; 『한국일보』, 1992년 4월 16일.

Ⅴ 신영현, 다문화 영화 <컬러풀웨딩즈>와 <나의 그리스식 웨딩> 연구

<참고문헌>

단행본

-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15.
- 오경석,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서울: 한울, 2007.
- 이정희,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과 이혼위기에 대한 사례연구』, 대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Cantle, Ted, 홍종열, 김성수, 김윤재, 김정흔 역, 『상호문화주의』 서울: 꿈꿀권리, 2020.
- Frye, Northrop, 임철규 역, 『비평의 해부』 서울: 한길사, 1982.
- Taylor, Charles, 이상형·이광석 역, 『다문화주의와 인정의 정치』 (서울: 하누리, 2020).
- Williams, Raymond, *Culture and Society*, New York: Doubleday & Company, Inc, 1960.

학술논문

- 권경희, 「유럽 다문화주의의 위기: 변화과정과 원인」, 『유럽연구』, 30(2) (2012).
- 김진희, 「다문화주의를 둘러싼 국제 갈등 이슈와 다문화교육의 방향 성찰」, 『다문화교육연구』, 7(1) (2014).
- 김희정, 「한국의 관주도형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 이론과 한국적 적용」,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서울: 한울, 2007.
- 류동규, 「상호문화성 형성을 위한 다문화 소설교육: 박범신 장편소설 『나마스테』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65 (2017).
- 문선애, 「자문화중심주의(Ethnocentrism)와 다문화교육자의 리더십」, 『종교교육학연구』, 37 (2011).
- 박준웅, 「문화충돌의 상황에서의 관용의 효용에 대한 연구」, 『문화와 융합』, 41(4) (2019).
- 신원선, 「코미디 영화에 나타난 인종 간 결혼갈등 연구」,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8(1) (2019).
- 유명기, 「문화상대주의와 반문화상대주의」, 『비교문화연구』, 1 (1993).
- 이예훈, 「『새벽의 약속』에 그려진 로맹 가리의 유년시절-동유럽 거주를 중심으로」, 『한국프랑스학논집』, 107 (2019).
- 이정민, 「영화 ‘컬러풀 웨딩즈’: 다양성과 톨레랑스를 만나다, 시농」, 『국토』, 457 (2019).
- 장신재, 「다문화 수용태도 결정요인: 2018년 일반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를 중심으로」, 『복지와 문화다양성 연구』, 2(2) (2020).

추미화, 「영화 속 프랑스 다문화: 컬러풀 웨딩즈 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10(6) (2019).

허라금, 「혐오 발화, 그 억압의 두 얼굴: '문화제국주의'와 '폭력」, 『문화와 융합』, 40(4) (2018).

웹사이트

https://www.unesco.or.kr/data/unesco_news/view/755/693/page (검색일: 2022년 9월 7일)

〈주석〉

- 1) 오경석,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서울: 한울, 2007), 31-32쪽.
- 2) 김희정, 「한국의 관주도형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 이론과 한국적 적용」,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서울: 한울, 2007), 66쪽.
- 3) 김진희, 「다문화주의를 둘러싼 국제 갈등 이슈와 다문화교육의 방향 성찰」, 『다문화교육연구』, 7권, 1호(2014), 103쪽.
- 4) Raymond Williams, *Culture and Society*, (New York: Doubleday & Company, Inc, 1960), p. xiv.
- 5) https://www.unesco.or.kr/data/unesco_news/view/755/693/page
- 6) 박준웅, 「문화충돌의 상황에서의 관용의 효용에 대한 연구」, 『문화와 융합』, 41권, 4호(2019), 1쪽.
- 7) 같은 책, 2-3쪽.
- 8) 같은 책, 3쪽.
- 9) 같은 책, 3쪽.
- 10) 이정희,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과 이혼 위기에 대한 사례 연구」, (대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19쪽.
- 11) 신원선, 「코미디 영화에 나타난 인종 간 결혼갈등 연구」,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8권, 1호(2019), 232쪽.
- 12) 조엘 즈웬이 감독을 맡고 톰 행크스가 제작한 위 영화는 제75회 아카데미 각본상 후보까지 올랐으며, 개봉 당시 20주간 박스오피스 2위에 오르며 역대 로맨틱 코미디 사상 최고의 수입 기록을 세운 바 있다.
- 13) 신원선, 앞의 논문, 237쪽.
- 14) 물론 거스가 윈텍스를 만병통치약으로 믿은 것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 영화에서는 ailment, 즉 가벼운 질병의 치료제로 윈텍스의 효능을 믿는 것으로 그려지는데, 아마도 피부 질환이나 증기 등 연고(ointment)를 발라야 하는 질병에

대해 윈텍스가 효용이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영화의 후반부에 이안이 얼굴에 난 뾰루지에 윈텍스를 발라서 나왔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윈텍스에 대한 거스의 맹신은 그의 또 다른 맹신인 그리스 우월주의와 연결되면서 양자를 희화화한다.

- 15) 이정민, 「영화 ‘컬러풀 웨딩즈’: 다양성과 톨레랑스를 만나다, 시농」, 『국토』, 457호, (2019), 54쪽.
- 16) 같은 논문, 53쪽.
- 17) 우리말의 ‘콩가루 집안’과 유사한 뉘앙스이다. 사전적으로 ‘콩가루 집안’은 “가족 구성원 간의 상하 질서가 흐트러지거나 유대 관계가 깨어져 버린 집안”을 의미한다.
- 18) 추미화, 「영화 속 프랑스 다문화: 컬러풀 웨딩즈 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10권, 6호, (2019), 1006쪽.
- 19) 같은 논문, 1006쪽.
- 20) 이예훈, 「『새벽의 약속』에 그려진 로맹 가리의 유년 시절-동유럽 거주를 중심으로」, 『한국프랑스학논집』, 107권(2019), 16쪽.
- 21) 추미화, 앞의 논문, 1008쪽.
- 22) 권경희, 「유럽 다문화주의의 위기: 변화과정과 원인」, 『유럽연구』, 30권 2호, (2012년), 84쪽.
- 23) 같은 논문, 85쪽.
- 24) 신원선, 앞의 논문, 241쪽.
- 25) 문화상대주의란 1930년대 미국의 두 인류학자 베네딕트(Ruth Benedict)와 허스코비츠(Melville Herskovits)에 의해 주창된 이론으로, “문화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개별문화는 자율성과 독자적인 가치체계를 갖는다는 것, 그리고 인간의 사고방식과 행동은 그가 속하는 문화의 가치판단에 따라 규정된다는 것, 따라서 개인의 인식과 행위는 각 문화의 맥락에서 이해되고 평가되어야 한다는 상대주의적 문화이해의 입장”을 가리킨다. 유명기, 「문화상대주의와 반문화상대주의」, 『비교문화연구』, 창간호, (1993), 31쪽. 문화상대주의란 “다른 사회권의 문화가 자신이 속한 문화보다 우월하다고 믿고 무비판적으로 그것을 동경하거나 숭상하며, 자신의 문화에 대해서는 업신여기고 낮게 평가하는 태도나 주의”(두산백과)를 가리킨다.
- 26) 문선애, 「자문화중심주의(Ethnocentrism)와 다문화교육자의 리더십」, 『종교교육학연구』, 37권(2011), 176쪽.
- 27) 문화제국주의란 “한 특정 집단이 문화적 지배력을 독점 혹은 지배함으로써 그들과 다른 집단을 억압하는 것”을 의미한다. 허라금, 「협오 발화, 그 억압의 두 얼굴: ‘문화제국주의’와 ‘폭력」, 『문화와 융합』, 40권 4호(2018), 79쪽.
- 28) 신원선, 앞의 논문, 245쪽.

- 29) 장신재, 「다문화 수용태도 결정요인: 2018년 일반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를 중심으로」, 『복지와 문화다양성 연구』, 2권 2호(2020), 87쪽.
- 30) 신원선, 앞의 논문, 239쪽.
- 31) 같은 논문, 239쪽.
- 32)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15), 193쪽.
- 33) 신원선, 앞의 논문, 242쪽.
- 34) 류동규는 상호문화적 정체성을 “다문화 상황에서 역동적, 과정적으로 형성되는 정체성으로, 문화간 차이를 인식하고 이를 인정하는 차원을 넘어서 문화적 보편성 및 융합을 추구하고자 하는 지향”으로 정의한다. 류동규, 「상호문화성 형성을 위한 다문화 소실교육: 박범신 장편소설 『나마스떼』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65집(2017), 303쪽.
- 35) Charles Taylor, 이상형·이광석 역, 『다문화주의와 인정의 정치』 (서울: 한누리, 2020), 64쪽.
- 36) Ted Cantle, 홍종열, 김성수, 김윤재, 김정훈 역. 『상호문화주의』 (꿈꿀권리, 2020), 11쪽.
- 37) 같은 책, 58쪽.
- 38) 같은 책, 246쪽.
- 39) Northrop Frye, 임철규 역, 『비평의 해부』 (서울: 한길사, 1982), 64쪽.

▣ 권은혜, 제2차 세계대전 일본계 미국인 재정착 정책과 조건부 이동성

〈참고문헌〉

- 미미 셸러, 최영석 역, 『모빌리티 정의: 왜 이동의 정치학인가?』 (서울: 알피, 2019).
- 팀 크레스웰, 최영석 역, 『온더무브: 모빌리티의 사회사』 (알피, 2021).
- Austin, Allan W. Austin, “National Japanese American Student Relocation Council,” Densho Encyclopedia, https://encyclopedia.densho.org/National_Japanese_American_Student_Relocation_Council/ (검색일: 2022년 8월 30일).
- Bay, Mia. *Traveling Black: A Story of Race and Resistance* (Harvard University Press, 2021).
- Briones, Matthew M. *Jim and Jap Crow: A Cultural History 1940s Interracial Americ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2).

- Cresswell, Tim. "Citizenship in worlds of mobility," in Ola Soderstrom, et al., eds., *Critical Mobilities* (London: Routledge, 2013).
- _____. *The Tramps in America* (Reaktion Books, 2001).
- Daniels, Roger. *Prisoners Without Trial: Japanese Americans in World War II*(New York: Hill and Wang, 2004, Rev. Ed.)
- Hague, Euan. "'The Right to Enter Every Other State': The Supreme Court and African American Mobility in the United States," *Mobilities* 5:3 (2010), 331-347.
- Harden, Jacalyn D. *Double Cross: Japanese Americans in Black and White Chicago*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3), E-book.
- Howard, John. *Concentration Camps on the Home Front: Japanese Americans in the House of Jim Crow*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8).
- Inada, Lawson Fusao, ed., *Only What We Could Carry: The Japanese American Internment Experience* (Berkeley: Hey Books, 2000).
- Kelley, Blair Murphy. *Right to Ride: Street Car Boycotts and African American Citizenship in the Era of Plessy v. Ferguson*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10)
- Kurashige, Scott. *The Shifting Grounds of Race: Black and Japaese Americans in the Making of Multiethnic Los Angel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8).
- Lyon, Cherstin M. "Loyalty Questionnaire," Densho Encyclopedia, https://encyclopedia.densho.org/Loyalty_questionnaire/ (검색일: 2022년 7월 28일).
- _____. *Prisons and Patriots: Japanese American Citizenship, Civil Disobedience, and Historical Memory*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2012).
- Miller, Douglass K. *Indians on the Move: Native American Mobility and Urbanization in the Twentieth Century*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19).
- Murata, Alice Kishiye. *Japanese Americans in Chicago, IL.* (Charleston, SC: Arcadia Publishing Library Editions, 2002).
- O'Brien, Robert W. *The College Nisei* (Palo Alto: Pacific Books, 1949).
- Pacyga, Dominic A. "South Side," *Encyclopedia of Chicago*, <http://www.encyclopedia.chicagohistory.org/pages/1177.html> (검색일: 2022년 8월 21일).
- Pryor, Elizabeth Stordeur. *Colored Travelers: Mobility and the Fight for*

- Citizenship before the Civil War*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16).
- Robinson, Greg. *By Order of the President: FDR and the Internment of Japanese American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1).
- Seeley, Samantha. *Race, Removal, and the Right to Remain: Migration and the Making of the United States*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21).
- Shaffer, Robert. “Robert O’Brian,” Densho Encyclopedia, https://encyclopedia.densho.org/Robert_O%27Brien/ (검색일: 2022년 7월 20일).
- Sorin, Gretchen. *Driving While Black: African American Travel and the Road to Civil Rights* (New York: Liveright, 2020).
- Thomas, Dorothy Swaine and Richard S. Nishimoto. *The Spoilage: Japanese American Evacuation and Resettlement during World War II*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46).
- Thomas, Dorothy Swaine. *The Salvag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52).
- US Dept of the Interior, J.A. Krug, Secretary, and War Relocation Authority, Dillon S. Myer, Director, *WRA: A Story of Human Conservation*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46).
- Wu, Ellen D. *The Color of Success: Asian Americans and the Origins of the Model Minori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
- _____. “Resettlement in Chicago,” Densho Encyclopedia, https://encyclopedia.densho.org/Resettlement_in_Chicago/ (검색일: 2022년 7월 10일).
- Yoo, David K. *Growing Up Nisei: Race, Generation, and Culture among Japanese Americans of California, 1924-49*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2000).

〈주석〉

- 1) 지리학자 팀 크레스웰은 고전 그리스 아테네에서부터 서구 근대 국민국가에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시민권을 정의하는 방식을 추적했다. Tim Cresswell, “Citizenship in worlds of mobility,” in Ola Soderstrom, et al., eds., *Critical Mobilities* (London: Routledge, 2013), Chapter 4.
- 2) 문화 및 도시 지리학자들의 미국 소수자 모빌리티 관련 연구 중 대표적 예는 다

- 음과 같다. Euan Hague, “‘The Right to Enter Every Other State’: The Supreme Court and African American Mobility in the United States,” *Mobilities* 5:3 (2010), pp. 331-347; Tim Cresswell, *The Tramps in America* (Reaktion Books, 2001); 팀 크레스웰, 최영석 역, 『온더무브: 모빌리티의 사회사』 (앨피, 2021).
- 3) 미미 셸러 지음, 최영석 옮김, 『모빌리티 정의: 왜 이동의 정치학인가?』 (서울, 앨피, 2019), 65쪽.
 - 4) 건국 초기 인디언 제거와 해방 흑인 식민화 정책에 대한 미국 백인 엘리트, 인디언과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대응에 관한 분석은 다음을 참고하라. Samantha Seeley, *Race, Removal, and the Right to Remain: Migration and the Making of the United States*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21). 노예해방 직전과 이후 짐크로 시대에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꾸준히 이동과 여행의 자유를 추구했다. Mia Bay, *Traveling Black: A Story of Race and Resistance* (Harvard University Press, 2021); Blair Murphy Kelley, *Right to Ride: Street Car Boycotts and African American Citizenship in the Era of Plessy v. Ferguson*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10); Elizabeth Stordeur Pryor, *Colored Travelers: Mobility and the Fight for Citizenship before the Civil War*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16); Gretchen Sorin, *Driving While Black: African American Travel and the Road to Civil Rights* (New York: Liveright, 2020).
 - 5) US Dept of the Interior, J. A. Krug, Secretary, and War Relocation Authority, Dillon S. Myer, Director, *WRA: A Story of Human Conservation*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46), pp. 151-152.
 - 6) 1942년 봄부터 UC 버클리 사회학과 교수였던 도로시 스웨인 토마스는 일본계 미국인 소개 및 재정착연구(JERS) 팀을 꾸렸고 전후 2권의 책을 출간했다. Dorothy Swaine Thomas and Richard S. Nishimoto, *The Spoilage: Japanese American Evacuation and Resettlement during World War II*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46); *Dorothy Swaine Thomas, The Salvag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52). 토마스의 1952년 저서는 중서부와 동부에 재정착한 일본계 미국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시카고대 사회학과에서는 시카고에 재정착한 일본계 미국인의 정착 양상을 분석하는 학술연구논문과 저서를 출간했다. 역사가 엘렌 우에 따르면, 동화정책으로서 WRA의 재이주정책과 그 효과에 관한 당대 사회학자들의 연구는 전후 아시아계 미국인 모범적 소수자 담론의 여러 기원 중 하나였다. Ellen D. Wu, *The Color of Success: Asian Americans and the Origins of the Model Minori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 pp. 150-180.

- 7) *WRA: A Story of Human Conservation*
- 8) Roger Daniels, *Prisoners Without Trial: Japanese Americans in World War II* (New York: Hill and Wang, 2004, Rev. ed.), p. 80.
- 9) *Ibid.*, p. 82.
- 10) 재정착 정책에 관한 일본계 미국인의 입장이나 재정착 경험은 다음 2차 사료에서 추렸다. Matthew M. Briones, *Jim and Jap Crow: A Cultural History 1940s Interracial Americ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2); Alice Kishiye Murata, *Japanese Americans in Chicago, IL.* (Arcadia Publishing Library Editions (2002); John Howard, *Concentration Camps on the Home Front: Japanese Americans in the House of Jim Crow*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8); Lawson Fusao Inada, ed., *Only What We Could Carry: The Japanese American Internment Experience* (Berkeley: Heyday Books, 2000); Scott Kurashige, *The Shifting Grounds of Race: Black and Japanese Americans in the Making of Multiethnic Los Angel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8); David K. Yoo, *Growing Up Nisei: Race, Generation, and Culture among Japanese Americans of California, 1924-49*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2000).
- 11) *WRA: A Story of Human Conservation*, pp. 26-32.
- 12) *Ibid.*, pp. 32-34.
- 13) *Ibid.*, p. 37.
- 14) *Ibid.*, pp. 36-37.
- 15) *Ibid.*, p. 38.
- 16) *Ibid.*, p. 39.
- 17) *Ibid.*, p. 40.
- 18) Daniels, *Prisoners Without Trial*, p. 80.
- 19) *Ibid.*
- 20) John Howard, *Concentration Camps on the Home Front: Japanese Americans in the House of Jim Crow*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8), pp. 223-224.
- 21) *WRA: A Story of Human Conservation*, p. 190.
- 22) Greg Robinson, *By Order of the President: FDR and the Internment of Japanese American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1), pp. 218-222.
- 23) 군입대, 취업, 대학 진학을 위해 석방과 재정착을 신청하려면 WRA의 '무기한

석방 신청서'라고 불린 재이주 신청서류 양식을 작성해야 했다. 이 신청서에 WRA는 그 악명높은 충성심 질문—"당신은 미국에 무조건적으로 충성을 맹세하고 일본 천황, 그 밖의 다른 외국의 정부나 권력 혹은 조직에 대해 그 어떤 형태의 충성 맹세나 복종을 포기할 것인가"—을 포함시켰다. 이 질문은 미국에 대한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해 수용소에 갇혀 있던 일본계 미국인들을 좌절시켰다. 니세이 중 약 20%는 이 질문에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Cherstin M. Lyon, "Loyalty Questionnaire," *Densho Encyclopedia*, https://encyclopedia.densho.org/Loyalty_questionnaire/ (검색일: 2022년 7월 28일). 충성심 질문과 일본계 미국인 시민권에 관한 라이언의 저서도 참고하라. Cherstin M. Lyon, *Prisons and Patriots: Japanese American Citizenship, Civil Disobedience, and Historical Memory*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2012).

- 24) *WRA: A Story of Human Conservation*, p. 125.
- 25) *Ibid.*, p. 121.
- 26) *Ibid.*, pp. 122-123.
- 27) *Ibid.*, p. 123.
- 28) *Ibid.*, p. 135.
- 29) *Ibid.*, pp. 135-137.
- 30) Howard, *Concentration Camps on the Home Front*, pp. 223-228.
- 31) *WRA: A Story of Human Conservation*, pp. 142-143.
- 32) *Kurashige, The Shifting Ground of Race*, p. 166.
- 33) *Ibid.*
- 34) *WRA: A Story of Human Conservation*, pp. 149-150.
- 35) *Ibid.*, p. 150, p. 153.
- 36) *Kurashige, The Shifting Ground of Race*, p. 167.
- 37) *WRA: A Story of Human Conservation*, pp. 151-152.
- 38) *Ibid.*, p. 192.
- 39) *Ibid.*, p. 187, p. 192.
- 40) *Ibid.*, p. 192.
- 41) *Ibid.*
- 42) *Ibid.*, pp. 187-188.
- 43) Inada, ed., *Only What We Could Carry*, p. 265.
- 44) 오브라이언은 전시 니세이 대학 진학 정책을 관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니세이

- 대학생을 수용한 지역에서의 반응과 니세이의 동화 과정을 다룬 『니세이 대학생』이라는 책을 저술했다. Robert W. O'Brien, *The College Nisei* (Palo Alto: Pacific Books, 1949). 오브라이언의 생애와 웨이커 평화주의자, 인종관계 연구자로서 NJASRC 활동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고하라. Robert Shaffer, "Robert O'Brian," *Densho Encyclopedia*, https://encyclopedia.densho.org/Robert_O%27Brien/ (검색일: 2022년 7월 20일).
- 45) NJASRC에 대한 설명을 다음을 참고했다. Allan W. Austin, "National Japanese American Student Relocation Council," *Densho Encyclopedia*, https://encyclopedia.densho.org/National_Japanese_American_Student_Relocation_Council/ (검색일: 2022년 8월 30일).
- 46) Inada, ed., *Only What We Could Carry*, p. 279.
- 47) 오브라이언의 관찰과 키타노의 심정은 다음 책에서 재인용했다. Yoo, *Growing Up Nisei*, pp. 111-112.
- 48) *Ibid.*, p. 111.
- 49) "Letters from relocated internees," in Inada, ed., *Only What We Could Carry*, p. 284.
- 50) Yoo, *Growing Up Nisei*, p. 112.
- 51) Lillian Ota, "Campus Report," in Inada, ed., *Only What We Could Carry*, pp. 279-284.
- 52) "Letters from relocated internees," in Inada, ed., *Only What We Could Carry*, p. 284.
- 53) Yoo, *Growing Up Nisei*, p. 113.
- 54) Ota, "Campus Report," p. 281.
- 55) Yoo, *Growing Up Nisei*, pp. 111-112.
- 56) *Ibid.*, 112-113.
- 57) 1940년 시카고의 일본계 미국인은 390명에 불과했으나 전쟁 기간 중 재이주자의 유입으로 2만 명 이상에서 거의 3만 가까이 증가했다. 1945년 초 서부 해안으로 귀환이 가능해지자 많은 일본계 미국인들이 시카고를 떠나 1950년 시카고의 일본계 미국인 인구는 만 명 초반대로 떨어졌다. Murata, *Japanese Americans in Chicago*, p. 7. 시카고 내 일본계 미국인 주거 클러스터에 대한 설명은 재켈린 하든의 연구를 참고하라. Jacalyn D. Harden, *Double Cross: Japanese Americans in Black and White Chicago*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3), Chapter 4, 10th para., E-book.
- 58) 무라사키와 카와이의 회고는 하든과의 인터뷰에서 나왔다. *Ibid.*, Chapter 4,

- 12th and 13th para., E-book. 시카고 일본계 미국인의 종교 활동에 관한 설명을 다음을 참고하라. Murata, *Japanese Americans in Chicago*, p. 63.
- 59) 사우스사이드에 1920년대 대이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처음 대거 유입되고 20세기 후반기 아프리카계 미국인 집중 거주 지역으로 발전했지만 19세기 중반부터 1940년대까지는 다양한 유럽 이민자들의 주거지이기도 했다. Dominic A. Pacyga, "South Side," *Encyclopedia of Chicago*, <http://www.encyclopedia.chicagohistory.org/pages/1177.html> (검색일: 2022년 8월 21일).
- 60) 기쿠치의 이야기는 브리온스의 책에서 재인용했다. Briones, *Jim and Jay Crow*, pp. 168-169.
- 61) Murata, *Japanese Americans in Chicago*, p. 74.
- 62) Kurashige, *The Shifting Ground of Race*, pp. 169-171.
- 63) 키요타의 이야기는 다음의 내용을 요약했다. Minoru Kiyota, "From Beyond Loyalty," in Inada, ed., *Only What We Could Carry*, pp. 292-311. 키요타의 직접 인용은 306-307쪽에 나온다.
- 64) 셸러, 『모빌리티 정의: 왜 이동의 정치학인가?』, 304-308쪽.
- 65) Murata, *Japanese Americans in Chicago*, p. 7.
- 66) 시카고 재정착자 위원회에 관한 설명은 다음을 참고했다. Ellen Wu, "Resettlement in Chicago," *Densho Encyclopedia*, https://encyclopedia.densho.org/Resettlement_in_Chicago/ (검색일: 2022년 7월 10일).
- 67) 인디언 도시 재이주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고하라. Douglass K. Miller, *Indians on the Move: Native American Mobility and Urbanization in the Twentieth Century*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19).

▣ 김혜련,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의 한인사회와 초국가 공동체

〈참고문헌〉

- 김혜련. "일본 화교 화인 민족집거지의 형성과 화교단체의 역할." 『동북아문화연구』제 51집(2017), pp.33-52.
- 민병갑·주동완. "뉴욕 플러싱, 베이사이드 지역의 한인타운." 『코리아타운과 한국문화』서울: 북코리아, 2012.
- 선봉규. "한국에서 외국인 집거지의 형성과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 고려인마을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83호(2017), pp.193-214.

- 선봉규. "중국조선족과 재일코리안의 한류(Korean Wave)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제19권 4호(2014), pp.89-110.
- 송해련. "서탑 코리아타운과 심양한국주 축제의 지식맵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박사학위논문(2017), pp.1-151.
- 신춘호. "심양 코리아타운 '서탑'과 한국문화: 심양한국주간과 2010 중국글로벌한상대회의의 경우." 『재외한인연구』제24호(2011), pp.173-233.
- 이심홍·김민형.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의 도시 포용성 연구: 행위자-연결망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제20권 제10호(2020), pp.177-189.
- 임영상.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의 변화와 민족문화축제." 『중국학연구』제70집(2014), pp.429-463.
- 임영언. "초국가시대 세제디아스포라 민족공동체의 변화 양상에 관한 고찰." 『한국동북아논총』 제59호(2011), pp.231-261.
- 주동완·임영상. "코리아타운의 활성화와 위키콘텐츠: 뉴욕 플러싱 K-Town 위키백과 구축." 『인문콘텐츠』제44호(2017), pp.37-58.
- Anderson, Benedict. *Imagined Communities. Revised Edition*, Verso, 1991.
- L. Basch, Nina Glick Schiller and C. Szanton Blanc, *Nations Unbound: Transnational Projects, Postcolonial Predicaments and Deterritorialized Nation-States*(Basle: Gordon & Breach, 1994).
- 郭梦琪. "从在华韩商看中韩文化交流与融合: 以沈阳西塔商业街为例." 『商业流通』(2011), pp.8-9.
- 吉国秀·李晓林. "西塔的变迁: 一个空间社会学的视角." 『沈阳师范大学学报』191期(2015), pp.37-39.
- 刘秋月. "沈阳西塔民族社区经济竞争优势初探." 『时代教育』第11期(2011), pp.261-262.
- 刘昱彤·唐梅. "论族群认同在城市民族社区发展中的作用: 以沈阳西塔为例." 『研究·工作』(2011), pp.49-50.
- 沈阳市民委民族志编纂办公室. 『沈阳朝鲜族志』沈阳: 辽宁民族出版社, 1989.
- 伟萍. "沈阳西塔街: 昨日棚户区, 今天北方'小汉城'." 『城乡建设』2007年第7期(2007), pp.76-77.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3월 통계월보』,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index.do> (검색일: 2024.04.23.)
- 안상경, "서탑코리아타운: 조선인 거리에서 중국 최대의 코리아타운으로," 월드코리아 (2022), <https://www.worldkorean.net/news/articleView.html?idxn=45239>(검색일: 2024.03.29)
- 재외동포청, 『2023 재외동포현황』, <https://oka.go.kr/oka/information/know/status/>(검색일: 2024.03.18.)
- "2023中国(沈阳)韩国周开幕",

https://roll.sohu.com/a/723893559_362042
(검색일: 2024.04.25)

沈阳市统计局, 『2023年沈阳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https://tjj.shenyang.gov.cn/sjfb/tjgb/202404/t20240411_4629092.html(검색일: 2024.03.22)

沈阳市和平区西塔朝鲜族小学, <https://baike.baidu.com/>
(검색일: 2024.04.29.)

沈阳市朝鲜族第六中学,
<http://jz.tcmmap.com.cn/campus/1/shenyangshichaoxianzudiliuzhongxue.html>(검색일: 2024.04.29.)

<주석>

- 1) 재외동포청이 발표한 『2023 재외동포현황』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전 세계 총 181개국에 708만1,510명의 재외동포가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다. 재외동포청, 『2023 재외동포현황』, <https://oka.go.kr/oka/information/know/status/>(검색일: 2024.03.18)
- 2) 주동완·임영상, “코리아타운의 활성화와 위키콘텐츠: 뉴욕 플러싱 K-Town 위키백과 구축,” 『인문콘텐츠』제44호(2017), p.37.
- 3) 재외동포청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중국에는 215,964명의 재외국민과 1,893,763명의 외국국적동포 즉 중국 조선족이 정착하고 있다. 재외동포청, 『2023 재외동포현황』, <https://oka.go.kr/oka/information/know/status/>(검색일: 2024.03.18)
- 4) 沈阳市统计局, 『2023年沈阳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https://tjj.shenyang.gov.cn/sjfb/tjgb/202404/t20240411_4629092.html
(검색일: 2024.03.22)
- 5) 沈阳市民委民族志编纂办公室, 『沈阳朝鲜族志』(1989), 辽宁民族出版社, p.2.
- 6) L. Basch, Nina Glick Schiller and C. Szanton Blanc, *Nations Unbound: Transnational Projects, Postcolonial Predicaments and Deterritorialized Nation-States*(Basle: Gordon & Breach, 1994), p.7.
- 7)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한국 체류 외국인의 규모는 2,594,936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3월 통계월보』,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index.do>(검색일: 2024.04.23)
- 8) 伟萍, “沈阳西塔街: 昨日棚户区, 今天北方'小汉城',” 『城乡建设』2007年第7期(2007), pp.76-77.
- 9) 吉国秀·李晓林, “西塔的变迁: 一个空间社会学的视角,” 『沈阳师范大学学报』191期

- (2015), pp.37-39.
- 10) 刘昱彤·唐梅, "论族群认同在城市民族社区发展中的作用: 以沈阳西塔为例," 『研究工作』(2011), pp.49-50.
 - 11) 郭梦琪, "从在华韩商看中韩文化交流与融合: 以沈阳西塔商业街为例," 『商业流通』(2011), pp.8-9.
 - 12) 刘秋月, "沈阳西塔民族社区经济竞争优势初探," 『时代教育』第11期(2011), p.262.
 - 13) 신춘호, "심양 코리아타운 '서탑'과 한국문화: 심양한국주간과 2010중국글로벌 한상대회의의 경우," 『재외한인연구』제24호(2011), pp.173-233.
 - 14) 임영상,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의 변화와 민족문화축제," 『중국학연구』제70집(2014), pp.429-463.
 - 15) 송해련, "서탑 코리아타운과 심양한국주 축제의 지식맵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박사학위논문(2017), pp.1-162.
 - 16) 이심홍·김민형,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의 도시 포용성 연구: 행위자-연결망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제20권 제10호(2020), pp.177-189.
 - 17) 선봉규, "한국에서 외국인 집거지의 형성과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 고려인마을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83호(2017), p.196.
 - 18) 민병갑·주동완, "뉴욕 플래싱, 베이사이드 지역의 한인타운," 『코리아타운과 한국문화』(2012), 북코리아, p.54,
 - 19) 김혜련, "일본 화교 화인 민족집거지의 형성과 화교단체의 역할," 『동북아문화연구』제51집(2017), pp.36-37.
 - 20) Anderson, Benedict. *"Imagined Communities. Revised Edition"*, Vers, 1991; 임영언, "초국가시대 세계디아스포라 민족공동체의 변화 양상에 관한 고찰," 『한국동북아논총』 제59호(2011), p.235,
 - 21) 임영언, p.236.
 - 22) 沈阳市统计局, 『2023年沈阳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https://tjj.shenyang.gov.cn/sjfb/tjgb/202404/t20240411_4629092.html
(검색일: 2024.03.25)
 - 23) 伟萍(2007), p.76
 - 24) 沈阳市和平区西塔朝鲜族小学, <https://baike.baidu.com/>(검색일: 2024.04.29)
 - 25) 沈阳市朝鲜族第六中学,
<http://jz.tcmmap.com.cn/campus/1/shenyangshichaoxianzudiliuzhongxue.html>(검색일: 2024.04.29)
 - 26) 안상경, "서탑코리아타운: 조선인 거리에서 중국 최대의 코리아타운으로," 월드코리아(2022),
<https://www.worldkorean.net/news/articleView.html?idxno=45239>

(검색일: 2024.03.29)

27) 안상경(2022),

<https://www.worldkorean.net/news/articleView.html?idxno=45239>

(검색일: 2024.03.29)

28) "2023中国(沈阳)韩国周开幕", https://roll.sohu.com/a/723893559_362042

(검색일: 2024.04.25)

29) 임영상(2014), p.450.

30) 선봉규, "중국조선족과 재일코리안의 한류(Korean Wave)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제19권 4호(2014), p.94.

31) 선봉규(2014), p.96.

▣ 정혜경, 자이니치의 해방구에서 공생의 플랫폼으로 -오사카 조선부락-

〈참고문헌〉

『日本帝國統計年鑑』, 해당연도

內務省 警保局, 『社會運動の狀況』, 해당연도

統監府, 『統監府法規提要』, 統監府 印刷局, 1910

『東亞通航組合 第3回 定期大會議事草案』

野口赫宙, 「朝鮮人聚落を行く」, 1937

동아일보, 조선일보, 민중시보

朴在一, 『在日朝鮮人に關する綜合調査研究』, 新紀元社, 1957

森田芳夫, 『朝鮮終戰の紀錄 : 美ソ兩軍の駐屯と日本人の引揚』, 嚴南堂書店, 1964

岩村登志夫, 『在日朝鮮人と日本勞働者階級』, 橋昌書房, 1972

朴慶植, 『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2, 三一書房, 1975

宮本憲一, 『日本資本主義發達史の基礎知識』, 有斐閣, 1975

高峻石, 『越境』, 社會評論社, 1977

小澤有作, 『在日朝鮮人』, 新人物往來社, 1978

金鍾在述, 玉城素編, 『在日韓國人一代』, 圖書出版社, 1978

朴慶植, 『在日朝鮮人運動史 - 8.15 解放前』, 三一書房, 1979

赤松俊秀 外, 『日本古文書學講座 - 近代編1』, 雄山閣, 1979

朴慶植, 『在日朝鮮人 - 私の青春』, 三一書房, 1981

- 姜徹, 『在日朝鮮人史年表』, 雄山閣, 1983
- 朴慶植, 『朝鮮問題資料叢書』5, 三一書房, 1983
- 金泰燁, 『抗日朝鮮人の証言』, 不二出版社, 1984
- 金泰生, 『私の人間地圖』, 青弓社, 1985
- 金贊汀, 『關釜聯絡船』, 朝日新聞社, 1988
- 立教大學史學科 山田ゼミナル 編, 『生きぬいた証に』, 綠陰書房, 1989
- 法務省 出入國管理局, 『在留外國人統計』, 1993
- 최영호, 『재일한국인과 조국 광복』, 글모인, 1995
- 尹健次 지음, 하중문·이애숙 옮김, 『일본 - 그 국가, 민족, 국민』, 일월서각, 1997
- 姜在彦·金東勳, 『在日韓國·朝鮮人』, 圖書出版 昭和, 2000
- 안우식 저, 심원섭 역, 『김사랑 평전』, 문학과지성사, 2000
- 정혜경, 『일제시기 재일조선인 민족운동연구』, 국학자료원, 2001
- 河明生, 『マイノリティの起業者精神-在日韓人事例研究-』, 株式会社ITA, 2003
- 外村 大, 『在日朝鮮人社會の歴史學的研究』, 綠陰書房, 2004
- 在日韓人歷史資料館, 『在日韓人歷史資料館 圖錄』, 明石書房, 2008
- 정혜경, 『일본제국과 조선인 노무자 공출』, 도서출판 선인, 2011
- 호소미 가즈유키 지음, 동선희 옮김, 『디아스포라를 사는 시인 김시중』, 어문학사, 2013
-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人口統計資料集(2016年度版)』
(<http://www.ipss.go.jp/>)
- 미즈노 나오키·문경수 지음, 한승동 옮김, 『재일조선인』, 삼천리, 2016
- 가와타 후미코 지음, 안해룡·김해경 옮김, 『몇 번을 지더라도 나는 녹슬지 않아』, 바다, 2016
- 안해룡 기획 편집, 『조지현 사진집 이카이노 - 일본 속 작은 제주』, 각, 2018
- 정혜경, 『항일과 친일의 재일코리안운동』, 도서출판 선인, 2021
- 임영연, 『재일코리안 기업의 성장과 모국 기여활동』, 도서출판 선인, 2021
- 황익구, 『재일코리안의 이주와 정주』, 도서출판 선인, 2021
- 樋口雄一, 「在日朝鮮人部落の積極的役割について」, 『在日朝鮮人史研究』1, 1977
- 田村紀之, 「内務省警保局調査に依る朝鮮人人口(1)」, 『經濟と經濟學』46, 1981
- 水野直樹, 「朝鮮總督府の内地渡航管理政策 - 1910年代の労働者募集取締」, 『在日朝鮮人史研究』22, 1992
- 崔碩義, 「大阪, 小林町朝鮮部落の思い出」, 『在日朝鮮人史研究』20, 1990
- 정혜경, 「1910년대 재일유학생의 경제문제인식 - 학지광을 중심으로」, 『청계사학』 13, 1997
- 정혜경, 「1930년대 초반 오사카지역 협동조합과 조선인운동」(『한일민족문제연구』1, 2001

- 문옥표, 「관서지역 한인동포 생활문화의 특징」, 『일본 관서지역 한인동포의 생활문화』(국립민속박물관), 2002
- 板垣竜太, 「협한류의 해부학」, 『창작과 비평』 여름호, 통권132호, (창작과 비평사, 2006)
- 川村千鶴子, 「ディアスポラ接触とは何か—新宿区大久保地区の多文化化の歴史から」, 『大東文化大学紀要』46, 2007
- 고정자·손미경, 「한국문화 발신지로서의 오사카 이쿠노쿠 코리아타운」, 『글로벌문화콘텐츠』5, 2010
- 高賛侑, 「朝鮮市場からコリアタウンへ」, 猪飼野の歴史と文化を考える会編, 『ニッポン猪飼野ものがたり』, 批評社, 2011
- 이상봉, 「오사카 조선시장의 공간정치 - 글로벌화와 장소성의 변용」, 『한국민족문화』 41집, 2011
- 岩山春夫, 「多文化地域における神社の研究 : 生野猪飼野・御幸森天神宮の場合」, 『空間・社会・地理思想』24(大阪市立大学都市研究プラザ), 2021

http://www.toyo-keizai.co.jp/news/society/2009/post_2232.php

<https://miyukimori.net/about/>

<https://survey.gov-online.go.jp/h14/h14-gaikou/2-1.html>

<https://news.v.daum.net/v/20100131200305151>

<http://www.city.osaka.lg.jp/ikuno/page/0000427171.html>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u_hakseang&logNo=140113882089

〈주석〉

- 1) 일본에 거주하는 한인에 대해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역사적 용어인 재일조선인을 많이 사용했으나 무국적자인 조선적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점으로 최근에는 재일조선·한국인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 두를 포괄하는 개념이자 약칭으로 '재일'을 사용한다. 이 글에서는 '재일'의 발음인 자이니치로 사용하고자 한다.
- 2)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규정한 기본조약 제3조에 따라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자가 되도록 규정했다.
- 3) 정혜경, 『일제시대 재일조선인민족운동연구』, 서울: 국학자료원, 2001, 48쪽
- 4) 부관연락선은 부산에서 시모노세키를 오가는 여객선이다. 시모노세키(하관下關)의 한문 표기에서 '관關'과 부산의 '부釜'를 따서 지은 이름이다.
- 5) 金贊汀, 『關釜聯絡船』, 東京: 朝日新聞社, 1988, 5쪽
- 6) 森田芳夫, 『朝鮮終戰の紀錄 : 美ソ兩軍の駐屯と日本人の引揚』, 東京: 巖南堂書店, 1964, 2쪽

- 7) 1907년 4월 「외국여권규칙(外國旅券規則)」으로 개정했다. 統監府, 『統監府法規提要』, 1910, 299쪽
- 8) 赤松俊秀 外, 『日本古文書學講座 - 近代編1』, 東京: 雄山閣, 1979, 133쪽. ‘내무’란 내국사무(內國事務)의 약칭으로써 외무(外務)에 대한 국내 행정을 의미했다. 내무성은 1873년 11월 10일, ‘국가 안녕 인민 보호의 사무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설치해 1947년 12월 31일 폐지했다.
- 9) 金泰輝, 『抗日朝鮮人の證言』, 東京: 不二出版社, 1984, 39~40쪽
- 10) 당국의 도일 통제에 대해서는 內務省 警保局, 『社會運動の狀況』1930년판, 1203쪽; 朴慶植, 『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2, 東京: 三一書房, 1975, 12쪽과 연구성과(金廣烈, 「戰間期における日本の朝鮮人渡日規制政策」, 『朝鮮史研究會論文集』35, 1997; 정혜경, 앞의 책; 김광열, 『한인의 일본이주사 연구 - 1910~1940년대』, 서울: 논형, 2010) 참조
- 11) 野口赫宙, 「朝鮮人聚落を行く」1937(『在日朝鮮人』, 東京: 新人物往來社, 1978, 266~271쪽 수록)
- 12) 神戸市 社會課, 「在神半島民族の現状」1926, 『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1, 593쪽
- 13) 大阪市 社會部, 「本市に於ける朝鮮人住宅問題」, 『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2, 1193쪽; 大阪市 社會課, 「朝鮮人労働者の近況」1933, 『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5, 805~806쪽; 大阪府 學務部, 「在阪朝鮮人の生活状態」(朴慶植 編, 『朝鮮研究叢書』3, 東京: アジア問題研究所, 1981, 182~183쪽); 樋口雄一, 「在日朝鮮人に對する住宅差別」, 『在日朝鮮人史研究』2, 1978, 74~77쪽
- 14) 조선부락의 성립 경로에 대해서는 樋口雄一, 「在日朝鮮人部落の成立と展開」, 『在日朝鮮人』(新人物往來社, 1978, 553쪽) 참조
- 15) 호소미 가즈유키 지음, 동선희 옮김, 『디아스포라를 사는 시인 김시중』, 서울: 어문학사, 2013, 165쪽
- 16) 樋口雄一, 「在日朝鮮人部落の成立と展開」, 562쪽
- 17) 朴慶植, 『在日朝鮮人運動史 - 8.15 解放前』, 東京: 三一書房, 1979, 374쪽
- 18) 상세한 내용은 정혜경, 『항일과 친일의 재일코리아운동』(서울: 도서출판 선인, 2021) 참조
- 19) 外村 大, 앞의 책, 218~226쪽
- 20) “대판재주 재주동포 수도부설을 계획”, 조선일보(1929.8.16)
- 21) 樋口雄一, 「在日朝鮮人部落の積極的役割について」, 『在日朝鮮人史研究』1, 1977, 28~29쪽. 협동조합운동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정혜경, 「1910년대 재일유학생의 경제문제인식 - 학지광을 중심으로」(『청계사학』13, 1997); 정혜경, 「1930년대 초반 오사카지역 협동조합과 조선인운동」(『한일민족문제연구』1, 2001)참조
- 22) 姜徹, 『在日朝鮮人史年表』, 東京: 雄山閣, 1983, 164쪽

- 23) 朴慶植, 『朝鮮問題資料叢書』5, 東京: 三一書房, 1983, 559쪽
- 24) 결성 배경 및 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朴慶植, 『在日朝鮮人 - 私の青春』, 東京: 三一書房, 1981, 166~167쪽; 岩村登志夫, 『在日朝鮮人と日本労働者階級』, 東京: 橋昌書房, 1972, 236쪽; 정혜경, 『항일과 친일의 재일코리안운동』 참조
- 25) 동아통항조합 폐쇄 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東亞通航組合 第3回 定期大會 議事草案」, 『在日朝鮮人史研究』7, 1980, 145쪽, 147쪽; 高峻石, 『越境』, 東京: 社會評論社, 1977, 132쪽; 岩村登志夫, 『在日朝鮮人と日本労働者階級』, 213쪽, 235쪽, 236쪽, 237쪽; 朴慶植, 『在日朝鮮人 - 私の青春』, 171쪽, 175쪽; 정혜경, 『항일과 친일의 재일코리안운동』 참조
- 26) 안우식 저, 심원섭 역, 『김사랑 평전』,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0, 93~94쪽
- 27) 尹健次, 하종문·이애숙 옮김, 『일본 - 그 국가, 민족, 국민』, 서울: 일월서각, 1997, 259쪽, 261쪽; 崔碩義, 「大阪, 小林町朝鮮部落の思い出」, 『在日朝鮮人史研究』20, 1990, 51쪽, 57쪽
- 28) 金鍾在述, 玉城素編, 『在日韓國人一代』, 東京: 圖書出版社, 1978, 104쪽
- 29) 崔碩義, 앞의 글, 53쪽
- 30) 金泰生, 『私の人間地圖』, 東京: 青弓社, 1985, 78~79쪽
- 31) 가와타 후미코 지음, 안해룡·김해경 옮김, 『몇 번을 지더라도 나는 녹슬지 않아』, 서울: 바다, 2016, 73쪽
- 32) 外村 大, 앞의 책, 134쪽, <표3-12>
- 33) 立教大學史學科 山田ゼミナル 編, 『生きぬいた証に』, 東京: 綠陰書房, 1989, 267쪽; 崔碩義, 앞의 글, 50~51쪽
- 34) 崔碩義, 앞의 글, 49쪽
- 35) 內務省 警保局, 『朝鮮人概況』 해당 연도(外村 大, 앞의 책, 83~85쪽, <표2-13> ~<표2-17> 재인용). 유업자 현황이므로 학생은 제외
- 36) 1935년 노동자의 세부 직종을 달리 표기한 것은 1930년 일본노동자전국협의회 발족 이후 일본노동운동계가 산별 노동조합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 37) 여성 노동자 포함
- 38) 尹健次 지음, 하종문·이애숙 옮김, 앞의 책, 259쪽
- 39) 일본 정부와 GHQ의 귀환 정책에 대해서는 최영호, 『재일한국인과 조국 광복』 (서울: 글모인, 1995) 참조
- 40) 法務省 出入國管理局, 『在留外國人統計』, 1993
- 41) 法務省 出入國管理局, 『在留外國人統計』, 1986
- 42) 姜在彦·金東勳, 『在日韓國·朝鮮人』, 東京: 圖書出版 昭和, 2000, 140~143쪽
- 43) 미즈노 나오키·문경수 지음, 한승동 옮김, 『재일조선인』, 서울: 삼천리, 2016, 231쪽

- 44) 문옥표는 관서지방 재일동포의 사회적 특징으로 첫 번째 분절을 올드커머와 뉴커머를 상정했는데, 생활영역이 구분되어 있다는 점을 들었을 뿐,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문옥표, 『관서지역 한인동포 생활문화의 특징』, 『일본 관서지역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2002, 23~24쪽
- 45) 두 사람의 비교는 임영언, 『재일코리안 기업의 성장과 모국 기여활동』(서울: 도서출판 선인, 2021), 187쪽 참조
- 46) 河明生, 『マイノリティの起業家精神—在日韓人事例研究—』, 東京: 株式会社ITA, 2003, 130, 185쪽
- 47) 김효섭, 「성공은 운을 시험하는 방법 중 하나」, 『월간 유학생』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u_hakseang&logNo=140113882089); 「[21세기 일본 속의 한국인 '신도래인'을 찾아서]①日자동차부품업체 '테크노피아' 박재세 사장」, 『세계일보』(2010.1.31.) (<https://news.v.daum.net/v/20100131200305151>); 「日서 물류기업 일군 나승도 사장」, 『연합뉴스』(2009.7.23.) (http://winnersgate.com/Story/Success/board.asp?CK_ASP=CONTENT&Num=3&Page=&SearchType=&SearchName=) 임영언은 뉴커머 기업을 사회적경제 관점에서 디아스포라경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분석했다. 임영언, 앞의 책, 211~215쪽, 236~237쪽
- 48) 도쿄에서 올드커머의 집거지는 아라카와구(荒川区)의 미카와시마(三河島)역 주변, 아다치구(足立区) 세키바라(関原), 히가시우에노(東上野), 아사쿠사(浅草) 니초메(二丁目) 일대 등이고, 신주쿠(新宿)역을 중심으로 쇼쿠안도리(職安通り)와 오쿠보도리(大久保通り) 주변 일대는 한인 집거지이기도 하지만 뉴커머 중심이다. 오쿠보는 메이지 초기에 중국에서 이주해 온 유학생 중심이었다가 일본 패전을 전후해 자이니치가 모이기도 했으나 1980년대 이후 한국을 비롯해 중국, 대만 등지의 아시아계 신규도일 외국인의 집거지가 되었다. 川村千鶴子, 「ディアスポラ接触とは何か—新宿区大久保地区の多文化化の歴史から」, 『大東文化大学紀要』 46号, 2007, 145쪽
- 49) <http://www.city.osaka.lg.jp/ikuno/page/0000427171.html>
- 50) 고정자·손미경, 「한국문화 발신지로서의 오사카 이쿠노쿠 코리아타운」, 『글로벌 문화콘텐츠』5, 2010, 106쪽
- 51) 高賛侑, 「朝鮮市場からコリアタウンへ」, 『猪飼野の歴史と文化を考える会編, 『ニッポン猪飼野ものがたり』, 東京: 批評社, 2011, 335~342쪽; 이상봉, 「오사카 조선시장의 공간정치 - 글로벌화와 장소성의 변용」, 『한국민족문화』 41집, 2011, 238~248쪽
- 52) 황익구, 『재일코리안의 이주와 정주』, 서울: 도서출판 선인, 2021, 162쪽
- 53) 미즈노 나오키·문경수, 앞의 책, 234~235쪽
- 54)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人口統計資料集(2016年度版)』 (<http://www.ipss.go.jp/>)

- 55) 황익구, 앞의 책, 236쪽, 250쪽
- 56) 황익구, 앞의 책, 199쪽
- 57) 内閣府大臣官房政府広報室, 「世論調査」
(<https://survey.gov-online.go.jp/h14/h14-gaikou/2-1.html>)
- 58) 출판물에 대해서는 板垣竜太, 「협한류의 해부학」, 『창작과 비평』 여름호, 통권 132호(창작과 비평사, 2006) 참조
- 59) 岩山春夫, 「多文化地域における神社の研究 : 生野猪飼野・御幸森天神宮の場合」, 『空間・社会・地理思想』24(大阪市立大学都市研究プラザ), 2021년 3월 발간
([//efaidnbmnnnibpcajpcglclefindmkaj/https://www.i-repository.net/contents/osakacu/kiyo/13423282-24-3.pdf](http://efaidnbmnnnibpcajpcglclefindmkaj/https://www.i-repository.net/contents/osakacu/kiyo/13423282-24-3.pdf))
- 60) “<在日社会>大阪・生野、王仁博士の歌碑を”, 東京經濟日報(2009.6.29.)
(http://www.toyo-keizai.co.jp/news/society/2009/post_2232.php)
- 61) 미즈노 나오키·문경수, 앞의 책, 240~242쪽

㉨ 김지윤, 에스닉 경제와 디지털 기술의 아상블라주

〈참고문헌 및 자료〉

- 김기호. 『초국가 시대의 이주민 정체성: 한국 화교의 사례 연구』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2005.
- 김지윤. “상상의 케이패션(K-Fashion)과 문화적 상호참조: 동대문 패션시장을 둘러싼 초국적 이동.” 『호모미그란스』 25 (2021), pp. 127-163.
- 박 우. 『재한 조선족 집거지 사업가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시민(권)적 지위와 계급적 지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17.
- 장영진.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업 지역의 성장과 민족 네트워크: 안산시 원곡동을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2(5) (2006), pp. 523-539.
- 주수인.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들의 초국적 경제활동: 사회적 네트워크와 신뢰관계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2015.
- Appadurai, Arjun. *Modernity at Large: Cultural Dimensions of Globaliz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6.
- Aldrich, Howard E. & Waldinger, Roger. “Ethnicity and Entrepreneurship.”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16, no. 1 (1990), pp. 111-135.
- Batnitzky, Adina. & McDowell, Linda. “The Emergence of an ‘Ethnic Economy’?: The Spatial Relationships of Migrant Workers in

- London's Health and Hospitality Sectors."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36, no. 12 (2013), pp. 1997-2015.
- Bauman, Zygmunt. *Liquid Times: Living in an Age of Uncertainty*. Polity Press, 2007.
- Borjas, George J. "The Self-Employment Experience of Immigrants."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 21, no. 4 (1986), pp. 485-506.
- Bryant, Levi R 저·김효진 옮김. 『존재의 지도-기계와 매체의 존재론』. 갈무리, 2020.
- Carter, Sara, et al. "Barriers to Ethnic Minority and Women's Enterprise: Existing Evidence, Policy Tensions and Unsettled Questions." *International Small Business Journal: Researching Entrepreneurship*, vol. 33, no. 1 (2015), pp. 49-69.
- DeHart, Monica C. *Ethnic Entrepreneurs: Identity and Development Politics in Latin Americ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0.
- Furnivall, John Sydenham..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Tropical Far East." *J. R. Cent. Asian Soc.* vol. 29 (1942), pp. 195-210.
- Gregory, Derek. "Emperors of the Gaze: Photographic Practices and Productions of Space in Egypt, 1839-1914." in Joan Schwartz and James Ryan (eds.). *Picturing Place*. Routledge, 2003, pp. 195-225.
- Guarnizo, Luis Eduardo. "The Economics of Transnational Living."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37, no. 3 (2003), pp. 666-699.
- Hannonen, Olga. "In Search of a Digital Nomad: Defining the Phenomenon." *Information Technology & Tourism*, vol. 22, no. 3 (2020), pp. 335-353.
- Hillmann, Felicitas. "Gendered Landscapes of Ethnic Economies: Turkish Entrepreneurs in Berlin." In Kaplan, David H. and Li, Wei. (eds.) *Landscapes of the Ethnic Economy*,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6, pp. 97-108.
- Kaplan, David H. and Li, Wei. (eds.) *Landscapes of the Ethnic Economy*.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6.
- Kim, Ji Youn. "Cultural Entrepreneurs and Urban Regeneration in Itaewon, Seoul." *Cities*. vol. 56 (2016) pp. 132-140.
- Kim, Jurak, et al. "Spatial Expansion of Ethnic Entrepreneurship: The Case of Vietnamese Immigrant-Owned Restaurants in Seoul." *Asia Review*. vol. 13, no. 2 (2023), pp. 59-81.
- Li, Peter S. "Social Capital and Economic Outcomes for Immigrants and Ethnic Minorities." *Journal of International Migration and Integration*. vol. 5, no. 2 (2004), pp. 171-190.

- Light, Ivan. "Immigration and Ethnic Economies in Giant Cities."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vol. 56, no. 181 (2004), pp. 385-398.
- Morris, Harold Stephen. "Some Aspects of the Concept Plural Society." *Man*. vol. 2, no. 2 (1967), pp. 169-184.
- Odmunkh, Odmaa. 『세계 유학생 네트워크가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금융통상학과 석사논문, 2020.
- OECD and European Commission. "The Missing Entrepreneurs 2021: Policies for Inclusive Entrepreneurship and Self-Employment." *OECD*, 2021.
- Pécoud, Antoine. "Thinking and Rethinking Ethnic Economies." *Diaspora: A Journal of Transnational Studies*. vol. 9, no. 3 (2000), pp. 439-462.
- Portes, Alejandro, and Min Zhou. "Self-Employment and the Earnings of Immigran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61, no. 2 (1996) p. 219-230.
- Roy, A., and A. Ong. *Worlding Cities: Asian Experiments and the Art of Being Global*. Wiley, 2011.
- Rushworth, Philip & Hackl, Andreas. "Writing Code, Decoding Culture: Digital Skills and the Promise of a Fast Lane to Decent Work among Refugees and Migrants in Berlin."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vol. 48, no. 11, (2022), pp. 2642-2658.
- Samers, Michael. "Immigration, 'Ethnic Minorities', and 'Social Exclusion' in the European Union: A Critical Perspective." *Geoforum*. vol. 29, no. 2 (1998), pp. 123-144.
- Seo, Seonyoung. "Creating Exclusionary Spaces to Enter the Public Sphere: Spatial Strategies of Nepalese Restaurants in a Globalizing Seoul." *Journal of the Korean Urban Geographical Society*. vol. 26, no. 2 (2023) pp. 137-152.
- Valdez, Zulema. *The New Entrepreneurs: How Race, Class, and Gender Shape American Enterprise*.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1.
- Van Doorn, Niels, et al. "Migration and Migrant Labour in the Gig Economy: An Intervention." *Work, Employment and Society*. vol. 37, no. 4 (2023), pp. 1099-1111.
- Webster, Natasha A. & Zhang, Qian. "Careers Delivered from the Kitchen? Immigrant Women Small-Scale Entrepreneurs Working in the Growing Nordic Platform Economy." *NORA - Nordic Journal of Feminist and Gender Research*. vol. 28, no. 2 (2020), pp. 113-125.

Zhou, Min. "Revisiting Ethnic Entrepreneurship: Convergencies, Controversies, and Conceptual Advancements." *Th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38, no. 3 (2004), pp. 1040-1074.

자료

Iazzolino, Gianluca. "Digital Economy and Socio-Economic Integration of Migrant Workers in the EU: An Evidence Review and Research Agenda." *Compagnia di San Paolo Foundation*, 2023.

"독일서 실패한 배달업체, 두바이 이주노동자를 쥐어짜다." 한겨레신문(2023.01.18.)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globaleconomy/1077351.html> (접속일: 2025.05.01.).

<주석>

- 1) Morris, Harold Stephen. "Some Aspects of the Concept Plural Society." *Man* 2(2) (1967), pp. 170.
- 2) Furnivall, John Sydenham.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Tropical Far East." *J. R. Cent. Asian Soc* 29 (1942) pp. 195-210.
- 3) Gregory, Derek. "Emperors of the Gaze: Photographic Practices and Productions of Space in Egypt, 1839-1914." in Joan Schwartz and James Ryan (eds.). *Picturing Place*. Routledge, 2003, pp. 195-225.
- 4) Bauman, Zygmunt. *Liquid Times: Living in an Age of Uncertainty*. Polity Press, 2007.
- 5) 같은 책, pp. 141.
- 6) 세계화의 문화적 측면에 주목한 아준 아파두라이는 세계화의 다섯 가지 측면에 각각 주목하게 하는 경관적 관점을 제시하였다. 이는 민족경관(ethnoscapes), 기술경관(technoscapes), 미디어경관(mediascapes), 금융경관(financescapes), 이데올로기경관(ideoscapes)으로 구분되어 세계화라는 것이 지역적 맥락에 따라 다섯 가지 경관들 사이에 분절적 관계를 갖고 있기에 각각의 차원을 구분하되 그 복합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주목하고자 한다(Appadurai, Arjun. *Modernity at Large: Cultural Dimensions of Globaliz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6).
- 7) Light, Ivan. "Immigration and Ethnic Economies in Giant Cities."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56(181) (2004), pp. 385-398.;
Pécoud, Antoine. "Thinking and Rethinking Ethnic Economies." *Diaspora: A Journal of Transnational Studies* 9(3) (2000), pp. 439-462.
- 8) Li, Peter S. "Social Capital and Economic Outcomes for Immigrants

- and Ethnic Minorities.” *Journal of International Migration and Integration* 5(2) (2004), pp. 171-190.
- 9) Carter, Sara, et al. “Barriers to Ethnic Minority and Women’s Enterprise: Existing Evidence, Policy Tensions and Unsettled Questions.” *International Small Business Journal: Researching Entrepreneurship* 33(1) (2015), pp. 49-69.
 - 10) Zhou, Min. “Revisiting Ethnic Entrepreneurship: Convergencies, Controversies, and Conceptual Advancements.” *Th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8(3) (2004), pp. 1041.
 - 11) Kaplan, David H. and Li, Wei. (eds.) *Landscapes of the Ethnic Economy*.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6.
 - 12) Borjas, George J. “The Self-Employment Experience of Immigrants.”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21(4) (1986), pp. 485-506.
 - 13) Samers, Michael. “Immigration, ‘Ethnic Minorities’, and ‘Social Exclusion’ in the European Union: A Critical Perspective.” *Geoforum* 29(2) (1998), pp. 123-144.
 - 14) Portes, Alejandro, and Min Zhou. “Self-Employment and the Earnings of Immigran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1(2) (1996) pp. 219-230.
 - 15) Hillmann, Felicitas. “Gendered Landscapes of Ethnic Economies: Turkish Entrepreneurs in Berlin.” In Kaplan, David H. and Li, Wei. (eds.) *Landscapes of the Ethnic Economy*, Rowman& Littlefield Publishers, 2006, pp. 101.
 - 16) Guarnizo, Luis Eduardo. “The Economics of Transnational Living.”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7(3) (2003), pp. 666-699.
 - 17) Aldrich, Howard E. & Waldinger, Roger. “Ethnicity and Entrepreneurship.” *Annual Review of Sociology* 16(1) (1990), pp. 111-135.
 - 18) *ibid.*, pp. 112.
 - 19) Valdez, Zulema. *The New Entrepreneurs: How Race, Class, and Gender Shape American Enterprise*.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1, pp. 156.
 - 20) Pécoud, Antoine. “Thinking and Rethinking Ethnic Economies.” *Diaspora: A Journal of Transnational Studies* 9(3) (2000), pp. 458.
 - 21) Batnitzky, Adina. & McDowell, Linda. “The Emergence of an ‘Ethnic Economy’?: The Spatial Relationships of Migrant Workers in London’s Health and Hospitality Sectors.” *Ethnic and Racial Studies* 36(12) (2013), pp. 1997-2015.
 - 22) Kim, Ji Youn. “Cultural Entrepreneurs and Urban Regeneration in

- Itaewon, Seoul.” *Cities* 56 (2016) pp. 132-140.
- 23) 장영진.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업 지역의 성장과 민족 네트워크: 안산시 원곡동을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2(5) (2006), pp. 533-534.
- 24) Kim, Jurak, et al. “Spatial Expansion of Ethnic Entrepreneurship: The Case of Vietnamese Immigrant-Owned Restaurants in Seoul.” *Asia Review* 13(2) (2023), pp. 68.
- 25) Seo, Seonyoung. “Creating Exclusionary Spaces to Enter the Public Sphere: Spatial Strategies of Nepalese Restaurants in a Globalizing Seoul.” *Journal of the Korean Urban Geographical Society* 26(2) (2023) pp. 137-152.
- 26) Hannonen, Olga. “In Search of a Digital Nomad: Defining the Phenomenon.” *Information Technology & Tourism*, vol. 22, no. 3 (2020), pp. 335-353.
- 27) 에스토니아는 디지털 국가를 설립하여 12,000개의 기업을 포함하여 EU에서 1인당 가장 많은 스타트업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크로아티아와 아이슬란드 등도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비자를 도입하여 원격 근무자에게 세제 혜택 등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OECD and European Commission. “The Missing Entrepreneurs 2021: Policies for Inclusive Entrepreneurship and Self-Employment.” *OECD*, 2021.)
- 28) “독일서 실패한 배달업체, 두바이 이주노동자를 쥐어짜다.” 한겨레신문 (2023.01.18.)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globaleconomy/1077351.html>
 (접속일: 2025.05.01.)
- 29) Iazzolino, Gianluca. “Digital Economy and Socio-Economic Integration of Migrant Workers in the EU: An Evidence Review and Research Agenda.” *Compagnia di San Paolo Foundation*, 2023, pp. 4.
- 30) 깃 이코노미는 정직원을 고용하기보다 매우 높은 비율의 임시직과 시간제 노동자를 고용한다. 표면적으로는 이들을 프리랜서나 독립적인 1인 기업으로 상정하고 계약을 맺기 때문에 기업 대 기업 간의 독립적인 노동 계약을 맺는다고 여긴다. 고용된 이들은 들어오는 주문에 따라 유연하게 일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제로는 알고리즘에 의해 많은 주문을 한정된 시간 내에 처리하여 장시간 일하는 계약자에게 주문이 몰리도록 설계된 경우가 많다. 기업은 이들이 자유로운 계약자이므로 의료보험이나 휴가와 관련된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최종 처리자인 노동자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경우가 많아 매우 착취적인 신자유주의적 기업 형태로 비판받고 있다.
- 31) Van Doorn, Niels, et al. “Migration and Migrant Labour in the Gig Economy: An Intervention.” *Work, Employment and Society* 37(4) (2023), pp. 1099-1111.

- 32) Webster, Natasha A. & Zhang, Qian. "Careers Delivered from the Kitchen? Immigrant Women Small-Scale Entrepreneurs Working in the Growing Nordic Platform Economy." *NORA - Nordic Journal of Feminist and Gender Research* 28(2) (2020), pp. 113-125.
- 33) Rushworth, Philip & Hackl, Andreas. "Writing Code, Decoding Culture: Digital Skills and the Promise of a Fast Lane to Decent Work among Refugees and Migrants in Berlin."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48(11) (2022), pp. 2642-2658.
- 34) 주수인.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들의 초국적 경제활동: 사회적 네트워크와 신뢰관계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2015.
- 35) 같은 글, pp. 59.
- 36) 김지윤, 「상상의 케이패션(K-Fashion)과 문화적 상호참조: 동대문 패션시장을 둘러싼 초국적 이동」 『호모미그란스』 25 (2021), pp. 127-163에서 재인용.
- 37) 김기호. 『초국가 시대의 이주민 정체성: 한국 화교의 사례 연구』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2005.
- 38) Bryant, Levi R 저·김효진 옮김. 『존재의 지도·기계와 매체의 존재론』. 갈무리, 2020, pp. 25.
- 39) 같은 책, pp. 124.

☒ 육영수, '자랑스러운 민족'을 넘어서 '행복한 개인'으로 살아남기

〈참고문헌〉

단행본

-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 외. 태혜숙 옮김.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서발턴 개념의 역사에 관한 성찰들』 서울: 그린비, 2013.
- 김귀옥. 『구술사 연구: 방법과 실천』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4.
- 김영순·남혜경. 『초국적 정체성과 상호문화소통: 파독 간호사 이야기』 성남: 북코리아, 2022.
- 나혜심. 『독일로 간 한인 간호여성』 서울: 산과글, 2012.
- 린 헌트. 조한욱 옮김. 『프랑스 혁명의 가족 로망스』 서울: 새물결, 1999.
- 마르틴 뤼게·이름가르트 친도르프 정용숙 옮김. 『공공역사란 무엇인가』 서울: 푸른역사, 2020.
- 문수현. 『주택, 시장보다 국가: 독일 주택정책 150년』 서울: 이음, 2022.
- 박찬경·클라우스 펠링. 『독일로 간 사람들』 서울: 눈빛, 2003.
- 양희순. 『파독: 파독간호 40년사』 슈투트가르트/독일: Printworks GmbH, 2008.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4.

윤택림 편역. 『구술사, 기억으로 쓰는 역사』 서울: 아르케, 2010.

윤택림. 『(역사와 기록 연구를 위한) 구술사 연구방법론』 서울: 아르케, 2019.

이유재·이선영. 『파독광부 생애사』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22.

이재경·윤택림·이나영 외. 『여성주의 역사쓰기: 구술사 연구방법』 서울: 아르케, 2012.

이하나 외. 『공공역사를 실천 중입니다』 서울: 푸른역사, 2023.

최종고. 『한강에서 라인강까지: 한독관계사』 서울: 유로서적, 2005.

헤이든 화이트. 천형균 옮김. 『19세기 유럽의 역사적 상상력: 메타역사』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1.

Jacob J. L. Lohrmann. Inländer: Wie aus Ausländern tuinger wurden, Tübingen: Universitätsstadt Tübingen, 2007.

학술논문

김학선·홍선우·최경숙. “파독간호사 삶의 재조명.”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18-2 (2009).

문수현. “나치 이후의 ‘개인’의 자리: 서독에서 병역거부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독일연구』 45 (2020).

박재영. “파독 간호사·광부의 독일정착과 삼각이민 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15 (2013).

서문진희. “독일남성과 결혼한 파독여성의 생활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9-3 (2015).

이영석. “재독일 교민의 한국에 대한 기억.” 『독일어문학』 40 (2008).

조형열.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 독일 튀빙겐에서 만난 안내판.” 『역사연구』 42 (2021).

최재호. “1960-70년대 서독의 이주노동자 자녀문제와 통합적 교육정책에 대한 회고.” 『독일연구』 40 (2019).

한운석. “재독 한인 여성’에서 ‘한국계 이주민 여성’으로—재독한국여성모임의 정치운동.” 『역사비평』 120 (2017).

허부문. “대중가요에 나타난 이주와 이산: 초창기에서 1980년대까지.” 『Homo Migrants』 14 (2016).

인터넷사이트

“한국해외개발공사”.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1475> (2023.10.10.)

〈주석〉

- 1) 알레산도르 포르텔리, 「무엇이 구술사를 다르게 하는가」, 윤택림 편역, 『구술사, 기억으로 쓰는 역사』, 서울: 아르케, 2010, 87쪽.
- 2) 나탕 바슈텔, 「기억과 역사 사이에서」, 『구술사, 기억으로 쓰는 역사』, 102~103쪽.
- 3) 대표적으로 도서는 양희순, 『파독: 파독간호 40년사』, 슈투트가르트/독일: Printworks GmbhH, 2008; 나혜심, 『독일로 간 한인 간호여성』, 서울: 산과글, 2012; 이유재·이선영, 『파독광부 생애사』,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22; 박찬경·클라우스 펠링, 『독일로 간 사람들』, 서울: 눈빛, 2003 등 참조. 관련 논문은 한운석, 「‘재독 한인 여성’에서 ‘한국계 이주민 여성’으로—재독한국여성모임의 정치운동」 『역사비평』 120, 역사비평사, 2017 등 참조. 2023년 7월에는 경희대학교 HK+ 통합의료인문학연구단과 튀빙겐대학교 한국학연구소가 공동으로 “독일에서의 한국인 여성 간호 노동: 의료인문학의 시각”이라는 제목으로 국제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 4) ‘여성주의 구술사’의 가능성을 실험한 책은 이재경·윤택림·이나영 외, 『여성주의 역사쓰기—구술사 연구방법』, 서울: 아르케, 2012.이 있다. 공공역사의 사학사적 기원과 그 범주 및 지향성에 대한 소개서는 마르틴 뤼케·이름가르트 쾨도르프, 정용숙 옮김, 『공공역사란 무엇인가』, 서울: 푸른역사, 2020. 공공역사 개념의 한국적 수용과 현장 응용이 궁금하다면 이하나 외, 『공공역사를 실천 중입니다』, 서울: 푸른역사, 2023 참조. 필자가 이 글을 마감할 즈음에 한국구술사학회,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한양대학교 에리카 등이 공동 주최하여 “이주, 공공역사, 구술사의 만남과 실천”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2023년 11월 18일, 한성대학교)가 진행된다.
- 5) 내가 읽은 거의 유일한 논문은 서문진희, 「독일남성과 결혼한 파독여성의 생활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9(3),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 2015.
- 6) 최종고, 『한강에서 라인강까지: 한독관계사』, 서울: 유로서적, 2005, 323쪽. 이 책 제10장에 “한독 문화교류의 발전”이라는 제목으로 파독 광부와 간호인력의 이모저모를 설명한다.
- 7) 박영호 작사/김송규 작곡/장세정 노래로 1937년에 발표된 가요이다. 노래 제목의 ‘연락선’은 1905년에 시작된 관부연락선(부산↔시모노세키)이다. <눈물의 금강환> (관부연락선 배 이름)과 함께 당시 일본으로 건너간 한국인들의 심금을 울렸던 대표적인 유행가로 꼽힌다. 허부문, 「대중가요에 나타난 이주와 이산: 초창기에서 1980년대까지」 『호모 미그란스』 14, 이주사학회, 2016, 112~113쪽 참조.
- 8) 김학선·홍선우·최경숙, 「파독간호사 삶의 재조명」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18(2),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 2009, 181쪽. 간호조무사/간호보조원 양성제도도 그 정확한 시기에 대해 나혜심 선생님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었다.

- 9) 오현주가 ‘외관’으로 호명한 단체는 ‘세계 속에 한국을 심자’라는 목적으로 1965년에 창립된 <해외개발공사>이다. 이 기관은 국가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해외인력진출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975년에 <한국해외개발공사>로 계승되었고, 1991년 이후에는 외교통상부 산하 특수법인 <한국국제협력단>으로 이름을 바꿔 존속하고 있다. 윤종천, 『한국해외개발공사』 (디지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조. (검색일: 2023년 10월 10일)
- 10) 한국 간호인력의 서독 파견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1970~1974년 사이에는 연간 평균 1,384명이 바다를 건너갔다. 그 숫자가 1975년에는 459명, 1976년에는 62명으로 급감했다. 박재영, 「파독 간호사·광부의 독일 정착과 삼각이민 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15,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3, 350쪽 <자료 2: 연도별·직종별 파독 현황> 참조.
- 11) Renate Schäfar, “ZWISCHENZEUGNIS,” (1976. 12. 28.) 참조. 이 문서는 오현주가 튀빙겐 병원으로 이직할 때 수간호원이 작성해 준 추천서이다.
- 12) 나혜심, 앞의 책, 30쪽. 나혜심은 간호인력,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에 대한 정확한 독일어 명칭과 그 미묘한 차이점을 나에게 보충 설명해 주었다.
- 13) Renate Schäfar, “ZWISCHENZEUGNIS,” & Schwester Luise Abel, “Arbeitszeugnis,” (1979. 6. 27.).
- 14) 문수현, 「나치 이후의 ‘개인’의 자리: 서독에서 병역거부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독일연구』 45, 한국독일사학회, 2020, 49쪽, 57쪽.
- 15) 미혼 여성에게는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고용주가 선호했고, 임신 여성은 모성 보호 대상으로 해고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파독 간호인력은 ‘임신하지 않은 미혼여성’이라는 조건이 붙었다. 나혜심, 앞의 책, 193~194쪽. 그러나 오현주의 증언에 따르면, 슈투트가르트 병원에 배치된 15명의 한국 간호인력 중에서 자신을 포함해서 3명은 기혼자였다. 파독 후반기에는 미혼여성 기준이 엄격히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짐작된다.
- 16) 박재영, 앞의 논문, 347쪽 각주 21) 참조.
- 17) 한 파독 간호사의 구술에 따르면, 1973년에 745마르크(DM. 한화 145,000원)를 월급으로 받았는데 한국 평균 월급(1만 5천)의 10배 이상의 금액이었다. 파독 간호인력의 월급은 나이(경력)가 많을수록 더 많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이력서를 조작하여 나이를 상향 조정한 동료도 있었다고 오현주는 증언했다. 그녀가 당시 받았던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에 자녀수당 등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 18) 독일의 다른 (소)도시와 비교하여 튀빙겐의 인종차별 지수/인종주의적 배타성을 측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히틀러유겐트 지부가 1934년에 튀빙겐 네카어강 기슭 유스호스텔 자리에 세워졌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 부역자/협력자가 튀빙겐 시장으로 뽑혀서 20년 넘게 일했을 정도로 나치 시절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던 곳임을 부정할 수 없다. 시민단체는 2016년에 ‘튀빙겐 국가사회주의 역사의 길’을 만들어 나치 협력을 반성하는 역사 기념물을 만들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조형열,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 독일 튀빙겐에서 만난 안내판」 『역사연

구』 42, 역사학연구소, 2021 참조.

- 19) 문수현, 『주택, 시장보다 국가: 독일 주택정책 150년』, 서울: 이음, 2022, 18쪽, 22쪽.
- 20) 1970년에는 바덴-뷔르템베르크주가 서독 전체 외국인 학생의 31.1%가 재학하며 선두에 섰고, 노스트라인-베스트팔렌주가 28%로 그 뒤를 이었다. 1979년에는 그 순서가 바뀌었다. 최재호, 「1960-70년대 서독의 이주노동자 자녀 문제와 통합적 교육정책에 대한 회고」 『독일연구』 40, 한국독일사학회, 2019, 171~172쪽. 통계는 각주 41) 참조.
- 21) J에 관한 위 이야기는 그가 나에게 보낸 2023년 9월 28일 이메일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22) 이하 내용과 직접 인용문의 출처는 막내딸 M이 “우리 어머니: 하나의 견해 (Unsere Muttereine Perspektive)”라는 제목을 붙여 2023년 9월 28일에 나에게 직접 보낸 편지이다.
- 23) 유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1976년에 창립된 독일남부지방한국교회 소속이다. 튀빙겐 한인교회에서 초창기 운영했던 한글학교는 현재는 중단된 프로그램이라고 이유재가 알려줬다.
- 24) 김영순·남혜경, 『초국적 정체성과 상호문화소통: 파독 간호사 이야기』, 성남: 북코리아, 2022, 58쪽, 441~442쪽.
- 25) Jacob J. L. Lohrmann, *Inländer: Wie aus Ausländern tuinger wurden* (Tübingen: Universitätsstadt Tübingen, 2007), p. 42. 독일 출신 미국 재야학자가 튀빙겐에 거주하는 28명의 외국 출신 이주자의 간단한 이력과 직업을 소개/인터뷰한 기사 내용의 일부이다.
- 26) 이영석, 「재독일 교민의 한국에 대한 기억」 『독일어문학』 40, 한국독일어문학회, 2008 참조.
- 27) 나는 역사 쓰기를 실증주의 사슬에서 탈주하여 일종의 문학적인 장르—희극, 비극, 풍자극, 로망스 등— 서사구조 선택에 비유한 화이트의 주장을 지지한다. 헤이든 화이트, 천형균 옮김, 『19세기 유럽의 역사적 상상력: 메타역사』,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1 참조.
- 28) 탈식민주의 문화비평가 스피박의 유명한 논문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를 패러디한 나의 표현이다.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 외, 태혜숙 옮김,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서발턴 개념의 역사에 관한 성찰들』, 서울: 그린비, 2013, 1부 텍스트 참조.
- 29)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4, 39~40쪽.
- 30)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 개념을 역사적 인물과 사건에 적용한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린 헛트, 조한욱 옮김, 『프랑스 혁명의 가족 로망스』, 서울: 새물결, 1999 참조.

Ⅸ 조규태, 하와이 이주민 안원규의 사회·경제적 삶과 민족적 활동 (1903~1947)

〈참고문헌〉

- 『국민보』, 『단산시보』, 『신한국보』, 『신한민보』
- 「포와재류 조선인의 상태에 관한 보고서 제출의 건」(1914.12.04.), 『불령단관계잡건-조선인의 부-재구미2』.
- 「포와 선인병학교 경영비금 모집에 관한 건」(1915.02.17.), 『불령단관계잡건-조선인의 부-재구미각지 2』.
- 「정원명·박원걸·안원규 흥사단 입단 청원서」(1915.12.27.),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 정보시스템.
- 「조선인 안원규의 귀국에 관한 건」(1916.09.29.), 『불령단관계잡건-조선인의부-재구미(2)』.
- 「조선인 안원규에 관한 건」(1916.10.12.), 『불령단관계잡건-조선인의부-재구미(2)』.
- 「조선인 안원규에 관한 건」(1917.03.20.), 『불령단관계잡건-조선인의부-재구미부(6)』.
- 「경성민정회보: 재외배일선인 이승만 급 박용만 등의 행위, 미가등귀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1917.10.18.), 『불령단관계잡건-조선인의부-재구미 3』.
- 「포와에 있어서 조선인의 현상태에 관한 보고의 건」(1922.08.11.), 『불령단관계잡건-조선인의 부-재구미(6)』.
- 「미령 포와에 재류하는 조선인 실황」(1923.07.21.), 『조선인에 대한 시전관계잡건-일반의부(3)』.
- 「在布朝鮮人商業會 創設에 關한 건」(1926.01.29.), 『불령단관계잡건-조선인의부-재구미(8)』.
- 「재미한족연합회 회장 안원규가 이승만에게 보낸 서한」(1941.09.25.),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43권 서한집Ⅱ』.
- 박종수, 「朴鍾秀手記」, 1931.
- 「재미한족연합회 회장 안원규가 이승만에게 보낸 서한」(1941.09.25.),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43권 서한집Ⅱ』.
- 노재연, 『재미한인사략』(1963),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8, 1974.
- Duk Hee Lee Murabayashi, "Korean Passengers Arriving at Honolulu, 1903-1905", *Asian and Pacific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March 2001.
- 홍선표 편, 『재미한족연합위원회 회의록』(연세대학교 출판부, 2005)
- "Labor Conditions in Hawaii", Monthly Review of the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Vol. 3, No. 3 (SEPTEMBER, 1916)
- John Wesley Coulter, "The Oahu Sugar Cane Plantation, Waipahu", *Economic Geography*, Vol.9, No. 1, (Jan,1933).

- 국가보훈처, 「이달의 독립운동가 안원규」(2022.09).
- 이덕희, 「하와이 한인들이 하와이 감리교회에 끼친 영향 : 1903~195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론』 39 미주지역 한인이민사, 2003.
- 이덕희, 『하와이 대한인국민회 100년사』(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3).
- 정병준, 「1940년대 재미한인 독립운동의 노선과 성격」,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8, 2004.
- 조규태, 「하와이 이주 한인 정원명의 민족적 활동과 면모(1904~1942)」, 『송실사학』 48, 2022.
- 홍선표, 『재미한인의 꿈과 도전』(연세대학교 출판부, 2011).

〈주석〉

- 1)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13, 1996.
- 2) 국가보훈처, 「이달의 독립운동가 안원규」(2022.09).
- 3) 정병준, 「1940년대 재미한인 독립운동의 노선과 성격」,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8, 2004. 홍선표, 『재미한인의 꿈과 도전』(연세대학교 출판부, 2011). 이덕희, 『하와이 대한인국민회 100년사』(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3).
- 4) 「정원명·박원걸·안원규 흥사단 입단 청원서」(1915.12.27.),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 「조선인 안원규의 귀국에 관한 건」(1916.09.29.), 『불령단관계잡건-조선인의부-재구미(2)』. 국가보훈처, 「이달의 독립운동가 안원규」(2022.09)
- 5) 서울역사편찬원, 『서울지명사전』, 2009, 〈통내〉.
- 6) 「정원명·박원걸·안원규 흥사단 입단 청원서」(1915.12.27.),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
- 7) 이윤희, 『i-파주민보』, 2021.12.17., 〈스토리텔러 이윤희의 마을이야기20〉.
<http://www.pajumin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453>.
- 8) 「정원명·박원걸·안원규 흥사단 입단 청원서」(1915.12.27.),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
- 9) 안원규는 1910년대 중반 국내에 입국하여 하와이로 돌아갈 때 주로 어물을 사서 하와이에 돌아갔다.
- 10) 「정원명·박원걸·안원규 흥사단 입단 청원서」(1915.12.27.),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
- 11) Duk Hee Lee Murabayashi, "Korean Passengers Arriving at Honolulu, 1903-1905", Asian and Pacific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March 2001, p.15. 안원규의 입국 기록에 의하면 그는 홀아비(widower)로 되어 있다.

- 12) Duk Hee Lee Murabayashi, "Korean Passengers Arriving at Honolulu, 1903-1905", Asian and Pacific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March 2001, p.15.
- 13) Wikipedia, SS Coptic. https://en.wikipedia.org/wiki/SS_Coptic.
- 14) 노재연, 『재미한인사략』 (1963),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8, 1974, 458쪽.
- 15) 『국민보』 1914.01.07., <본사의 경제와 활판을 위하여 찬조한 동지께 감사>.
- 16) John Wesley Coulter, "The Oahu Sugar Cane Plantation, Waipahu", Economic Geography, Vol.9, No. 1, (Jan.1933), pp.60~71.
- 17) "Labor Conditions in Hawaii", Monthly Review of the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Vol. 3, No. 3 (SEPTEMBER, 1916), pp. 45~52. 1915년 당시 한국인의 연간 수입은 284달러로, 필리핀인 200달러와 푸에르토리안 268달러보다는 많았지만, 중국인 321달러와 일본인 323달러보다 적었다.
- 18) 「정원명·박원걸·안원규 흥사단 입단 청원서」(1915.12.27.),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 이 자료에는 단기 4235년부터 4236년까지 노동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의 입국연월일은 1903년 3월 3일인데 단기 4235년이라고 한 것은 그의 출발 시점과 맞추어 적은 것이라고 판단된다.
- 19) 김원용, 『재미한인50년사』(1953),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자료집』 8, 1974, 638쪽.
- 20) 『근대사연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21) 이덕희, 「하와이 한인들이 하와이 감리교회에 끼친 영향 : 1903~195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론』 39 미주지역 한인이민사, 2003, 85쪽.
- 22) 김원용, 『재미한인50년사』(1953),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자료집』 8, 1974, 638쪽.
- 23) 이덕희, 「하와이 한인들이 하와이 감리교회에 끼친 영향 : 1903~195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론』 39 미주지역 한인이민사, 2003, 86쪽. 김이제의 직위가 목사인지, 전도사인지는 알 수 없다.
- 24) 1903년 입국기록에 그는 흠아비였고, 1903-1905년 입국자 명단에 최윤심이 없고, 안원규의 흥사단 입단 청원서에 1915년 당시 안원규와 최윤심 사이에 딸 안月羅(벨라)가 있기 때문이다.
- 25) 「경성민정회보: 재외배일선인 이승만 급 박용만 등의 행위, 미가등귀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1917.10.18.), 『불령단관계잡건-조선인의부-재구미 3』
- 26) 「정원명·박원걸·안원규 흥사단 입단 청원서」(1915.12.27.),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 1915년 12월 당시 안월라는 6세였다.
- 27) 『국민보』 1913.11.29., <우리 아이가 자동차에 피상>.

- 28) 『국민보』 1914.04.25., <한인청년회는 완전히 성립>.
- 29) 『국민보』 1914.05.09., <청년회의 만찬회와 보고서>.
- 30) 앞서 살폈듯이, 前 부인 최윤심은 1917년 국내로 들어와 하와이 남성들의 배필을 구하는 활동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 뒤 행적이 확인되지 않는다. 병으로 사망하였거나 안원규와 이혼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 31)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27, 2022, <안정송>. 『조선중앙일보』 1935.05.21., <산업시찰로 입경한 하와이 동포 여성>. 안정송은 1919년 3월 하와이에서 대한부인구제회의 조직에 참여하였고, 1921년 중한제장회사의 주무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녀는 1930년 1월 한인협회를 발기하였고, 1942년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의사부의 관할 하에 하와이 푸누이지방에서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그녀는 1944년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의사부 위원으로 선출되었고, 1945년 2월 한국독립당 하와이총지부에 입당하여 활동하였다. 안원규의 처남은 李元圭이다. 그는 서울배재대학을 졸업하고, 1925년에 하와이에 와서 태평양학원(태평양신학교: 필자) 입학을 준비중이었다. 『단산시보』 1925.06.13., <이원규씨 래학>.
- 32) 「이달의 독립운동가 안원규」, 2022.09. 가족 사진.
- 33) 『국민보』 1938.03.30., <안정도군의 영예>. 1945.02.14., <안원규씨 자제 약혼>.
- 34) 『국민보』 1937.06.03., <안숙자 양 음악회>. 『국민보』 1946.11.06., <‘페손’극을 연주하는 ‘스타’ 안숙자 양을 보고>.
- 35) 『국민보』 1945.06.06., <청첩>.
- 36) 『국민보』 1948.01.21., <고 안원규씨 딸 안숙화 양의 대학 졸업>.
- 37) 「정원명·박원걸·안원규 홍사단 입단 청원서」(1915.12.27.),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
- 38) 그는 1906년까지 와이파후에 거주하고 있었다. 1906년 3월 10일 안원규는 전도원, 정상규 등과 환난상구와 일화배척을 내걸고 와이파후공동회를 결성하였다.
- 39) 「정원명·박원걸·안원규 홍사단 입단 청원서」(1915.12.27.),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
- 40) 『신한국보』 1909.02.12., <양복점 광고>.
- 41) 『신한국보』 1909.11.16., <신개업 시계 수선>.
- 42) 『신한국보』 1909.02.12., <공익취집사 광고>. 1909.08.03., <공익취집사 광고>. 이 기간 사이에도 그는 여러 번 광고를 실었다.
- 43) 『국민보』 1913.12.03., <박 안 양씨의 실업>. 조규태, 「대조선 국민군단의 조직과 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09, 2021.
- 44) 박종수, 「朴鍾秀手記」, 1931. 이 수기의 원 표제는 <1931년 五月 三十日 予의

民族記錄》이라고 되어 있다.

- 45) 『국민보』 1914.05.13., <안원규씨의 영업 확장>.
- 46) 『국민보』 1914.06.20., <안원규씨의 사업 확장>.
- 47) 『국민보』 1914.01.17., <여자 양복점을 설치>. 『국민보』 1914.01.28., <여자 양복점을 신설>.
- 48) 『국민보』 1914.06.20., <안원규씨의 사업 확장>.
- 49) 『국민보』 1914.07.18., <한인계에 신설한 전화의 번호>.
- 50) 「포와재류 조선인의 상태에 관한 보고서 제출의 건」(1914.12.04.), 『불령단관계잡건-조선인의 부-재구미2』.
- 51) 「조선인 안원규의 귀국에 관한 건」(1916.09.29.), 『불령단관계잡건-조선인의부-재구미(2)』.
- 52) 「조선인 안원규의 귀국에 관한 건」(1916.09.29.), 『불령단관계잡건-조선인의부-재구미(2)』.
- 53) 「조선인 안원규의 귀국에 관한 건」(1916.09.29.), 『불령단관계잡건-조선인의부-재구미(2)』.
- 54) 「경성민정취보: 재외배일선인 이승만 급 박용만 등의 행위, 미가등귀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1917.10.18.), 『불령단관계잡건-조선인의부-재구미 3』. 이 자료에는 최윤십이 이승만의 명을 받고 귀국하여 서울에서 하와이 노동자의 부인을 모집하기 위하여 활동하였다고 기록이 있다. 그런데 그 뒤 최윤십이 하와이에 재입국하였다는 기록이 없고, 안원규가 1919년 이정송과 재혼한 사실이 확인된다.
- 55) 「조선인 안원규에 관한 건」(1916.10.12.), 『불령단관계잡건-조선인의부-재구미(2)』.
- 56) 「조선인 안원규에 관한 건」(1917.03.20.), 『불령단관계잡건-조선인의부-재구미부(6)』. 일제 정보문서에는 탐방 결과 그가 종래 포지한 불평사상은 선민동포의 이익을 저해하는 것을 자각하였고, 윤치호의 서한을 후대하고 하와이에 돌아가 박용만과 이승만 등에게 말하여 조선관광단을 조직하여 내선할 것을 약속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하와이에 재입항 후 벌인 그의 민족운동으로 미루어보면, 이는 일제 당국을 속이기 위한 말이었다고 판단된다.
- 57) 「조선인 안원규에 관한 건」(1917.03.20.), 『불령단관계잡건-조선인의부-재구미부(6)』.
- 58) 『신한민보』 1917.03.22, 3면, <귀국하였던 안원규씨는 하와이에 안착>.
- 59) 「포와에 있어서 조선인의 현상태에 관한 보고의 건」(1922.08.11.), 『불령단관계잡건-조선인의 부-재구미(6)』.
- 60) 「미령 포와에 재류하는 조선인 실황」(1923.07.21.), 『조선인에 대한 시전관계

잡건-일반의부(3)].

- 61) 『신한민보』 1923.09.13., 2면, <최두옥씨의 영업 진흥>.
- 62) 『신한민보』 1923.07.05., 3면, <안원규씨의 잡화 상점>.
- 63) 「미령 포와에 재류하는 조선인 실황」(1923.07.21.), 『조선인에 대한 시정관계 잡건 일반의 부(3)』.
- 64) 『신한민보』 1919.10.02., 2면, <중한장유회사 발기 취지서>. 임시의사원은 안원규, 정원명 이래수, 강영소, 한재명, 여양, 유복구, 환해, 노조, 소전례, 류당, 이류, 양장 등이었다. 임시회계는 중국인 여양과 한국인 정원명이었다.
- 65) 『신한민보』 1921.10.13., <제장회사 발기인 취지서>.
- 66) 김원용, 『재미한인50년사』(1953),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자료집』 8, 1974, 770쪽.
- 67) 김윤수, 「베타평양회의에서 돌아와서」, 『개벽』 31, 1923.01.
- 68) 김원용, 『재미한인50년사』(1953),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자료집』 8, 1974, 770쪽.
- 69) 『신한민보』 1921.06.12., 3면, <호놀룰루 한인상업회를 조직>. 총무는 李元順, 재무 朴成均, 서기 李福基였다.
- 70) 「在布朝鮮人商業會 創設에 關한 건」(1926.01.29.), 『불령단관계잡건-조선인의부-재구미(8)』.
- 71) 『국민보』 1946.01.23., <호놀룰루시민 및 한인들의 국내동포 구제활동>.
- 72) 김원용, 『재미한인50년사』, 1959,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8권, 1974, 662쪽.
- 73) 김원용, 『재미한인50년사』, 1959, 위의 책, 665쪽.
- 74) 안원규, 「호놀룰루 재무 안원규 등이 보낸 서한」(1908.06.26.),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
- 75) 「해리스목사 위해기도에 관한 처리통보」, 국사편찬위원회 편 『통감부문서』 5권. 1999. 국가보훈처, 『해외사료총서』 5권, 「요시찰인급단체」.
- 76) 『공립신보』 1909.01.13., 1면, <합동발기문>; 2면, <공립협회 총회의 단체통합 보고>. 공립협회의 규칙기초위원은 최정익·강명화·이대위였다.
- 77) 『신한국보』 1909.03.10., <하와이 특보(제1차 공동회 기사, 제3차 공동회 의결)>.
- 78) 『신한국보』 1909.06.08., <공동회 의연금 총결산 공고서>.
- 79) 조규태, 「하와이 이주 한인 정원명의 민족적 활동과 면모(1904~1942)」, 『송실사학』 48, 2022, 72~77쪽. 1904년 2월 8일 대한제국의 우체원으로 하와이에 와서 에바농장에서 일하면서 1907년 9월 하와이 합성협회의 설립을 주도하여

다음해에 총회장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1909년 9월 2일 대한인국민회 하와이지 방총회의 초대 회장이었다. 그는 우체원으로서 하와이에 와서 활동하였으므로 근왕세력, 혹은 친왕세력이었다.

- 80) 조규태, 「하와이 이주 한인 정원명의 민족적 활동과 면모(1904~1942)」, 『승실사학』 48, 2022.06, 72~77쪽.
- 81) 『신한국보』 1909.03.16., 〈광고 식산흥업회 개업〉.
- 82) 『신한민보』 1909.07.21., 〈포와총회장 이내수씨의 통첩〉.
- 83) 『신한국보』 1909.08.17., 〈感荷義捐〉.
- 84) 『신한국보』 1909.09.06., 〈영자신문의 보도〉.
- 85) 「포와재류 조선인의 상태에 관한 보고서 제출의 건」(1914.12.04.), 『불령단관계잡건-조선인의 부-재구미 2』.
- 86) 『신한국보』 1910.10.25., 〈한포상업회사 소식〉.; 1910.11.29., 〈韓布貿易株式會社の 한인 개시〉.; 1910.12.27., 〈없어지기 전에 사가시오〉.
- 87) 조규태, 「하와이 이주 한인 정원명의 민족적 활동과 면모(1904~1942)」, 『승실사학』 48, 2022, 74~78쪽.
- 88) 김원용, 『재미한인오십년사』 1959,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8, 1974, 797~798쪽. 이 외에 서기는 이내수, 외교원은 민찬호였다.
- 89) 『신한국보』 1909.08.02., 〈대한흥학보를 위하여 제2차 의연하신 제씨〉.
- 90) 「포와재류 조선인의 상태에 관한 보고서 제출의 건」(1914.12.04.), 『불령단관계잡건-조선인의 부-재구미 2』.
- 91) 『신한민보』 1912.02.05., 3면 〈하와이 소식, 총회 임원 선거〉.
- 92) 『신한민보』 1912.02.05., 〈실업과 무력〉.
- 93) 「포와재류 조선인의 상태에 관한 보고서 제출의 건」(1914.12.04.), 『불령단관계잡건-조선인의 부-재구미 2』.
- 94) 조규태, 「대조선국민군단의 조직과 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09, 2021, 46쪽.
- 95) 박종수, 「朴鍾秀手記」, 1931.
- 96) 『신한민보』 1911.03.01., 〈대한인국민회 운영 회사〉.
- 97) 『국민보』 1913.09.27., 〈농상주식회사 임원 변동〉.
- 98) 「조선인 안원규의 귀국에 관한 건」(1916.09.29.), 『불령단관계잡건-조선인의 부-재구미(2)』.
- 99) 「포와 선인병학교 경영비금 모집에 관한 건」(1915.02.17.), 『불령단관계잡건-조선인의 부-재구미각지 2』.

- 100) 『국민보』 1913.11.15., <중앙학원에 정보>. 예복으로 사용하는 흰 무명으로 만든 군복은 박윤옥의 재봉소에서 만들어 납품하였다.
- 101) 『국민보』 1913.12.20., <중앙학원 학생의 군복을 개량>.
- 102) 『신한민보』 1921.03.24., 3면, <하와이총회 새 임원>.
- 103) 『신한민보』 1921.04.21., 3면, <하와이민단 총임원 선정>. 단장은 기독교 목사 민찬호였다. 『신한민보』 1921.04.24., 3면, <민목사 하와이 민장>. 『조선민족운동연감』, 『조선독립운동』 제2권. 일기자조, 「하와이에 사는 육천동포의 상황」, 『개벽』 36, 1923.06.
- 104) 『신한민보』 1923.07.19., 2면, <민립대학기성회가 조직되여>. 하와이민립대학기성후원회의 회장은 신흥균, 서기는 염달육, 재정모집원은 이태성·안원규·김이제 등이었다.
- 105) 『신한민보』 1923.08.23., 2면, <동양무역회사의 물산 장려>. 회장은 방화중, 서기 김영기, 이사원 안원규, 광태홍, 박성군, 감사원 김태희 신성일 등이었다.
- 106) 『신한민보』 1923.05.17., 2면, <호놀룰루청년회 간친 회합>.
- 107) 『삼일절기념식 거행 보고의 건』(1924.03.05.), 『불령단관계잡건-조선인의부-재구미(7)>.
- 108) 『재호놀룰루 선인 삼일절 경축에 관한 건』(1925.03.14.), 『불령단관계잡건-조선인의부-재구미 8』.
- 109) 『신한민보』 1923.03.16., 2면, <미이미교 학생 기숙소 건축>.
- 110) 『신한민보』 1923.09.13., +
- 111) 『신한민보』 1924.05.01., 2면, <본국 야구단 위하여 기부금 모집>.
- 112) 『신한민보』 1924.07.03., 2면, <내지야구단 대환영 40여처의 환영회와 만찬회>. 26세이상 29세 이하의 청년 14명으로 조직된 이 야구단은 6월 29일 글로리아운동장에서 야구경기를 하고, 7월 6일 독립기념일에 동 경기장에서 일본인 야구팀과 경기를 하고, 이후 두 개 팀과 야구경기를 한 후 7월 12일 하와이를 떠났다.
- 113) 『단산시보』 1925.07.22., <하와이 중요인물이라는 형형색색한 뱀풀의 수작>.
- 114) 『조선민족운동연감』 1928년 3월, 동문사서점, 1946, 223쪽.
- 115) 『신한민보』 1928.04.19., <통일축성회의 소식>. 1928.05.03., <합성시대를 다시 만난 한족통일독립당축성회>.
- 116) 『신한민보』 1930.03.13., <하와이 한인협회 조직>.
- 117) 홍선표, 「1920~30년대초 하와이 한인사회의 동향」, 「이승만의 통일운동과 분쟁」, 『재미한인의 꿈과 도전』(연세대학교 출판부, 2011), 28, 37쪽.
- 118) 『한민』 1936.04.29., <적 신사참배문제에 대하여 포와 각교회 대궐기>. 회장

현순, 서기 김이제, 총무 한길수, 재무 안원규, 이사 조정천, 정원명, 이태성, 손창희.

- 119) 『국민보』 1937.09.29., <국민회주최 국민대회 경과와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 특신>. “우리가 기다리던 시기가 이른 것 같습니다. 지금의 경우로 보면 중일전쟁은 피치 못할 형세이온 바, 이번 화북(華北)에서 왜적의 무리가 혼단(端, 단서)을 열은 것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전단(戰端)이 정개적으로(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날이면, 중·일 양국은 전 민족의 존망을 다투는 최대 극렬한 전쟁이 될 터이요, 결과에 있어서는 중국이 승리하고 왜노(倭奴)는 어느 점으로 보든지 단정코 복멸(覆滅)하고야 말 것이 명확하외다. 그러면 우리 한국의 독립도 이번 기회에 달렸으니, 우리 민족이 분기할 시대가 아님이까. 우리와 동일한 입장에 처하여 왜구로부터 전민족의 사활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의가 건설된 우방에서는 우리에게 대한 관심과 원조가 절실하게 되니, 우리의 신념은 더욱 굳어집니다. 천재일시(千載一時)의 이 시기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사유한 전 재산과 전 재능과 전 생명을 조국광복을 위하여 공헌하여야 되겠사오니, 귀 단체에서는 일반동포로 하여금 이에 대한 각성을 더욱 심절(深切)케 하는 동시에 비상시기에 사용할 금전을 가급적으로 많이 수합하여 두었다가 긴급요구가 있는 때에 이것을 정부로 보내게 하고, 아울러 군인출신과 전쟁에 필요한 기술자를 일일이 조사 등록시켜 두었다가 긴요한 명령이 있는 때에 지체없이 징발케 하며, 또한 가능한 대로 각기 소재지 군사당국과 교섭하여 우리 장정으로 하여금 군사훈련을 받게 하시기를 무망(務望)합니다.”

대한민국 19년 8월 12일

임시정부 국무위원 이동녕(李東寧)·이시영(李始榮)·김구(金九)·조성환(曹成煥)·송병조(宋秉祚)·조완구(趙婉九)·차리석(車利錫)
하와이대한민국민회(大韓人國民會) 귀중

- 120) 『국민보』 1937.08.18., <국민회 총임원회 회의록>.
121) 『국민보』 1937.08.18., <국민대회의 결정>.
122) 『국민보』 1937.08.25., <혈성금>.
123) 『국민보』 1937.09.29., <국민회 주최 국민대회 경과와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 특신>.
124) 『국민보』 1937.09.29., <안원규씨의 연설>.
125) 『국민보』 1937.10.13., <국민회 총임원회 회의록>.
126) 『국민보』 1937.10.27., <마음가짐의 개혁이 통합의 토대>.
127) 『국민보』 1937.12.01., <국민회 임시대의회 회의록>.
128) 『국민보』 1938.03.16., <고 안창호선생 추도회>, <안창호선생 추도문>.
129) 홍선표, 「1930년대 후반 합동운동과 독립운동」, 『재미한인의 꿈과 도전』(연세대학교 출판부, 2011), 110~119쪽.
130) 홍선표, 「하와이 해외한족대회의 개최」, 『재미한인의 꿈과 도전』(연세대학교

- 출판부, 2011), 184~188쪽. 김원용, 『재미한인50년사』,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8, 832~833쪽.
- 131) 홍선표,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조직」, 『재미한인의 꿈과 도전』(연세대학교 출판부, 2011), 199. 205~214쪽,
- 132) 『국민보』 1944.10.11.,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임원 개편>. 위원장은 박상하였다.
- 133) 「재미한족연합회 회장 안원규가 이승만에게 보낸 서한」(1941.09.25.),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43권 서한집Ⅱ』.
- 134) 『국민보』 1942.03.11.,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주최 3·1절 경축행사>.
- 135) 『국민보』 1943.06.16., <대한민국임시정부 승인 결의안 미의회에 제출>, <공동결의안>. 『국민보』 1943.06.23., <미의회에 대한민국임시정부 승인 전보 요청>, <임정승인안 통과 요청>. 『국민보』 1943.06.30., <결의안 실시에 대하여>.
- 136) 『국민보』 1944.05.17., <재미한족연합위원회 등 중국 정부에 임정승인 촉구 전문 발송>.
- 137) 『국민보』 1943.06.30., <결의안 실시에 대하여>.
- 138) 『국민보』 1943.07.14., <미국 국방후원금 특연>.
- 139) 『국민보』 1943.07.07., <약 판매에 한인 대우>.
- 140) 『국민보』 1943.08.18., <한인의 미국 국방사업 적극참여 촉구>.
- 141) 『국민보』 1943.10.27., <호성저금회 모임>; 1943.11.03., <호성저금회 회의 내용>.
- 142) 홍선표,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조직」, 『재미한인의 꿈과 도전』(연세대학교 출판부, 2011), 399~401, 419쪽. 이 주미외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승만, 부위원장은 김원용, 위원은 안원규, 정기원, 한시대, 김호, 이살음, 변준호, 송헌수 등 9명이었다. 단체별로 보면 동지회 3명(이승만·정한경·이살음), 북미 대한민국 민회 2명(한시대·김호), 하와이 대한민국민회 2명(안원규·김원용), 민족혁명당 북미지부 1명(변준호), 무소속 1명(송헌주)였다.
- 143) 『국민보』 1944.05.24., <한국독립당 호놀룰루지부 창립 발기회>.
- 144) 『국민보』 1944.08.02., <한국독립당 호놀룰루지부 조직>. 당장 유동면, 부당장 이명우, 서기 정봉관, 재무 김상의·박보광, 금찰원 조제언·신흥균, 선전원 인봉주·김성린·최근하, 평의원 최영기·이호직
- 145) 『국민보』 1945.04.25.,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임원개편>.
- 146) 국민보 1944.05.17.,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주최 대한민국임시정부 거국 내가 출범 축하대회>. 1944.05.31., <대한민국임시정부 거국내각 구성 축하회의의 성황>.
- 147) 『국민보』 1947.05.28., <안원규씨 별세>.

148) 『국민보』 1947.06.04., <고 안원규 공의 약사와 추도사>.

149) 『신한민보』 1947.05.29., <안원규선생의 서세를 슬퍼함>.

Ⅳ 알제리 식민지 개발과 프랑스의 이주 정책(1830~1889)-프랑스 만들기와 이주-

<참고문헌>

- 박 단, 「프랑스 내 무슬림 차별 기원으로서의 식민주의 유산」, 『통합유럽연구』, 11권, 3집(2020).
- 양재혁, 「제3공화국 이전 프랑스의 알제리 ‘연합’ 식민 정책에 대한 소고-바르텔르미 앙팡탱(Barthélemy Infantin)의 알제리 식민 이론을 중심으로-」, 『서양사론』, 131호 (2016).
- 질 망스롱, 우무상 역, 『프랑스 공화국 식민사 입문: 인권을 유린한 식민침탈』(경북대학교출판부, 2013).
- Barthélémy, Pascale, Capdevila Luc, Zancarini-Fournel, Michelle, “Femmes, genre et colonisations”, *Clio. Femmes, Genre, Histoire*, no. 33 (2011).
- Bugeaud (Maréchal), *Le Peuplement français de l’Algérie par Bugeaud d’après les écrits et discours du maréchal. Mémoire sur la colonisation de l’Algérie, 1847*(Tunis, s. d.).
- Cabrol, Hyacinthe, *De l’Algérie sous le rapport de l’hygiène et de la colonisation*(Nice, 1863).
- Choi, Sung-Eun, *Decolonization and the french of Algeria: Bringing the settler colony home*(Palgrave Macmillan, 2016).
- Crespo, Georges, *Les Italiens en Algérie 1830-1960 : Histoire et sociologie d’une migration*(Editions Jacques Gandini, 2003).
- Demontès, V., *La colonisation militaire sous Bugeaud*(Thèse, Alger, 1917).
- Di Costanzo, Jean-Maurice, *Allemands et Suisses en Algérie, 1830-1918*(Gandini, 2001).
- Flores, Christian, *Le voleur d’huile: l’Espagne dans l’Oranie française (1830-1962)*(Français D’Ailleurs, 1988).
- Jordi, Jean-Jacques, *Espagnol en Oranie: histoire d’une migration, 1830-1914*(J. Gandini, 1996).
- Kateb, Kamel, “Le bilan démographique de la conquête de l’Algérie (1830-1880)”, Bouchène, Abderrahmane eds., *Histoire de l’Algérie*

- à la période coloniale(Paris, 2014),
- Knibiehler, Yvonne, “La société française d’émigration des femmes aux colonies (1897-1898)”, *Recherches régionales - Alpes-Maritimes et contrées limitrophes*, no. 1 (1982).
- Liauzu, Claude, *Histoire des migrations en Méditerranée occidentale*(Paris, 1996).
- Spensky, Martine, ed., *Le contrôle du corps des femmes dans les Empires coloniaux*(Paris, 2015).
- Taraud, Christelle, “Les femmes, le genre et les sexualités dans le Maghreb colonial (1830-1962)”, *Clio. Femmes, Genre, Histoire*, no. 33 (2011).
- _____, “Prendre femme dans les colonies”, *L’Histoire*, no. 340 (2009).
- Temine, Emile, “La migration européenne en Algérie au XIX siècle: migration organisée ou migration tolérée”, *Revue des mondes musulmans et de la Méditerranée*, no. 43 (1987).
- Thénault, Sylvie, “Migrations, colonisation. France-Algérie, XIX^e-XX^e siècles”, *Le Mouvement social*, no. 258 (2017).
- Vermeren, Hugo, “Les migration françaises et européennes vers l’Algérie au début de la III^e République”, Bouchène, Abderrahmane eds., *Histoire de l’Algérie à la période coloniale*(Paris, 2014).
- _____, “Pouvoirs et pratiques de l’expulsion des étrangers en Algérie au XIX^e siècle: un outil colonial de gestion des flux migratoires”, *Le Mouvement social*, no. 258 (2017).
- Yacono, Xavier, *Histoire de la colonisation française*(Paris, 1992).

〈주석〉

- 1) 이 글에서는 19세기에 알제리에 도착한 비유대인 유럽계 식민지 개척자들과 그들의 후손을 일컫는 용어로 정착민을 사용한다.
- 2) Hugo Vermeren, “Les migration françaises et européennes vers l’Algérie au début de la III^e République”, Abderrahmane Bouchène eds., *Histoire de l’Algérie à la période coloniale*(Paris, 2014), pp. 194-200.
- 3) 식민지 알제리 인구변동에 관한 19세기, 20세기 초 대표적 연구는 다음과 같다. L. E. Foley et V. Martin, *Histoire statistique de la colonisation algérienne au point de vue du peuplement et de l’hygiène*(Paris, 1851); R. Ricoux, *La démographie figurée de l’Algérie, étude statistique des populations européennes qui habitent l’Algérie*(Paris, 1880); R. Ricoux, *La population européenne en Algérie pendant l’année 1884. Étude statistique*(Paris, 1885); V. Demontès, *Le peuple*

algérien, essai de démographie algérienne(Alger, 1906).

- 4) Sylvie Thénault, “Migrations, colonisation. France-Algérie, XIX^e-XX^e siècles”, *Le Mouvement social*, no. 258 (2017), pp. 3~4.
- 5) 프랑스의 도로 편입한 식민 기획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양재혁, 「제3 공화국 이전 프랑스의 알제리 ‘연합’ 식민 정책에 대한 소고-바르텔르미 앙팡탱 (Barthélemy Infantin)의 알제리 식민 이론을 중심으로-」, 『서양사론』, 131호 (2016), 277쪽.
- 6) 프랑스에서 여성사 연구는 여성주의 운동의 성장과 함께 1970년대 시작되었지만, 알제리 역사는 알제리 전쟁과 식민주의에 관련된 주제에 집중되어 있어 여성 이주자 연구는 가장 늦게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식민지 여성사 속에서도 피에 누아르 여성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는데, 프랑스 제국에 포함되어 있었던 모로코, 튀니지, 아프리카, 아시아 원주민 여성에 관한 연구가 먼저 활발히 진행되었다. 알제리는 식민지 중 가장 많은 유럽계 여성 인구가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주변에 머물렀다. 지금까지 생략되고 외면되어온 유럽계 여성 정주민의 역사는 새롭게 알제리 식민지 역사와 이주의 역사에 대한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 식민지 여성에 관한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90년 엑상프로방스에서 일군의 여성사학자들이 ‘여성과 식민주의’ 연구 프로그램 만들면서 시작되었다. 영미권에 비해 늦은 식민지 여성 연구는 이후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특히 2000년 이후 다수의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Pascale Barthélémy, Luc Capdevila and Michelle Zancarini-Fournel, “Femmes, genre et colonisations”, *Clio. Femmes, Genre, Histoire*, no. 33 (2011), pp. 7-22.
- 7) Claude Liauzu, *Histoire des migrations en Méditerranée occidentale*(Paris, 1996), pp. 25-44.
- 8) Maurice Di Costanzo, “L’émigration allemande en Algérie de 1830 à 1890”, *Cahiers d’Études Germaniques*, n. 13 (1987), pp. 61-72
- 9) Emile Temine, “La migration européenne en Algérie au XIX siècle: migration organisée ou migration tolérée”, *Revue des mondes musulmans et de la Méditerranée*, no. 43 (1987). pp. 37-39.
- 10) Christelle Taraud, “Les femmes, le genre et les sexualités dans le Maghreb colonial (1830-1962)”, *Clio. Femmes, Genre, Histoire*, no. 33 (2011), p. 159-161.
- 11) Sung-Eun Choi, *Decolonization and the french of Algeria: Bringing the settler colony home*(Palgrave Macmillan, 2016), pp. 13-33.
- 12) 질 망스롱, 우무상 역, 『프랑스 공화국 식민사 입문: 인권을 유린한 식민침탈』 (경북대학교출판부, 2013), 128~134쪽.
- 13) Liauzu, *Histoire des migrations en Méditerranée occidentale*, pp. 61-62.

- 14) 정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주 지원자를 수용하는 것은 아니었다. 알제리로의 다른 유럽출신 이주 지원자는 프랑스 정부에 보증금을 제시해야 이주를 허락받을 수 있었다. 한 사람의 경우 100프랑, 가족의 경우 400프랑의 보증금이 요구되었다.
- 15) Kamel Kateb, “Le bilan démographique de la conquête de l’Algérie (1830-1880)” Abderrahmane Bouchène dirs., *Histoire de l’Algérie à la période coloniale*(Paris, 2014), pp. 168-170.
- 16) Xavier Yacono, *Histoire de la colonisation française*(Paris, 1992).
- 17) 1833~1856년 남성 1,000명당 여성의 인구비율은 300~800명 사이였다.
- 18) Martine Spensky ed., *Le contrôle du corps des femmes dans les Empires coloniaux*(Paris, 2015), pp. 18-21.
- 19) 알제리로 이주한 여성의 일부는 정치적 이유로 추방된 사람들이었다. 물론 대다수가 알제리에 단기간만 머물렀고 다른 이주민에 비해 그 수가 매우 적었지만, 1848년, 1851년 그리고 1859년 오르시니의 쿠데타(coup d’état d’Orsini) 이후 이루어진 정치범에 대한 알제리로의 강제이주 중 1851년 추방에서만 여성이 포함되었다.
- 20) ANOM(Archives nationales d’outre-mer) Algérie, F 80 1425, Instructions relatives à l’admission d’anciens militaires dans les colonies (1849-1851). 재인용, Claudine Robert-Guiard, *Des Européennes en situation coloniale Algérie 1830-1939*(Aix-en-Provence, 2009). p. 33-41.
- 21) Hyacinthe Cabrol, *De l’Algérie sous le rapport de l’hygiène et de la colonisation*(Nice, 1863), p. 9. on line: <https://gallica.bnf.fr/ark:/12148/bpt6k63720348.texteImage>(검색일: 2023년 4월 13일)
- 22) 알제리에 대한 군사적 정복이 한창 진행되던 1830~1860년 사이, 다수의 프랑스 장교와 부사관, 관료, 정치인이 개종한 무슬림 혹은 유대인 여성과 혼인하였다. 19세기 중반까지 원주민 여성과의 결혼이 군인으로서의 경력과 공무원으로서의 승진에 큰 장애일 수 있다는 것은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 1870년대에 이르러 인종 간 결혼에 대한 개방성은 점차 약해졌다. 위에서 아래로 식민주의 이데올로기가 식민지 정부에 의해 주입되면서, 유럽계 정주민은 인종 간 결혼을 한 남녀를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결혼한 남녀는 식민자, 원주민 각각의 사회에서 배제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인종 간 결혼에 대한 인식전환은 알제리가 정주식민지(settlement colony)로 본격 개발되면서 나타났다.
- 23) Extrait du Mémoire sur notre établissement dans la province d’Oran, écrit par Bugeaud en juillet 1837. V. Demontès, *La colonisation militaire sous Bugeaud*(Alger, 1917), 634 p.
- 24) Bugeaud, *Le peuplement français de l’Algérie d’après les écrits et*

discours. supra no. 2.

- 25) 알제 고등학교의 교사로 출발해 꼴레쥬 드 프랑스의 교수를 역임한 빅토르 드 몽테스(Victor Demontès)는 이러한 배우자 찾기 운동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V. Demontès, *La colonisation militaire sous Bugeaud*, supra no. 6.
- 26) 알콜 의존증을 보인 한 부부와 경솔한 행동, 즉 가출한 두 명의 여성이 틀롱 여성에 대한 나쁜 평판을 낳았고, 실패한 결혼에 대한 소문을 낳았다. 언론은 소문을 기사화해서 결혼한 여성들의 위법 행위를 부풀렸다.
- 27) ANOM Algérie, F 80 1647.
- 28) *ibid.*
- 29) Temine, “La migration européenne en Algérie au XIX siècle: migration organisée ou migration tolérée”, p. 42.
- 30) *L'Éclair* du 1er juin 1897.